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중국

목차

※ 목차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I. 일반

1. 개요	4
2. 한국과의 관계	5
3. 경제현황	8
4. 정치	11
5. 주요산업	13

II. 무역

1. 수출입	15
2. 한국과의 수출입	24
3. 수출 유망항목	27
4. 무역협정	37
5. 수입규제 및 관세	40
6. 통관 · 물류	60

III. 투자

1. 투자환경	75
2. 외국인직접투자	81
3. 한국기업 투자	83
4. 투자진출방식	89
5. 외환	100
6. 노무	103
7. 세무	108
8. 지식재산권	116
9. 청산 및 철수	121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127
2. 비즈니스 에티켓	129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133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5.출입국 안내	136
6.유관기관	138
7.물가정보	144
8.출장정보	154
9.생활정보	156
10.KOTRA 무역관 안내	173
11.전시회 정보	189
	199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가/지역	중화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면적	9,634,057 km ²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2023년 기준)
수도	베이징(北京; Beijing)
인구	1,409,670,000 명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2023년 말 기준)
민족(인종)	56개 민족: 한족(91.1%) 및 55개 소수민족(8.9%) (자료원 공표시기: 2021년 5월 제7차 중국 인구 센서스 결과)
언어	한어(; Chinese)
종교	불교, 도교, 천주교, 이슬람교, 기독교
기후	전체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풍 기후 특징을 보임. 영토가 광대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대 분포됨. 최남단 지역의 열대기후, 서부 지역의 건조기후, 동북 지역의 한대 기후 등으로 구분됨.
국가원수	시진핑(習近平): 現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 국가 주석, 중공중앙군사위 주석(취임: 2013년 3월)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 중공중앙정치국상무위 위원(취임: 2023년 3월)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92-08-24 (자료원 : 중국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한중무역협정	1992-02-01	투자허가 및 전쟁 시 손실보장 등에 대한 최혜국대우와 투자과실의 공정 환율에 의한 송금보장	KOTRA와 CCPIT 간 체결
한중 투자보호협정	1992-12-04	사업수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 리스크를 회피	2007년 개정
한중 해운협정	1993-06-26	선원, 여객 등에 대한 규정, 협약 당사국에 대한 최혜국대우원칙, 선박의 여객 및 화물 운송 허용 등	1993년 이후 양국에서 교대로 매년 1회씩 한중 해운회담 개최
한중 환경협력협정	1993-11-27	협정의 주요 목적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보/기술 및 경험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관해 협조하는 데 있어 보다 나은 기회 제공	
한중 환경협력협정	1993-11-27	양국 정부간 환경 협력에 관한 협정	
한중 조세조약(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	1994-09-28	한국정부와 중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한중어업협정	2001-06-30	서해상 양국 사이의 어업 분쟁을 조정하고 체결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2002-04-11	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한 뒤 상대국으로 도피한 수배자 송환 조치	
한중사회보장협정	2013-01-16	중국 현지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와 현지채용자의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의 이중가입 면제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	2014-09-01	한중 영화 공동제작 장려 및 한중 공동제작 영화는 외국영화가 아닌 (중국)국내영화로 인정	
한중 자유무역협정	2015-12-20	대중 수출 연간 87억 달러 해당 물품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022-02-01	대중 수출 품목의 38.6% 즉시 관세 철폐	아세안 10개국, 한, 중, 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FTA

한국교민 수

2,109,727 명 (자료원 : 한국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2023년)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2017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국빈 방중 이후 해빙 무드로 바뀐 한중관계는 안정적 발전을 이어왔다. 2019년 하반기 미·중 통상분쟁이 심화되고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은 다시 주변 외교에 대한 비중을 높였으며 한국에 일련의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 중국 단체 관광객 한국 방문 부분 허용, 5년간 중단되었던 국방 전략대화 재개, 왕이 외교부장 방한, 그리고 12월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등이 이어졌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비상상황에서 양국은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을 강화했다. 그 과정에서 '신속통로제'를 통해 기업인들의 예외입국을 제도화했다. 기업인 '신속통로제'는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출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중국 내 '14일간 의무격리'가 면제됐다.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은 통화에서 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을 이루자는 데 뜻을 모았다.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해 한중관계 현안을 잘 관리해 나감과 동시에 공급망, 보건, 기후변화,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22년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래 30년 간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한중관계를 평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25일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논의한 대로 상호 존중, 호혜의 정신에 기반한 미래 협력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 양국이 오랜 기간 우호적 교류를 이어온 이웃 국가로서 수교 이래 30년 간 호혜적 협력을 통해 개방과 포용을 견지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수교 3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하여 내실있는 우호를 다져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2018년부터 한중 경제관계는 빠르게 회복했다.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對중국 투자 금액은 전년대비 각각 52.3%, 20.7% 증가했다. 동 기간 한국의 전체 교역 중 중국과의 교역 비중은 각각 23.6%, 23.3%에 달할 정도로 양국의 경제협력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에도 한중 교역관계는 강화됐다. 중국의 견조한 경기회복세로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견고한 성장세를 중심으로 여러 품목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2021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2018년 최고실적을 경신했다. 2022년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하반기 이후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기존 최고실적인 전년 대비 4.4% 소폭 감소했다. 2023년 리오프닝(경제활

동 재개)에도 중국의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은 중간재 중심으로 20% 감소했다. 2023년 기준 對中 수출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7%, 22.2%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에도 한중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 (화상)회의'(2022년 7월 13일)를 열고 한국과 중국 간 서비스·투자 부문 시장 개방과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2017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2018년 3월 1차 협상을 개최한 이래 양국 모두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통해 한중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중FTA에 서비스·투자 분야가 포함돼 있으나 시장개방 수준은 미흡한 편이다. 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건설·유통·환경·관광 등 제한적(포지티브) 방식으로 시장 개방을 약속했고, 한국은 배송·건설·금융서비스 분야 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제조업·농업·광업 등 비서비스 분야의 투자는 시장개방 약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국은 후속협상에서 서비스·금융·투자 등 3개 분야에 걸쳐, 원칙적으로 모두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시장 제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시장개방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2018년 3월 22~23일 서울에서 제1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열린 이후 2020년 10월 26~30일 열린 제9차 협상까지 아홉 차례 협상을 진행하며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와 투자 보호 강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벌이고 있다. 2024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통상장관회의'에서 양측은 2024년 연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최하고, 서울에서 FTA 공동위를 장관급으로 열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2022년 2월 1일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서 발효하면서 한중 교역과 경제협력은 'RCEP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지금까지 형성된 지역 FTA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참여국이 다양한 만큼, 참여국 모두 그 경제적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RCEP에서 한중 양국은 기체결 FTA(한-중 FTA) 철폐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개방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부 관심 품목에 대해 소폭의 양허 개선을 도출했다. 중국이 한-중 FTA에서 철폐되지 않은 철강제품, 기계류 등 41개 품목의 대한 수입관세율을 추가로 철폐하면서 한중 양국의 상호 관세 철폐 수준은 기존의 90.6%에서 91.1%(품목수 기준)로 소폭 확대되었다. 또 일부 한-중 FTA 양허 제외 품목에 대한 단계적 관세 철폐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표 한국산 건강식품인 인삼·홍삼을 예로 들면, 한-중 FTA 양허 제외 품목으로 2022년 1월 31일까지는 MFN 세율 20%를 적용받지만 2월 1일부터는 RCEP 세율 13.5%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RCEP에서 협정 참여국 15개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고 원산지 증명절차를 개선하는 등 기체결 FTA보다 원산지 관련 규정이 완화됐다. 특히 RCEP 원산지 규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s) 40% 기준을 채택했는데 이는 우리 기업의 동아시아 역내 공급망 진입,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전략적 의의가 있다.

문화

지난 2016년 7월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계기로 11월 이후 한국방송콘텐츠를 수입할 수도 없고 중국 예능프로그램에 한국 연예인이 출연할 수도 없게 되었다. 한한령(限令, 한류제재)의 영향으로 한국 영화,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의 수입, 판권 구매, 포맷 수입, 제작 협력 등이 전면 중단되었다. 2017년 한국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의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2018년부터 '한한령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방송포맷이 수출되고 한국 연예인의 중국 공연 등이 열리기 시작했다. Mnet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 정식 판권 계약을 통해 중국 시장에 포맷이 수출됐다. 중국 시청자들의 인기 속에 막을 내린 '창조 101'은 한국 CJ E&M이 중국 텐센트와의 계약을 통해 정식 수출되어 제작되었다.

2021년 12월 3일, 영화 '오! 문화'가 중국 전역에서 개봉했다. 2022년부터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슬기로운 감빵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한국 드라마의 중국내 방영이 재개되면서 드라마를 비롯한 방송콘텐츠의 중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22년 7종 한국 게임에 외자 판호(版號·유통허가증)를 발급한 데 이어 2023년에도 8종 한국 게임을 허가했다. 2024년 1~10월 총 세차례에 걸쳐 7종 한국 게임에 판호를 발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은 중국 내 검열, 외교관계 등의 영향을 받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콘텐츠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정부 정책과 심의방식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제성장률 (%)	2.24	8.45	2.99	5.24	
명목GDP (십억\$)	14,862.6	17,759.3	17,848.5	17,662	
1인당 GDP (PPP, \$)	17,134.7	19,410.6	21,391.8	23,330	
1인당 명목 GDP (\$)	10,525	12,572.1	12,642.9	12,513.9	
정부부채 (% of GDP)	70.14	71.84	77.09	83.64	
물가상승률 (%)	2.5	0.9	2	0.2	
실업률 (%)	4.24	5.1	5.5	5.2	
수출액 (백만\$)	2,589,952	3,316,022	3,604,507	3,422,176	
수입액 (백만\$)	2,065,964	2,679,412	2,715,538	2,563,586	
무역수지 (백만\$)	523,988	636,610	888,969	858,590	-
외환 보유고 (백만\$)	3,216,522	3,250,166	3,127,691	3,237,977	
이자율 (%)	3.91	3.85	3.68	3.55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6.9	6.45	6.72	7.05	

<자료원 : IMF, 해관총서,GTA,국가통계국>

나. 경제 동향

○ 2023년

‘위드 코로나’ 원년인 2023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126조58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서비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중국 정부가 설정한 연간 목표치인 ‘5% 안팎’을 실현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투자의 마이너스 행진이 2년째 지속되면서 2023년 중국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율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첫 해인 2020년(2.9%)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같은해 중국 민간 부문 투자는 200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Delta 0.4\%$)을 기록했다. 2022년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및 주요 도시 봉쇄로 증가율이 0%대로 위축된 점을 감안하면 2년 연속 민간 투자가 악화된 셈이다. 국유 부문 투자 증가율도 2022년의 10.1%에서 2023년 6.4%로 내려앉았다. 코로나 기간 중국 경기회복세를 이끌었던 수출은 2023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국내외 경기회복세 둔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경쟁 심화 등 불확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국 수출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방역통제 완화로 외식 등 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은 1년 만에 플러스 전환을 실현했다. 2023년 중국 사회소비품소매판매총액은 47조149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 의류·신발 등 품목의 소매판매 증가율이 리오프닝과 더불어 플러스 전환되고 전체 소매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소비 증가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 회복 흐름을 보여줬다.

○ 2024년 1~3분기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누적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94조 974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2024년 양회(兩會)에서 설정한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을 밀도는 수준이다. 분기별 성장률이 2분기부터 2개 분기 연속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으며, 둔화세는 심화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1~3분기 중국 1차(농업)·2차(제조업)·3차(서비스업)산업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4%, 5.4%, 4.7% 증가했다. 2023년 위드 코로나 전환 후 중국 경기회복을 주도해 온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둔화하며 중국경제 성장동력 약화에 일조했다. 2차산업 성장세도 1분기 6%, 상반기 5.8%, 1~3분기 5.4%로 눈에 띄게 가라앉으며 중국경제 감속이 심화되고 있다. 1~3분기 중국 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기업의 산업생산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제조업 생산은 평균치보다 높은 6%의 신장세를 보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여전히 중국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2년 이상 역성장 중이다. 중국 상업용 주택 판매 면적은 2023년 10년 만에 10억 m^2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2024년 9월 누적 6만 m^2 로 전년 동기 대비 1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투자 마이너스 행진은 2024년 9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누계 기준으로는 2022년 4월부터 2년 6월째 마이너스 성장 중이다. 인프라(2024.3분기 누적 +4.1%)와 제조업(+9.2%) 투자가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며 중국 전체 고정자산투자 둔화를 방어하고 있다.

1~3분기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2분기 3%대로 내려앉은 데 이어 부진세가 심화되고 있다. 기저효과 종료로 외식 소비 증가율이 정상화되고 있으나, 중국 전체 소매판매에서 1/4 비중을 차지하는 온라인 소비 성장률은 8.6%로 둔화했다. 또한 중국 전체 소매판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자동차 부문은 연초부터 각급 정부가 구매세 감면, 보조금 지원 등 소비 진작책을 대대적으로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1~9월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중국 경기하방 압력을 증대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해외수요 회복에 의한 수출 호황이 중국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2024년 3분기 누적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수입은 2.2% 증가했다. 동 기간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삼두마차인 '최종소비, 투자(자본형성)과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각각 49.9%, 26.3%와 23.8%로 나타났다. 상반기 대비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10%p 감소한 데 반해, 순수출의 기여도가 약 10%p 상승했다.

다. 경제 전망

중국 정부가 4분기 경제운용 기조로 '추가부양'을 제시하고 시장 기대심리 강화에 적극 나서면서, 4분기 경제성장률이 5%를 넘어서고 연간 성장률이 5%내외의 목표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자동차 소비, 소매판매, 인프라 투자 등 경제지표가 9월부터 개선세를 보인 가운데, 각 부처가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며 경기회복 모멘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인 부동산 위기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악화되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 위기에 의한 자산감소 효과가 중국 소비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경쟁 심화, EU의 중국산 전기차 대상 추가 관세 등 통상환경 악화로 중국

수출의 경제성장 견인력도 약화될 전망이다.

4. 정치

가. 정치체계

중국은 유일한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이 군, 입법기관인 전인대, 최고행정부인 국무원, 검찰기관인 국가검찰위원회와 사법기관을 통제한다. 이론상 최고 의정기구이자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이 선출되지만 “중국공산당 영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국공산당 당권을 장악한 중공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국가주석(국가원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군 최고 통솔자) 등 직위를 모두 맡으며 당, 정, 군 3대 권력을 장악한 최고지도자가 된다.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당대회를 개최해 향후 5년을 책임질 최고지도부를 선출한다. 1억 명에 육박하는 중국 공산당원 중 전국 성별 대표 대회를 거쳐 선출된 당대표가 당대회에 참석한다. 각 지역/부처 간부 중 370명 내외의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을 선출하고 여기에 다시 200여명의 중앙위원을 뽑는다. 중앙위원 200여 명 중 25명이 중앙정치국 위원이 되는데 중앙정치국은 당 중앙부처·4대 직할시 수장, 국무원 부총리, 군사위 부주석 등 요직간부들로 구성된다. 이들 중 다시 5~9명이 중국 권력의 피라미드의 정점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출한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최고지도자의 1인 독재를 제어하는 장치로 ‘집단지도체제’이다.

당대회 이듬해 중국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원수인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원원, 최고검찰기관과 최고사법기관의 수장을 선출, 임명한다.

국무원은 중국 최고 행정기구로서 중공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서열 2위가 국무원의 수장인 총리직을 맡는다. 국가주석의 지명과 전인대의 동의로 선출되며, 국무원 총리는 전인대의 동의를 얻어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중국은 2018년 3월, 20년 만에 최대폭의 정부 기구 개편을 통해 장관급 부처 총 26개로 통폐합했다. 이외에도 국무원 직속으로 국유자산관리위원회와 같은 특별설립기구, 해관총서 등 차관급 부처, 신화통신사와 같은 사업기관과 연구기관을 두고 있다.

이후 2023년 3월 중국 국무원은 9번째 조직 기구 개편을 단행했다. 경제총괄 부처인 국가발개위 산하에 데이터 자원 수집 및 관리 역할을 하는 국가데이터국을 신설하고,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국무원 직속기구로 지정하여 기존의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대체하는 동시에 주식 투자자 보호 및 감독, 인민은행의 금융지주 회사 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국가지식재산권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신방국을 국무원 직속 기구로 승격하고 과학기술부를 개편하는 한편, 농촌농업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부서 인원을 5% 감축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기구 개편을 통해 디지털 경제발전, 금융리스크 예방, 농촌진흥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나. 최신동향

202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재차 총서기로 선출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진핑 3기가 시작됐다.

20차 당대회를 통해 제20기 중앙위원회 위원 205명과 후보위원 171명이 선출되었으며, 당대회에 이어 개최된 1중전회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24명과 상무위원 7명(시진핑 총서기 포함)이 선출됐다. 새로 선출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모두 이른바 ‘시자원(家)’으로 불리는 시진핑 측근으로 구성되었다.

202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이 단일후보로 출마하여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으로 3연임 선출되고 최측근인 리창(李强)이 신임 총리로 선출되는 등 新정부도 ‘시자원(家: 시진핑 측근)’ 중심으로 구성됐다. 중국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국무원 총리·부총리, 외교 사령탑 모두 시진핑 집권 1·2기 발탁된 인물들이 전면 포진되면서 ‘시진핑 사상’의 전면적 추진 지속 및 강화를 예고했다. 공격적인 외교를 뜻하는 ‘전랑(戰狼) 외교’를 주도해 온 왕이(王毅)가 당정 외교 사령탑을 겸임하며 강경한 외교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영도 및 집권체제는 전면 강화되고 있다. 2024년 7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기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는 “중국공산당 통제의 전면 강화와 당의 국가관리 역량 증진”을 강조했다. 반부패 단속을 기존의 관료, 해외 도피, 부동산, 의료계 등에서 국영기업, 금융계, 에너지, 군 등 다양한 분야로 전면 확대하고 경제, 지역사회에 대한 당의 관리능력을 강화하여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전면 개혁을 집중 주도할 것을 제시했다.

다. 대외관계 및 사회적 특징

중국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1950년 스웨덴이 서방 국가로서 최초로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1971년 10월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로 유엔 가입과 동시에 상임이사국으로 인정받았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진 데 이어 1979년 미국과 전격적으로 수교하면서 중국은 서방국가와의 관계회복을 실현했다. 1978년 개혁개방과 더불어 중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제로 여러 나라와 교류 관계를 회복, 강화했고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통상갈등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면서 중국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진핑 3기 체제를

확정하는 20차 당대회에서 ‘현대화 강국 건설’ 목표 실현에 부응하는 능동적 외교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안전·안보’(安全)를 수심 차례 강조했다.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복합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시장개혁을 심화하고 경제/산업/외교 정책을 제정, 시행함에 있어 안전(안보)를 전제로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중동과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제질서 변화와 관련된 주요국 간 경쟁과 각축도 한층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현 국제 질서가 미국과 서방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진정한 다자체계’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기후 위기 공동 대응, WTO 개도국 지위 변경 이슈 등을 통해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GDI(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2022년 GSI(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2023년 GCI(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잇따라 발표하여 향후 국제질서 변화에서 수동적 입장에서만 서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또 한편, 중국 대외수요 확대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급 대외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연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바이오·의료, 에너지전환 등 관련 투·융자를 강화하고 자국 중심의 국제물류망, 역내가치사슬(RVC)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라. 정책·법령

중국의 법령체계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성문법으로 되어 있고 법률은 헌법, 민상법, 형법, 경제법, 절차법으로 분류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 그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를 보완, 개정할 수 있다. 법령의 본칙은 「입법법」제61조에 따라 조(條)·관(款)·항(項)·목(目)으로 구분한다.

중국은 헌법, 기본 법률, 각 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개정하는 지방성 법규 이외에도 국무원 및 그 산하 부처에서 제/개정하는 법규가 상당히 많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국무원 및 산하 부처에서 공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 결정(定), 규정(定), 방법(法) 등은 법률에 준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행정법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관련 부처에서 내부적 해석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한다.

중국의 정책 법령 체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최고지도부의 현황 판단에 따라 정책과 입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필요한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최고지도부가 현황에 맞춰 필요한 정책을 발표하면 관련 부처에서 필요한 행정조치와 입법 조치를 취하는 구조이다.

5. 주요산업

가. 개요

중국의 산업환경은 전반적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고 자립형 산업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은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산업과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주요 생산제품은 중간재, 부품, 반도체, 미래차 등으로 업그레이드 및 세분화되고 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중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중국 1차(농업), 2차(제조업), 3차(서비스업)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1%, 38.3%, 54.6%를 기록했다. 코로나 기간 서비스업 성장률이 위축되었으나 2023년 리오프닝으로 서비스업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중국경제 회복세를 견인했다.

중국 산업구조는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나 제조업의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중국은 자국의 안정적인 산업사슬 체계 유지를 위해 핵심산업 분야의 자국화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공작기계, 사업용 로봇, 반도체 등의 핵심부품과 기술력은 아직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나. 주요 산업별 현황

(1) 반도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육성책 및 투자 확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2023년 중국의 반도체 제조설비 수입액은 전년 대비 21.5% 증가한 350억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중국 정부가 범정부 총괄부서인 국가반도체산업발전영도소조를 설립하고 국가반도체 펀드를 조성하는 등 ‘반도체 굴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20% 미만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 정부가 국산화/공급망 내재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핵심 부품의 수입 의존도는 단기간 비교적 높을 것이며 한국, 대만, 일본 등 전자강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자동차

2023년 중국은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 모두 사상 처음으로 3000만 대를 넘어서며 15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했다. 또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에 힘입어 9년째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자리를 굳히고 있다. 중국 자동차 판매량에서 신에너지차(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차 등)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5%를 넘어선 데 이어 2023년 30%를 돌파했다. 2022년 중국 정부가 설정한 2025년 신에너지차 보급 목표를 앞당겨 실현했는데 조만간 2030년 신에너지차 보급 목표(2030년까지 자동차 판매량 중 신에너지차 비중을 40% 도달)까지 조기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중국 자동차 시장이 신에너지차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로컬 자동차 메이커의 굴기는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로컬 브랜드의 중국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2020년까지 40%선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했으나 2021년 44%를 넘어섰고 2022년 50%에 육박했으며 2023년엔 55.9%로 증가했다.

이처럼 중국 자동차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제조업체, 판매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하하거나 재고 물량 조절에 나서는 등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리오프닝 이후 지방정부들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가격 인하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다. 판매 부문도 심각한 재고 부담에 직면했다. 2023년 저장중통그룹(浙江中通集), 팡다자동차무역그룹(大汽集) 등 중국 대표 자동차 경소상(經銷商: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파는 중개 판매상)이 도산하고 화웨이, 샤오미 등 IT기업까지 중국 전기차 시장에 가세하면서 중국 자동차 시장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3) 新SOC

중국은 ‘디지털 강국’으로의 전환을 위해 新SOC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新SOC(新基建)는 신형 인프라 건설의 줄임말로 2018년 12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 언급됐다. 2024년 양회 정부 업무 보고에도 디지털 인프라 건설 가속화, 新SOC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新SOC는 빅데이터 센터, 5G 네트워크, AI, 산업 인터넷, 전기차 충전소, 고속 및 도시 철도, 특고압 송전 설비 등 7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으로 新SOC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新SOC를 통한 내수 확대 전략을 채택하면서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GDP 비중을 1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동수서산(東數西算)’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부양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했다.

코로나19와 新SOC로 기존에 추진되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조업중단, 도시봉쇄를 겪은 뒤, 공장 및 시스템의 자동화를 비롯하여 서비스업, 농업 등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추진되었다. 중국은 내수확대와 경기부양을 위해 新SOC 투자를 지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프라 확충에 따라 부가적인 파생산업이 출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4) 헬스산업

코로나19 여파로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 위생 및 의료용품 수요가 증가하여 헬스산업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개인위생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가정용 위생 및 의료용품 산업이 급격히 성장했고, IC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의료기기 산업과 온라인 의료 서비스 성장세가 뚜렷해졌다. 또한 기초체력 회복 및 면역력 증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더불어 온·오프라인 피트니스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 피트니스 채널의 변화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피트니스 산업은 점차적으로 최신 스마트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주민 건강 수준을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제고시키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서비스업

중국 서비스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정보 네트워크 기술에 의존하는 새로운 업태 및 새로운 모델이 출현하면서 비대면 서비스업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화 등 변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모바일 플랫폼, 스마트시티, 원격 의료, 원격 근무, 온라인 교육, 디지털 문화 등 서비스 업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이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교역규모도 WTO 가입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2000년 중국의 교역총액은 5천억 달러 미만이었다. 그러나 WTO 가입으로 대외교역이 급물살을 타면서 5년 만인 2005년 1조 달러를 돌파했다. 2023년 중국의 교역총액은 5조 9853억 달러, 수출과 수입은 각각 3조 4217억 달러, 2조 5636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3년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미포함)이 세계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1%, 13.2%에 달했다.

나. 국가별 수출입

- 국가별 수출입 현황

2023년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지역)은 미국, 홍콩, 일본, 한국, 베트남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인건비 상승,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국내외 기업의 아세안 진출이 날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RCEP 발효의 영향까지 겹치며 중국의 동남아 국가에 대한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라 핵심 기계전자설비 및 부품 수입수요가 확대되면서 대만, 한국, 일본 등 전자강국/지역이 중국의 주요 수입대상국으로 자리잡았다. 경제발전 수요, 소득향상 및 소비확대로 농산품, 에너지 수입이 늘어나면서 미국, 호주, 러시아가 (수입대상국)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 수출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452,756,734,068
2	홍콩	272,341,636,740
3	일본	142,813,592,153
4	중국	124,874,964,605
5	베트남	114,206,234,595
6	한국	112,660,012,690
7	독일	87,100,382,285
8	네덜란드	79,274,185,089
9	영국	72,711,769,677
10	인도	66,925,763,284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577,526,346,446
2	홍콩	350,300,812,747
3	일본	166,183,067,367
4	중국	156,499,603,401
5	한국	148,976,341,119
6	베트남	138,446,704,205
7	독일	115,804,783,472
8	네덜란드	102,867,939,269
9	인도	98,379,521,190
10	영국	87,443,150,614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583,062,199,987
2	홍콩	298,400,706,452
3	일본	173,276,936,127
4	한국	162,731,465,671
5	베트남	146,959,899,841
6	인도	118,886,981,635
7	네덜란드	117,899,959,290
8	독일	116,979,812,002
9	중국	110,698,290,716
10	말레이시아	93,888,820,590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501,600,974,906
2	홍콩	275,297,288,716
3	일본	157,793,760,388

4	한국	148,982,810,996
5	베트남	137,607,205,249
6	인도	117,678,762,947
7	러시아연방	110,935,409,106
8	중국	103,452,907,535
9	독일	101,239,657,133
10	네덜란드	100,398,771,476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대만	200,583,454,468
2	일본	174,719,312,824
3	한국	173,221,918,735
4	미국	136,917,108,225
5	중국	125,264,219,826
6	호주	117,775,515,992
7	독일	106,620,468,675
8	브라질	85,620,702,488
9	베트남	78,601,269,650
10	말레이시아	75,352,382,263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대만	249,989,236,388
2	한국	213,761,317,727
3	일본	205,575,838,552
4	미국	181,350,784,359
5	호주	169,059,329,826
6	중국	156,820,006,224

7	독일	120,271,330,973
8	브라질	110,171,008,531
9	말레이시아	99,755,492,575
10	베트남	92,660,971,476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대만	241,453,218,684
2	한국	201,876,374,028
3	일본	184,551,188,196
4	미국	179,377,159,907
5	호주	147,163,186,384
6	중국	122,883,424,107
7	독일	114,763,868,499
8	러시아연방	114,148,970,877
9	말레이시아	110,948,440,692
10	브라질	110,043,446,704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대만	199,345,149,123
2	미국	165,586,816,935
3	한국	161,739,432,075
4	일본	160,514,502,576
5	호주	156,093,857,864
6	러시아연방	129,205,577,995
7	브라질	122,665,113,353
8	독일	106,578,334,864
9	중국	104,296,025,695
10	말레이시아	103,840,942,969

나.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입 현황

중국의 주요 교역품목은 기계전자제품으로 2023년 중국 전체 교역총액에서 49%를 차지한다.

주요 수출품목은 스마트폰, 전기전자부품, 리튬이온배터리, 집적회로, 자동차 부품, 조명기기, 가구, 의류 등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전환 추세와 중국 자동차의 수출경쟁력 강화로 태양광 전지, 리튬 배터리, 자동차 등 품목이 중국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가구, 완구, 의류 등 노동집약형 품목은 중국 전체 수출액에서 17%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의 주요 수입품목은 집적회로, 원유, 철광석, 귀금속, 대두, 자동차 및 부품, 첨단기술 제품 등이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품목이 중국 전체 수입에서 약 17%, 농산품이 8%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26,085,499,944
2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15,458,273,755
3	854232	메모리	69,104,058,152
4	851770	부분품	55,547,246,353
5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54,387,685,547
6	630790	기타	54,008,085,475
7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51,187,142,466
8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37,091,814,972
9	9503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 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33,789,067,649
10	854239	기타	28,752,868,421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47,479,189,494
2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38,993,507,942
3	854232	메모리	97,871,536,295
4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68,469,132,609
5	851770	부분품	66,954,847,922
6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54,979,474,251
7	9503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46,536,705,278
8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4,123,426,261
9	854239	기타	38,607,175,752
10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37,283,046,957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3	스마트폰	138,834,147,402
2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27,763,882,102
3	854232	메모리	85,332,840,019
4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70,653,463,559
5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55,531,619,684
6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51,355,553,382

7	950300	세발자전거 · 스쿠터 · 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 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48,598,104,358
8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5,936,444,797
9	854143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42,377,642,778
10	854239	기타	42,226,662,448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3	스마트폰	137,012,873,461
2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9,136,684,930
3	854232	메모리	69,874,643,285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69,448,741,436
5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럭(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66,348,520,927
6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65,316,545,471
7	851762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 · 변환용 · 송신용 ·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45,250,459,144
8	950300	세발자전거 · 스쿠터 · 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 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40,724,525,447
9	854239	기타	40,488,733,905
10	854143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39,544,182,899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78,452,854,859

2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71,410,279,840
3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117,933,228,998
4	854232	메모리	95,224,179,436
5	854239	기타	70,980,887,572
6	120190	기타	39,545,589,407
7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36,568,907,423
8	851770	부분품	35,725,670,220
9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33,116,888,344
10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28,190,478,467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58,053,154,593
2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203,390,670,956
3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177,711,834,521
4	854232	메모리	121,972,234,149
5	854239	기타	91,571,374,291
6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56,957,058,156
7	120190	기타	53,529,085,141
8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46,401,858,756
9	851770	부분품	45,053,264,712
10	271111	천연가스	44,086,513,964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65,512,019,551
2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205,091,243,739

3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125,476,255,329
4	854232	메모리	101,279,362,928
5	854239	기타	93,876,375,266
6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75,739,976,227
7	120190	기타	61,236,122,743
8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57,910,729,581
9	271111	천연가스	52,192,680,720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7,812,343,153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37,872,737,181
2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76,211,552,393
3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131,396,993,973
4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90,076,798,749
5	854239	기타	82,064,318,445
6	854232	메모리	78,861,504,507
7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60,464,223,199
8	120190	기타	59,446,588,190
9	271111	천연가스	44,956,084,069
10	270112	유연탄	34,338,080,772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한중 양국의 교역규모는 수교 당시(1992년)의 64억 달러에서 2022년 3,104억 달러로 증가했다. 30년 만에 50배 가까이 확대된 셈이다. 중국은 2003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2004년 이후부터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 2007년부터는 일본을 제치고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자리 잡았다. 2023년 중국은 한국 전체 교역총액, 수출, 수입에서 각각 21%, 19.7%, 22.2%를 차지했다.

한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으나 2020년부터 2~3위에 랭킹했다. 2023년 중국의 교역 대상국/지역 중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미국, 홍콩, 일본에 이은 4대 수출대상국/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나.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2023년 한중 교역총액은 전년 대비 13.8% 감소한 2,67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중 對中 수출은 전년 대비 19.9% 감소한 1,248억 달러, 對中 수입은 7.6% 감소한 1,429억 달러로 집계됐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對세계 수입 감소 등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20%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특히 IT업황 부진 여파로 對中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단가가 대폭 하락하며 전체 對中 수출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대중 수입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한중 경기둔화로 2016년 이후 7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중국 정부 경기부양 강화에 따른 경기 회복 및 기저효과가 발생했고, 對中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타면서 2024년 9월 누적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 수입은 2024년 9월까지 마이너스 행진(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을 이어가고 있다.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20	132,565	108,885	23,680
2021	162,913	138,628	24,285
2022	155,789	154,576	1,213
2023	124,818	142,857	-18,039
2024	133,011	139,878	-6,86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한국의 對中 수출은 중간재, 자본재 위주의 가공형 수출구조이다. 2023년 우리나라 對中 수출에서 자본재가 58.8%, 원자재가 35.3%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소비재의 비중은 5.8%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부품 등 전기기기류와 합성수지,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이 주요 對中 수출품목이다. 특히 반도체가 대중 수출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對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對中 수입에도 자본재, 원자재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2023년 우리나라 대중 수입에서 자본재가 53%, 원자재가 30%, 소비재가 17%의 비중을 차지했다. 반도체, 정밀화학원료, 컴퓨터, 축전지, 무선통신기기, 의류 등이 주요 對中 수입 품목이다.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4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44,315	20,751	23,563
2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7,729	659	7,069
3	2110	기초유분	5,572	215	5,356
4	2140	합성수지	6,721	1,958	4,762
5	8361	평판디스플레이	4,989	2,475	2,513
6	2120	석유화학중간원료	3,824	292	3,532
7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3,347	7,442	-4,095
8	7321	반도체제조용장비	2,437	285	2,152
9	2273	화장품	2,492	96	2,396
10	8151	계측기	1,966	1,208	758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5년 (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3,045	1,655	1,390
2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595	63	532
3	2110	기초유분	538	32	506
4	2140	합성수지	495	148	347
5	8361	평판디스플레이	328	166	162
6	2120	석유화학중간원료	272	10	262
7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200	641	-441
8	7321	반도체제조용장비	156	9	147
9	2273	화장품	140	8	132
10	8151	계측기	133	88	4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4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44,315	20,751	23,563
2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3,347	7,442	-4,095
3	8131	컴퓨터	50	3,401	-3,351
4	8352	축전지	475	4,309	-3,834
5	7420	자동차부품	1,450	2,970	-1,521
6	8121	무선전화기	18	3,032	-3,014
7	4411	편직제의류	191	2,100	-1,910
8	4412	직물제의류	321	2,176	-1,855
9	8421	제어용케이블	303	2,219	-1,916
10	8361	평판디스플레이	4,989	2,475	2,51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5년 (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3,045	1,655	1,390
2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200	641	-441
3	8131	컴퓨터	4	395	-391
4	8352	축전지	18	284	-266
5	7420	자동차부품	85	231	-146
6	8121	무선전화기	1	213	-212
7	4411	편직제의류	14	203	-189
8	4412	직물제의류	19	181	-162
9	8421	제어용케이블	22	176	-154
10	8361	평판디스플레이	328	166	16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가. 수출유망품목(상품)

○ 미니멀리즘 스킨케어

HS CODE	330499	수입액 (US\$백만)	13,260
수입관세율(%)	1(MFN), 5.2(한중 FTA)	대한 수입액 (US\$백만)	1,931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이 단순하면서도 다기능 상품 선호도 증가 - 건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관심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니멀리즘 스킨케어 사용자는 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1선 도시와 청두 등 新 1선 도시에 집중됐으며 두 지역의 사용자는 중국 전체의 61% 이상을 차지 - 미니멀리즘 스킨케어 사용자는 주로 여성으로 소비자의 60% 이상을 차지함. 연령별로는 18~24세의 젊은층이 미니멀리즘 스킨케어에 대해 가장 관심이 높았으며 전체 사용자의 46.1%에 달함. 25~34세의 사용자는 36.4%로 그 뒤를 이음.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오바오에서 선두 브랜드는 중국 브랜드 즈벤(至本; zhiben), 일본 브랜드인 큐렐(Curel)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한국 설화수, 중국 브랜드 위쯔어(玉澤; Dr.Yu), 일본 브랜드 프리플러스(freeplus) 등이 선호도가 높음 - 중국 대표 미니멀리즘 스킨케어 브랜드인 즈벤의 타오바오 매장은 최근 1년간(2022년 6월~2023년 5월) 판매액이 10억 위안을 돌파함. 소비 성수기인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월 매출액은 1억 위안을 돌파했으며 11월 당월 매출은 약 1억 5,000만 위안을 기록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소화, 효율화, 환경보호를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스킨케어는 중국 화장품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매김했으며 현대인의 미니멀 라이프 콘셉트와도 매우 부합 - 중국 소비자는 시장에 출시된 수많은 제품들 중에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하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브랜드를 선호함. 향후 중국 스킨케어 화장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피부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친환경에 대한 요구도 충족시키는 제품 개발 및 홍보 필요 		

○ 아크릴 수지

HS CODE	39069090	수입액 (US\$백만)	1,863
수입관세율(%)	6.5(MFN), 0(한중 FTA), 4.6(RCEP)	대한 수입액 (US\$백만)	580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아크릴 수지 시장은 2019년 이후 매년 성장 중 - 한국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아크릴 수지 1위 - 정부가 도로·접착제 등 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지원 정책을 확대하면서 해당 산업들의 아크릴 수지에 대한 수요도 지속 증가 전망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크릴 수지의 소비량은 2019년 190만 톤에서 2022년 233만 톤까지 3년 만에 23% 증가. 2023년 아크릴 수지의 소비량도 전년 대비 7% 상승한 2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 - 2023년 아크릴 수지의 도로·접착제 등 활용 산업에서 수요가 커지며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418억 위안(약 5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화경산업연구원) - 상하이시, 푸젠성, 광둥성이 중국의 對한국 아크릴수지 수입 규모 상위 3개 지역임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아크릴 수지 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임. 2022년 기준 중국의 아크릴 수지 시장 내 독일 바스프(BASF), 일본 미쓰비시(Mitsubishi)를 비롯한 해외 브랜드의 시장 규모는 약 200억 위안(약 28억 달러)으로 중국 아크릴 수지 시장의 52%를 차지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의 경량화 추세에 따라 금속 부품 대신 아크릴 수지 접착제 사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은 전기차용 아크릴 수지의 시장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자외선 차단 의류

HS CODE	610433	수입액 (US\$백만)	7
수입관세율(%)	10(MFN), 0(한중FTA), 13.3(RCEP)	대한 수입액 (US\$백만)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1인당 소득 수준 향상, 건강 인식 제고 등으로 아웃도어 스포츠에 대한 관심 크게 증가 -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며 자외선 차단 의류 시장 또한 성장세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활동이 늘어나며 자외선 차단 필요성에 대한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가진 자외선 차단 의류가 출시 - 관련 시장 규모 2026년 958억 위안 도달 전망 (자료: 관연() 컨설팅)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브랜드로는 Beneunder(蕉下), Bananain(蕉), (스포츠 브랜드) ANTA(安踏), TOREAD(探路者), (패스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UNIQLO), 태평조(太平) 등임. 이중 Beneunder는 자외선 차단 의류 시장 선두기업으로, 시장점유율 약 5%에 달함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외선 차단 기능뿐이 아니라 통풍성, 청량감, 방충 등 고성능 기능을 가진 원단 개발 필요. Beneunder(蕉下)의 경우 AirLoop라는 원단을 개발하여 자외선 차단과 쿨링 기능을 보완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라이브커머스, 소셜미디어 통한 홍보가 효과적임 		

○ 홈 트레이닝용 스마트 거울

HS CODE	85437099	수입액 (US\$백만)	3,727
수입관세율(%)	0(MFN, 한중FTA, RCEP)	대한 수입액 (US\$백만)	155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중국에서 유아 및 청소년기부터 나타나는 비만 문제와 소득 증가에 따른 사람들이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임. 가정 헬스 관련 시장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스마트 헬스 거울 역시 발전 기반이 점점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 - 2022년 티몰 618 판촉 행사에서 스마트 헬스 거울의 검색 횟수는 225% 증가, 실제 연간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300% 증가하며 중국 내에서 높아진 관심도를 반영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2020년 3,000만 위안에 달하였고 2025년 112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스마트 헬스케어의 출고량은 약 4,000대에 불과했으나 노인·아동 등 가정별 수요에 따라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출고량이 187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는 1천 위안 이상(대부분 4천 위안 이상)이나, 향후 소비자 가격은 점차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것 - 업계는 스마트 헬스케어의 미래 시장에 긍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으며 화웨이, 텐센트, 샤오미, 바이두 등 중국 대기업도 간접 투자나 직접 경영에 참가하는 방식을 통해 시장 진입 중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홈 트레이닝 전문기업에 따르면, 스마트 헬스케어는 가격이 비싸고 설치에 큰 공간이 필요한 단점이 있지만 이를 개선할 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 - 또한 거울 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킬러 콘텐츠가 나올 경우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터치센서패널

HS CODE	853890	수입액 (US\$백만)	3,953
수입관세율(%)	7(MFN), 0(한중FTA), 0(RCEP)	대한 수입액 (US\$백만)	252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자동화·스마트화로의 전환으로 터치센서패널 수요 증가 - 노트북 및 태블릿 PC, 스마트폰, 셀프서비스 기기, 결제 단말기, 게임기, ATM, 자동차 네비게이션, 의료 설비 등 다양한 산업에 광범위하게 활용됨.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국내 기업들의 꾸준한 터치센서패널 시장으로의 진입으로 중국 터치센서패널 생산량은 2014년의 12억 8,600만 편에서 2021년 23억 9,700만 편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27억 편 돌파 - 2023년 중국 터치센서패널 시장수요는 22억 편에 도달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터치센서패널 제조업은 한국, 일본, 대만 지역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으며, 초기 제조업체는 주로 주강삼각주지역에 분포되었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공급제품도 대부분 중·저급 분야에 집중 - 초기 중국내 제조업체들은 외국기업에 비해 기술력, 품질, 생산 환경 등 방면에서 모두 뒤처져 있어 국제 표준과 비교적 차이가 큰 편이었으나, 최근 들어 중국은 국산화 추진을 가속화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 - 중국 터치센서패널 생산 주요 선도기업은 BOE(京方), 선전 LAIBAO HI-TECH(高科技), TPV-TECH(冠捷子科技), GD GOWORLD(汕超子)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중국 내 터치센서패널 기업은 생산능력 과잉, 경제 하방 등 여러 가지 압력에 직면해 있으므로 로컬 기업과의 협력방안 모색 필요 		

○ 웨어러블 디바이스

HS CODE	903180	수입액 (US\$백만)	6,093
수입관세율(%)	0(MFN)	대한 수입액 (US\$백만)	258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스마트폰과 연동된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 - 헬스케어, 의료용, 아동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품 수요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연간 20%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2025년 시장 규모는 1,573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에 착용 또는 부착하여 데이터를 입력·출력·처리하는 스마트 기기로 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스마트 글래스, 스마트 이어웨어(무선이어폰 등), 스마트 의류, 스마트 신발 등이 대표적인 제품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주로 애플, 삼성, 샤오미, 화웨이 등 브랜드가 주도하고 있으며, 브랜드 간 제품 종류, 기능, 디자인, 응용 분야 등에서의 경쟁력은 날로 치열해지는 추세 - 주요 수입대상국은 일본, 말레이시아, 독일, 미국 등 - 중국기업 중 화웨이, 샤오미, 아너, OPPO 등 브랜드가 기술혁신력을 강화하고 저가경쟁력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 모니터링 기능을 보유한 디바이스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 아동용 스마트 워치의 경우 통화, 실시간 위치 추적, 동선 모니터링, 전자결제 및 한도 조정, 방수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제품이 인기 - 중국의 다양한 소비 계층의 선호도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독특한 디자인과 성능을 보유한 혁신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시장 진입의 관건

○ 산업용 로봇

HS CODE	847950	수입액 (US\$백만)	1,255
수입관세율(%)	0(MFN), 0(한중 FTA), 0(RCEP)	대한 수입액 (US\$백만)	11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제조업 발전 수요에 따라 산업용 로봇 분야 시장 및 활용범위 확대 중 - 코로나19 이후 제조생산업체들이 자동화 생산 효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고, 노동력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 전망 - 중국 내에서는 주로 중저가형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며, 기술 난이도가 높은 고가형 산업용 로봇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생산국으로 최근 10년 간 산업용 로봇 판매량 1위 차지 - 2022년 중국 산업용 로봇 시장규모는 87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3년 시장규모가 99억 달러에 도달했을 것으로 예상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NUC(일본), EPSON(일본), ABB(스위스), YASKAWA(일본), KUKA(독일) 등 해외 브랜드가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중국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음. -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에 힘입어 중국산도 빠르게 시장인지를 강화 중. 현지 연구기관 GGII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산업로봇 시장에서 로컬계의 비중이 52.5%에 도달한 상황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소재 공급과 공동 R&D 등 기술협력 분야에서 중국기업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중국시장 공략 필요 		

○ 반려동물 식품(펫푸드)

HS CODE	230910	수입액 (US\$백만)	574
수입관세율(%)	15(MFN) , 0(한중 FTA), 10.5(RCEP)	대한 수입액 (US\$백만)	
선정사유	- 소가족화와 덩크족의 증가, 인구 고령화, 단신 생활자의 증가로 가족의 공간을 메꾸기 위한 애완동물의 수요 증가		
시장동향	<p>- 최근 5년간 반려용품 시장 연간 복합 성장률은 20% 내외 기록</p> <p>- 2022년 기준, 중국은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억 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이 지우링 허우(90後, '90년대생)</p> <p>- 반려동물용품 소비에서 주로 미용제품, 드라이기, 동물 전용 바디워시, 스마트 제품, 건강보건 식품, 놀이기구 등의 소비가 많은 편임</p> <p>- 2025년 중국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8,114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p>		
경쟁동향	<p>- 사료류의 경우 캐나다 뉴질랜드 등 청정지역의 고급 사료류에 대한 선호 높으며, 주요 제품 수입국 또한 북미 또는 유럽지역에 포진</p> <p>- CCTV에 배식 및 놀아주기 기능 등 기능이 탑재된 '펫캠' 등 IOT 제품의 경우 자국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쉬운 중국제품의 시장 비중 비교적 높음.</p> <p>- 반려동물 간식시장은 중국산 브랜드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시장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아 신규 기업의 진출이 많아 시장 집중도는 하락하고 있음. GAMBOL(乖), China Pet Foods(中)와 같은 중국 브랜드 선도</p> <p>- 한편, 애완용 간식 제품류의 경우 일본산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가 포착되고 있음.</p>		
진출방안	<p>- 소비자 인식 변화에 따라 제품의 영양·품질·안전에 대한 눈높이도 상향</p> <p>- 주로 온라인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에서의 마케팅과 평가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브랜드·제품 차별화와 다양한 이벤트로 소비자 선택 유도 필요</p>		

○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설비

HS CODE	848630	수입액 (US\$백만)	2,042
수입관세율(%)	0(MFN), 0(한중 FTA), 0(RCEP)	대한 수입액 (US\$백만)	641
선정사유	<p>- 향후 5년 내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70%에 달할 것으로 전망</p> <p>- 중국 산업고도화, 전기전자 제품의 스마트화 추세와 더불어 디스플레이 생산설비 수요 확대</p>		
시장동향	<p>-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 중국 내 패널 생산라인 투자는 총 8,000억 위안 규모로, 2020년 말 기준 총 생산능력은 2015년 말 대비 약 140.9% 증가</p> <p>- 차세대 전자정보산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의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은 향후 중국 정부의 더 많은 정책 지원이 이어질 것</p>		

경쟁동향	- 2023년 기준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설비 수입 TOP3 지역(일본/한국/대만)의 점유율 합계는 98%에 달함. - 일본사: hitachi, STI, SNU, SFA, LIG 등
진출방안	- 생산설비의 사용주기가 짧으므로 지속적인 신기술 도입과 이전 생산설비 리뉴얼을 통해 수출 확대 가능 - 중국 내 사업 전략을 고민할 때 기술의 성숙도, 고객 관계, 기술 유출 등 종합적인 상황과 더불어 중국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도 반드시 함께 고려

○ 건강 간식

HS CODE	210690	수입액 (US\$백만)	5,447
수입관세율(%)	12(MFN), 17.5(한중 FTA), 29.8(RCEP)	대한 수입액 (US\$백만)	226
선정사유	- 주력 소비군인 젊은층을 중심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건강식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 - 특히 팬데믹 이후 이러한 트렌드가 확산되며,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 및 원기 보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식을 찾는 젊은 소비자 증가세		
시장동향	-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콜라겐, 아미노산, 생균 등 영양소가 함유된 식품 등이 있으며, 전통 간식류, 즉석 보양식류, 화학 기능류 등으로 구분 - 지우링허우(90後)와 링링허우(00後) 등 젊은층이 주력 소비자로, 아교(젤라틴), 인삼, 제비집, 참깨환, 구기자 등 제품이 큰 인기 - 시장 규모는 꾸준히 확대 중이며, 2017년 3,040억 위안에서 2026년 7,514억 위안으로 성장 예상 - 2021년 기준 건강 간식 매출 증가율(23%)은 일반식품 증가율(14%)을 넘어섰고, 연령대 불문하고 일반 간식보다 건강 간식을 선호하는 트렌드로 바뀌는 중(2022 중국 건강 간식 백서)		
경쟁동향	- 프리미엄 시장은 외국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가운데, 중국 로컬 브랜드는 중저가 시장에서의 경쟁 치열		
진출방안	- 젊은 소비자들은 건강 및 외모 관리에 관심이 많은 만큼, 소비자가 건강 간식을 소비하는 목적과 욕구, 트렌드 파악이 중요 - 제품 디자인에도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부여하여 제품 차별화 필요 - 제품 기능과 더불어 섭취 편의성 및 포장 디자인 등도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소셜미디어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마케팅도 필요		

나.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자율주행

선정사유	- 중국 정부의 스마트카 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 정책으로 자율주행 등 기술 수요가 급증 - 중국 내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는 물론 스마트카 제조업체들 또한 적극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음
-------------	--

<p>시장동향</p>	<p>- 2022년 중국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스마트 커넥티드 승용차의 판매량은 약 700만 대로 전년 대비 45.6% 증가했으며 전체 승용차 판매에서의 비중은 34.9%로 늘어남 (공업정보화부)</p> <p>- 2023년 말까지 중국의 L2, L2+급 자율주행 비중은 각각 38%, 8%에 달하고 2025년까지 L2~L3 및 L3 등급 이상인 자율주행 차량의 비중은 각각 56%, 20%로 예측</p> <p>- 또한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발전 및 관련 법률, 규정의 점진적인 완화에 힘입어 2030년까지 L3, L4의 비중은 각각 40%, 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p> <p>* 미국 자동차공학회의 정의에 따라 자율주행은 레벨0~5(L0~L5) 총 6단계로 나뉨</p>
<p>경쟁동향</p>	<p>-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바이두,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등 클라우드 컴퓨팅 벤더사들이 상위 1~5위 기업이 차지하고 점유율은 80%를 상회</p> <p>- 한편, 최근 몇 년 동안 Xiaopeng(小), LEADING IDEAL(理想), NIO(蔚来) 등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사들도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p>
<p>진출방안</p>	<p>- 한국의 대표적인 완성차 기업도 조만간 레벨 3 기술이 탑재된 자동차를 양산할 계획인 만큼 자율주행 관련 우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다수 보유함. 중국 기업과 우리 기업이 서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진행하여 상호 간에 기술 혁신에 도움이 되는 협력 모델 필요</p>

○ 스마트 농업 기술 (스마트팜)

<p>선정사유</p>	<p>- 중국 정부 지원 정책과 농민들의 인식 변화로 중국 내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이 가속화</p>
<p>시장동향</p>	<p>- 2022년 중국 스마트 농업 시장 규모는 약 74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826억 위안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중국상업산업연구원)</p> <p>- 중국 정부는 2021년 발표한 '14·5(14차 5개년 계획)'에 담긴 농업농촌 현대화 계획을 통해 디지털 농촌 건설의 가속화 및 스마트 농업 육성 계획</p>
<p>경쟁동향</p>	<p>- 현재 농업 신기술은 주로 스마트 농업 생산 단계에서 적용되고 있음. 스마트 농업 생산 단계는 주로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드론 식물 보호, 파인 양식, 농기계 자율주행 4가지를 포함하며 각각 40%, 35%, 15%, 10%의 비중을 차지</p> <p>- 중국 내 유력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중국 스마트 농업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p> <p>-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농산물 브랜드를 육성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발전 도모 중임. 알리바바의 경우 2018년 2월 알리클라우드(阿里云)는 중국 쓰촨성(四川省) 소재 기업과 제휴를 맺고 AI 양돈 사업 개시함. 텐센트는 2019년 텐센트클라우드(云)는 광둥웨왕(旺), 웨강아오대만구(港澳大)산용기금, 선전이 자창(壹家)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스마트 농업 플랫폼'을 구축 계획 발표. 징둥은 이미 스마트 농업, 신선 농식품 전자상거래, 농촌 전자상거래, 디지털 농업 등 영역에 진출</p>
<p>진출방안</p>	<p>-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이며 많아짐에 따라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p> <p>- 스마트 농업에 필요한 토양 온도 센서, 감광도 센서 등 정보 수집에 필요한 제품, 자동 관개 설비, 농약 잔류 측정기기 및 정보 처리 시스템 등의 기술 협력이 유망할 것</p>

○ 치과 의료 서비스

<p>선정사유</p>	<p>- 구강 의료 수요는 임플란트 40%, 교정이 30% 차지하며 구강 의료 수요자의 70%가 20~30대로 성장 가능성 다대</p>
--------------------	---

<p>시장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 및 인구 구성 변화로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며 2023년은 전년 대비 16.4% 성장한 1,436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치과의료 시장에서 민간 치과의 비중은 70% 수준이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2026년 시장 규모는 3,0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2014년 10.5억 위안에서 2022년 84억 위안으로 8년 만에 8배 증가했으며, 2023년은 33% 증가한 111.8억 위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중국은 치아 기형과 안면 질환 발병률이 높은 국가로 치아교정 산업은 CAGR 13.6% 성장률을 유지해 시장 규모가 2030년 29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p>경쟁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강의료기기 분야에서 주요 수입국가는 미국, 독일, 한국, 일본 등으로 2022년 기준 구강의료기기 총 수입액의 약 50%를 차지 - 현재 중국 임플란트 시장은 유럽·미국·한국계 등 수입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이 90% 수준 - 유럽·미국산 제품은 재료, 품질 및 정밀 설계 등 기술 경쟁력이 있어 주로 공립병원 등 고가시장 위주로 진출했으며, 한국산은 가격 경쟁력으로 민간병원에서 많이 쓰임 - 상위 5개 브랜드는 한국 Osstem, Dentium, 스위스 Strauman, 미국 Danaher, Dentsply Sirona 등이며, 한국계 브랜드가 중국 전체 임플란트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
<p>진출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구강의료산업은 점차 스마트 시대에 진입해 5G 통신기술 기반 원격진료, 3D 프린팅 기술 기반 스텔스 교정, 모바일 의료 APP, 전자진료기록 등 신기술의 구강 의료 분야 산업화 적용이 빠르게 찾아올 것으로 서비스와 기술의 결합 필요

○ 게임

<p>선정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말부터 중국이 게임 판호(중국 내 서비스 허가권) 발급을 재개하며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한국 게임이 많아지고 있음
<p>시장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1~6월 중 중국의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는 1,443억 위안(매출액)으로, 그 중 PC 게임은 매출액이 32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p>경쟁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게임 시장은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실시하며 잠시 주춤함. 최근 몇 년 중국 정부는 미성년자 보호를 목적으로 평일에는 미성년자의 게임 플레이를 금지하고, 법정 공휴일에는 1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서비스 허가권) 발급을 제한
<p>진출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2021년 중국 당국이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판호(版) 발급을 제한하며 한국 게임은 중국 시장에서 침체기 겪음 - 2022년 7종 한국 게임에 외자 판호(版號·유통허가증)를 발급한 데 이어 2023년에도 8종 한국 게임을 허가하면서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애니메이션

<p>선정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니메이션 산업이 확장되며 주 연령층인 25세 이하 소비자 외 다양한 연령층이 애니메이션을 즐기게 되며 소비 인구 꾸준히 증가
--------------------	--

<p>시장동향</p>	<p>-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 생산액은 2013년 882억 위안(약 12조 원)에서 2020년 2,221억 위안(약 40조 원)으로 약 151% 성장함. 2023년에는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 총생산액이 3,000억 위안(약 5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공연산업컨설팅)</p> <p>- 특히, 중국 온라인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는 2022년에 전년 대비 14.17% 증가한 331억 9,000위안(약 6조 원)에 달함</p> <p>- 시나웨이보(Sina微博), 텐센트() 등 주요 IT 기업이 애니메이션 시장에 뛰어들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산업이 더욱 확장</p>
<p>경쟁동향</p>	<p>- 2021년 중국산 애니메이션의 연간 매출 점유율이 처음으로 61.6%를 달성해 수입 애니메이션의 매출액 비중을 넘어섰고 이후 이 추세는 지속</p> <p>- 2019년 이전까지 수입 애니메이션 매출 점유율은 60% 이상인 반면 중국산 애니메이션의 매출 비중은 33%로 수입 애니메이션과 경쟁이 어려운 상황</p>
<p>진출방안</p>	<p>-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애니메이션 기업은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P 육성 및 운영 강화, 파생상품 확대, 온라인 플랫폼 활용 홍보 및 판매, 애니메이션 팬덤 관리를 기울여야 함</p> <p>- 또한 애니메이션 국산화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지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진출이 필요</p>

○ 스마트 양로 서비스

<p>선정사유</p>	<p>- 2023년 65세 이상 인구 수가 2억 1676만 명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비중은 15.4%에 달함. 중국은 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화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p> <p>-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건강관리, 가정도우미, 급식, 돌봄 등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p>
<p>시장동향</p>	<p>-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중국 실버시장 규모는 2027년 20조 위안을 넘어설 전망</p> <p>- AI, 5G,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T 기술의 융합과 함께 노년층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자산관리, 여가활동 등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통칭하는 ‘스마트 양로산업(智慧老)’이 빠른 속도로 성장</p>
<p>경쟁동향</p>	<p>- 중국의 타이강보험(泰康保, Taikang)그룹은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공간과 의료서비스는 물론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 등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다양한 양로 서비스를 지원</p> <p>- 중국핑안보험(中平安保) 산하 핑안건강의료과기유한공사(平安健康科技有限公司)는 2015년부터 원격 의료상담 및 온라인 의료 컨설팅 APP인 핑안하오이성(平安好生)을 운영</p>
<p>진출방안</p>	<p>- 재택 양로를 겨냥한 ICT 기반 프리미엄 제품+서비스로 중국 실버시장을 공략</p> <p>- 중국의 전통 관습상 90% 이상인 재택 양로에 맞춰 앞으로 양로 서비스 시장 수요도 방문 돌봄 서비스, 방문 의료 및 간호 서비스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택 양로 수요에 맞춘 프리미엄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 연계가 필요</p> <p>- 기 개발된 솔루션과 플랫폼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기업 및 정부 기관과의 기술 협력과 비즈니스 모델 공유를 통해 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모색 필요</p>

○ 산후조리 서비스

<p>선정사유</p>	<p>- 소비자 인식 및 소비 수준 향상으로 중국 산후조리 시장 급성장세</p> <p>- 중국 1선 도시 출산 여성 산후조리원 사용률은 8%에 불과하고, 산아 제한 정책 완화로 비즈니스 기회 다대</p>
--------------------	---

<p>시장동향</p>	<p>- 중국 정부는 2021년 5월 31일 '3자녀 출산' 정책이라는 사실상의 산아 제한 폐지 정책을 발표</p> <p>- 이러한 정부 주도의 출산율 제고 정책은 산후조리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산후조리 및 유아용품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시장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p>
<p>경쟁동향</p>	<p>- Frost &Sullivan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산후조리 업계의 상위 5개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은 11.3%에 불과</p> <p>- 중국 산후조리 업계의 시장 경쟁 구도가 분산되어 있고, 선두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낮으므로 산후조리원 업계는 향후 발전 잠재력이 풍부하며, 프랜차이즈화 추세는 더욱 높아질 것</p>
<p>진출방안</p>	<p>- 한국 산후조리 산업은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서비스 표준, 기술 및 경험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p> <p>- 단,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은 아직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합작 방식을 통해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임. 합작 가능 중국 파트너로는 투자회사, 산후조리 서비스기업, 부동산기업, 병원 등 다양</p>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	2001-05-23	2018-07-01	회원국 협상을 통해 관세율 인하 2018년 7월 1일부로 제4차 협상 관 세율 시행
중국-아세안 전 면경제협력협약	ASEAN	2002-11-04	2010-01-01	2007년 1월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2009년 8월 투자협정 체결 2014년 9월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2015년 11월 종료함. 2019년 10월 22일부 '업그레이드안' 전면 실시
중국-홍콩/마카 오경제무역관계 긴밀화협정	중국 홍콩, 마카오	2003-06-29	2004-01-01	2005~2014년 총 10차례 보충협정 전면 실행 2015년 1월 1일부 홍콩산 1,812개, 마카오산 1,315개 품목에 0% 적용 2016년 6월 1일부 서비스 무역협정 발효(2015년 11월 체결) 2018년 1월 1일부 투자협정 및 경 제기술협력협정 발효(2017년 12월 체결) 2019년 1월 1일부 'CEPA 화 물무역협정'에 따라 홍콩, 마카오산 수입품 무관세 통관
중국-칠레 자유 무역협정	칠레	2005-11-08	2006-10-01	2016년 11월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2017년 11월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완료함. 2019년 3월 1일부 '업 그레이드안' 실시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파키스탄	2006-11-24	2007-07-01	2009년 10월 10일 서비스무역협정 발효 (2009년 2월 체결) 2015년 11월 11일 서비스무역협정 은행업 서비스 의정서 발효(2015년 4월 체 결)함. 2011년 3월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2019년 4월 종료, 2020년 1월 1일부 '업그레이드안' 실시
중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뉴질랜드	2008-04-07	2008-10-01	2016년 11월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2019년 11월 종료함. 2022년 4월 7일부 '업그레이드안' 전면 시행
중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싱가포르	2008-10-23	2009-01-01	2015년 11월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2018년 11월 종료함. 2019년 10월 16일부 '업그레이드안' ' 실시함. 2020년 12월 후속협상(투 자 및 서비스무역) 개시
중국-페루 자유 무역협정	페루	2009-04-28	2010-03-01	중국과 남미 국가 간 첫 FTA, 2018년 11월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중국-코스타리카 자유무역협정	코스타리카	2010-04-08	2011-08-01	
해협양안경제협력협정	중국 대만	2010-06-29	2010-09-12	2013년 6월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
중국-아이슬란드 자유무역협정	아이슬란드	2013-04-15	2014-07-01	중국과 유럽 국가 간 첫 FTA
중국-스위스 자유무역협정	스위스	2013-07-06	2014-07-01	2024년 9월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	호주	2015-06-01	2015-12-20	
한-중 자유무역협정	한국	2015-06-01	2015-12-20	2018년 3월 후속 협상(투자 및 서비스무역 분야) 개시
중국-조지아 자유무역협정	조지아	2017-05-13	2018-01-01	
중국-몰디브 자유무역협정	몰디브	2017-12-02		몰디브측 재협상 요구로 발효가 지연되고 있음
중국-모리셔스 자유무역협정	모리셔스	2019-10-17	2021-01-01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간 첫 FTA
중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캄보디아	2020-10-12	2022-01-0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ASEAN 10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2020-11-15	2022-01-01	세계 인구/GDP/무역의 30%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FTA, 한국은 2022년 2월 1일부터 발효
중국-니카라과 자유무역협정	니카라과		2023-05-01	양국 전면 FTA 협상은 진행 중이나 2023년 5월 1일부 니카라과산 육류, 수산물, 섬유류, 케이블 등 60개 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해 '0%'의 협정세율 적용하는 등 부분 발효, 2024년 1월 1일부 전면 발효
중국-에콰도르 자유무역협정	에콰도르		2024-05-01	2022년 2월 협상 개시, 2023년 2월 협상 종료, 2023년 5월 11일 체결, 2024년 2월 FTA 비준동의안 에콰도르 의회 통과, 2024년 5월 1일부 부분 발효
중국-세르비아 자유무역협정	세르비아	2023-10-17	2024-07-01	2023년 4월 협상 개시, 2023년 9월 협상 종료, 2024년 7월 1일부 발효

<자료원 : 중국 상무부>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중국-팔레스타인 자유무역협정	팔레스타인	2019년 2월 1차 협상	
중국-파나마 자유무역협정	파나마	2019년 4월 5차 협상	
중국-노르웨이 자유무역협정	노르웨이	2019년 9월 제16차 협상	
중국-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	스리랑카	2017년 1월 제5차 협상	
중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이스라엘	2023년 3월 제8차 협상	
중국-몰도바 자유무역협정	몰도바	2018년 9월 3차 협상	
한국-중국-일본 자유무역협정	한국, 일본	2019년 11월 제16차 협상	
중국-GCC 자유무역협정	GCC	2022년 9월 제10차 협상	
중국-온두라스 자유무역협정	온두라스	2023년 7월 협상 개시, 2024년 9월 일부 품목 대상 관세율 인하하는 '조기성과' 발효	

<자료원 : 중국 상무부>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형태(진행상황)	규제대상국	최종판정결과(부과기간)	최종판정결과(관세율)
1	90011000	광섬유(Dis/sion Unshifted Single-Mode Optical Fiber)	반덤핑(규제중)	한국, 일본, 미국, EU	○ 부과기간 : 2005.1.1 ~ 2028.4.20	○ 판정결과 · 한국 : 7.9 ~ 46% (2005.1.1 ~ 2027.12.31) · 일본 : 46% (2005.1.1 ~ 2027.12.31) · 미국 : 33.3~78.2% (2005.1.1 ~ 2028.4.20) · EU : 12.9~29.1% (2005.1.1 ~ 2028.4.20)* 일몰재심 후 2023.1.1/2023.4.21부터 5년 연장
2	40025910,40025990	니트릴 고무(Nitrile Rubber)	반덤핑(규제중)	한국, 일본	○ 부과기간 : 2018.11.9 ~ 2023.11.9	○ 판정결과 · 한국 : 12 ~ 37.3% · 일본 : 16 ~ 56.4% * 일몰 재심중 (2023.11.9~)
3	2914130000	메틸이소부틸케톤(4-Methyl-2-Pentanone)	반덤핑(규제중)	한국, 일본, 남아공	○ 부과기간 : 2018.3.20 ~ 2029.3.20	○ 판정결과 · 한국 : 18.5 ~ 32.3% · 일본 : 45 ~ 190.4% · 남아공 : 15.9 ~ 34.1% * 2024.3.19: 일몰재심 후 조치 5년 연장 결정

4	722511,722611	방향성 전기강판(GOES: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반덤핑(규제중)	한국, 일본, EU	○ 부과기간 : 2016.7.23 ~ 2027.7.23	○ 판정결과 · 한국 : 37.3% · 일본 : 39 ~ 45.7% · EU : 46.3% * 일몰 재심 후 2022.7.23부터 5년 연장
5	72189100,72189900, 72191100,72191200, 72191312,72191319, 72191322,72191329, 72191412,72191419, 72191422,72191429, 72192100,72192200, 72192300,72192410, 72192420,72192430, 72201100,72201200	스테인리스 압연 및 열연 강판(Stainless Steel Billet and Hot-rolled Stainless Steel Plate)	반덤핑(규제중)	한국, 인도네시아, EU,, 영국	○ 부과기간 : 2019.7.23 ~ 2024.7.23	○ 판정결과 · 한국 : 23.1 ~ 103.1% · 인도네시아 : 20.2% · EU/영국 : 43% * 2024.7.22: 일몰재심 개시, 일본산 제품은 규제종료
6	29025000	스티렌(Styrene Monomer)	반덤핑(규제중)	한국, 대만, 미국	○ 부과기간 : 2018.6.23 ~ 2029.6.21	○ 판정결과 · 한국 : 6.2 ~ 7.5% · 대만 : 3.8 ~ 4.2% · 미국 : 13.7 ~ 55.7% * 일몰 재심 후 규제 5년 연장 결정 (2024.6.21~)
7	29141100	아세톤(Acetone, Dimethyl Ketone or 2-Propanone)	반덤핑(규제중)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 부과기간 : 2008.6.9 ~ 2025.6.8	○ 판정결과 · 한국 : 4.3 ~ 51.6% · 일본 : 7.2 ~ 51.6% · 대만 : 6.2 ~ 51.6% · 싱가포르 : 6.7 ~ 51.6%
8	550130,550330,550630	폴리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섬유 (Polyacrylonitrile Fiber or Acrylic Fiber)	반덤핑(규제중)	한국, 일본, 튀르키예	○ 부과기간 : 2016.7.14 ~ 2027.7.14	○ 판정결과 · 한국 : 8.6 ~ 21.7% (2018.1.17변경 실행) · 일본 : 15.8 ~ 16.1% · 튀르키예 : 8.2 ~ 16.1% * 일몰 재심 후 2022.7.14부터 5년 연장

9	40027010,40027090	에틸렌프로필렌 합성 고무(EPDM, Ethylene-Propylene-non-conjugated Diene Rubber)	반덤핑(규제중)	EU, 한국, 미국, 영국	○ 부과기간 : 2020.12.20 ~ 2025.12.20	○ 판정결과 · 한국 : 12.5% ~ 24.5% · EU/영국: 14.7%~31.7% · 미국 : 214.9% ~ 222%
10	28046190	폴리실리콘(Polysilicon)	반덤핑(규제중)	한국, 미국	○ 부과기간 : 2014.1.20 ~ 2025.1.20	○ 판정결과 · 한국 : 4.4 ~ 113.8% · 미국 : 53.3 ~ 57%
11	29071110	페놀(Phenol)	반덤핑(규제중)	한국, EU, 영국, 태국, 미국, 일본	○ 부과기간 : 2019.9.6 ~ 2024.9.6	○ 판정결과 · 한국 : 12.5 ~ 23.7% · EU/영국 : 30.4% · 태국 : 10.6 ~ 28.6% · 미국 : 244.3 ~ 287.2% · 일본 : 19.3 ~ 27%* 2024.9.6: 일몰재심 조사개시
12	39071010,39071090	폴리아세탈 수지 (Polyformaldehyde Copolymer, Polyoxymethylene Copolymer, Copolymer-type Acetal Resin or Acetal Copolymer)	반덤핑(규제중)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 부과기간 : 2017.10.24 ~ 2028.10.24	○ 판정결과 · 한국 : 6.2 ~ 30.4% · 말레이시아 : 8 ~ 9.5% · 태국 : 18.5 ~ 34.9%* 일몰재심 후 2023.10.24부터 5년 연장* 2024.6.21: 한국 일부 회사 반덤핑 관세 변경 (KOLON ENP, INC. - 6.2%, KOLON PLASTICSINC. - 30.4%)

13	39119000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Polyphenylene Sulfide, PPS)	반덤핑(규제중)	일본, 한국, 미국, 말레이시아	○ 부과기간 : 2020.12.1 ~ 2025.12.1	○ 판정결과 · 한국: 26.4~46.8% · 미국: 214.1%~220.9% · 일본: 25.2%~69.1% · 말레이시아: 23.3%~40.5%
----	----------	--	----------	-------------------	--------------------------------------	--

수입금지품목

마약, 무기, 동물 시체, 동물 뼈 등 법률상 교역 금지하는 품목과 중고 기계/전자설비 기계, 고체폐기물, 임업/인쇄업/금속/교통 등 분야의 일부 기술은 중국 법률상 수입이 금지돼 있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및 무역확대를 위해 단일의 강제인증제도를 도입했다.

1) 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이하 CCC 인증)이란 중국 소비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일종 상품검사제도이다. 중국 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제품과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 및 부품 중 강제인증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IEC(국제전기 표준협회) 및 중국국가 표준에 준하여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며 CCC 마크를 부착해야만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국에서 규정한 CCC 인증품목은 총 16개 유형, 96개 품목이다.

○ CCC 인증 대상품목(16개 유형)

- 전기선 케이블
- 전기회로 스위치 및 보호접속용 전자기기장치
- 저압 전자제품
- 소형 전자모터
- 전동공구
- 전기 용접기
-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 전자제품 및 안전부품
- 조명기기
- 자동차 및 부품
- 농기구
- 소방제품
- 건축자재
- 유아용품
- 방폭 전자기기

- 가정용 가스 연소기구

○ 취득절차: CCC 인증은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며 샘플 테스트, 공장심사 등 과정을 거친다.

- ① 인증대상 여부 확인
- ② 인증기관에 온라인 신청 및 수리
- ③ 서류 심사
- ④ 샘플 테스트 진행
- ⑤ 테스트 보고서 취득
- ⑥ 공장 심사 진행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장등록증 사본(영문)
- 일치성 설명서
- 공장조사표(조직도, 품질매뉴얼, 생산설비리스트(영문), 제품검사설비 리스트, 공정도 등)
- 제품기술자료(제품사용설명서, 제품묘사서, 회로도, 조립도, 중요안전부품리스트, 제품중문명판 등)

○ CCC면제증명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 규정]에 따라 출고, 판매, 수입 및 경영성 활동 중 특수한 상황의 경우, [강제성 제품 인증 시행 제품 목록]에 포함되는 CCC 인증 대상 제품에 대해 인증 취득을 하지 않거나 각 관할 검역국에 인증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CCC 인증 면제 가능 품목

- 과학 연구, 실험에 필요한 물품
- 기술 평가를 위한 생산 라인 도입에 필요한 부품
- 최종 소비자에게 A/S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공장 생산 라인, 세트 생산 라인 구축에 필요한 설비 및 부품(사무용품 제외)
- 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상업 전시용 제품
- 임시 통관 후 반송 수출하는 제품 (전시회 참가품 포함, 전시장 판매 불가)
- 완제품 전수 수출을 목적으로, 일반 무역 방식으로 수입하는 부품
- 완제품 전수 수출을 목적으로, 원재료 수입 혹은 수탁 가공 방식을 수입하는 부품

주: CCC 인증 면제 요구서류: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면제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 안전 부합성 성명, 제품 기술 자료 또는 제품 설명서, 제품 컬러 사진, 책임 담보서, 위탁서, 기타 요청 자료

○ 소요시간 및 비용: 인증기관에서 인증신청을 수리한 시점부터 인증증서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통상 근무일 기준 90일이 소요된다.

- 신청비(600元)+등록비(800元)+제품테스트비(테스트 내용에 따라 상이, 테스트 보고서 발행 시 청구)=1,400元+α
- * 신청자료가 외국어일 경우, 번역비용 징수 (최대 1000위안)

○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강제성상품인증관리규정(強制性產品認證管理規定)》
- 담당기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인증마크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에 따라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에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인증대상 품목 중 특수 품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CCC인증 마크를 표시/부착한다. 국외에서 생산되어 인증을 획득한

제품도 반드시 수입 전에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CCC 인증마크는 구체적 제품에 따라 다르며 4가지로 구분된다. 안전인증제품은 CCC 기본마크에 "S"를 추가 표시, 전자파 인증제품은 "EMC"를, 소방제품인증은 "F"를, 안전과 전자파 인증제품은 "S&E"를 "CCC" 오른쪽에, 작게 추가 표시한다. 인증마크의 제작은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에서 지정한 인쇄기관에서 담당한다. 인증마크의 인쇄, 각인 등 설계방안은 인증마크의 신청인이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의 지정된 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자체적으로 제작 사용이 가능하다.

○ 인증마크의 사용 신청

- 신청인은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마크를 신청해야 한다.
- 신청인이 타인에 위탁하여 신청할 경우, 위탁인은 신청인의 위임장,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을 지정된 기관에 제출하여 인증마크를 신청한다.
- 신청인이 서면 혹은 전자통신방식으로 인증마크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인증서, 인증서 사본의 서면 혹은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인증마크를 신청한다.
-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신청인은 인증마크의 사용 비용과 인증마크를 인쇄한 감독관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통일적으로 인쇄한 표준규격은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한다.

○ 미이행 시 제재사항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을 명시된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3만 위안(약 54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인증 대상 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만 위안(약 18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의 위조, 도용 및 기타 국가의 안전품질허가, 상품품질 인증 관련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지정 인증기관 및 검사기관에 거짓 증명 혹은 위조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2) China RoHS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EU의 RoHS(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지침을 모태로 하고 있다.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6)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PBDE) 등 난연제 사용 제한 및 금지를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확대를 도모코자 이 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007년 3월부터 모든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라벨 부착 및 정보공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인증대상: 직류에서 작동전압이 1,500V, 교류전류에서 1,000V 이하 설비, 조립된 컴퓨터제품(데스크톱 노트북, 컴퓨터와 연결된 모니터와 프린터 등), 가정용 전자제품(TV), 통신설비(이동 단말기, 고정/무선 전화기)가 해당한다.

○ 인증절차

- ① 시험항목 및 비용 확인 - 샘플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② 샘플 및 신청서 송부(방문, 우편, 택배 가능, 첫 거래 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동봉)
- ③ 접수 확인증 수령 및 확인 회신(e-mail)
- ④ 접수 확인증의 안내에 따라 비용 입금
- ⑤ 시험결과 성적서 전자파일 수령(e-mail)
- ⑥ 성적서 원본 및 세금계산서 수령(우편)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시료(샘플)

*시험기관마다 필요서류의 형식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필수

○ 소요시간: 시험 기관 또는 시험 물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국가통일추진 전자신식산품 오염통제 자진인증실시의견》(國家統一推行的電子息產品污染控制自願性認證實施意見) (國認證聯(2010)28號)

- 담당기관: 국가질량인증중심(國家質量認證中心)

3) 중국 화장품위생허가(NMPA)

중국에서 최초 수입되는 화장품은 '화장품감독조례'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 화장품은 '수입화장품 등록증서 (進口化粧品備案?證)'를, 新조례는 파마, 기미제거, 자외선차단, 탈모방지 및 기타 신기능화장품으로 홍보하는 화장품 등 5가지 특수 화장품은 '수입화장품위생허가비준 (進口化粧品衛生許可批件)'을 받아야 한다.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 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취득해야 한다.

○ 허가 절차

- ① 계약체결
- ② 고객자료 준비 및 제출
- ③ 위임장 및 사업자 등록증 등록(근무일 기준 5일)
- ④ 샘플테스트(근무일 기준 60일)
- ⑤ 최종자료 발송 및 수리통지서 접수(근무일 기준 5일)
- ⑥ 전문가 심사 및 증서 발수(근무일 기준 35일)

○ 제출서류: 일반 화장품과 특수화장품 위생허가 비준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르다.

- 일반 화장품 위생허가비준 신청 시 제출 서류

- ㉠ 수입 일반 화장품 행정허가신청서
- ㉡ 제품 중문 명칭과 명칭에 대한 근거
- ㉢ 제품 전 성분 배합 비율표
- ㉣ 제품품질안전관리에 관한 요구
- ㉤ 제품의 외국어 포장(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품이 중국수출 전용으로 디자인된 경우 중국수출용 포장지(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출
- ㉥ 식약총국에서 인정한 화장품 위생허가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 ㉦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안전위험물질에 관한 안전성 평가 자료
- ㉧ 재중책임회사의 수권서 복사본과 재중책임회사의 영업집조 복사본(공장 날인)
- ㉨ 화장품사용 원료와 원료의 유래가 광우병 발생지역의 고위험물질 금지 제한 사용 요구에 부합함에 관한 승낙서
- ㉩ 제품이 생산국 혹은 원산국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 ㉪ 행정허가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 ㉫ 생산공정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도안
- ㉬ 제품기술요구에 관한 문서(인쇄본과 컴퓨터 파일)
- ㉭ 별도로 검역기구에서 봉인한 판매 중인 미개봉 제품 1개 첨부

* 이상 서류 외 별도 업체의 상황에 따라 별도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은 NMPA 행정업무접수센터 홈페이지 참조

- 특수 화장품 위생허가비준 신청 시 제출 서류

- ㉠ 수입 특수 화장품 행정허가신청서
- ㉡ 제품 중문 명칭과 명칭에 대한 근거

- ㉔ 제품품질안전관리에 관한 요구
- ㉕ 제품의 외국어 포장(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품이 중국수출 전용으로 디자인된 경우 중국수출용 포장지(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출
- ㉖ 식약총국에서 인정한 화장품 위생허가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또는 해외실험실에서 발행한 SPF, PFA 혹은 PA 수치에 관한 검측보고서

- ①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안전위험물질에 관한 안전성 평가 자료
- ② 성급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생산위생조건 심사의견
- ③ 발모, 슬리밍, 가슴관리제품은 기능성 성분 및 그 사용 근거에 관한 과학 자료 제출
- ④ 행정허가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 ⑤ 제품기술요구에 관한 문서(인쇄본과 컴퓨터 파일)
- ⑥ 별도로 검역기구에서 봉인한 판매 중인 미개봉 제품 1개 첨부
 - * 이상 서류 외 별도 업체의 상황에 따라 별도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은 NMPA 행정업무접수센터 홈페이지 참조

○ 소요 비용 및 기간: 지정 심사기관의 테스트 비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수속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심사 제품에 따라 테스트 방법이 상이하므로 허가 비용은 각기 다르다. 일반 화장품은 4~5개월, 특수 화장품은 1년~1년 6개월 소요된다.

-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粧品衛生監督條例)》, 《화장품행정허가수리조사요점(化粧品行政許可受理審?要點)》, 《수출입 화장품 검험검역 감독관리 방법(進出口化粧品檢驗檢疫監督管理辦法)》 등
 - 담당기관: 국가약품감독관리국(國家藥品監督管理局), 중국질병통제센터(中國疾病預防控制中心)

2018년 11월 10일부터 처음 수입하는 일반 화장품(非 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해 심사관리에서 등록(?案)관리로 변경됐다. 수입업체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www.nmpa.gov.cn)의 “수입 非 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관리 시스템(口非特殊用途化粧品案管理系)” 상 등록 및 등록증 병서류 획득 후 수입할 수 있다. 등록증병서류는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 또는 국가약품감독관리부처에 제출하도록 했다.

화장품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천연/인공 원료’를 사용했을 때 NMPA에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색, 기지제거/미백 관련 신 원료와 기타 고 위험성 신 원료는 NMPA에 등록(備案: 신고처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의 신 원료는 NMPA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화장품 인증 신청 및 등록 시,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 관련 증빙자료, 제품 생산지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수출용 제품일 경우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와 실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중국 의료기기 행정허가

의료기기 감독 의료기기 등록 제도를 통해 중국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중국 정부가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 의료기기 인증 취득은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해 있어, 강제적이고 필수적인 기본 요구 조건이다. 등록되지 않은 의료 기기의 판매 및 사용은 절대 금지되어 있다.

○ 의료기기 분류등급

1등급 의료기기는 통상적인 규정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통일적으로 관리 감독한다.

2등급 의료기기는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관리(제어기능)가 요구되는 의료기기, 3등급 의료기기는 생명 연장 또는 유지에 사용되거나 인체에 삽입 또는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주: 분류는 [의료기기 등급 분류 판정표]와 [의료기기 분류 목록]에 의해 결정

○ 등록 제도

의료기기 등록관리방법에 근거하여 1등급 의료기기는 서류를 필요시에 대비하여 파일로 보관하는 비안(?案)제도로 관리한다. 한편, 2,3등급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안전성, 유효성 연구 및 결과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한 후 허가하는 등록(注?) 제도로 관리하며 임상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또 중국산은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관리부처가 다르지만 수입산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관리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제출서류

- 1등급: 제조 품목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제품 판매 허가증, 자체 검사 보고서, 제품 등록 표준, 기타(행정상 필요한 서류 및 현지 판매, A/S 업체 관련 서류)

- 2등급: 제조 품목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제품 판매 허가증, ISO13485,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서, 제품 판매 허가증, 검사 성적서, 품질보증서, 제품 등록 표준, 형식 검사 보고서, 임상 시험 보고서(한국) - 없으면, 사유서 혹은 관련 임상문헌, 기타(제품 특성 및 행정상 필요한 서류 및 현지 판매 A/S 업체 관련 서류)

- 3등급: [비삽입형] 제조 품목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제품 판매 허가증, ISO13485, 품질관리 시스템 인증서, 제품 판매 허가증, 검사 성적서, 품질 보증서, 제품 등록 표준, 형식 검사 보고서, 임상 시험 보고서(한국), 기타(행정상 필요한 서류 및 현지 판매, A/S 업체 관련 서류); [삽입형] 제조 품목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제품 판매 허가증, ISO13485,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서, 제품 판매 허가증, 검사 성적서, 품질 보증서, 제품 등록 표준, 형식 검사 보고서, 임상시험보고서(중국), 기타(행정상 필요한 서류 및 현지 판매, A/S 업체 관련 서류)

○ 소요시간: 보통 1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10개월이 소요되며, 2,3등급 기기는 2~3등급 18개월 정도 소요된다. 소요비용은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다르다.

○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醫療器械監督管理條例)》, 《의료기기등록관리방법(醫療器械注冊管理辦法)》

- 담당기관: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藥品監督管理總局)

○ 미이행 시 제재사항: 허위 증명, 허위제품, 허위 자료 혹은 기만행위, 뇌물 행위 등 부정당한 수단을 통하여 의료기기등록증 취득, 의료기기등록증 상의 내용을 고치거나, 전매하거나, 빌려주는 행위와 기타 법규에 어긋나는 의료기기등록증 양도 등 행위는 “의료기기 등록 신청 정지” 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당국의 사후심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의료기기 등록 취소 등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5) CSEL(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

중국 국무원 산하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총괄하는 제도이다. 보일러, 압력용기 등 여덟 가지 특종설비에 대해 중국 내외 생산자에게 제조허가증(Manufacture License)을 발급하는 제도로, 중국 내에서 특종설비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서 ‘특수 장비’는 보일러, 고압 용기, 고압 배관, 엘리베이터, 승강기, 여객용 케이블카 및 대형 놀이기구를 가리킨다. 이 인 증은 특별한 마크 없이 인증서를 발행한다.

○ 인증대상

- 보일러

- 압력용기

- 탱크류

- 가스 실린더

- 엘리베이터

- 기중기

- 대형 오락시설

- 여객운송 케이블

- 공장 내 기동 차량

* 위 품목에 해당하는 안전 부품 및 안전보호장치 관련 또한 인증대상에 포함됨.

○ 인증절차

① 업무계약

② 샘플 및 신청서 송부

③ 서류 심사

④ 샘플 테스트

⑤ 공장심사

⑥ 허가증 발급

○ 제출서류

- 특수장비 제조면허 신청서 4부

- 제조자 소개서

- 품질매뉴얼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조자가 이미 획득한 인증서의 사본

- 대표제품 카탈로그

- 제품 도면 및 디자인 문서(형식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신청인은 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을 신청하고 '특수장비 안전관리'로 들어가 특수장비 행정면허 신청서를 작성한다. 특수장비면허 신청은 반드시 홈페이지와 서면신청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홈페이지 (<http://www.samr.gov.cn/>)에서 등록신청 후,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면허에 해당하는 서면신청 자료를 제출한다. 서류는 중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소요기간 및 비용

○ 약 8~10개월 소요

○ 비용: 제조면허 평가비용 신청비, 서류검토 및 평가비, 디자인 평가 검토비(형식시험제품에 한함), 형식시험비(해당하는 경우), 현장 심사 및 평가비, 심사 및 평가 보고서 발행비, 면허 발급비, 심사원 출장비 및 숙박비, 보험비 합산하여 약 3만 달러

○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특종설비안전감찰조례(特種設備安全監察條例)》(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令549號)

- 담당기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6) 중국통신제품형식인증(SRRC, State Radio Regulatory Commission)

특정 무선 또는 소출력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인증으로 미승인된 통신제품이 중국에 판매 금지한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무선전송 장비의 경우 관련 외국인 사업자는 SRRC사무소에서 발행하는 "Radio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 Certificate"(무선전송 장비 형식승인인증서)를 획득하고 해당 장비의 Type Approval Identifier(형식승인 ID)를 보유하여야 한다. SRRC는 MIIT산하기관으로서 무선제품의 승인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SRRC 내 SRMC는 무선제품 형식승인을 위한 유일한 시험기관이다.

○ 인증대상

- 공공 이동통신설비(GSM, CDMA, Bluetooth, TD-SCDMA 등 데이터 통신 단말기

- 무선 접속 시스템(SCDMA, PHS, DECT 등 단말기, 단말국)

- 전용 네트워크 장비(FM네트워크, 디지털 무선 시스템, GSM-R, iDEN, TETRA 장비)

- 마이크로 웨이브 설비

- 위성 설비

- 라디오, TV 설비(FM, AM, TV 송신기 등)
- 2.4GHz/5.8GHz 무선 랜 설비
- 단거리 무선 설비
- 레이더(기상, 선박, 항공, 내비게이션 등)
- 기타 무선 전파 송신 설비

○ 등록절차

① 샘플 및 자료 송부: 신청자는 반드시 중국법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HS 코드 등으로 제품해당 카테고리를 확인하고 CCC 및 NAL 인증 대상 유무를 확인한다. 중국 CCC 인증에 중복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 함께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선전송 장비 형식승인신청서 및 관련 기술성과 사양에 관련된 자료를 시료와 함께 제출한다.

② 제품 테스트: 무선 규정 및 기술기준에 관련한 국가조항에 따라 SRRC사무소가 신청서류를 검사하여 자료가 누락되거나 규정된 격식에 맞지 않은 서류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신청 누락 여부는 서면으로 통지된다.

③ 승인서 및 승인번호 발급: SRRC사무소는 신청수리 20일 이내에 모델심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적합성이 판단된 장비는 SRRC사무소에서 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서와 SRRC ID를 부여한다. 승인이 인가되지 않은 모델에 대하여는 신청부서에 그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승인번호 부착/판매: 특별한 인증마크는 없으며 SRRC ID를 부여받는다.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ISO9000 증서 및 기업 현황 및 품질 시스템 소개 자료
- 위탁서
- 제품 중문 매뉴얼
- 기술 규격 사양서 및 기술 정보 설명 자료
- 제품 회로도
- 제품 컬러 사진
- 제품 라벨 도안
- 테스트에 필요한 필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라인
- 상표 등록 증명(신청인과 생산 기업이 다를 경우)

○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중화인민공화국무선전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無線電管理條例)》
- 담당기관: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공업신식화부 무선전관리국(工業和信息化部無線電管理局)

7) 에너지효율 라벨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목록’ (이하 ‘목록’)의 제품은 통일된 에너지효율 표준, 실시규칙, 에너지효율 라벨양식, 규격으로 통일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제품 혹은 포장에 에너지효율 라벨을 통일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에너지효율라벨 등록은 시장감독관리총국 및 국가발개위에서 지정한 에너지라벨관리센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 인증대상: 에너지효율 표시 대상 품목은 총 30개이다.

- (1) 에어컨
- (2) 냉장고
- (3) 냉각수기
- (4) 열펌프기
- (5) 열펌프온수기

- (6) 세탁기
- (7) 전기온수기
- (8) 온수난방기
- (9) 주방환풍기
- (10) 선풍기
- (11) 전자레인지
- (12) 가스레인지
- 13) 태양열온수기
- (14) 환풍기
- (15) 전기밥솥
- (16) 인덕션쿠커
- (17) TV
- (18) 모니터
- (19) TV셋톱박스
- (20) 복합기
- (21) 프로젝터
- (22) 초소형컴퓨터
- (23) 모터
- (24) 형광등
- (25) LED 등
- (26) 고압 나트륨 조명
- (27) 압축기
- (28) 통풍기
- (29) 교류 접속기
- (30) 변압기

(인증마크) 에너지효율 라벨은 아래의 정보를 포함한다.

- 생산자 명칭 혹은 약칭
- 제품 규격모델
- 에너지효율 등급
- 에너지 소모량
- 제품에 해당하는 에너지효율 국가표준 번호

○ 등록절차

- ① 샘플 및 신청서 송부
- ② 샘플 테스트
- ③ 라벨 등록

○ 제출서류

- 생산자 사업자 등록증 (수입자는 한국 내 생산자와 체결한 계약서 복사본)
- 제품 에너지효율 테스트 보고서
- 에너지효율 라벨 양식
- 초기 사용 날짜 등 기타 관련 자료
- 대리인이 자료를 제출한 경우, 생산자 혹은 수입자가 위탁한 위탁대리 문서 등

제품 생산자 혹은 수입자는 에너지효율라벨을 사용한 시기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라벨관리센터에 에너지효율 라벨을 등록하여야 하고 모든 서류는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중화인민공화국에너지효율법(中華人民共和國節約能源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華人民共和國認證認可條例)》

- 담당기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8) CQC자율인증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QC 인증은 자발적 제품 인증으로 강제성 인증과는 다르게 기업이 스스로 원하여 CQC자율인증 라벨을 부착한다. 즉, 제품의 품질, 안전, 환경보호, 성능 등이 관련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 500여 종의 제품에 대해서 인증서가 발급되었다.

○ 인증대상

- 전자부품
- 가정용가전제품부품
- 가전제품부품
- 조명가전제품부품
- 중소형전기기계
- 의료기기
- 가정용 가전제품
- 상업용 기계
- 조명가전제품
- 전선케이블
- 저압가전제품
- 전동공구 및 부품
- 자동차 부속품류
- 오토바이 부속품류
- 타이어류
- 유리류
- 전력시스템보호 및 자동화 장치
- 펌프
- 전력계
- 저압가전제품
- 저압플랜트설비 및 부품
- 고압설비 및 전기기구
- 발전기세트
- 실험용측정기기
- 토공기계 및 부품
- 전기차 전도충전용 연결장치 충전 단자
- 풍력발전제품
- 열에너지발전제품
- 건축장식재료 및 제품
- 건강제품
- 목제품, 종이제품 및 인쇄품
- 방직품
- 건축제품
- 위생도자기제품

- 시멘트제품
- 기계제품
- 사무용 설비(기능)
- 피뢰설비
- AV 제품(기능)
- 경형 전기차 및 부품
- 전기차 및 부품
- 베어링제품
- 제한사용유독유해물질인증 RoHS Certification
- 비금속재료 및 부품 기능라벨인증
- 연산배터리CQC라벨인증
- 학생용품
- PAHs인증
- 축전지 및 전지
- 금속용접절단 및 열처리설비

CQC 마크는 인증을 획득한 제품 본체에 마크 인식이 선명한 곳에 부착해야 한다. 인증 획득한 제품의 본체에 인증 마크를 부착하지 못할 경우, 제품의 최소 포장단위 혹은 포장 문서 내에 부착할 수 있다. 단, 인증서 상에 표시된 제품만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광고, 제품 소개 등의 제품 카탈로그 등의 자료에 인증마크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인증마크의 오기로 사용자들에게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음의 상황에서는 인증 마크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 CQC에서 인증서 사용 정지를 한 제품
- CQC에서 인증서상의 제품 인증을 취소한 제품
- 인증제품에 변경사항이 발생 후 재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인증 기업의 품질 보증 능력에 변화 발생 후 인증 기관에 승인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기타 인증서 사본
- 일치성 성명서(영문)
- 부품 리스트(CCL)
- 회로도
- 제품 묘사서(필요 시)
- 조립도(필요 시)
- 전기 원리도(필요 시)
- 제품 매뉴얼
- 중문 명판
- 계측기, 생산 설비 리스트, 공장 심사 조사표(공장 심사 필요 시)

○ 인증절차

- ① 온라인 신청 및 서류 검토
- ② 샘플 송부 및 샘플 테스트
- ③ 공장심사
- ④ 인증서 발부

○ 소요기간 및 비용: 인증기관에 인증신청 접수한 시점부터 인증증서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통상 근무일 기준 90일 정도 소요된다.

승인비용은 시험비, 공장심사비, 인증비로 구성됨. 인증대상에 따라 비용은 상이하지만 대략적인 가격은 아래와 같다.

- 시험비: 약 300~400만 원(한화)
- 공장심사비: 약 360만 원(한화)
- 인증비: 약 260만 원(한화)
- 사후심사비: 약 200만 원(한화)
- 연회비: 약 20만 원 (한화)

초기공장심사비는 공장심사 임무량에 규정된 인-일(man-day)로 계산되며, 인일 비용표준은 90만 원(한화)/1man-day이다. 자동차, 타이어, 안전용 유리 등을 제외한 제품의 경우 위 사후관리 공장심사비용은 1회 200만 원(한화)/1factory 이며, 인증서 연회비는 20만 원(한화)/장이다. 인증서 일시 정지 신청 시에도 동일 비용이 적용된다.

- 담당기관
- 중국인증질량중심(中國質量認證中心)

TBT

1) 국가표준

중국의 국가표준은 GB로 표기하며 이는 國家標準의 중국어 병음 앞글자만 차용한 것이다. 보통 GB 약자 뒤에 숫자를 표기하여 각 국가표준의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이는 강제성을 띤 규범체계로서 위반 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국가표준은 3가지 약호로 나뉘어 강제성 국가표준(GB), 추천성 국가표준 (GB/T), 기술 지도성 국가표준문서(GB/Z)으로 분류된다. 또 국가의 자체표준 그리고 업종별 표준으로 나뉜다.

자체표준 분류

- GHZB- 국가환경품질표준
- GJB- 국가군용표준
- GWKB- 국가오염물질제어표준
- GWPB- 국가오염물질배출기준
- JJF- 국가계량기술규범
- JJG- 국가계량검정규칙
- GBJ- 건설공학국가표준
- GBZ- 국가직업위생기술표준
- GBN- 국가내부표준

업종별 표준 분류

- AQ- 안전규정
- BB- 포장업종표준
- CB- 선박업종표준
- CECS- 건설공학추천성표준
- CH- 측량제도업종표준
- CJ- 도시건설업종표준
- CJJ- 도시건설공학규범
- CY- 신문출판업종표준
- DA- 문서업종표준
- DB- 지진업종표준
- DL- 전력업종표준

DZ- 지질업종표준
EJ- 핵공업종표준
FZ- 방직업종표준
GA- 공안업종표준
GH- 공급판매합작업종표준
GY- 영상컨텐츠업종표준
HB- 항공업종표준
HG- 화공업종표준
HGJ- 화공건설공학규범
HJ- 환경보건업종표준
HS- 세관업종표준
HY- 해양업종표준
JB- 기계업종표준
JC- 건설자재업종표준
JG- 건축업종표준
JGJ- 건설업종공학규범
JR- 금융업종표준
JT- 교통업종표준
JY- 교육업종표준
LB- 여행업종표준
LD- 노동업종표준
LY- 임업업종표준
MH- 민영항공업종표준
MT- 석탄업종표준
MZ- 민정업종표준
NB- 에너지업종표준
NY- 농업업종표준
QB- 경공업종표준
SB- 상업업종표준
SC- 수산업종표준
SH- 석유화공업종표준
SJ- 전자업종표준
SL- 수리업종표준
SN- 상품검증업종표준
SY- 석유업종표준
TB- 철로업종표준
TD- 토지업종표준
TY- 체육업종표준
WB- 물자업종표준
WH- 문화업종표준
WM- 대외무역업종표준
WS- 위생업종표준
WW- 문물업종표준
XT- 희토류업종표준
YB- 흑색야금업종표준
YC- 연초업종표준
YD- 통신업종표준

- YS- 유색야금업종표준
- YY- 의약약품업종표준
- YZ- 우체업종표준
- ZY- 중의약업종표준
- ZC- 지식재산권표준

2) 환경규제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친환경 경제구조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조치가 “자동차 배기가스 표준”이다. 중국 정부는 포괄적인 기후변화 관련 환경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중국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지목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자동차 배기가스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석유제품 품질표준 제정 및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규제했다. EU 기준을 기반으로 배기가스 배출량 상한선을 설정하고 규제하는 동시에 연료 품질 기준을 높이는 등 구체적 정책을 시행했다. 2000년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인 China 1을 최초 도입한 후 2020년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유럽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안인 ‘유로 6’을 토대로 정립한 China 6을 적용했으며 향후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2022년 1월 1일부 모든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가공, 보관기업(식품첨가제, 식품 전용 소독제와 세척제 등을 생산, 보존하는 기업은 제외)은 해관 시스템 등록을 통해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5년간 제품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식해야 한다. 기존 육류, 유제품, 수산물, 벌꿀 제품, 제비집 관련 생산업체에 적용하던 '해외 식품생산업체 인허가 제도'를 전 식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아래 18종 중점 품목은 수출국 주관부처(한국은 식약처에서 주관)을 통해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하고 기타 식품은 해외생산기업이 직접 해관총서에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18종 중점 품목 (제품 예시)

- 1) 육류 및 가공품(소고기, 돼지고기, 삼계탕)
- 2) 수산물(냉장이나 냉동 생선, 김)
- 3) 유제품(분유, 치즈)
- 4) 제비집(제비집 음료, 제품)
- 5) 벌꿀제품(벌꿀, 프로폴리스)
- 6) 식용유지(참기름, 들기름, 깨)
- 7) 소 있는 밀가루 가공품(냉동 만두)
- 8) 식용 곡물(쌀, 보리, 메밀)
- 9) 곡물가공품과 맥아(메밀가루, 밀가루)
- 10) 신선 또는 탈수 야채 및 건조 콩 가공품(말린 고구마, 냉장 곤약)
- 11) 건강식품(홍삼 스틱 또는 액기스)
- 12) 케이싱(돈장 케이싱)
- 13) 알 및 알가공품(구운 계란, 반숙란)
- 14) 천연 조미료(바질 가루, 생강, 샤프란, 강황 가루, 고춧가루)
- 15) 견과류(아몬드, 말린 호두, 말린 밤)
- 16) 말린 과일(말린 살구, 말린 사과, 말린 감)
- 17) 로스팅을 거치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 18) 특수식품(이유식, 다이어트 식품, 식사대용 식품)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후 2004년부터 20년 간 '수출입관세조례'를 통해 수출입 관세를 관리해 왔다. 2024년 12월 1일부 '관세법' 시행을 통해 수출입 관세 제/조정, 징수, 납부를 규범화하는 법규를 기존의 '조례'에서 '법률'로 격상했다. 중국 대외무역 발전에 맞춰 관세 관리를 규범화, 법제화하고 관세 '법정징수'(收法定)를 전면 실현했다.

1992년 중국은 '상품명칭 및 코드 제도'(商品名稱及編碼協調制度)를 바탕으로 관세 품목에 8자리 코드를 부여했다. 1996년, 2002년, 2007년, 2012년 세계 해관조직협회와 개정을 시행했고 2015년 4월 1일부로 세계해관조직의 수정에 따라 중국의 '상품명칭 및 코드제도 목록'(進出口稅則商品及品目註釋)을 수정한 뒤 발효했다. 중국에서 무역량이 비교적 크거나 증가율이 빠른 편인 상품에 대해서는 목록에 다시 추가했는데 세목 수는 2001년 7,111개에서 2024년 8,957개까지 증가했다.

1) 관세 유형 및 정산 기준

중국 관세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從價稅),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從量稅)와 두 가지를 결합한 복합세(複合稅)가 있다.

수입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관세가격*관세율' 계산결과에 따라 수입품 관세를 징수한다. 관세 가격은 실제 교역가격에 근거하여 세관에서 확정하는데, 수입품의 경우 착안할 때까지의 운송비용 등 각종 비용과 보험료를 포함한다. 교역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세관이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의 교역가격 또는 중국 내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산(원가, 이윤, 비용, 운송료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한다. 수입품의 면적, 길이, 용적 및 수량 등을 과세기준으로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단위당 세금액*수입품 수량'이다.

중국의 수출관세는 주로 수출품의 관세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가세가 적용되며, 정산방식은 '수출품 관세세액=관세가격*관세율'이다. 관세가격은 실제 교역가격을 기준으로 세관에서 확정하는데 수출상품가격에는 출항 전까지 중국 내 운송비, 기타 비용, 보험료가 포함된다. 교역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은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의 교역가격 또는 중국 내의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산(원가, 이윤, 비용, 운송료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여 수출세를 징수한다.

2) 관세율 유형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매년 '관세실시방안'을 통해 각종 세율의 조정내용을 공개한다. 모든 상품의 관세세율은 '수출입세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중국의 수입관세는 '최혜국세율', '감정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 세율'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과 한-중 자유무역협정(한중FTA)에 따라 협정세율을 비교한 후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최혜국세율

WTO 가입국, 중국과 관세호혜협정을 체결한 국가(또는 지역)의 상품이 중국으로 수입될 경우, '최혜국세율'이 적용된다. 중국 '수출입세칙'(2006년 판)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로 143개 품목의 최혜국세율 인하를 규정하였으며 2007년 판 '수출입세칙'에는 44개 품목, 2008년 '관세실시방안'에는 45개 품목, 2009년 '관세실시방안'에는 5개 품목을 인하했고 2010년에는 6개 품목이 관세인하품목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WTO 가입 당시 관세율 인하에 관한 약속을 모두 이행했다. 2018년 내수진작,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부진 회복을 위해 하반기 2차례에 걸쳐 3,000여 개 품목의 최혜국세율을 인하했다.

○ 감정세율

최혜국세율이 적용되는 국가 및 지역의 수입상품을 대상으로 '임시'로 매겨지는 관세율이다. 2024년 중국은 1,010개 품목(품목 유형 기준)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감정수입관세율을 적용한다. 주로 중국 내 소비 수요가 왕성한 소비품, 의료기기, 하이테크 관련 설비 및 부품, 그리고 친환경 제품들이다.

○ 협정세율

관련 국가(또는 지역)가 중국과 타결한 무역협정 및 관세우대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또는 지역)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은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2002년 중국이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에 가입하면서 한중 간 무역은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됐다.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기 전까지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에 있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채널로서 역할을 해왔다. 대중 수출하는 한국상품은 해당 연도의 해관 수출입 세칙에 따라 최혜국세율, APTA 협정세율과 한중FTA 세율을 비교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혜세율

중국과 특수한 우대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 및 지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하는데 중국 국무원 또는 산하의 관련 부처(기관)가 지정한 국가(지역)에 적용된다.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일종의 특별우대조치라고 풀이된다.

○ 일반세율

상기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3) 기타 관세

2003년 5월 1일부로 시행된 '가공무역 수출관세상품의 수출관세징수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에 따라 가공무역 수출품이 모두 수입자재로 가공될 경우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원자재 중 일부만 중국산일 경우, 중국산 자재의 비율에 따라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2010년 12월 5일부로 시행된 '관세에 관한 가공무역 화물의 감독관리방법' 개정 관련 결정에 의해, 세관의 동의 하에 가공무역 수입자재를 보세감독할 경우 가공제품 수출 후 세관이 사정한 실제 가공재 수출량에 의거하여 네팅(netting)한다. 수입 시 과세한 가공제품은 수출 후 또는 실제 가공재 수출량에 따라 세금을 환급한다. 중국은 수출관세 및 수출세 환급제도 조정을 통해 중국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한다. 2021년 5월 1일부 중국 정부는 크롬철 등 5개 품목(HS 8단위)의 수출관세율을 상향조정 하고 합금강 분말 등 146개 품목의 수출세 환급을 폐지했다. 중국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관세 조정을 통해 자원유출을 막아 자국시장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2016년 4월부터 중국 정부는 '해외직구 리스트'(跨境子商零售口商品)에 포함된 품목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개인 소비자의 해외직구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재정부, 해관총서 등 주무부처가 중국 소비자의 해외 소비품 소비 수요, HS 코드 조정 상황에 따라 리스트를 조정하고 리스트의 비고란에 수입조건을 명시했으며 2016년 4월 1차 리스트 발표 이래 2016년, 2018년, 2019년, 2022년 4차례의 수정을 거쳤다. 현재 시행 중인 2022년판 리스트는 식품, 의류, 가전, 화장품, 기저귀, 주류, 가정용 식기세척기 등 1441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해외 수입세 감면 한도액을 1회 5000위안, 1인당 연간 2만 6000위안으로 설정하고 한도액 초과시 일반 화물로 간주해 수입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부과한다. 한도액 내 해외직구에 대해 해외직구(증치세+소비세)*70%의 해외직구 수입세율을 적용한다.

이외 반덤핑세 등 관세도 있다.

- 반덤핑세: 징수기간 5년 이내
- 반보조금세: 징수기간 5년 이내
- 세이프가드: WTO 협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긴급수입규제조치, 임시 특별관세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조사결과에 따라 특별관세 또는 수량적 규제를 시행한다. 세이프가드 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특별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관세율을 규정한 농산품에만 적용, '기준을 초과한 수입 급증', '수입가격 급락' 시 자동으로 발동될 수 있다
- ITA 세율: 15가지 상품이 적용되는데 ITA 세율적용 여부는 기업소재지의 세관에서 인정해야 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해당 연도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 세칙(稅則)"에서 상품의 HS CODE와 상품명칭, MFN세율(최혜국세율) 및 수입증치세를 확인할 수 있다.

대중국 수출품목의 HS CODE와 상품명칭을 확인한 후 해당 품목의 최혜국 세율, 잠정세율, 한중FTA 세율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세율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관세율 확인 시 통관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의미하는 “감독관리조건” 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6. 통관·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한국에서 출발한 중국행 화물은 텐진(天津), 칭다오(), 닝보저우산(波舟山), 상하이(上海) 등 주요 동부연해 항구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온다. 2023년 기준 중국 주요 항구 화물 물동량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169억 7326만 톤을 기록했다. 이중 수출입화물 물동량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50억 4694만 톤이다. 화물 물동량 1위인 닝보저우산항의 물동량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13억 2400만 톤, 2위인 당산항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8억 4200만 톤, 3위인 광저우항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6억 7500만 톤, 4위인 칭다오항은 5.8% 증가한 6억 6천만 톤, 5위인 쑤저우항은 2.8% 증가한 5억 9300만 톤으로 집계됐다.

2023년 주요 항구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3억 1034만 TEU이다.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최대 항구는 상하이항, 2023년 물동량은 4916만 TEU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닝보저우산항과 3530만 TEU(+5.9%) 물동량으로 그 뒤를 이어 2위에 랭킹했다. 칭다오항(3040만 TEU)은 전년 대비 11.9%의 신장세를 보이며 선전(2988만 TEU)을 제치고 TOP3에 진입했다. 이밖에도 련윈강(614만 TEU, +10.2%), 베이부완항(802만 TEU, +14.3%) 등 항구의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이 두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중국은 각 지역 주요 도시에 국제공항을 건설했다.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는 2 공항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 중 우리나라 방문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항으로는 베이징 다싱(大), 서우두(首都), 상하이 홍차오(虹), 상하이 푸둥(浦), 칭다오 자오둥() 등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의 경우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 방역통제 정책의 영향으로 방문객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발발 첫 해인 2020년 중국 주요 공항 여객 수는 전년 대비 36.7% 감소했다. 2021년 코로나 진정세에 따라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2022년 코로나 재확산 및 주요 도시 봉쇄로 전년 대비 40%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2023년 리오프닝의 영향으로 중국 주요 공항 여객 수는 전년 대비 146.1% 증가한 6억 1957만 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6억 712만 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2023년 중국 공항 물동량 합계는 전년 대비 15.7% 증가한 1681만 톤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1548만 톤)을 넘어섰다.

3) 유의사항

중국 물류기업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기업도 많지 않다. 전국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지역마다 물류 기반의 구축 정도가 달라, 전국적으로 균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류기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은 자사의 요구기준을 충족시키는 물류기업이 없어 자체적으로 물류 업무를 해결하는 기업이 많다. 그러나 광대한 국토에서 생산기업이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배송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최근 중국에 대한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내수시장 판매 뿐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자사의 생산거점 간에도 부품, 반제품을 운송하거나 보세운송 등 복잡한 세관 수속을 필요로 하는 운송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체적으로 운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물류기업을 발굴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4) 기타 참고사항

중국에서는 화물트럭의 활동 범위가 라이선스로 제한되어 있어, 성(省) 경계를 통과하는 수송 시에는 환적이나 추가 요금이 필요할 경우가 많다. 환적시는 화물의 추적이 곤란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또 지역별 상이한 행정구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경영범위와 이에 부합하는 차량구입)가 필요하다. 도시지역은 트럭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쑤 이외의 운송 차량에 대해 통행료는 물론이고 과적 벌금을 징수하기도 한다.

중국의 도로는 대체로 24톤, 30톤의 트럭이 주행할 수 있도록 건설되어 있다. 그러나 트럭의 과적 행위가 다반사여서 도로가 단기간에 쉽게 파손된다. 이로 인해 도로 보수 공사가 잦아 기업이 정해진 시간에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통관은 수출입 운송수단의 경영자, 송수화인 및 그 대리인, 화물 소유자가 세관에 수출입 내역을 신고한 후, 세관이 신고서류 심사 및 수출입화물과 운송수단의 검사, 관세 징수 및 수출입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法, 이하 ‘海關法’)에 근거해 중국은 대외개방 항구 및 세관의 감독관리가 집중된 지역에 세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수출입 운송수단 및 화물은 반드시 세관 설립지에서 수입 또는 수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상황의 발생 시 국무원 혹은 그 수권기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의 미설립 지역에서 임시로 수입 혹은 수출이 가능하나 반드시 세관수속을 거쳐야 한다.

중국의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 단계는 일반적으로 세관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반·출입 등 4단계를 거친다.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입화물 및 관세의 감면 혹은 추후 납부 대상 수출입화물 및 화물인출 후 일정 기간 내 세관감독이 필요한 수출입화물은 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반·출입→통관증료 등 5단계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 통관절차

1) 화물수입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 사용 기계설비, 물자 및 가공생산용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 해당 기업 혹은 대리인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화물수입통관서류’를 작성하여 수입지 세관에서 수입수속을 밟는다. 감면세 우대정책을 받는 화물인 경우 관할 세관이 발급한 ‘수입화물 면세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가공무역과 관련된 화물일 경우 관할 세관이 심사 발급한 ‘가공무역 등기 매뉴얼(登記手冊)’을 제시해야 하며, 허가증이 필요한 화물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자본으로 기계설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국가 상품검사기관의 자산평가를 거쳐 수입통관 수속을 밟으며, 이때 상품검사기관이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자산가치 평가통지서류(外商投資財產鑑定報驗通知單)’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지 세관이 통관서류를 심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을 허가한다. 수입화물에 대해 ‘수입화물 면세증명’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해당 화물에 세관이 ‘징세’라고 의견을 표명한 화물인 경우에는 수입지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수출입화물 면세증명’을 신청 중인 화물에 대해서 수입지 세관은 보증을 먼저 징수한 후 통관을 허용하며, 해당기업은 3개월 이내에 ‘수출입화물 면세증명’을 보완 제출한 후 보증을 환급받는다. 기한 내 면세 증명이 제출되지 못하면 수입지 세관은 보증을 수입관세로 변경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2) 화물 수출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혹은 대리인은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화물수출 통관서류’를 작성, 수출지 세관에서 수출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허가증 관리상품인 경우에는 ‘수출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가공무역을 위한 가공제품인 경우에는 관할세관이 심사 발급한 ‘가공무역 등기증서(加工貿易登記手冊)’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타사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할 시에는, 대외경제무역부서가 허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지 세관은 통관서류에 따라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관련 화물의 수출통관을 허용한다. 수출세 납부대상 상품인 경우에는 수출관세를 납부한 후에 수출통관을 허용한다.

3) 수출입 화물의 신고

- 신고 자격 및 필요 서류: 신고는 수출입화물 통관절차의 첫 단계이다. 현재 중국세관이 실시하는 통관신고방식은 구두신고, 서면신고,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등 3가지로 구성된다.

- 신고 자격 및 시기: 세관에 등록된 통관전문회사, 통관대행회사,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 및 그 통관인원이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수입화물의 경우 운송기관의 입항신고 일로부터 14일 내에, 수출화물은 세관의 특별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이 세관

관리감독지역에 도착한 후 선적 24시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화물은 도착가격의 5/1000를 수입신고 지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 3개월까지도 세관신고가 없는 경우 수출 화물을 임의로 매각한다.

○ 신고 서류와 내용: 수출입화물 통관서, 수출입 허가증(필요 시) 및 기타 관련서류(송장, 운송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출입화물 경영업체, 송수화인, 신고업체, 운수방식, 무역방식, 무역 대상국 및 화물의 설명(명칭,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한다

4) 신고 절차

○ 수입화물의 인출통보 / 수출화물의 준비완료: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은 운송업체 혹은 우편송달업체의 “수입화물 인출통보서” 접수 후, 직접 또는 전문(대행) 통관업체를 통하여 세관신고를 진행한다. 수출화물의 경우 화물을 보낸 사람 측에서는 수출계약에 근거하여 화물을 준비 완료한 후 직접 또는 전문 (대행) 통관업체를 통하여 세관신고를 한다.

○ 위탁신고: 수입 혹은 수출 전 수출입항구 부근지역의 전문(대행)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통관신고를 한다. 통관위탁서는 위/수탁 업체의 명칭, 세관등기번호, 주소, 법인대표 및 대행 내역, 권한, 기한, 위수탁자 간의 책임 등을 기재하며 양측 업체의 인장을 찍는다.

○ 통관에 필요한 서류: 통관서류는 일반적으로 수출입화물신고서 외 기본서류, 특수서류 및 예비서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 기본서류: 수출입화물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상업 및 운송서류

- INVOICE (운송보험서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
- P/L(산적화물, 단일품종화물 또는 포장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물 제외)
- B/L (해운 수출입의 경우)
- AWB (항공운송의 경우)
- 소포명세서 (우편운송의 경우)
- 화물수취증 (육상운송의 경우)
- 수출대금영수 신고확인증 (수출의 경우)
- 세관이 발급한 수출입화물의 감면세 증명 및 보세등기증명서

○ 특수서류: 국가의 법률법규에 근거한 특수관리증서

- 쿼터허가증(국가계획부문의 쿼터증명, 대외경제무역 부문 수출입허가증 등)
- 기타 특수서류(기계전자제품수입, 상품검사, 동식물검역, 약품검사 등)

○ 예비서류: 필요 시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

- 무역계약서
- 원산지증명서
- 위탁업체의 영업허가증
- 위탁업체의 장부자료 및 기타 관련서류

○ 통관서류 작성: ‘수출입화물 신고서’는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세관에 화물의 상황을 신고하는 법률문서로서 세관감독에 필요한 중요한 증빙서류 이다.

○ 통관신고서의 예비 입력: 전문(대행)통관업체,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 및 그 통관원은 우선 신고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통관단 예비입력이라 하며 수동작업의 통관단과 동등한 법률효력이 있다.

○ 직접신고(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2008년 1월 1일부터 통관명세서 네트워크 검사제도를 실시했다. 전자수속을 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데이터 작성, 신고한 후, 해관으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은 뒤 전자통관 데이터 수속을 한다.

5)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지역: 수입화물의 경우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입지 세관에 신고하며, 수출화물의 경우 송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출지 세관에 신고한다. 타 지역 통관신고 수출입화물은 통관 이전 화물로 호칭한다. 케이블, 파이프라인 혹은 기타 특수방식의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직접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특수기기로 검사하며 정기신고제를 실시한다. 국경통과, 중계운송, 통과운송 화물은 중국 내 운송시스템을 통해 해외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운송수단 책임자가 입항지 세관에 신고한다.

○ 신고자격: 중국 세관규정에 근거, 통관자격대상은 세관에 등록된 전문(대행)통관업체 혹은 수출입 경영 자격이 있는 기업이다. 세관은 통관신고 수리 시 우선 통관업체 및 통관원의 신고 자격을 확인한다. 세관규정에 따른 통관업체 및 통관원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은 수출입경영자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
-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는 세관에 등록하여야 함.
- (대행)통관업체는 세관에 등록된 기업이며 위탁인은 수출입경영자격이 있어야 함.
- 통관인원은 세관의 연수 및 승인을 거친 통관업체의 지정 담당자임

○ 통관기한: 통관기한은 수출입화물의 개항지 도착 후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세관통관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수입화물의 통관 신고기한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로부터 14일 내이며 중계 운송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지정도착지에 운송된 후 14일 이내이다. 수출화물의 통관신고기한은 화물선적 후 24시간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 체납금의 징수: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규정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일정액의 체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 체납금의 징수기간: 해운, 항공운수, 도로운송 방식의 수입화물의 체납금 징수기간은 운송수단의 입항 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일까지이다. 우편운송 수입화물은 우편국의 통보접수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일까지며, 중계운송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화물의 지정도착지 도착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 통관의 종료일까지이다.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중계운송화물의 지정 도착지 도착일 등)부터 14일이 되는 시점이 법정휴가일인 경우 그 다음일로顺延한다.

○ 체납금의 계산: 체납금은 일(日)단위로 계산하며 통관신고일도 포함한다. 체납금의 징수액은 1일당 수입화물 도착항인도가격(CIF)의 0.5%이며 최저액은 10위안이다. 체납금의 단위는 위안화이며 1위안 이하 부분은 절사한다. 세관은 체납금의 징수 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체납금 징수 영수증'을 발행한다.

○ 체납금의 면제범위:

-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이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통관 신고하지 않는 경우('해관법' 제30조 규정에 근거 화물을 전매 처분)

- 신고인이 세관의 기준을 거쳐 담보제공 후 화물을 인출하며 담보기한 내에 통관신고 수속을 보완, 처리하는 경우
- 세관 압류화물의 경우(압류기간 내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음)
- 징수액이 10위안 이하인 경우, 신고인은 특수한 이유로 규정기한 내에 통관신고를 못한 경우 세관에 상황설명 자료를 제출하여 기준을 취득하면 체납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 수출입 화물의 검사: 세관법(海關法) 제28조 규정에 근거 수출입화물은 송수화인의 신고 및 해관총서의 특별 기준을 거쳐 검사면제를 취득한 것 외에는 반드시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출입상품의 통관을 위한 화물검사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세관검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세관의 화물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또는 화물 존치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그러나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컨테이너 화물과 같이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한다.

- 수출입화물의 세관검사 및 통관업체의 주요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검사는 통관신고업체의 신고접수 후 수출입화물의 성질, 원산지, 화물의 상태, 수량, 금액 등이 신고내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세관절차를 말하며 세관의 검사목적은 아래와 같음.
 - 수출입화물의 실제상황과 통관단(통관증) 등 서류신고내역의 일치성에 대한 검사확인을 통해 서류심사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누락, 허위, 사기 등 밀수, 위법행위 및 기타 문제를 실질적으로 확인
 - 화물검사를 통해 서류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의문사항을 재확인하여 세금징수, 통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감독근거를 제공
 - 수입화물의 HS code, 적용세율, 도착항인도가격 등은 검사결과를 통해 최종 결정

○ 화물검사: 일반적으로 세관의 감독지역 내 항공, 기차역, 공항, 혹은 기타 세관감독 장소에서 진행된다. 다량의 산적화물, 위험제품, 해산물, 바지선 운수화물 등은 신고인의 작업현장에서 직접 검사한다. 특수상황에서 세관 담당자를 공장, 창고 혹은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 세관은 실제경험 및 현장감독에 소요되는 인력, 물자, 장소 등 조건에 근거 전수검사, 추출검사, 외형검사 등 검사방식을 채택
- 포장된 화물의 개봉은 반드시 화주(貨主) 또는 대리인의 현장 입회 하에 통관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포장되지 않은 광물질, 곡물, 원유, 원목과 같은 화물과 화학비료, 시멘트, 설탕, 철강재와 같은 대량의 화물 및 위험물에 대한 검사는 선적선박현장에서 실시
- 건마다 포장을 개봉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써 화물의 품종, 규격, 수량, 중량, 원산지, 상태 등 모든 내역을 신고서류내역과 대조, 확인
- 일정비율의 화물을 선정하여 포장 개봉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써 검사대상화물의 품종, 규격, 수량, 중량, 원산지, 상태 등을 신고서류내역과 대조, 확인
- 주로 화물의 포장, 마크 등에 대한 검사로서 화물의 겉면포장의 개폐 여부, 파손흔적 및 기타 음란성 문자 혹은 그림의 유무 등을 확인
- 수출입화물의 검사종료 후 세관 담당 자는 '해관수출입화물 검사기록' 1부를 작성하며, 주로 검사 시간, 장소 및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의 명칭, 화물상황, 검사종료 후 화물의 운송포장상황(운송수단 명칭, 컨테이너 번호 및 규격, SEAL NO. 등), 화물의 명칭, 규격, 원산지, 품질, 수(중)량, 상태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조립품, 부품 등) 및 기타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화물의 유실 및 그 원인, 견본품의 인출 등 내역 외 세관의 검사결과를 기재
- 화물검사기록부는 수출입화물의 세관검사 시 작성 필수 작업서류로서 수출입화물의 현장검사 증명서류인 동시에 세관과 화물의 송수화인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증명서류이며 검사기록부는 세관의 관세징수, 통계, 사후관리 및 '수출입화물증명서'의 발행근거이며 밀수 등 위법 안건 조사 및 납세분쟁 처리의 증거가 됨.

○ 세관검사는 통관수속의 중요 절차이므로 통관원은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검사한다.

- 세관검사 현장에서 화물의 운반 혹은 개폐 작업을 책임짐.
- 세관담당자의 제출문제에 답변하거나 필요서류를 제공
- 화주가 세관감독지역 외 장소에서의 검사 요청 시 사전에 세관에 신고
- 세관검사 과정에서 화물의 손해가 발생하면 검사세관에 배상요구 및 관련 수속을 진행
- 사전에 수출입화물에 대해 이해하고 신고자료가 불명확하거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은 조회 혹은 지적

'해관법' 제94조 규정에 근거 검사과정에서 수출입화물의 손해가 발생하면 검사세관은 반드시 실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세관의 배상범위는 수출입화물의 검사 시 세관검사 담당자로 인해 야기된 피검사 화물의 손해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손실액이다. 배상금액은 손상된 화물, 물품 및 부품의 손해 정도 혹은 수리비용에 따라 확정하며 필요 시 공증기관이 제출한 감정증명에 따라 확정한다.

세관검사과정에서 발생된 화물, 물품의 손해원인은 여러 가지로 세관 측의 직접원인, 송수화인 측의 직접원인 혹은 세관, 송수화인과 관계 없는 객관원인일 수 있다. 세관의 배상범위는 세관의 직접원인으로 인한 화물, 물품의 손해부분에 제한되며 세관의 합법적인 행정행위 및 세관인원의 직권행사와 관계없는 개인행위 혹은 송수화인의 착오로 발생한 손해 등은 세관의 배상범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세관의 배상제외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의 운반, 포장 개폐 혹은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손해

- 부식 및 실효성 화물, 물품이 세관의 정상업무 소요시간 내(압류, 대리보관기간 포함)에 발생한 변질 혹은 효력상실
- 세관의 정상검사로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
- 세관의 검사 전 혹은 검사 후 발생한 손상
- 불가항력 원인으로 발생한 화물, 물품의 손해 혹은 손실

세관담당자의 화물, 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세관담당자는 ‘중화인민 공화국 해관 화물, 물품검사 손해보고서’2부를 작성, 세관담당자와 화주가 각각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만일 화주가 현장에 없는 상황에서 세관담당자가 검사, 재검사 혹은 견본 품의 인출 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세관담당자는 현장에 있는 화물, 물품의 보관인이 ‘손해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하며 화주에게 통보한다.

화주는 “손해보고서” 접수 후 손해와 관련해 세관과 협의하며 필요 시 공증기관의 감정증명에 의해 손해 정도를 확정한다. 최종 세관이 심사 확정된 화물의 세후 가격을 계산기준으로 실제 배상액을 확정한다. 세관의 배상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이 배상금액을 판정한다.

배상금액을 화물의 수리비용에 근거해 계산하는 경우 손해화물, 물품의 실제 수리비용에 따라 배상금액을 확정하며 세관은 ‘손해화물, 물품의 배상통지서’를 발행한다. 화주는 ‘통지서’ 접수 후 3개월 내 세관에서 직접 배상금을 수령하거나 은행계좌를 통해 이체할 수도 있다. 3개월 기한이 지나면 세관은 배상하지 않으며 배상금은 위안화로 지급한다.

○ 수출입화물의 이전통관: 이전통관은 개항의 수출입화물의 분산운송을 촉진하고 송수화인의 세관수속 편의를 위해 세관감독화물을 기타 세관지역으로 운송하여 수출입 통관수속을 진행하는 통관 방식으로 이전통관 하는 화물은 아래의 3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 중국 내 입경 후 세관설치 지역으로 운반, 수입 통관수속을 받는 화물
- 출발지 세관에서 수출통관 후 출항지역 세관으로 운송되어 통과하는 화물
- 중국 내 어느 한 세관지역에서 다른 세관지역으로 운송되어 세관감독을 받는 화물

○ 중국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이전 통관화물 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하여 입항지역 세관의 실제감독 대상이 아닌 이전통관 화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각 항을 만족시키는 경우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은 입항지역(출항지역) 세관에 이전통관을 신고할 수 있다.

- 도착지 혹은 출발지에 세관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이전통관 화물의 운송수단 및 그 장비는 밀폐 및 봉인 가능할 것
- 이전통관 화물의 운송업체는 세관등록을 거쳐야 함.

○ 아래의 특수화물의 경우 세관의 비준을 거쳐 이전통관을 신고할 수 있다.

- 국가의 중점프로젝트건설에 필요한 지급물자
- 국가의 농업생산건설에 필요한 지급물자
- 플랜트, 정밀계측기기 및 포장개봉 후 장거리운송이 적합하지 않은 화물
- 재난구호용 물자
- 기타 특수상황

○ 소형승용차의 이전통관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컨테이너방식의 운송
- 철도방식의 운송
- 전문 운송수단을 통한 운송

○ 이전통관 화물의 운송차량은 하기 아래의 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 차체와 연결된 적재함의 전부(혹은 일부)가 밀봉상태 유지
- 차체와 적재함 간 은폐공간이 없어야 함.
-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 세관검사에 편리해야 함.
- 세관 검사 승인을 받은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한 교환, 갱신, 개·보수 혹은 수리 시 세관 사전신고 및 사후검사를 거쳐야 함

○ 중국세관 규정에 근거, 이전통관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송업체는 사전에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내역은 업체, 운송수단, 운전자 등이며 해당하는 담보물 혹은 담보 증서를 제공하고 세관의 요구 시 담보금을 납부한다. 세관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영업허가증 부분 혹은 사본
- 교통관리부문의 운송수단 운행증 사본
- 운전사의 운전면허증 사본(선박제외)
- '이전통관 화물운송 자동차 신청서' 혹은 '이전통관 화물운송 자동차 신청서'

○ 세관은 제출서류의 심사확인 후 '이전통관화물 운송등기증서'를 발급하며 운전사는 세관의 연수과정을 통과한 후 비준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 이전통관 화물의 통관절차

- 수입화물의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은 운송수단의 입항 신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입항지 세관에 이전통관을 신고 - 신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이전통관 화물운송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함)를 작성한 후 세관의 전산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 3부를 발급.

- 신고인은 세관에 신고서 및 '이전통관 수입화물 연계서'(도착지 세관 발행), 기타 관련서류(B/L, 송장, 운송서류 등)를 제출
- 수입허가증 관리품목은 신고인이 사전에 도착지 세관에 수입허가증을 제출하면 도착지 세관은 '이전통관 수입화물 연계서'를 작성, 밀봉하여 신고인에게 반환

- 입항지 세관은 제출서류를 심사확인 후 밀봉하여 신고인에게 반환
- 신고인은 세관의 지정경로에 따라 규정기한 내 수입화물을 도착지 세관에 운송하며 도착일부터 14일 내에 통관 및 납세수속을 신고
- 도착지 세관은 통관수속 종료 후 입항지역 세관에 회답서를 송부

- 홍콩, 마카오를 왕래하는 수입차량의 적재화물은 차량운전사가 입항지 세관에 '적하 목록' 3부 및 기타 운송서류를 제출하며 입항지 세관은 심사확인 후 밀봉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반환하고, 도착지 세관은 밀봉서류에 의해 운송차량 및 적재화물의 통관 수속을 처리

- 보세창고 간의 화물 이전통관은 정상적인 입출 신고 외에 상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고서 작성 시 도착지란에 보세 창고명을 기입
- 항공운수화물은 도착지와 운송서류상의 목적지가 동일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은 운송서류에 "세관감독화물인"을 찍는다. 목적지가 다른 경우 상기 통관수속 진행

○ 수출용 이전통관 운송화물

- 수출화물의 송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은 화물의 출항지 세관에 이전 통관 신고를 진행
- 신고인은 '이전통관 수출운송화물 신고서'(이하 이전운송 신고서라 함) 및 '수출화물 신고서'(이하 수출화물 신고서라 함)를 작성한 후 세관의 전산등록시스템을 통해 각각 3부를 출력

- 신고인은 이전운송 신고서, 수출화물 신고서 및 관련 운송서류에 의해 수출통관 및 납세 수속을 진행
- 출발지 세관은 통관 및 납세수속 종료 후 '이전통관 수출화물 연계서'를 밀봉서류로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반환
- 출항지 세관은 밀봉서류에 의해 화물을 통과시킨 후 출발지 세관에 회답서를 송부

○ 세관의 감독사항

- 수입화물은 반입되어 세관수속이 끝날 때까지, 수출화물은 세관신고를 한 때로부터 반출할 때까지, 과경(過境)화물과 전운(轉運)화물 및 통운(通運)화물은 반입한 때부터 반출할 때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함.

- 보세통관 수입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입항지 세관에 통관수속을 신고하며 도착지 도착일로부터 14일 내에 수입수속을 신고하며 규정기한 초과 시 해관법(海關法)에 근거 체납금을 납부

- 보세통관 수입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도착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관법에 근거해 처분되며 처분소득액은 운송, 하역, 보관 등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납입됨.

- 이전통관 화물은 세관의 허가 없이 개봉, 재포장, 대체교환, 인출, 인도하지 못하며 세관이 운송수단 및 화물에 첨부한 봉인(세관이 허가한 상업용 봉인 포함)을 임의로 뜯거나 훼손하지 못하며 이전통관화물은 세관의 지정창고 및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관리인은 세관 규정에 따라 화물의 입출고수속을 처리

- 이전통관화물을 압류, 운송하는 경우 신고인(혹은 운송인)은 세관에 규정 비용을 납부하는 동시에 세관감독을 위한 업무조건을 제공하며 이전통관화물이 국내운송과정에서 훼손, 결손,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 신고인(운송인, 보세창고관리인)은 세관에 신고하며 불가항력 요인 외 기타 원인으로 인한 손실은 해당부분의 세금납부 책임을 짐.

○ 수출입화물의 통과(放行)

- 통과(放行)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의 현장감독방식으로, 통관절차의 마지막 단계임.
- 해관법(海關法) 제29조 규정에 근거, 세관의 특별허가를 득한 기타 경우는 납세완료(혹은 담보 제공) 후 통과(放行) 직인을 찍음.
- 통과(放行)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서류심사, 화물검사, 관세(비용) 징수 등의 확인 후 세관의 현장감독을 종료하는 단계로서 세관은 신고서류에 통과인(放行章)을 찍어 화물을 통과시킴 (통과는 통상적으로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의 현장감독 업무의 종료를 의미하나 특수 무역방식의 경우는 다소 상이).

○ 통과장(放行章): 일반적으로 신고인의 서류제출 및 관세납부 후 세관이 신고서류에 통과장(放行章)을 찍어 화물을 통과시킨다.

○ 수(출)입 화물 증명서 발급

- 수(출)입 화물 증명서는 세관감독 화물의 실제 수입 혹은 수출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서 화물의 소유자 혹은 그 통관원의 요청에 의해 통관수속 종료 후 발행

- 세관은 서류위조를 통한 밀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증명서'에 위조방지 표시가 있는 수(출)입화물증명서를 발급하며 1부당 10위안의 수속비를 징수

○ 수출환급 통관단 발급

- 환급 관련 수출화물의 통관신고 시 신고인은 '수출환급 통관단'을 작성
- 세관은 통과(放行) 결정 후 통관단에 검사완료인, 세무기관 등록표시를 하고 수출환급 담당자의 인감 심사 및 위조방지 표시 부착 후 반환하면 신고인은 이를 세무기관에 제출
- 고액 관세용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이 밀봉서류로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돌려주면 신고인은 이를 환급지 세무기관에 제출

○ 수입외화결제, 수출외화영수 수출입화물 통관단 발급: 세관은 수출외화영수와 수입외화결제용 수출입 화물 통관단에 대하여 해관은 통과종료 후 통관단에 검사필인, 위조방지 표시(우측상단)를 부착한 후 신고인에게 반환한다. 신고인은 이를 가지고 수출입 관련 등록말소 수속을 진행한다.

○ 수출화물의 취하

- 통관취하는 수출신고화물이 통과수속 후 특별한 이유로 선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인이 반송을 신고하여 수출하지 않는 것을 말함.
- 통관반송화물은 반송일로부터 3일 내에 세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감독지역에서 반출·운송
- 수출세금 기납부 화물은 납세일로부터 1년 내 서면신고서 및 납세영수증에 의해 세관에 반환을 요청
- 세관의 통과수속 후 운송수단의 선적배치 등 원인으로 수출화물의 전부 혹은 부분이 선적되지 못하면 신고인은 '수출화물 통관단 변경 신청서'를 작성
- 화물 전부가 선적하지 못한 경우 세관의 승인을 거쳐 우선 통관반송으로 처리한 후 다시 수출통관수속을 밟으며, 부분화물의 경우는 신고화물 전부를 통관반송으로 처리한 후 다시 실제 수출화물에 대해 통관수속 진행

6) 수출입 담보

○ 수출입 담보의 내용: 수출입 담보는 수출입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 조직이 특수 수출입무역 혹은 세관 사무 등의 실행을 위해 세관에 현금, 담보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행위의 합법성 혹은 일정기간 내 약정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 수출입 담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약정의무의 이행: 신고인은 규정기간 내에 세관수속 보완 등 약정의무를 이행해야 함.
- 예를 들어 수입통관과정에서 수입화물의 송장을 제출하지 못하면 우선 해당액의 담보제공 후 화물을 인출하나 반드시 규정기한 내에 송장을 보완해야 함.
- 법적 제재: 신고인이 담보 관련 약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세관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동시에 일정한 법률적 책임을 추궁
- 예를 들어 신고인의 감면세 수속 신고 과정에서 수입화물이 개항지에 도착하여 지급 인출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세금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한 후 우선으로 통관할 수 있음.
- 단, 규정기한에 감면세 수속을 완료하지 못하면 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세관은 통상 보증금 공제 방법을 채택함.

○ 수출입 담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화물의 종류 및 가격의 확정, 각종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세관수속의 종료 전에 화물을 통관하는 경우 등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화물의 종류 및 가격이 불명확하여 통관수속이 지체된 상황에서 신고인이 화물의 통과를 신청한 경우
- 통관 수속 시 관련 증빙서류(송장, 계약서, P/L 등)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입 화물의 지급 반입 혹은 수출화물의 지급 반출이 필요한 경우
- 화물의 감면세 수속 과정에서 화물이 이미 개항지에 도착하여 지급 반입 혹은 지급 선적이 필요한 경우
- 화물의 신고인이 관세의 추후납부를 신고한 경우
- 임시 수출입화물(ATA Carnet(까르네 제도) 관련 화물 포함)
- 통과하지 못한 화물을 임시로 세관감독 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 가공무역방식의 보세수입화물
- 위법혐의가 있는 수출입화물(혹은 물품)의 통과

단, 국가 법률·법규의 별도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수출입관리 법률, 법규가 담보 관련 별도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관의 담보제도를 적용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납세의무 수출입화물을 규정기간 내 이전 혹은 은폐하는 경우
- 지적재산권 침해혐의의 수출입화물 압류 혹은 통과
- 수입화물의 덤핑(혹은 보조금)이 임시 판정으로 대외경제무역부문이 동종 제품의 수입 관련 담보제공을 요구한 경우
- 위법혐의가 있으나 몰수하지 않은 수출입화물
- 중국 내 영구거주지가 없는 세관의 행정처벌 대상자가 처벌에 불복하거나 출국 전 벌금 혹은 위법소득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 담보인의 자격 및 담보책임: 해관법은 담보인에 대해 “세관의 담보의무 이행능력을 구비한 모든 법인, 조직, 개인은 담보인 자격이 있음. 단 법률규정에 근거 담보인 자격을 취소당한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인의 담보의무 이행능력은 주로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재산소유 및 민사행위능력에서 나타난다.

○ 담보인은 다음과 같은 담보책임은 진다.

- 해관법에 근거 담보인은 규정기간 내 담보책임을 이행해야 함.
- 담보책임: 담보인의 담보책임은 주로 피담보인이 규정기한 내에 모든 세관수속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담보책임 범위에 담보뿐 아니라 이자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담보기한: 담보인의 담보책임의 시작 및 종료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며 규정기간 내에 담보책임을 이행하면 피담보인의 세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담보인의 담보책임은 종료됨.
- 담보기한은 동일기준이 없으며 담보범위별 세관규정에 따라 별도 제정
- 담보책임의 해제: 피담보인이 규정기한 내에 증빙서류의 보완 및 관세 혹은 벌금을 추가납부 한 경우 담보책임은 해제되며 세관은 안건철폐 및 보증금을 반환

○ 수출입 담보 방식

- 위안화, 자유태환화폐: 위안화는 중국의 법정화폐로서 중국 내 모든 공적(혹은 사적)채무의 지급수단이며 이 외에 자유태환화폐도 국가외환관리국의 대외공시 국제지불수단으로서 통상 외화 현금을 가리킴.

- 어음, 수표, 채권, 예금증서: 담보의 지급형태는 통상 어음, 수표, 채권, 예금증서 등이며 이 외에 외화지급증서, 외화유가증권 등도 포함됨.

- 은행 혹은 비(非)은행금융기구가 제시한 보증서

- 보증서는 보증인의 신용 및 무형자산을 근거로 채무 관련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상 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구가 발행

- 단 '중국인민은행법(中國人民銀行法)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으로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함.

- ATA Carnet(까르네) 관련 임시 수출입 화물(전시품 등)은 국가의 ATA공약 담보기구를 담보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기타 재산 혹은 권리: 상기 담보물 외 기타 세관의 인가를 취득한 재산 혹은 권리를 가리킴.

○ 세관의 담보관련 업무집행: 해관법에 대응하는 세관의 담보관련 실시방법의 미제정으로 현재 중국세관은 '수출입화물 담보신청 관리방법'을 그 법률 근거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음.

○ 보증금: '수출입화물담보신청 관리방법'에 근거 보증금은 현금방식의 담보이며 담보액은 관세 및 기타 비용의 합계와 같으며 보증금 방식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음.

- 감면세 수속 과정의 수입화물 통과

- 담보방식의 미확정 상태에서 신용도가 낮은 통관업체 혹은 민감성 제품

- 담보인이 보증금 담보를 자원 신청

○ 보증서: 보증금방식 외의 모든 경우에 보증서 방식이 적용되나 그 보증인자격이 규정요구에 부합 필수

○ 담보절차

- 세관의 담보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화물은 담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상황에 따라 담보방식을 확정

- 보증금방식의 경우 담보인은 관세액 및 기타 비용의 해당액을 납부한 후 '해관보증금 영수증'을 수령

- 보증서 방식의 경우 세관의 규정 양식에 따라 2부의 보증서를 작성하며 세관과 담보인이 각각 1부씩 보관

○ 담보기한: 일반 수출입화물의 담보기한은 통상 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특수상황 발생 시 담보 기한 내 세관에 연기신청을 하여 비준을 받을 수 있다. 임시 수출입화물은 통상 화물의 수입일로부터 6개월이다.

○ 담보의 철폐: 담보인은 담보기한의 만료 후 '보증금 영수증' 혹은 보증서에 의해 세관에 담보철폐를 신고할 수 있다. 담보인의 약정의 무이행을 확인한 후 세관은 보증금 반환 혹은 보증서 철폐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 담보인의 법률책임:

- 담보기한 내에 담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책임을 추궁

· 관세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동시에 통관신고업체가 수출입수속을 보완하도록 하며 해당벌금을 요구

- 담보인의 납세의무를 추궁하며 은행통보 및 벌금을 징수

- 통관업체의 통관자격을 잠정 중지 혹은 철폐

2) 전시품(샘플 등 포함) 통관 및 관세제도

○ 전시회를 위한 샘플 수입 및 반출의 현지 수속: 전시품은 세관의 동의를 거친 후 임시수입화물로 지정되고 수입허가증의 취득,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의 납부가 면제된다. 전시품에 중국 법률, 법규가 규정한 수입규제품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전시회의 주최기관은 검역(檢疫) 혹은 허가신청 수속을 거쳐야 하며 수입전시품은 입국일로부터 반출까지 세관의 감독관리가 따른다. 수입전시품에는 다음과 같은 품목이 해당된다.

- 전시회, 교역회(交易會), 회의 및 유사 활동에 전시용 또는 홍보용 화물
- 홍보, 전시를 위한 기계의 사용에 필요한 물품
- 출전자가 임시용 전시대를 설치하면서 필요한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자재
- 전시품의 홍보에 사용되는 영화,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설명서, 광고 등

ATA 까르네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화물은 ATA 까르네에서 규정된 화물에만 제한된다.

○ 통관수속: 전시품의 통관은 수입과 반출로 구분되고 소유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대리인이 진행하는데 그 통관 절차는 1) 해관에 전시품 수입검역 신청, 2) 출입국 검사검역국에 검사, 3) 수입허가, 4) 전시품 수입 통관 신청 등이다. 해관 심사에서 통과되면 통관이 완료된다. 전시품은 수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는데 반출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주관 해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해외기관이 중국에서 주최하는 전시회의 전시품수입통관: 전시회 주최기간은 사전에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에 관련 부처로부터 받은 허가증을 제출한다. 주최기관 또는 주최기관의 위탁을 받은 운송기관의 대표자만이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세관은 출전자의 신청을 별도로 접수하지 않는다. 수입전시품의 통관수속은 다음과 같다. 주최기관은 통관, 운송대리업체와 전시품 수입 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등록수속을 거쳐야 한다.

- 국가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전시회의 개최허가증
- 주최기관의 등록서
- 주최기관의 등록신청서
- 통관, 운송대리 위탁서
- 세관이 인정하는 담보, 즉 세금액과 상당한 보증금,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보증서, 세관이 인정하는 기타 방식의 보증 등
-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수입 전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에 전시품 리스트(2부)를 제출한다. 리스트에는 전시품의 명칭, 규격, 수량, 컨테이너 번호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순서에 따라 번호를 입력하고 책자로 묶어야 하며 영문 자료는 중국어로 번역하여야 한다. ATA 까르네에 따른 전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화물 통관서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수입세 및 보증금의 제공을 면제한다. 그러나 그 전시품이 중국 법령, 법규가 규정한 수출입규제화물일 경우, 관련 수속, 즉 검사 또는 허가취득의 수속을 거쳐야 한다. 예컨대, 상품검역, 약품검역, 동식물 검역, 안테나 관리의 대상으로 되는 전시품의 수입에는 수입수속을 진행하는 세관에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이 발급한 공고서, 화물운송장, 컨테이너 리스트를 제출하고 통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세관의 감독관리에 전시회 개최지에 운송된다.

○ 전시품 반출: 전시회 종료 후, 개최지의 세관에서 전시품 수취 수속을 거친다. 전시회의 주최기관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관련 수취 리스트와 운송장을 제출하고 전시품의 반출을 신청한다.

- 전시회 기간 내에 상품이 판매될 경우: 주최기관 또는 그 대행업체는 세관에 중국 대외무역관리부서가 발행하는 허가증을 제출하고 세관에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
- 전시품 소유자가 증정을 결정하였을 경우: 세관이 허가는 물품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이 처리
- 전시품이 파손, 분실, 도난 등 이유로 반출할 수 없을 경우: 전시회의 주최기관 또는 대행업체는 조속히 세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수속을 진행하는 데 세관은 파손 정도에 따라 파손된 전시품의 견적을 낸다. 분실 또는 도난된 전시품은 동 종류의 제품 수입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불가항력의 이유로 파손된 경우, 세관은 파손상황에 따라 세금을 감면한다.
- 일시적 수출입 화물(전시품)이 불가항력적 원인에 따라 손상되고 원상복구 하여 수출할 수 없을 경우 ATA 까르네 소유자 또는 ATA

까르네 이외의 일시적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 혹은 송하인은 신속히 세관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기초하여 반출 수속을 할 수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원인으로 파손되었거나 사용가치를 잃었을 경우 세관에서 확인 후 해당 화물은 반출 품목으로 취급

○ 관세규정: 전시회의 개최를 위하여 수입하고 반출하지 않은 모든 화물, 물품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단 다음과 같은 화물, 물품에 대하여 세관은 전시회의 성격, 전시자의 규모, 참관자 인원수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수량 및 총액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 수입관세 면제 대상:

- 전시 과정에서 외국 화물을 대표로 하는 작은 샘플(수입품 또는 전시 기간에 수입 원자재로 만든 식품 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는 음료)

- 출전자가 출전 기간에 참관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개인 용품 또는 개인 소비품

- 저가의 광고 샘플 용품

- 상업용이 아니며 1인당 용량이 기존 제품의 포장 용량보다 확연하게 작은 물품

○ 전시회에서 보세(保稅) 전시품을 현지에 판매하는 경우: 일시적 수출입화물은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화물취급자는 화물수입 후 30일 내에 세관에 신청하고 허가 후 세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수속을 진행한다. 보세전시품을 판매할 경우, 일반 수입 전시품으로 변경한 다음 세관의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진행한다. 전시회 주최기관은 조속히 일반 수입 전시품으로 변경하고 출전자 또는 그 대행업체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전자가 전시회 종료 후 전시품을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수속을 거칠 필요가 있다.

- 중국 무역회사 또는 수출입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판매할 경우, 구입자가 세관에서 수입수속을 진행

- 출전국의 주중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관에게 판매 또는 기증할 경우 대사관, 영사관이 세관에 수입 수속을 진행

- 중국 혹은 외국 기관 또는 개인에게 판매할 경우 전시회 주최자가 수입절차를 진행

전시품 판매의 수입수속은 수입허가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수속을 거치며 세금을 납부한다. 상기 수입수속 종료되면 세관이 전시품 판매를 허가한 것이다. 전시품을 증정품 또는 샘플로 기증할 경우, 전시회 주최기관은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에 품목명, 수량, 가격, 기증대상을 상세히 기재하고 전시품 기증확인서를 제출한다. 전시품의 수령자가 세관에 수입수속을 밟는다. 세관은 증정품 혹은 샘플의 수입관리규정에 따라 납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수입전시품에 대한 특별 규정: 전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전시회 주최기관 또는 대리인은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식품류 등 상품은 검역, 통관수속에 비교적 장기간 소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시품은 정규 루트에서 신청한다. 화물이 세관에 차압 되면 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화물로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수입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액 물품 통관: 중국에서는 소액 물품에 대해 면세규정을 적용한다. 1) 관세액 50위안 이하 화물, 2) 상품가치 책정할 수 없는 홍보물과 샘플, 3) 중국 해관총서에서 규정한 수량 이내의 개인사용 목적의 수입물품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개인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화물로서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화물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고 “개인 사용 수량 제한”을 초과할 경우 별도 수입세가 부과된다. 홍콩/마카오발 개인용 우편물은 그 가치가 800위안, 기타 해외지역은 1,000위안으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 개인 물품 사용량 제한 초과 시 부과되는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서적, 신문/잡지, 교육용 동영상, 컴퓨터, 촬영기기,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제품, 식품, 음료, 귀금속, 완구, 게임, 오락제품, 약품 등: 13%

- 스포츠용품(골프용품 제외), 낚시도구, 섬유제품, TV 촬영기기, 자전거 등: 20%

- 담배, 주류, 주얼리, 골프용품, 고급 시계, 고급 화장품: 50%

통관 시 유의사항

1) 수입 냉동식품에 대한 검역 강화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당국은 수입식품, 특히 수입 냉동식품에 대한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베이징은 2022년 4월 1일부 베이징으로 진입하는 수입 콜드체인 식품은 △베이징 진입 시 '베이징 콜드체인' 시스템(北京冷, PC 사이트 또는 모바일 위챗 샤오청쉬(=미니앱, 小程序))에서 사전 예약, △ 베이징 진입 전 검문소(口站)에서 사전 검사(현재 26개 검문소 지정), △ 베이징 진입 후 첫 번째 경유 검사소(首站中)에서 검사 등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수입 콜드체인 식품은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다. 베이징 뿐만 아니라 중국 내 다수의 지방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발생 사례가 수입 냉동식품과 관련된 것으로 여러 차례 언급하며 콜드체인 물류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냉동·냉장 육류와 수산물 등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추적시스템 구축 및 검역 강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바 관련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2) 라벨링

라벨링 문제는 우리나라 식품 및 화장품 품목의 대중 수입불허의 3대 사유 중 하나인 만큼 그 규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품목에 따라 중문 라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기도 하다. 중국은 '제품 품질법' 등 규정에 의거, 모든 수입상품에 중문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번역한 중국어 명칭은 아래와 같은 요구가 있다.

- ① 제품 내용과 반드시 일치
- ② 번역한 중국어 명칭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오해할 여지를 줘서는 안 됨
- ③ 번역한 중국어 명칭에 타 브랜드와 같은 또는 비슷한 중국어 명칭을 사용하여 타 브랜드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라벨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대리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 등록 정보(제조사 명칭) 및 소재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제품품질검사합격증명서의 관련 정보 게재도 의무화했고 강제성 국가표준, 업종기준 및 지방표준의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 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부합됨'을 명시해야 한다.

한편, 제품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

- ① 제조 일자 와 안전사용기한을 모두 표시하는 방법과 유통기한만 표시하는 방법(제조 일자, 보존기한, 제품품질보증기한 등 표시 없음) 등 2가지 방법이 있다.
- ② 규격, 등급, 수량, 용량, 주요 성분(제품 특징 및 사용요구에 기초하여)
- ③ 경고마크 및 설명(부적절한 사용, 제품 파손이 있을 경우, 또는 인체 건강 및 심신과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일 경우)
- ④ 설치, 보수유지, 사용법 설명(성능, 구조 및 사용방법이 복잡하고 설치 및 사용이 어려운 제품)
- ⑤ 제품인증마크(강제제품인증실시제품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일 경우)

아래 제품은 다음과 같은 요구가 있다.

○ 화장품

- 제품명칭, 제조업체 명칭, 제조국, 제조업체 소재지, 용량, 로트번호, 사용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수입화장품인증/등록번호, 중국 측 책임 담당자(수입업체 또는 판매업체) 명칭 및 주소 등을 중문 라벨에 명시해야 한다. 라벨에 화장품 효능을 홍보하려면 과학적 입증 자료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효능·효과 홍보평가규범'(化妆品功效宣价范)에 따라 NMPA가 지정한 사이트에 인증·등록한 화장품의 효능 개요를 업로드를 의무화했다. 규범 시행 전인 2021년 5월 1일 화장품 인증·등록 절차를 마친 제품은 2년 내, 즉 2023년 5월 1일 전 화장품 효능 개요 업로드를 마쳐야 하며 2021년 5월 1일~12월 31일 사이 화장품 인증을 취득했거나 등록절차를 마친 경우 2022년 5월 1일까지 개요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한 화장품 효능에 대해 과학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허위, 과대광고로 판정될 수 있다.

○ 약품

- 약품 라벨은 내부라벨과 외부라벨로 구분되어 있다. 약품 내부라벨이란 약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라벨을, 외부라벨은 내부라벨 이외의 포장라벨을 의미한다. 약품 내부포장 사이즈가 지나치게 작을 경우, 내부라벨에는 약품 명칭, 규격, 제품 로트번호, 유통기한 등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만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다면 상기 4개 항목 내용 이외에도 적용증상 또는 주요 효능, 용법·용량, 제조 일자, 제조 기업 등 내용도 게재해야 한다. 약품의 외부라벨에는 약품 명칭, 성분, 성상, 적용증상 또는 주요 효능, 규격, 용법·용량, 불량반응, 금기사항, 주의사항, 저장, 제조 일자, 제품 로트번호, 유효기간, 허가증 번호, 제조기업 등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식품

- 식품 라벨에는 식품명칭, 원산지 및 대리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의 등록된 명칭, 소재지, 제조 일자, 품질보증 기간, 보존조건, 내용량, 규격, 성분 또는 배합표, 첨가제의 국가표준 중 명칭, 법규 또는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생산한 식품은 내외부 라벨에 해외생산업체 등록 번호(‘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제도’ 참고) 를 표시해야 한다.

○ 허가증 제도에 적용되는 공업제품(상세한 내용은 ‘생산허가증제도를 실시하는 공업제품목록을 참고하기 바람)

- 위탁가공생산의 경우, 기업은 제품 또는 그 포장, 설명서에 위탁기업의 명칭, 주소 및 위탁수주기업의 명칭, 주소, 생산허가증 표식과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만일 위탁기업이 위탁가공을 실시하는 제품의 생산허가증을 구비한 경우, 위탁기업의 생산허가증표식과 번호도 표시해야 한다.

상기 내용들은 모두 중국어(간체)로 작성해야 하며 중국어 피인(音) 또는 외국어 알파벳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중국어 피인 또는 외국어는 중국어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제품표시로 사용하는 한자, 숫자 및 알파벳 폰트 크기는 1.8mm 이상이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수입품 포장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사태가 빈발하자 당국은 방역관리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입산 냉동/냉장 식품 추적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통 경로 등록을 의무화했다. 특히 분유, 냉동/냉장 육류와 수산물, 화장품 등 중국 소비자의 해외소비수요가 많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제품은 수입상품 추적시스템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운송현황

도로, 철도, 수운과 항공 등 운송형태별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 도로

- 규모가 작고 네트워크의 정비 미흡
- 도시 내부로의 진입 제한조치가 많음
- 쉼 간 운송 라이선스 제도 존재 및 통행료 징수체제 불투명
- 수송 도중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한 대응조치 부족
- 고품질의 운송에 필요한 하드웨어 부족(노후차량 과다 등)

○ 철도

- 화물수송 운행표의 비공개
- 화물예약 마감 시간이 촉박하고, 성수기에는 운송 능력 미비로 예약이 어려움
- 생산재 운송이 우선이며 소비재는 후순위
- 서비스 품질의 불안정
- 철도연계 운송업 미발달

○ 수운

- 창장(長江)의 자연, 기상조건에 따라 기항 일정과 이용 선박형태가 유동적
- 창장 유역항의 하역이 수위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효율적
- 선박, 항해 기술이 전체적으로 낙후
- 선박회사의 평균 수송량은 1만 톤 이하로, 리스크 부담 능력 떨어짐

○ 항공

- 항공사와 공항 간 제휴, 협력 관계 약함
- 공간적 제약

다.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베이징 레인보우(瑞博) 물류

주소	北京市密云新南路110鼓街道事公231室-226
전화번호	+86-186-1841-6909
이메일	rbl_cn@163.com

○ 청도금문국제화운대리유한공사

주소	山省市城元路空港工特物流有限公司裁3
전화번호	+86-532-8386-3081
이메일	ceo@qdgoldengate.com

<자료원 : KOTRA 베이징 무역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법 및 실시조례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외국인투자법(外商投資法)’ 및 실시조례가 2020년 1월 1일 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외국인투자법은 총 6개 장, 4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유지하면서 ‘내국민대우 + 네거티브 리스트’관리제도를 확립한 것이 외국인투자법의 특징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심사허가+우대정책’ 위주였다면 외국인투자법에서는 ‘내·외자 동등 대우 원칙’을 강조했고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산업은 모두 투자가 가능하도록 원칙을 확립했다.

또 외자기업 지재권 보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재권 보호 및 강제기술이전 금지, 지재권 침해 시 법적 책임 추궁 등을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 과정의 기술협력 조건은 투자 각방이 공평한 원칙에 따라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행정 기관이나 관계자가 행정수단 활용한 강제기술 이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 약속 이행 강화, 수용 금지 및 수용 시 합리적 보상 지급, 외자기업 금융거래 자율권 보장과 외국인기업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등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리보장을 강조했다.

중국은 개혁개방초기부터 40년간 외국인투자 기업유형에 따라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외자기업법”을 적용해왔다.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인 외자 3법은 폐지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은 ‘회사법’에 적용되었다.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이하 ‘조례’)는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제정한 가장 중요한 세부적 행정법규로서 모법과 같은 날 발효했다.

조례는 총 6장(제1장 총칙, 제2장 투자촉진, 제3장 투자보호, 제4장 투자관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49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내외자 동일 원칙 강조,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투명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법’ 세부화를 골자로 한다. 외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보호제도를 강화했으며 외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정책투명성 강화와 정책제정과정 참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률 이외에도 중국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 목록(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자유무역구(FTZ), 중/서부지역 등 특정 지역 외국인투자를 관리하는 “FTZ 네거티브리스트”, “중서부 외국인투자 우세산업목록” 등 행정규정이 있다.

투자인센티브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와 상무부는 2022년 10월 28일, 2022년판 ‘외국인투자산업장려목록’(鼓外商投目, 이하 ‘장려 목록’)을 발표하고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했다.

장려 목록은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이하 ‘전국 장려목록’)과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우대산업목록’(이하 ‘중서부 목록’), 2개 부분으로 나뉜다. 전국 장려목록은 전국 범위에서 적용되며, 중서부 지역은 해당지역에서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1) 2022년 판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장려목록

2022년판 '장려목록'에는 총 13개 산업, 519개 항목이 장려품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2020년판 대비 항목 수는 39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판에서 22개 항목을 삭제하고 61개 항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2022년판 '장려목록'개정은 스마트·녹색·4차산업 관련 제조업의 질적 발전과 서비스 분야 투자장려, 중국의 자립형 공급망 구축에 방점을 뒀다.

2) '중서부 외국인투자 우세산업 목록'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세산업 목록(이하 '중서부 목록')이란 경제발전수준이 낮은 중부, 서부지역으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우대정책을 제공하는 목록"이다. 중서부 목록에 해당될 경우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 목록' 중 장려류와 동등한 우대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서부 목록은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현황에 따라 별도로 해당 지역 진출기업에 면세 혜택 및 인허가 업무를 적극 지원하는 목록으로 중국 동북, 서북, 서남 중부 내륙지역과 하이난 등 22개 성(자치구 포함)에 적용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내륙 외자 유치 가이드라인이다. 2022년판 중서부 목록은 2020년판 755개 항목에서 955개 항목으로 항목 수를 200개 대폭 늘렸다. 2022년판 중서부 목록은 중서부 지역으로의 산업이전을 촉진하고 지방특색산업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 2022년판 중서부 목록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노동집약형 산업과 서비스업 분야 외자유치에 무게를 둔 점이다. 다수 지역의 목록에 '신발·모자·의류·완구·가방 개발과 생산'과 같은 첨단 산업이 아닌 노동집약형 산업 관련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관광, 요양, 교육 등 서비스업 항목도 신규 추가했다. 코로나 여파로 경기하방 압력이 커지고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중서부 지역의 외자유치 정책이 산업고도화, 내수확대, 일자리 늘리기를 동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서부 목록은 중국 외국인 투자 가이드라인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 장려형 목록에서 제외된 산업을 지정해 정책적 혜택을 주고 있다. 우대정책은 주로 ① 기업소득세 면/제 등 혜택, ② 투자총액 내 수입(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③ 중국산 설비 구매 시 증치세 환급, ④ 용지집약형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를 제공하되 토지양도가격은 '중국 공업용지 최저기준'의 70%로 토지사용비 징수 등이 포함된다.

제한 및 금지(업종)

○ 2024년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중국은 1995년부터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 이하 '목록')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 도입 가이드를 제시해왔다. 1995년 처음 공포된 이래 2024년까지 십여차례(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개정됐다.

2024년 9월 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24년 판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을 발표하고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네거티브 리스트'란 외국인 투자를 금지 혹은 제한 분야의 목록을 뜻하며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는 모두 외국인 투자 및 경영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리스트에 명시된 외국인투자 제한 및 금지분야 외에는 모두 개방 확대한다는 의미로 2017년 6월 중국은 처음으로 외국인투자 지도 목록에 포함된 네거티브 리스트(面)를, 2018년 6월 정식으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했다.

2024년 판 네거티브 리스트는 11개 영역, 29개 항목이 있으며 지분 제한 항목은 9개, 금지 항목은 20개로 집계된다.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철폐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개방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특별경제구역

중국 정부는 외자유치 확대, 선진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습득, 자국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외자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업발전에 대한 지원폭이 큰 특별경제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해왔다. 중국엔 200여 개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17개의 변경 경제합작구, 170여 개의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50개의 국가급 보세구, 63개의 수출가공구, 55개의 저탄소 공업단지, 19개 경제신구가 존재한다.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國家級經濟技術開發區)로 지정된 지역은 인프라를 완비하고 국제 수준에 부합되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이중 국가급은 최고 행정지도부인 국무원의 심의를 거쳐 건설한 것으로 인프라 수준이 높고 외자진입 규제 완화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변경경제 합작구는 중국 변경 개방도시의 변경무역과 가공수출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변경 개방은 중국 중서부 지역 대외 개방의 중요한 조치로, 1992년 이후 국무원에서는 17개의 변경경제 합작구를 비준하여 중국과 주변 국가(지역)의 경제무역과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소수민족지역의 경제번영을 실현하도록 유도하였다.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는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우대정책과 개혁을 통해 산업환경의 최적화를 실현하여 과학기술 성과를 생산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건립한 구역이다.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는 지식 집약과 개방을 기본조건으로 국내의 과학기술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외의 선진 과학기술, 자금, 관리 방법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세구는 중국 국무원이 비준한 국제무역과 보세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으로 다른 국가의 자유무역구와 유사하다. 보세구 내에서 외국인도 국제 무역, 보세 창고 보관, 가공수출 등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수출가공구(出口加工區)는 가공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공무역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가공무역을 분산형에서 집중형 관리로 전환시키며, 기업에 더욱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대외 수출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설립한 지역이다.

중국 국가급 신구는 국가의 발전과 개혁개방을 위한 전략적 임무를 담당하는 특구(特區)로, 주요 국가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우세하고 경제발전 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국무원에서 지정 설립한다. 이중 가장 유명한 곳은 당시 국가지도자들이 지정한 선전(덩샤오핑), 상하이 푸둥(장쩌민), 숭안(시진핑) 등이다.

2015년부터는 서비스무역과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업 혁신 시범구(도시)를 지정하여 세제혜택, 개방 확대 등 육성책을 펼치고 있다. 2015년 5월, 베이징시가 첫번째 “서비스업 개방확대 시범도시”로 지정되었다. 2016년 2월, 중국 정부는 15개 지역(10개 성시, 5개 국가급 신구)을 시범구로 2년간 지정하고 개방 확대, 편리성 제고, 세수 우대, 금융 서비스 등 조치를 적용했다. 시범기간 종료 후(18.5월) 베이징과 국가급 신구 1곳을 추가하여 17개 “서비스무역 혁신 발전 시범지역”을 지정했다.

2) 자유무역지대(자유무역구)

2013년 9월 상하이에 중국 첫 자유무역구가 등장한 후, 2020년 9월까지, 중국은 총 5차례에 걸쳐 21곳 자유무역구를 설립했다. 자유무역구(FTZ: Free Trade Zone)란 중국 정부가 비즈니스, 투자, 무역 환경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한 경제특별지대를 의미한다.

중국은 21곳 자유무역구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세금우대와 통관검역절차 간소화, 행정편의 등을 제공하며 FTZ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 [네거티브 리스트 (自由貿易試驗區外商投資進入特別管理措施(負面清單)*, 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FTZ 네거티브 리스트는 2021년 개정판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1곳 자유무역구에서 적용했다.

3) 자유무역항

2018년 FTZ로 공식 지정된 하이난성을 자유무역항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2020년 6월 1일, 중국 정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海南自由易港建方案)]을 발표하고 하이난을 선전 등의 경제특구보다 개방도가 높은 특별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국정부는 2025년까지 무역 자유화와 투자 자유화를 양대 축으로 한 자유무역항 체계를 기본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제시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2025년까지 수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계획으로 우선 일부 상품부터 '제로(0) 관세'를 적용한다. 이어 2035년까지 국내외 자금 이동, 출·입경, 물류 분야의 자유·편리화까지 이뤄내 자유무역항 운영 수준을 더욱 성숙시키고 2050년 무렵까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유무역항으로 키우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각각 내세웠다.

현대 서비스업, 하이테크 기술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이난 산업고도화를 위해 육성 대상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율 15%를 적용하고 관광업,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산업 등 중점 육성산업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2025년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이외에도 하이난 방문객에 대해 연간 면세한도를 기존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확대하고 면세구입상품 품목도 확대했다. ""

산업단지

◦ 한·중 후이저우(惠州) 산업협력단지

규모	약 80km ²
위치	중카이(仲)하이테크개발구
임차료	비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중카이(仲) 개발구 관리위 0752-3278827
비고	한국, 미국, 독일, 일본 등 10여 개국의 3천여 개 기업 입주 3대 한·중 산업단지 중 하나

◦ 칭다오 하이테크 산업단지

규모	5.6만 m ²
위치	칭다오 하이테크개발구
임차료	비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칭다오 하이테크개발구 관리위 0532-82020617

◦ 충칭 경제기술개발구

규모	약 90km ²
위치	충칭 강남신성
임차료	비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개발구 관리위 023-62900892

○ 한중 옌타이(烟台)산업단지

규모	32km ²
위치	옌타이하이테크개발구
임차료	비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옌타이하이테크개발구 관리처 0535-6891550
비고	3대 한중 산업단지 중 하나

○ 한중 옌청(城)산업단지

규모	50km ²
위치	옌청(城)경제기술개발구
임차료	비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개발구 관리처 0515-68820473
비고	3대 한중 산업단지 중 하나

<자료원 : 해당 지방정부 홈페이지>

주요 지역별 여건

○ 징진지(京津冀)

징진지(京津冀)는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의 통칭으로 수도 베이징과 중국 북방의 해운 허브 톈진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수도권을 의미한다.

베이징을 중심으로 자동차, IT, 전자, 의약, 기계 등 첨단산업과 서비스사업 및 소비시장이 발달했다. 또 베이징을 중심으로 방사선으로 전국에 걸쳐 도로-철도망이 구축되어 있고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수도권 지역 일체화 구상인 징진지 프로젝트가 국가전략 추진으로 수도권 교통인프라 구축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화동(華東)

8천만 인구, 중국 GDP의 21%를 차지하는 창장 하구의 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을 화동 경제권으로 일컫는다. 화동지역은 중국 최대 대외교역 중심이자, 소비액이 전국의 20%를 상회하는 최대 내수시장이며 중국 전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이다.

화동 경제권은 창장삼각주를 중심으로, 창장삼각주는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한다. 한편, 우리기업의 대중국 최대 투자지역인 장쑤성, 중국 전자상거래 중심지 저장성 모두 중국 동부연해의 대표적인 경제발달지역이다.

○ 화남(華南)

화이하(淮河) 이남, 일반적으로 광둥성, 하이난성(해남도)와 광시좡족자치구, 푸젠성을 포함하여 화남 경제권이라고 부른다. 화남 경제권은 주강 하구의 주강삼각주 일대 광둥성을 중심으로 한다.

광둥성은 장강 삼각주(상하이) 및 환발해만 경제권(베이징, 톈진)과 함께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3대 축의 하나로, 전국 최대의 경제규모를 자랑한다. 개혁개방의 선두지역이며 대외무역 규모는 중국 전체 대외무역규모의 1/4이상을 차지하는 등 38년 연속 중국 최대의 대외무역성(省)이다. 광둥성은 산업체계가 완비된 세계 공장으로서 100여 개 산업의 세계 최고수준 생산가공 및 조립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IT산업 제조기지로서 선전, 광저우, 동관, 후이저우, 포산, 중산 등을 중심으로 전자정보산업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신소재 및 광 전기 등 첨단기술이 급속도로 발전 중이다. 중국의 내수확대정책에 따라 광둥성은 글로벌 기업의 제조기지로서 중국 내수시장 개척의 중요 전진기

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서남(西南)

쓰촨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 서남경제권은 서부대개발, 일대일로, 청위(成, 쓰촨-충칭)경제권 등 권역별 발전 전략에 따라 급부상하고 있다.

8,000만 인구를 보유한 쓰촨성은 여전히 중국 서부지역의 최대 경제권이자 경제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청위 경제구(成:쓰촨-충칭)를 상하이(장강삼각주), 베이징(환발해), 광저우(주강삼각주)에 이은 제 4대 경제권으로 육성하고 있다.

쓰촨성의 성도(성정부 소재지)인 청두는 중국 서부 내륙지역의 금융, 교통, 신항산업의 중심허브로 육성돼 왔다. 청두에서 출발해 신장(新疆) 아라산(阿拉山),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를 지나 폴란드에 도착하는 총 길이는 9,826km의 고속철도 롱어우(蓉歐) 철도의 운영으로 쓰촨성 청두시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중심지로 급부상했다.

중국 4대 직할시 중에서 인구(3,000만 명)가 가장 많고 유일하게 서부 내륙에 위치한 충칭시는 서부시장 개척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창장 상류에 위치한 데다가 도로, 철도, 항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도 대대적으로 추진되어 서부 내륙지역의 중요한 교통허브이다. 중국 2014년 처음으로 독일의 뒤스부르크까지 운행한 위신오우(新)철도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독일까지 총 6개국을 통과했는데 이는 신(新)실크로드라고 불리고 있다.

○ 서북(西北)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이 국가전략으로 격상되면서 ‘신(新) 실크로드’ 연선지역인 중국의 서북지역이 각광받고 있다. 사막, 고원, 초원으로 이뤄진 유목민족의 거주지였던 서북지역은 최근 산시(陝西)성을 필두로 중국의 경제성장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산시성은 전자-정보 분야의 3대 기지와 4대 구역, 신에너지, 신소재 및 생물제약분야 3대 기지와 3대 구역을 건설하며 반도체, 자동차 등 전략적 신항산업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삼성 SDI, SK, LG 등 국내 대기업도 대거 진출해 있다.

한, 당나라 시기의 장안으로 불리던 산시성의 성회도시 시안은 역사, 문화, 자연환경의 지원을 바탕으로 관광업이 발달했다. 역사, 문화, 자연풍경으로 서북지역의 관광업 또한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개요 및 동향

중국은 1979년부터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며 외자유치 제도 정비에 나섰다.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를 두며 연안도시를 대외 개방하는 등 외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초기에는 합자, 차관, 합작, 또는 독자의 기업, 공동개발, 상업신용 등 형태로 외자유치가 이뤄졌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비로소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직접투자가 주류를 이루게 됐다. 1990년대에는 국경도시와 내륙지방까지 전반적으로 대외개방함으로써 외자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더불어 다양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등 시장경제체제 개혁을 보다 적극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외자유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2010년 중국의 FDI 규모는 1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2021년에는 1,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의 대외 직접투자는 개혁개방 초기 국유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됐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 고속성장에 따른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능력 향상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대외 직접투자 유량(flow/流量: 일정기간 동안 경제 조직 속에 흐르는 재화의 양)은 2013년 1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2023년 1773억 달러를 기록했다. (*자료: 중국 상무부)

나.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지난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최근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2021년 최초로 1조 위안을 돌파하였고, 첨단기술 분야 비중도 30%를 달성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적으로 연해지역, 창장 유역 등 주요 경제권에 집중되어 있고, 아시아로부터의 투자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투자가 증가하고,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투자가 늘고 있으며, 그중에서 소비재 및 첨단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외자 프로젝트의 대형화/일체화 추세가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 산업고도화에 따른 첨단분야 진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9	2020	2021	2022	2023
141225	149342	180957	189132	163253

<자료원 : UNCTAD Stat>

다.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국 직접투자 현황

UNCTAD가 발표한 "World Investment Report 2024"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ODI 규모(유량)는 1479억 달러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중국 상무부, 국가통계국,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 발표한 '2023년도 중국 대외 직접 투자 통계 공보'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대외 직접 투자 유량(flow)은 17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2016년(1961억 달러) 고점 대비 약 200억 달러 낮은 수준이지만, 1년 만에 1700억 달러대로 회복됐으며, 전체적인 흐름은 2023년 초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과 더불어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홍콩은 중국의 투자 및 법인설립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중국 전체 ODI(유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홍콩에 이어 싱가포르(2023년 7.4% 비중), 케이맨 제도(4.9%), 미국(3.9%), 인도네시아(1.8%) 등 지역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륙별 투자 비중은 아시아향 투자(2023년 79.9% 비중)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중국 해외직접 투자 업종 중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가장 많고 도소매업, 제조업, 금융업, 채광업 순으로 집계됐다. 미중분쟁과 더불어 아세안이 새로운 생산기지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기업들이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시장공략 및 진출에 박차를 가하면서 제조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투자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RCEP 발효에 따라 중국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9	2020	2021	2022	2023
136908	153710	178819	163120	147850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현황

2023년 기준 한국의 對中 누적투자액은 936억 달러로, 우리나라 ODI(실행액 기준)의 11.6%를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2위에 랭킹했다. 2021년 중국의 빠른 경기회복세로 우리기업의 대중국 투자실행액은 67.3억 달러로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2022년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 및 주요도시 봉쇄에 따른 경기둔화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고 2023년엔 중국 경기둔화 지속,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요인으로 감소 폭이 78.1%로 크게 확대됐다.

한국기업의 對中 투자는 동부 연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23년 금액기준 對장쑤, 상하이, 쓰촨 투자가 각각 전체 對中투자의 32.9%, 21% 18.9% 비중을 차지했다. 신규법인 기준으로는 상하이(40개), 산둥(40개), 장쑤(31개), 광둥(25개), 저장(13개) 順으로 나타났다.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21	891	262	12,581,006	1,249	6,747,610
2022	685	190	3,770,086	978	8,540,197
2023	692	205	1,981,317	987	1,866,81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

2022년까지 우리기업의 해당 연도 대중국 투자에서 제조업이 90% 이상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2023년 對中 제조업 투자 급감으로 전체 對中 투자에서의 제조업 비중이 73.5%로 크게 축소했다. 이에 반해, 도소매 비중은 2022년 1.7%에서 2023년 19.6%로 대폭 확대됐다. 2023년 누적 기준으로는 제조업 투자실행액이 768억 달러로 對中 누적투자액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금융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5.5%, 4.7%의 비중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6	1	28,699	5	23,043
광업	7	0	143,757	19	32,112
제조업	513	125	11,271,557	671	5,936,643
건설업	5	2	2,104	21	1,934
도매 및 소매업	211	75	250,849	304	225,322
운수 및 창고업	23	13	33,902	26	14,760
숙박 및 음식점업	6	1	1,550	7	1,770
정보통신업	42	15	37,919	92	39,767
금융 및 보험업	15	4	397,394	13	112,422
부동산업	5	0	13,307	4	7,3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2	16	340,025	50	339,65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	5	51,849	19	5,081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0	100	0	0
교육 서비스업	8	3	1,126	10	1,05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0	126	2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2	6,742	6	6,74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2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5	2	1,735	4	655
광업	5	1	132,639	25	89,944
제조업	389	95	3,115,451	525	8,047,44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1	2,880	6	2,594
건설업	3	2	1,368	14	1,595
도매 및 소매업	158	53	162,181	216	132,777
운수 및 창고업	21	7	5,623	24	3,417
숙박 및 음식점업	6	1	1,526	6	1,526
정보통신업	44	14	224,138	90	223,247
금융 및 보험업	3	0	101,952	1	6,960
부동산업	3	1	3,524	4	9,52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	9	5,985	32	10,58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3	4	9,040	22	7,932
교육 서비스업	3	0	240	5	26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0	1,804	4	1,73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3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4	3	1,235	6	313
광업	4	0	617	13	51,320
제조업	393	98	1,503,237	565	1,372,419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	1	56	2	267
건설업	3	1	4,540	2	126
도매 및 소매업	166	64	392,703	222	366,469
운수 및 창고업	15	9	27,630	22	28,523
숙박 및 음식점업	7	1	645	6	494
정보통신업	37	7	8,203	73	8,002

금융 및 보험업	7	3	7,564	7	6,295
부동산업	6	2	3,372	6	3,98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	9	19,161	37	17,64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	1	622	10	1,679
교육 서비스업	2	1	35	3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2	591	2	53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	2	10,074	6	8,42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1	1,032	5	29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LG전자(중국) 유한공사

진출연도	1993
진출형태	현지 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LG 전자

◦ POSCO 제철공사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현지 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제철
모기업명	POSCO

◦ CJ 그룹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현지 법인
업종	식품
취급분야	식품, 서비스
모기업명	CJ

○ 오리온식품유한공사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현지 법인
업종	식품
취급분야	식품
모기업명	오리온

○ KCC유한공사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화학/의약
모기업명	KCC(주)

○ 베이직하우스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취급분야	의류/패션/액세서리
모기업명	(주)더베이직하우스

○ 북경매일유업유한공사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우유
모기업명	매일유업(주)

○ DHP엔지니어링(상해)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취급분야	조선기자재(화학,발전소)
모기업명	대원열판(주)

○ 아모레화장품유한공사(상해)

진출연도	200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화장품
모기업명	아모레퍼시픽(주)

○ 북경한미약품유한공사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합작공장
업종	의약품
취급분야	의약품
모기업명	한미약품

<자료원 : KOTRA 베이징 무역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외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회사설립과 연락사무소(代表處, 事) 설립 등 형태가 있다. 그중 회사는 법인 자격을 가지고 중국 시장관리감독국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영리성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제조, 응소할 수 있고 중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지사

지사는 본사의 하부기관으로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 본사의 경영범위 내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본사의 경영범위 내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등 업무를 맡을 수 있으며 본사가 그 연대적 책임을 진다. 일부 영리성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지사는 본사 소재 성(省)을 벗어나 지사 설립할 경우, 세금 징수에 민감한 일부 지방정부는 영리성 업무가 없는 지사의 설립을 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면, 외국기업은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시장조사, 전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고, 제품판매, 서비스 제공, 중국 내 구매, 중국 내 투자와 관련된 연락업무를 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는 법인자격을 가질 수 없으므로 대외적 책임은 그 외국법인이 져야 한다. 또한 연락사무소가 영리활동에 종사할 경우,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한 재물 몰수, 벌금 부과 및 등록증 철폐 등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현지에 거점을 확보하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서 용이한 형태는 연락사무소 설치라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 현지법인을 세우기 전 단계에 설립한 연락사무소(代表機構)를 중국에는 대표처(代表處)로 불린다.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은 금지되나 시장조사, 중국 무역 파트너와의 연락업무, 회사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 통제,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등의 활동은 가능하다. 영업활동을 하려는 해외기업은 중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현지법인 설립 후 중국의 기타지역에 지점(分公司)을 설립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해 우리기업은 아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본사 설립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2) 파견대표는 4명까지 가능하다.
- 3) 본사 업종, 업태에 특수업종(금융, 보험, 영화 등)이 있을 경우, 중국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업종은 금지업종이다.
- 4) 대표가 취업증을 만들 경우, 반드시 4년제 대학졸업자이어야 한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도

2019년 이래 미·중 무역분쟁의 발단을 시작으로 중국에서 외국자본의 퇴출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지만, 중국은 여전히 FDI 분야에서의 중요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핵심기술의 개발 및 국산화,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국제 쌍순환 발전정책 등을 추진하는 등 국내시장의 저변 확대 및 첨단기술력 확보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 자본의 중국 투자 열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금융시장 개방 등 중국 정부의 외국자본의 지분 제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정부는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외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Kearney에서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 신뢰지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 10위, 2023년 7위, 2024년 3위로 매년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다만, 최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기업 부채 리스크 등은 투자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 독자 투자 애로사항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외상투자네거티브리스트>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관리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업종별로 외국인 단독 투자를 금지하거나 외국인 지분한도를 규제하는 등 투자 제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중국 진출 전에 우선 단독 진입 가능한 분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JV투자 애로사항

정관 및 주주 간 계약은 JV의 운영, 주주들의 권리 의무, 분쟁 해결 JV Exit, 주주의 위약 책임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또한 한국기업이 기술을 투자하고 중국 기업이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아주 중요한 기술이면 향후 JV의 해산 또는 JV의 합자 계약 종료 시의 처리 방식을 명확하게 약정해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JV 해산 또는 합자 계약 종료 시 그 당시의 평가가치에 따라 해당 기술은 귀사에 전속 배당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분쟁 해결

투자유치 업무 행정 기관과의 애로사항 및 분쟁 해결 관련, 외상투자기업 고소 업무방법('外商投企投工作法', 2020.10.1부 시행)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과 외국투자자가 행정기관 및 업무담당자의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외상투자기업 고소센터에 투자환경방면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보완을 건의할 수 있다. 또한 고소센터는 고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60일 내에 해당 사항을 처리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회사 설립 및 기타 유의사항

중국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고, 가장 유리한 투자 방식, 투자선, 대리인, 투자지역을 선정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합자/합작/독자기업을 설립한다.

- ① 투자 준비(투자 목적 정립, 투자방식 선정, 투자선 물색, 투자 지역 선정 등)
- ② 투자 예비상담(투자 성사 가능성 타진)
- ③ 의향서 또는 협의서 체결
- ④ 부지 확보(단독투자인 경우 부지 유상 양수 또는 유상 배정 의향서 체결)
- ⑤ 기업 명칭 등기 신청
- ⑥ 정관 제정
- ⑦ 기업설립 등기 신청

우리기업이 중국에 진출 시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외상독자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다.

○ 법인설립 구비서류

- ①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 신청서*
- ② 외상투자기업 설립등기 신청서*
- ③ 신설법인 정관*
- ④ 사업타당성연구보고서*
- ⑤ 투자자의 주체자격증명(사업자등록증 또는 여권) 공증 및 인증 3부
- ⑥ 투자자의 법인설립 관련 수권대표 임명에 관한 이사회 의결서* 공증 및 인증 3부
- ⑦ 투자자의 자금신용증명서(잔고증명) 2부
- ⑧ 신설법인의 주소증명(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소유권증명)
- ⑨ 신설법인 법정대표인 임직증명서*, 신분증명(여권), 이력서 및 증명사진 3매
- ⑩ 이사회 구성원(또는 집행이사)의 명단, 파견서* 및 신분증명

- ⑩ 이사회 구성원(또는 집행이사)의 명단, 파견서* 및 신분증명
- ⑪ 감사회 구성원(또는 1인 감사)의 명단, 파견서* 및 신분증명
- ⑫ 위임장*
- ⑬ 법률문서 송달 수권위임서*
- ⑭ 설립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report of audit)*
- ⑮ 수출입 상품 목록*

※ 구비서류 관련 주의사항

- (1) ⑤~⑮ 항의 서류는 한국측에서 준비 또는 날인 필요 (위임장, 의결서 등 필요한 서류는 소정양식).
- (2) 위 소요서류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3) 외국어 서류는 번역회사에 의뢰하여 중문으로 번역하고 번역회사 날인 필요.
- (4) “*”표기 서류들은 소정양식, 투자자 확인 및 서명/날인 필요.
- (5) 위 서류 외에 투자자가 기업명칭, 영업범위, 등록자본금, 주소 등 정보제공 필요.
- (6) 수출입 도매업무를 포함하는 판매법인의 경우 14) 및 15항의 서류 제공 필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혁개방 이래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의 기업형태는 주로 외상독자기업,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외자삼법에 따라 외상독자기업의 최고의결기구는 주주회이고 중외합자기업과 중외합작기업(이하 ‘합영기업’이라 약칭)의 최고의결기구는 이사회이다.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 [외상투자법]이 실시됨에 따라 합영기업의 최고 의결기구도 주주회로 변경해야 한다(변경에 대해 5년 동안의 유예기간 부여).

[외상투자법]은 주로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법]은 [합영기업법]에 비해 기업들에 비교적 많은 자주권을 부여했다. 기존의 외자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2020년 1월 1일부로 외상투자법 및 그 실시조례가 실시되고, 또한 2020년판 외상투자준입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가 발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 투자자 간의 합작방식, 지분비율, 조건 등을 법에 위배되지 않는한 주주가 임의로 약정을 하고 정관에 기재하여 등기가 가능하기에 기존의 합작기업법과 합자기업법에서 주주의 출자비율과 지분비율 관련 규정, 사전회수 등 내용을 정하고, 신설법인은 그 정해진 틀내에서만 활동가능했던 것보다 더욱 자유로워졌다. 관련 법률 법규에 강제성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해 기업은 자주적으로 정관에 약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관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고 기업들은 정관 설정 시 보다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존에 많은 기업들은 인터넷 혹은 공상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정관을 작성했지만 이는 분쟁 발생 시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사의 실정에 부합되는 정관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중국정부는 외상투자 준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 및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려정책은 외상투자산업장려목록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이 리스트에는 금지 및 허용의 두 가지 범주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투자 및 사업 진입이 금지된 사항의 경우 시장 주체는 진입이 불가하며 행정 기관은 인허가 또는 승인 하지 않으며 관련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한다. 관련 자격 요구 사항 및 절차, 기술 기준 및 허가 요구 사항을 포함한 허가 진입 항목의 경우에는 시장 주체가 사업 신청을 제출하고 행정 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진입 가능여부를 결정하거나 정부가 정한 진입 조건 및 진입 방법에 따라 시장 주체가 적격으로 진입한다. 둘째, 시장 접근을 위한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산업, 분야, 업무 등의 경우 모든 시장 주체는 법에 따라 동등하게 진입할 수 있다. 금융업의 대외 개방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2024년 9월 6일, 중국 국가발개위와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리스트)’(2024년판)을 발표하고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 2024년판은 2021년판 대비 제조업 분야의 2개 외국인 투자 제한·금지 조항을 삭제하며, 항목 수는 기존의 31개에서 29개로 축소되었다. 이로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이 전면 폐지되었다.

또한, 2024년 9월 7일 중국 상무부 등 3개 중앙부처는 ‘바이오 기술 및 독자병원 관련 의료분야 개방 확대 시범 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첫번째로 2024년 9월 7일부터 베이징·상하이·광둥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치료의 기술개발과 응용 및 제품 등록·상장·생산을 허용하고, 심사를 거쳐 생산한 모든 제품은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두번째는 베이징·톈진·상하이·난징·쑤저우·푸저우·광저우·선전·하이난성 전역에 외국인 독자 투자병원 설립을 허용 (중의(中)류 및 공립병원 인수합병 제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치료 기술, 의료 기구 설립은 2024년 판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내용으로, 중국 전역에서 외국인 투자가 금

기구 설립은 2024년 판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내용으로, 중국 전역에서 외국인 투자가 금지,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베이징, 상하이 등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게끔 변경된 것이다.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은 2022년 10월 28일 발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2022년판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鼓外商投目, 이하 '장려 목록')을 적용하고 있다. 2022년판 목록은 기존대로 전국에서 적용되는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이하 '전국 목록')과 해당 지역에서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 목록'(이하 '중서부 목록'), 2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전국 목록은 전국 범위에서 적용되며, 중서부 지역은 해당 지역에서만 투자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목록에 속한 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주로 아래와 같다.

- ① 투자총액 내 수입(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 ② 용지집약형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 제공, 토지 양도가격은 '중국 공업용지 최저기준'의 70%로 토지사용비 징수
- ③ 기업소득세 면/공제

2022년판 전국 장려목록은 총 13개 산업, 519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2020년판 대비 항목 수는 39개 늘어났다. 중국 정부의 자립형 공급망 구축·산업고도화·탄소중립 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스마트팜, 녹색 제조업, 핵심 기술·부품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한다.

22개 중서부지역 성(성, 자치구, 직할시 포함)에 적용되는 중서부 목록은 2020년판 755개에서 955개로 항목 수를 200개 대폭 늘렸다. 기존엔 이들 지역은 중서부지역으로의 산업이전을 촉진하고 지방특색산업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 이번 수정에서도 현지 상황에 맞춰 스마트 기기 및 부품, 금속 가공, 의료기기 등 항목을 대거 포함시켰다. 중앙정부의 경제·산업정책 기조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제품, 디지털화·스마트화, 신소재, 핵심 기술·부품 연구개발과 생산 관련 항목도 큰 폭으로 늘렸다.

아울러 2023년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중국은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2021. 1. 18. 시행)'을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제도를 완비하였다. 안전심사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 ① 군수산업 및 그 관련산업 등 국방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 투자하거나 군사시설 또는 군수산업시설 주변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 ② 국가 안전과 관련된 중요 농산물, 중요 에너지 및 자원, 중대 장비 제조, 중요 기초시설, 중요 운송서비스, 중요 문화제품 및 서비스, 중요 정보기술 및 인터넷제품과 서비스, 중요 금융서비스, 핵심기술 및 기타 중요 분야에 투자하고, 투자한 기업의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

안전심사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① 신청서
- ② 투자계획안
- ③ 외상투자가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한 설명
- ④ 업무기구가 규정하는 기타 자료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 위반시의 제재는 다음과 같다.

- ① 신고 범위에 해당하는 투자임에도 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투자를 실행한 경우
- ② 당사자가 업무기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은닉하는 경우
- ③ 안전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당사자가 조건부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정한 기한 내의 지분, 자산 처리 및 기타 필요한 조치, 투자전 상태로 회복, 국가안전에 대한 영향 제거 등을 명할 수 있다.

2021년 9월 8일, 중국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전국 범위 내에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항저우(杭州), 광저우(廣州), 선전(深) 등 시장 주체의 수가 비교적 많은 6개 도시를 선택하여 시장주체와 대중의 주목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선진 수준의 국제 시장을 벤치마킹하여 "행정 간소화,분권과 관리 결합화, 서비스 최적화(放管服)"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비즈니스 환경의 혁신 시범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베이징시 및 상하이시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다.

가. 베이징시 외자 관련 동향

베이징시 인민정부는 2023년 4월 6일 '경영환경의 전면적 최적화를 통한 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베이징시 시행계획'(이하 '베이징 시행계획'이라 함)을 발표했으며 외자 관련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 및 제도의 완비

북경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상징적인 외자 프로젝트의 베이징 착지를 가속화한다. 외국인투자 진입 전 국민대우와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베이징시외상투자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윤 재투자를 장려하고 신규 외국인 투자와 동일한 부대정책을 시행한다.

2) 투자 편의 제공

시장 주체에 대해 진입규제를 더한층 완화하여 행정 허가 목록 관리 외에 행정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다.

3) 국제 무역 발전 환경 개선

국제 무역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 신고 및 2단계 신고와 같은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수출입 상품의 통관 모델을 더욱 최적화하고 인증을 거친 경영자(AEO)의 육성 및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중점 기업 육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4) 국제 인재 유치

전 시범위내 외국국적의 '학력이 높고 전공에 정통하며 학계 정상급 수준의 희귀한'(高精尖缺) 인재 인정 기준을 적용하며, 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취업허가증과 거류허가증을 연동 신청을 추진하며, 외국인 고급관리자에 대해 통관 편의를 제공한다.

나. 상하이시 외자 관련동향

2023년 4월 상하이시 인민정부는상하이시 외자유치 및 이용증대를 위한 몇 가지 조치(이하 상하이조치라 함)와신시대 투자강화 및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 가속화에 관한 정책조치를 잇따라 발표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각종 행정편의와 지원조치 외에도 조건에 부합하는 양질의 고급기업, 헤드쿼터 등(외국인투자기업 포함)에 대해 고액의 자금포상을 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시장 진입 규제 지속 완화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증권, 펀드, 선물, 생명보험, 연금관리, 재테크, 재무회사가 상하이에 먼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의 분야에서 개방 확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쟁취한다. 상하이 시 전역에서 시범적으로 적격 해외 유한 파트너(QFLP) 펀드의 외국인 투자 경로를 확대하고,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향상 전략을 펼치며,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CPTPP)과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DEPA) 등 높은 수준의 국제 경제 무역 협정에 참여한다.

증권, 펀드, 선물, 생명보험, 연금관리, 재테크, 재무 관련 외국인 투자회사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지만 관련 분야의 외국인 진입장벽은 상당히 높다. 예를 들어, 현행 '외국인투자증권회사 관리조치'에 따르면 해외기관은 중국에 독자적인 증권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규정에 따라 관련 조건을 충족하고 증권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하이시가 앞서 언급한 적격 외국계 금융기업의 정착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되어있지만 관련 기업의 진입장벽을 더 낮출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한 지방 재정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적격 기업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조치의 시행은 여전히 관련 부서의 추가 발표를 기다려봐야 한다.

2) 양질의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적인 자금 인센티브를 지급

개별 투자 유치 프로젝트의 최대 인센티브는 위안화 기준 1억 위안으로, 헤드쿼터 프로젝트의 주택 구매 및 임대료 최대 1,000만 위안을 지원한다. 기존 기업의 증가 및 증산을 장려하고 은행 대출 프로젝트에 2,000만위안 한도내 연간 대출 이자 5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용자 임대 프로젝트에 최대 2,000만 위안을 지원하고 서비스업 도입을 지원하고 R&D, 디자인, 금융, 무역, 해운, 과학기술, 법률, 인적 자원 서비스 등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조건에 맞는 양질의 프로젝트에 최대 600만 위안을 지원한다.

	<p>3) 7대 중점산업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아래의 7개 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특별자금을 지원한다.</p> <p>① 집적회로산업 프로젝트 도입에 최대 1억 위안 지원 ② 바이오의약산업 혁신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최대 3,000만 위안 지원 ③ 인공지능 산업 기술 프로젝트 도입에 최대 2,000만 위안 지원 ④ 스마트 단말 프로젝트에 최고 3,000만 위안 지원 ⑤ 녹색 저탄소 관련 공정 업그레이드/에너지 절약 기술 개조 등 단일 프로젝트에 최대 1,000만 위안 지원하고, 신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연간 최대 5,000만 위안 지원 ⑥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 100개 이상의 디지털 경제 선도 기업과 고성장 기업을 도입 및 육성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최대 800만 위안 지원 ⑦ 메타버스 개방과 관련하여 50개 이상의 시급 중점 메타버스 응용 시나리오 투자를 유치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최대 2,000만 위안 지원</p> <p>4) 외국 고급인력 유치 외국 고급 및 전문 인재의 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외국 고급 인재의 출입국 및 체류 정착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한다.</p> <p>5) 지역급() 자금 장려 지역 자치단체는 적격 외국인 투자(재투자 포함)에 대해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p>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외국인 투자 주식회사는 중국에서 합자, 합작, 독자 기업 등 3가지로 분류한다.

◦ 합자기업

합자회사는 외국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 내에서 중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과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기업을 경영하며 투자한 자본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손익을 부담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중국파트너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특정 지역에 한해 개인도 투자가 가능하다. 예컨대 베이징 중관춘 기술 개발구 등 지역은 해당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합자기업은 공동투자, 공동경영, 공동손익부담, 유한책임 등 특징을 가지고 있다.

- ① 공동투자: 합자회사는 쌍방의 투자자가 현금, 현물, 지재권, 기술, 토지사용권 등을 각각 출자하여 그 출자액에 따라 지분을 배분한다.
- ② 공동경영: 합자회사는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 협의에 의해 경영기관인 동사(이사), 동사회(이사회), 법적대표, 총경리 등을 정관상에 명기하고 이를 등재하며 동사회가 모든 경영 관련 중요사안을 결정하고 동사의 총경리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집행한다.
- ③ 공동손익부담: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는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손익과 리스크를 각각 부담한다.
- ④ 유한책임: 회사채무의 부담책임을 회사자산 총액 이내, 투자자들의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은 출자액 이내로 하며 투자자 상호 간의 연대책임 의무는 없다.

합자기업 설립 시 핵심기술 유출/모방 우려, 이익 회수 및 사업 철수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직접 실사를 하고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한 후에 투자를 실시해야 한다. 중국 측 파트너의 유통 능력을 과신하고 투자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측 지분이 많더라도 중국측 파트너가 지분을 이상의 동사(董事: 이사)를 보유하거나 동사장(董事長: 이사장)을 확보한 경우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지분율 이상의 동사(董事) 수를 확보해야 하며, 가능하면 동사장(董事長) 직까지 확보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한국 측이 과반수 이상의 동사를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합자기업법상 만장일치 의결 사항을 제외한 경영사안들은 모두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도록 정관에 규정하는 등 경영주도권 장악에 주의해야 한다.

중국 측은 이익이 생기면 재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결정은 합자기업법 상 만장일치제이므로 동사(董事) 1인이더라도 반대하면 불가능하므로 투자이익 회수 및 사업철수 등 추후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해 계약서에 해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합작기업

중외합작기업(Contractual Joint Venture)은 외국의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공동으로 설립한 형태이며, 계약규정에 따라 쌍방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결정된다.

합작파트너의 권리 및 책임의 범위는 출자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의 특성과 투자자들의 사정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 내용의 정형성이 부족하여 중국의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투자자들로서는 자칫 불리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합작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① 계약 주의 : 쌍방 각 투자자의 합작조건과 그에 따른 권리와 책임이 모두 쌍방의 합법적이며 유효한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 ② 기업형태의 융통성 : 합작회사는 법인형태 또는 연합경영체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위 형태에 따라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제3자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도 있다.
- ③ 이윤 배분의 융통성 : 쌍방 각 투자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분배, 별도의 계약약정 방식에 의한 이윤분배가 모두 가능함. 즉 이익을 금전으로 분배하거나 생산제품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업수입 자체를 분배하는 방식도 투자자 쌍방의 약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 ④ 투자금 선회수 가능 : 합작회사의 외국인 투자자는 합작계약에 따라 투자 기간 내 투자 자본의 조기회수가 허용되고 있음.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자본을 조기회수하는 경우는 투자기간 만료 시에 합작회사의 모든 고정자산은 무상으로 중국 투자자에 귀속된다.

합작기업은 계약에 의해 양측의 권리, 의무가 정해지므로 법적 해석이 모호하여 양측간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합자와 마찬가지로 중국측 파트너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 추후 문제 발생에 대비하고 모든 투자위험 분담, 이익분배 조건을 계약서에 규정해야 하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합작법인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금조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① 외부차입: 외부 금융기관 등 제3자로부터의 차입
- ② 내부차입: 각 출자자로부터의 차입(담보제공 또는 보증행위가 수반될 수도 있음)
- ③ 지분율 비례 증자: 기존 지분비율에 따라 각 출자자가 동등한 조건 하에 추가 출자
- ④ 지분율 불비례 증자: 기존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차등 증자 (지분율 변동이 수반)
- ⑤ 제3자 지분참여: 기존 출자자들 외 제3의 출자자를 신규 영입하면서 자본금을 증액

위 각 방안 중 '1안'과 '5안'은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정관에 명시되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하지만 '2안'~'4안'은 기존 출자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작법인 설립 시에 자금부족 상황에 따른 각각의 대응방안을 서면으로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다. 차입 또는 증자, 제3자 지분참여 증자 등을 고려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합작 법인의 자금 사정이 단기간에 호전될 수 있으나 아니나인데 단기 호전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차입' 방식을, 장기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증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합작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투자자와 합의한 계약에 따라 투자 기간 내 투자자본의 조기회수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자본을 조기 회수하는 경우는 투자 기간 만료 시에 합작투자기업의 모든 자산은 무상으로 중국 투자자에 귀속되며 별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본의 조기회수 방법으로는 일정액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환하면서 이를 고정자산 감가상각액으로 처리하는 방법, 외국인 투자자 이윤배분 비율을 크게 설정하는 방법, 처음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정액의 투자자본 상환금액을 약정하고 이익금이나 영업수입 중에서 이 상환금액을 선 공제한 후 잔여 이익금이나 영업수입을 다시 분배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합작기업 설립 시, 모든 투자위험 분담, 이익분배 조건을 계약서에 규정해야 하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중국 측 파트너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 추후 문제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 독자기업

독자기업(외자기업)은 중국의 법률에 따라 중국 영토 내에 설립된, 그 자본의 전부를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이다. 중국에서는 외자기업(外資企業) 또는 독자기업(獨資企業)이라고도 부른다.

독자투자에 의한 외자기업은 외국 투자자가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기업경영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독투자 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외자기업의 투자 업종에 있어서는 중국 정부가 합자나 합작기업에 비하면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우리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① 자본소유권: 외자기업의 자본은 반드시 외국인에 의해 외자로 출당해야 한다.
- ② 기업의 법률적 지위: 외자기업의 법률적 지위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 중국법에 의거해 설립된 중국 법인의 지위를 갖는다.
- ③ 독자적 경영관리: 외자기업은 외국인 단독 투자이므로 독자적으로 경영관리 조직을 갖춰 경영방침을 결정할 수 있고, 종업원 대우 등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다. 투자 리스크를 투자자가 단독으로 진다.
- ④ 유한책임회사: 외자기업은 반드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독자기업은 토지, 공장, 운영비 등 초기 투자자금 부담이 크다. 현지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기업이 독자기업의 형식으로 진출할 경우 초기 자본금 부담이 큰 편이다. 또 판매망을 외국 독자기업 스스로 개척, 구축해 나가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경험이 부족해 대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현지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투자 초기에 노무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 투자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시장조사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립하는 등 유사독자(類似獨資) 형식을 통해 중국에 진출하여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에 독자투자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는 중국의 회사제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직형태로, 유한회사의 투자자는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을 지며, 회사의 지배는 원칙적으로 지분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투자자회를 통해 실현된다. 유한회사의 투자자 총수를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각 투자자의 출자액이 상당히 크지 않은 한 유한회사는 대체로 소규모이다.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지분의 증권화가 금지되고 양도가 제한되어 인적 구성이 폐쇄적이다.

유한회사는 출자금액과 출자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다. 현금, 현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모두 출자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기관은 주주회(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동사회(이사회) 또는 집행이사, 감사 또는 감사회(임의기관)를 둔다. 회사가 소규모인 경우 동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법정대표, 이사, 총경리: 1인 3역)를 둔다.

유한회사의 등록절차는 주로 다음과 같은 5개 과정을 거친다.

- ① 회사 등기기관(공상행정관리국)에 기업명칭 사전 허가 신청을 제기하고 “기업명칭 사전허가 통지서”를 수령한다.
- ② 심사기관(상무위원회)에 법인설립 신청을 제기하고 비준서, 비준증서를 수령한다.
- ③ 회사 등기기관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제기하고 영업집조를 수령한다. 영업집조 발급일이 곧 법인 설립일이 된다.
- ④ 취급업종에 따른 필요 라이선스 신청을 제기한다. 예컨대 요식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식음료 서비스 허가증”을, 식품유통기업은 “식품경영허가증”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 ⑤ 세무등기, 통장개설, 세관등기 등을 진행한 후 투자자에게 “출자증명서”를 발부한다.

개인사업자

중국에서 외국인인 개인사업자를 낼 수 없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베이징금성통다변호사사무소(北京金同律事務所)

전화번호	86-10-5706-8535
주소	北京市朝建外大街1大厦A座10F
이메일	zhaoyusong@jtn.com

○ 신영중화회계사사무소(信永中和事務所)

전화번호	86-13801224040
주소	北京市城朝北大街8富大厦B座8
홈페이지	https://www.shinewing.com/
이메일	cpawichoi@naver.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 KCBC 회계법인

전화번호	86-135-2230-0534
주소	北京市城朝大街南竹杆胡同2河SOHO中心D座1251226房
이메일	sttrace00@naver.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 북경시중륜을사사무소(北京市中律事務所)

전화번호	86-10-5957-2293
주소	北京市建外大街甲6SK大厦37
홈페이지	http://www.zhonglun.com
이메일	lianzhelong@zhonglun.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 화렌() 로펌

전화번호	86-10-8441-7811(210)
------	----------------------

주소	北京市 朝 三北路丙2 天元港中心 B座 2309室
홈페이지	http://www.hllf.cn/enindex.asp
이메일	hanchunning@hllf.cn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 안지에 로펌(安杰律事務所)

전화번호	86-10-8567-5988
주소	北京市朝方路19 亮外交公大D1 座19
홈페이지	https://www.anjielaw.com
이메일	lixuzhe@anjie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 북경국연자순문유한회사

전화번호	86-10-8476-4382
주소	北京市朝陽區望京廣順南大街16號嘉美中心字818室
홈페이지	http://www.glms.co.kr/gnuboard4/sub0205.php
이메일	kllaw@naver.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 한국태평양변호사사무소(太平洋律事務所)

전화번호	86-10-5903-3502
주소	北京朝建路79
홈페이지	http://www.bkl.co.kr
이메일	kllaw@naver.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 한국율촌변호사사무소(律村律事務所)

전화번호	86-10-8567-0778
주소	北京朝建外大街6思大廈9
홈페이지	https://www.yulchon.com

이메일	kllaw@naver.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 P&D 회계법인(北京普事所)

전화번호	86-10-64633104
주소	北京朝望京南大街嘉美中心字1909室
이메일	chinacpa@pndcn.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 베이징권저권변호사사무소(北京市君君律事所)

전화번호	86-10-66523619
주소	北京市城金街89金保大厦11
이메일	piaozaiyong@junzejun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 베이징덕화형변호사사무소(北京德和衡律事所)

전화번호	86-10-85407620
주소	北京市朝建外大街2泰中心C座12
이메일	liguangxing@deheng.c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자료원 : KOTRA 베이징 무역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1980년대 개방 이후 2000년 이전까지 중국의 외환시장은 국제 거래를 돕는 보조 장치로서 자리매김했다. 1988년 중국 주요 도시에 외환거래센터를 개설하고 1994년에는 은행 간 외환거래를 허용했다.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환율제도의 점진적 개편을 약속하고 2005년 7월 여러 주요 통화로 이뤄진 바스켓을 구성하고 시장의 수요공급을 반영하는 관리환율제도로의 변경을 발표했다. 2005년 외환제도 개혁 이후 2014년 1월까지 9년여에 걸쳐 매우 완만하고 지속해서 평가절상을 진행했다. 결국, 중국이 외환제도를 바꾼 기저에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사이의 효율성 차이나 선호도 차이가 아니라 기축통화로 발돋움하려는 장기정책목표가 자리 잡고 있다.

2015년은 중국이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시행한 첫해다. 중국 환율제도는 2005년 7월 중국 인민은행은 고정환율제로부터 환율변동제로 이행, 2008년 7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배경으로 사실상 다시 고정환율제로 복귀했다가 2010년 6월 다시 변동제를 시행했다.

2015년 8월 11일,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 기준치 산출방식을 변경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일 환율시장 마감치를 참고해 중국 외화 수요와 공급, 글로벌 시장의 기타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치를 산출, 발표한다. 인민은행은 그전까지 시중 은행이 보고하는 환율을 바탕으로 기준환율을 산출해 왔는데 그 방식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위안화 환율은 2014년 3월, 인민은행이 하루 달러당 위안화 변동폭을 $\pm 1\%$ 에서 $\pm 2\%$ 로 확대, 매일 오전 9시 15분경 위안화 기준환율 발표하고 있다.

중국에서 위안화 경상수지는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으며 자본수지는 여전히 일부 제약과 관리가 적용된다. 경상수지는 대외무역 수입, 비무역거래, 무상 양도 등 국내외 경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의미한다. 자본수지는 자본의 수출입으로 인한 대금 수지의 자산과 부채의 증감을 말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자산 또는 금융 자산의 양도, 이전을 포함하여 당국과 외국 간의 통화 기준으로 인식되는 채권 채무의 변동사항을 반영한다. 자본 수지에는 주로 직접 투자, 증권 투자 및 국경 간 대출의 세가지가 있다.

현재 중국의 자본수지 개방은 점차 진행되고 있는 바, 전환 가능한 항목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전환 가능 수준이 꾸준히 향상하고 있다. 직접 투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성을 달성하였고, 국경 간 증권 투자 채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외채에 대해서는 거시적이며 신중한 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국경 간 증권 투자 및 개인 자본수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만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다.

외환 감독관리 업무는 국가외환관리국과 지방외환관리국에서 담당한다.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직접 투자에 대한 외환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직접 투자 활동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은 외환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외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5년 6월부터 외국인투자 기업은 기업 등록지에 소재한 은행을 선택하여 외환 등록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금과 외환 결제로 얻은 위안화 자금의 사용은 해당 사업 범위 내에서 진실성과 자체적 사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외환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금, 수익, 자본 이득 등은 법에 의거하여 인민폐 또는 외환으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지 외환관리국에 외환등록을 신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외환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다.

- ① 《외국인 투자 기업 기본 상황 등록표》
- ② 심사 및 승인 기관의 기업설립에 대한 승인 서류 및 허가증
- ③ 공상 행정 관리국에서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사업자 등록증》 및 사본
- ④ 기업이 승인을 받아 효력을 발휘한 계약 및 정관
- ⑤ 외환 관리국이 요구하는 추가 문서

외환 등록을 이미 등록지에서 처리한 기업의 경우, 중국 경내 타 지역 또는 해외에 설립된 분/지점은 별도로 외환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외환 규제

1) 해외 현금인출 및 소비

중국 정부는 2017년 9월 1일부터 해외 현금인출 및 소비 1,000위안 이상의 경우 카드 발급 은행에서 중앙은행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카드를 발행한 은행은 법인 단위로 모든 해당하는 정보를 취합해 보고해야 하며 연후에 따른 연기 없이 보고 주기는 매일이다. 내역은 빅데이터 분석과 돈세탁 방지, 자본유출의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모두 축적되고 있다.

당국은 개인 자산 전이와 '그림자 은행'을 단속하기 위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카드 사용은 환전과 달리 한도가 없는 관계로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해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또 "2016년 경찰과 합동으로 100여 개의 '그림자 은행'을 단속했으며 이들이 반출하려 한 금액은 수천억 위안에 달했다"고 외환관리국은 밝혔다. 지금까지 개인이 해외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계좌당 10만 위안에 달했으나, 2018년 개인 1명에 허용되는 연간 총 인출 금액이 10만 위안으로 감소했다. 중국 내에서는 5만 달러까지 환전이 허용되며, 이를 넘어서는 환전은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인이 외국의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려고 할 때는 후강통(상하이-홍콩 증시 교차거래) 등 공식 채널을 이용해야 하며, 이 밖의 중개인이나 그림자 은행 이용은 철저히 금지된다. 2019년 1월,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를 하는 지하 금융업자들에게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사법 공지문을 발표했다. 공지문에 따르면 500만 위안 이상의 외환을 불법 거래하거나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10만 위안 이상의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외환거래를 할 경우 벌금형을 부과했다. 특히 최고 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청은 '환치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금융당국이 개인과 기업들이 위안화 약세와 경제 성장 둔화에 대비해 해외 투자를 모색하자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6대 안정(六, 취업, 금융, 수출입무역, 외국인투자, 투자 및 예상업무 등)' 및 '6대 보장(六保, 고용, 민생, 시장주체, 식량 및 에너지, 산업체인, 일선 행정기관의 정책이행 등)'의 업무목표의 전제하 외환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금융시장에 대한 쌍방향 개방을 확대하고 QFII/RQFII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을 취소하였으며 상하이국제금융센터, 웨강아오따완취, 하아난자유무역구 및 자유무역시험구 등에 대한 혁신적인 외환관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2) 과실 송금 관련 규정 및 절차

한국 투자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획득한 합법적인 이윤·기타 소득 또는 청산 후의 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기업의 등록 자본금이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전액 납입되지 않은 한국 투자기업은 외환이윤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없으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등록 자본금이 전액 납입되지 않은 경우는 원 허가기관의 비준을 받아 실제납입한 등록자본금의 비례에 따라 배당받은 이윤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단, 이윤은 투자기업이 중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및 각종 기금을 공제하고 이전 각 회계연도의 결산을 전보한 후 배당받은 이윤이어야 한다. 한국 투자기업은 동사회(주주회)를 개최하여 이윤배당을 결정한 후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외환지정은행에서 관련 수속을 거쳐 한국으로 송금하면 된다. 과실 송금 시 은행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① 과실 송금 신청서
- ② 외국인투자기업 외환 등기 증명서
- ③ 이사회(주주회) 과실분배 결의서
- ④ 심사보고서(공인 회계사의 감정 거쳐야 함)
- ⑤ 회사이윤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 ⑥ 납세증명서(세금 감면 혹은 면세 혜택을 받은 기업은 현지 세무국에서 발행한 세금 감면 혹은 면세 증명 서류 제출)
- ⑦ 세무보고서

○ 유의사항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자본금 납부 미완료: 원칙적으로 기업 이윤을 해외로 송금할 수 없다. 단 기업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등록자본금을 납부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해 기존 투자인가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다음 지정은행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납부된 등록 자본금 비율을 기준으로 기업 이윤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한 외투 기업이 해외 주식 수입을 중국으로 송금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해외발행 주식 수입의 중국 내 송금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의 3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외투 기업의 이윤을 해외로 송금하면 송금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된다. 납세 후의 이윤은 지정된 외환은행에서 매년 1차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송금 전에는 반드시 이사회 등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 과실 송금액 10만 달러 이상의 경우: 은행은 매월 첫째 주에 외환관리국에 '전월(前月) 송금한 외국인 투자기업 이윤'을 보고해야 한다. 과실 송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이거나 추가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환관리국이 추가로 검사할 권리가 있다. 외환관리국이 추가 검사 시 은행에서 보고한 송금 금액이 실제 송금 금액의 50%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추가 검사 중 은행이 규정에 따라 심의하지 않았거나 기업의 거짓 과실 송금 행위 등의 내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된다.

- 사중/사후 관리 강화 추세: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 외환자금 운영관리 관련 규정(예: 다국적 기업 외환자금 집중 운영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등 외자기업의 무역투자 편의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외국기업은 중국내 주요 자금계좌를 통해 외채 자금을 들여오거나 상환할 경우 더 이상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직접 방문해 외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며 외국기업이 등록 후 직접 자본 항목 수입의 외환결제가 편리하도록 했으며 관련 자금 환결제 및 지급 시에도 사전에 진실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4월, 국가외환관리국이 발부한 "외환관리를 최적화하여 국제업무 발전을 지지할 데 관한 통지"(家外管理局于化外管理支持涉外展的通知, 2020년 6월 1일부로 시행)에 따르면 자금사용이 진실하고 합법적인 전제하, 기업에서 자금, 외채 및 국외 상장 등 자본항목 수입에 대해 경외로 지불할 경우, 사전에 은행에 진실성 증빙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화물무역외환수지기업 명부 상 분류가 A인 기업에 대해, 5만 달러 및 그 이하이고, 또한 송금취소 일자와 지급일자 간격이 180일 이상이거나 특수한 원인으로 원 경로대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 외환국 등기수속을 밟지 않고 직접 금융기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경 간 무역투자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중·사후 관리감독은 강화되는 추세이다. 외국기업의 국경 간 자금 집중 운영 업무에 대해 거시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고 통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리스크 평가, 비현장 모니터링, 현장 조사 및 검증 등을 통해 국경 간 자금 흐름에 대한 리스크에 대비할 방침이다. 즉 각급 외환관리국은 다국적 기업의 외환 자금 집중 운영 관리 업무에 관한 국경 간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현상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에 대한 리스크를 경고하고 법에 따라 현장 심사하고 조사를 진행한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7.23 위안(2024.05.08)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43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691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3.65
비고	<p>평균 임금은 기업, 사업, 기관 등의 단위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노동 보상을 의미한다. 기본 급여, 직책 급여, 직급 급여, 근속 연수 급여, 계약제 급여, 보너스, 다양한 수당과 보조금, 교통 보조금, 세탁비, 도서비, 여행비, 명절비, 식사 지원금, 주택 보조금, 주택 임대 보조금, 개인 소득세, 주택 관련 수도 전기료, 주택 공적금 및 사회보험 기금 개인 부담 부분 등이 포함된다.</p> <p>2024년 4월 1일 기준의 지역별 최저월급 및 최저 시급액에 따라 상하이의 월 최저임금은 2,690위안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베이징시의 시간당 최저시급은 26.4위안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p> <p>최저임금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기준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 기준과 시간 최저임금 기준의 형태로 적용된다. 월 최저임금 기준은 전일제 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시간 최저임금 기준은 비전일제 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된다.</p> <p>근로계약법에 따르면, 사용자 단위가 현지 최저 임금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행정부서가 시정기한 내에 지급을 명할 것이며, 그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사용자 단위에게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사용자 단위가 최저 임금 기준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상기 작성한 대졸, 고졸 평균임금은 베이징시의 평균 월 급여로 작성함.</p>				

<자료원 : 베이징통계연감, 현지 채용정보사이트 첸청우요우(前程无)>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중국은 노동관계 확정, 즉 입사 1개월 내 고용주가 노동자와 노동계약서(고용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노동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고용자의 명칭, 주소, 법적 대표자 혹은 주요 책임자
- 노동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증 혹은 기타 효과적인 신분증명서류 번호
- 노동계약 기간
- 업무 내용과 근무장소
- 근무시간과 휴가
- 임금, 보너스 등 복리대우
- 사회보험

※ 노동계약서 체결 시 유의사항

1) 채용하는 고용형식에 따라 노동계약서 체결 당사자를 확정한다.

노동자와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직접적인 노동관계 형성하는지, 혹은 노무 파견조직을 통한 노동자와 노무 관계를 형성하는가를 명확해야 한다.

2) 노무 파견의 경우 관련 법률 규정의 특별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노무 파견 경영허가증’이 있는 합법적인 노무 파견조직을 선택하고 파견노동자는 임시적, 보조적 혹은 대체적 업무만 진행해야 한다. 노무 파견에 의한 파견노동자 수는 해당 기업 총 노동자 수의 일정 비중(구체적 비중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처에서 규정)을 초과할 수 없다.

3) 노동계약 체결 후 바로 노동계약을 작성해야 한다.

기업은 고용 시작일부터 노동자와 노동관계가 형성되며 30일 이내에 노동계약을 반드시 체결하게 되어 있다. 만일 1개월 이상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자에게 1개월 만료일부터 2배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1년 이상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노동자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관계 형성(無固定定期勞動合同關係)’으로 간주한다.

4) 임시공과도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국 노동법률하에서 ‘임시’의 개념은 노동계약기한이 비교적 단기간인 임시성(臨時性), 계절성 고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기간 고용도 역시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서면계약 미체결 시 2배 임금의 배상요구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근로시간

중국은 주 5일제(40시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 근로는 1일 1시간(특수상황에서는 3시간) 월 36시간 한도 이내에서 가능하다.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평일급 기준 50%, 주휴일 근로는 100%, 법정 휴일 근로는 200%의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생산경영의 필요 때문에 노조 및 근로자와의 협상을 거쳐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매일 3시간, 매달 3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 초과근무 기간에 대해 근무수당을 지불하거나 보충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휴가

중국은 근속연수에 따른 유급휴가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 근속 1년 이상 노동자는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연속근무 1년 이상”이란 노동자가 첫 직장에서 근속 연수가 “연속 1년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간 非 기업 단위, 피고용자를 보유한 개인상공업자(個體工商戶), 파견노동자, 농민공, 택시기사 등 모두 적용된다. 중국은 근속 연수와 유급휴가 일수를 연결해 관리한다. 근속 연수는 현재 노동계약을 체결한 기업에서의 근무 연수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근속연수까지 합산하여 적용한다.

노동법규상 유급휴가 취득 가능일 수는 다음과 같다.

- 근속 1년 이상 10년 미만: 5일/년
- 근속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년
- 근속 20년 이상: 15일/년

다음과 같은 경우, 유급휴가의 취득권을 상실한다.

- 1) 하계, 동계휴가(예: 교직원 등 경우) 일수가 유급휴가 취득 가능 일수를 상회하는 경우
- 2) 20일 이상 개인용무휴가(假)를 취득하고 이 기간에 급여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
- 3) 병가의 취득누계가 다음 일수를 초과할 경우 유급휴가 취득 불가
 - 근속 1년 이상 10년 미만: 2개월
 - 근속 10년 이상 20년 미만: 3개월
 - 근속 20년 이상: 4개월

연차휴가는 해당연도 내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분산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나, 생산상황 등 필요시 차년도로 이월이 가능하다. 또 미소진 유급휴가일에 대해 일급의 3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유급휴가 이외에도 개인 사정에 인한 휴가, 의료휴가, 결혼 휴가, 출산휴가 등 휴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중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가, 의료 휴가 등은 관련 법규와 사내 규정에 따라 급여 공제가 가능하지만, 법적 규정 내 결혼휴가와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 유급휴가의 취득권을 상실한다.

- 1) 하계, 동계휴가(예: 교직원 등 경우) 일수가 유급휴가 취득 가능 일수를 상회하는 경우
- 2) 20일 이상 개인용무휴가(假)를 취득하고 이 기간에 급여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
- 3) 병가의 취득 누계가 다음 일수를 초과할 경우 유급휴가 취득불가
 - 근속 1년 이상 10년 미만: 2개월
 - 근속 10년 이상 20년 미만: 3개월
 - 근속 20년 이상: 4개월

연차휴가는 해당연도 내에 집중하거나 분산해 수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도 내에 수배해야 하나, 생산상황 등 필요시 차년도로 이월해 수배할 수 있다. 또 미소진 유급휴가일에 대해 일급의 3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유급휴가 이외에도 노동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가, 의료휴가, 결혼 휴가, 출산휴가 등 휴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중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가, 의료휴가 등은 관련 법규와 사내 규정에 따라 급여 공제가 가능하지만 법적 규정 내 결혼휴가와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다.

출생율이 급속히 저하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중국 인구나 계획생육법(2021.8.20부 시행)' 개정을 통해 1쌍의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출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각 지방정부에서도 국가의 계획생육 방침에 따른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구나 계획생육조례' 개정을 통해 결혼휴가, 출산휴가, 배우자의 간호휴가, 육아휴가, 자녀가 부모를 간호하는 휴가 등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 출산휴가의 경우 지역별로 158일~1년 사이로 상이하다.

해고

중국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시용 기간에 채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증명된 경우
- 고용기업의 규정 및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중대한 과실, 사리(私利)추구와 부정행위로 고용단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고용단위와 노동관계를 맺음에 따라 본 고용단위의 작업임무 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단위가 지적해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 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황*에 의거,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 * 규정 상황: 1) 사기, 협박 또는 긴급상황에서 당사장의 진실된 의사표시가 아닌 상황에서 계약 체결 또는 변경. 2) 고용주가 자신의 법적책임 면제했거나 노동자 권리 배제한 경우. 3) 계약 내용이 법률 또는 행정법규의 강제규정 위반.
-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경우

또한 근로자가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노동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직 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유사 직업병 환자로 진단 또는 의학관찰 기간 중인 자
- 본 고용단위에서 직업병을 앓거나 또는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거나 일부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질병 또는 비 업무상 부상으로 규정된 치료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인 경우
- 본 고용단위에서 연속 근무 기간이 만 15년이고 법정 퇴직연령(남성 60세, 여성 50세)까지 5년 미만이 남은 경우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상황

외국 기업의 해고 조치에 대해 해당 직원이 불복할 경우 직원은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노동 중재위원회에 대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1) 노동계약서에 직원의 해고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 놓아야 한다.
- 2) 직원을 해고할 때는 사전에 해당 직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3) 만약 노동조합(工會)이 있다면 노동조합에도 서면으로 통보하여 동의를 구해야 한다.
- 4) 직원채용 등기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최종적으로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노동국 또는 노동인사국에 해고조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퇴직금

중국은 근로계약 기간 종료 전에 사용자 측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경제보상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 전에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는 경우에도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경제보상금 정산은 노동계약 해지 또는 종료 전 근로자의 12개월 평균 월급과 해당 기업 내 근무 기간에 따른다. (경제보상금=평균 월급*근무 연수)

월급이 지역 평균월급의 3배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 평균 월급*3으로 정산한다.

근무 기간은 만 1년마다 1개월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1년으로, 6개월 미만의 경우는 0.5년으로 정산한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현재 5대 사회보험, 즉 양로보험(연금), 의료(건강)보험, 공상(산재)보험, 실업(고용)보험 및 생육(출산)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5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보험혜택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하고 각 지방에서 세부적 기준을 규정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보험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의료보험 중 기업의 부담액은 근로자 급여총액의 약 10%, 근로자의 부담액은 급여의 약 2% 정도에서 정한다. 사회보험관리센터는 기업이 부담한 금액의 약 70% 정도를 통합계좌에, 기업이 부담한 나머지 금액 및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을 개인계좌에 각각 기록하여 관리한다.

중국의 건강보험인 의료보험은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받을 경우 의료보험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사회보험관리센터의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의료비는 적립금액과 관계없이 지급하되 지급 액수는 1년 기준 해당 지역 근로자 연평균 급여의 10% 이상, 400% 이하의 범위로 제한된다. 동시에 실제 발생한 개별 의료비 중 일부만을 지급받는 반면에 사회보험관리센터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의료비는 적립 금액의 범위에서 발생 의료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고용)보험료 중 기업의 부담액은 근로자 급여총액의 0.8%, 근로자 부담액은 도시 호적 근로자의 경우 본인 급여의 0.2%, 농촌 호적 근로자의 경우 부담하지 않으며 사회보험관리센터는 개인계좌와 통합계좌로 구분하지 않고 관리한다. 실업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상태가 된 경우, 사회보험관리센터에서 실업등기를 했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도시 호적 근로자의 경우 근무연한에 따라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실업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고 그 액수는 현지 최저 급여표준 이하 주민 최저 생활보장 수준 이상의 원칙에 따라 정하며 농촌 호적 근로자의 경우 실업보험기금에서 일시불로 생활보조금만 지급한다.

산재보험

우리나라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공상 보험료는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업종의 산재 발생위험 정도에 따라 근로자 급여총액의 약 0.2~1.9%(구체적 기준은 현급 이상 정부에서 규정)의 기준을 적용하며 사회보험관리센터는 개인계좌와 통합계좌로 구분하지 않고 관리한다.

근로자가 산재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공상보험치료항목, 공상보험 약품, 공상보험입원서비스 표준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공상보험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간병비, 부상 불구 보상금, 부상 불구 생활비, 장례보조금, 친족보조금, 사망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양로보험(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해당하는데, 기업의 납부비율이 높아서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이기도 하다. 양로보험료 중 기업의 부담액은 해당 지역 전년도 근로자 평균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고 근로자는 해당 지역 전년도 근로자 평균급여의 8%를 부담한다.

양로보험은 근로자가 정년퇴직(남성 만 60세, 여성 만 50세)하는 시점에서 양로보험료를 15년 이상 낸 경우 양로보험기금으로부터 매월 양로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납부 기간이 15년 미만일 경우, 매월 지급하는 양로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단지 사회보험관리센터에서 개인계좌에 기록한 금액(즉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만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생육보험

생육(출산)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보험료 기준은 근로자 급여총액의 1%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하며 사회보험관리센터는 개인계좌와 통합계좌로 구분하지 않고 관리한다.

생육보험은 출산 시 생육보험기금에서 검사비, 출산비, 수술비, 입원비 및 약품비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부담한다. 또한, 생육보험에 가입한 남성 근로자의 부인이 출산할 경우 생육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지역별로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세는 중국에서 기업소득세로 불린다. '중국 내의 기업 및 기타 소득이 있는 조직'은 기업 소득세 납부 대상이다. 주로 국유기업, 단체기업, 사영기업, 주식제 기업, 중외 합자/합작기업, 외자 기업 등 기업과 사업단위, 사회단체, 기금회, 민영 비기업 단위, 외국상회 및 농민전업합작사 등 소득이 있는 조직이 해당된다.

개인 독자 기업과 합명기업(合伙企业)은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기업소득세법 세율은 일반적으로 25%이며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 20%,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속 시행된다. 국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기술 기업에 대해 15%의 특별세율을 적용한다.

담배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임대 및 상업 서비스업, 오락업 등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기업 대상으로, 우대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 R&D 활동에서 실제로 발생한 R&D 비용과 관련하여 무형자산이 형성되지 않아 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 규정에 따라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한 다음, 2023년 1월 1일부터 실제 발생액의 100%에 따라 세전 가산 공제한다. 무형자산이 형성된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무형자산 코스트의 200%에 따라 세전 상각한다.

아울러 가산 공제 가능한 연구개발비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건비

여기에는 연구 개발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급여, 기본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실업 보험, 산재 보험, 출산 보험 및 주택 공적금, 외부 연구 개발 인력의 인건비가 포함된다.

2) 직접 투입비용

(1) R&D 활동에 의해 직접 소비되는 재료, 연료 및 전력 비용

(2) 중간 시험 및 제품 시험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 및 공정 장비의 개발 및 제조 비용, 고정 자산을 구성하지 않는 샘플, 시제품 및 일반 시험 방법의 구매 비용, 시험 제품의 검사 비용

(3) R&D 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및 장비의 운영, 유지, 조정, 검사, 유지 및 기타 비용과 운영 임대 방식을 통해 임대되는 R&D 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및 장비 임대

3) 감가상각 비용

연구 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장비의 감가상각 비용을 말한다.

4) 무형자산의 상각비용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개인사업소득대상이 아니면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단위나 개인이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납세의무자이며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위나 개인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의 1차적인 책임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귀속되는 개인에게 있다.

과세소득 및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 ① 종합노동소득(노무 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소득) 3~45%
- ②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소득 5~35%
- ③ 이자 및 배당소득 20%
- ④ 재산임대소득 20%
- ⑤ 재산양도소득 20%
- ⑥ 일시소득 20%

중국은 2018년에 개인소득세에 대해 개정을 한바, 그 내용은 중국 직원에 대한 세금감면, 외국인 혜택 축소, 사회보험 부담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종합소득세 개념을 도입하여 노동성소득(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소득)은 종합노동소득으로 신고하며, 2019년부터 연말정산을 도입하였다.
- 2) 근로소득 월 기본공제를 RMB 3,500에서 RMB 5,000으로 높이는 대신 외국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월 1,300위안의 추가 비용공제는 취소되어 실제 RMB 200 정도만 기본공제가 증가되었다.
- 3) 특별부가공제 (기본공제, 사회보험비 및 자녀교육비, 본인교육비, 의료비, 주택대출이자, 주택임차료)를 신설하였으며, 2021년 12월 31일에 외국인에 대한 자녀교육비, 주택임차료 등 면세우대정책 기간을 2년 더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즉 해당 면세우대정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그리고 2023년 8월 28일 중국 재정부 및 세무총국은 공고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자녀교육비, 주택임차료, 언어교육비 등 면세우대 정책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 4) 3% 최저세율 소득구간을 기존 월 1,5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월 소득 RMB 10,000인 근로자는 세율이 20%에서 10%로 낮아서 최대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 5) 2018년 7월 20일 국무원 판공실 [국세지세 징수관리 체제 개혁방안]에 따라 사회보험비 및 비세수수입 관련 징수관리 직책을 세무부서로 이관하였다.

○ 중국 개인소득세법과 한중 조세협약의 적용

중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한국인은 한중 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을 먼저 적용한다. 즉, 중국 개인소득세법의 적용보다는 조세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예컨대 중국에서 개인(한국인)에게 지급하는 인적 용역소득은 개인이 중국 거주자가 아니라면, 인적 용역소득을 지급하는 단위나 개인은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을 수취하는 개인은 한국에서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에 따라 신고 납부, 중국에서 원천 징수된 개인소득세를 공제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증치세란 중국의 주요 간접세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목이다. 그 납세자는 중국 내 상품 판매, 가공/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수입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다.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중국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업세를 개혁하고, 2016년 5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단체와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 및 관련 서비스, 판매 서비스, 무형 자산 또는 부동산 및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주로 3단계로 구분되며, 각각 13%, 9%, 6%에 해당한다. 소규모 납세자 부가가치세 징수율은 3%이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세관에서 징수한다.

현재 중국 증치세의 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음과 같다.

- ① 물품판매/가공, 수선교체용역 제공/일반 화물 수입(국무원에서 별도 규정한 제품 제외) 13%
- ② 교통운송, 우편 서비스/기초 통신 서비스/건축서비스/부동산, 토지사용권 양도, 식용식물유/수돗물,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 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연탄//도서, 신문, 잡지/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비닐필름/국무원에서 규정하는 기타 제품 9%, 서비스업(TV 방송/부가가치 증가형 통신/금융/현대/생활 서비스) 6%

중국의 증치세 징수방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거래 징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나 기업체가 납세의 무자가 되는데, 실제 증치세를 징수하는 방식은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재 등을 매입할 때에 거래 상대방에게 증치세(매입증치세)를 지급하고, 매입 또는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때에 그 재화의 매입자로부터 증치세(매출증치세)를 징수하여 과세기간(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월 단위)동안의 매출증치세와 매입증치세의 차액을 세무국에 납부하는 것이다.

중국은 소규모 납세의무자에게 증치세 관리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증치세액과 매입증치세액의 차액이 매출액의 3%로 간주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간이과세 방식을 채택해 왔다. 기존 소규모 납세의무자는 연간 매출이 50만 위안 미만인 공업기업과 80만 위안 미만인 상업기업에 한했다. 2018년 5월 1일부터 해당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어 연간 매출이 500만 위안 미만 공업, 상업 기업 모두 소규모 납세의무자 등록신청이 가능해졌다.

수출환급과 공제방식

수출의 경우 증치세율은 0%이므로 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의 경우 매입증치세의 환급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환급률은 국무원에서 결정하므로 수출장려 또는 수출억제 등 국가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자주 변경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 과세 면제 항목

- 농산품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 피임약품 및 도구
- 고서적
- 과학연구, 과학실험, 교재에 사용되는 입력기기(輸入機器) 및 설비
- 외국정부나 조직에 의한 무상원조 수입물자 및 설비
- 장애인 관련기관이 수입하는 장애인 전용 물품 등
- 자가사용 물품의 판매

2023년 8월 1일,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증치세 감면 정책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여 시행키로 하였으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월 매출액이 10만 위안 이하인 (이하 포함) 증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한다.
- ② 증치세 소규모납세자는 3%의 징수율의 과세판매수입을 적용하되, 1%의 징수율로 감소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또한 3%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하는 증치세 예납항목을 1%의 원천징수율로 하향조정한다.
- ③ 본 공고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특별소비세

중국은 담배, 주류, 폭죽, 화장품, 정제유, 귀금속, 골프공 및 고급시계, 요트,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등 세목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중국 내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소비제품의 제조, 위탁가공, 수입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 및 판매기업과 개인 모두 납세의무자이다.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증가법(价法)과 종량법(量法)으로 나뉜다. 증가법으로 과세하는 과세대상의 과세표준은 해당 품목의 매출액이다. 종량법 정책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할 경우, 일반적으로 단위당 과세소비품의 종량, 용적 혹은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증가법에 따른 세액 = 과세대상 소비품의 매출액 * 적용세율

종량법에 따른 세액 = 과세대상 소비품의 판매량 * 적용세율

수입품은 조성계세가격에 따라 납부할세액을 계산한다.

조성계세가격 = (관세 과세표준 + 관세) / (1 - 소비세 세율)

납세할세액 = 조성계세가격 * 소비세세율

특별소비세는 생산단계, 수입단계, 소매단계 등 과정에서 납부한다. 납세인이 생산한 과세 대상 소비품은 생산자가 판매할 때 신고납부한다. 수입한 과세 대상 소비품은 수입통관자가 통관 시 신고납부한다. 금/은 액세서리 소비세는 소매자가 소매단계에 납부한다.

인화세

인화세란 경제활동 및 경제거래 중에 작성, 사용 및 수령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 증빙서류에 대해 징수하는 세목이다. 인화세의 납세자는 중국 경내에서 규정된 경제적 증빙을 작성, 사용 및 수령하는 기업, 행정 단위, 사업 단위, 군사 단위, 사회 단체, 기타 단위, 자영업자, 및 기타 개인을 포함한다.

중국은 2021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인화세법>(이하“인화세법”이라 함)을 통과하고 2022년 7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3개 공고를 통해 신(新) 세법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화세 몇 가지 사항 정책 집행기준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2년 22호)를 통해 인화세의 납세의무자, 과세증빙 서류, 과세기준 및 세금환급, 세금 보충납부, 면세 등 몇 가지의 정책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인화세법 실시 후 관련 우대정책 연결 문제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2년 23호)에서 시행되는 인화세 우대정책 문서 및 조항, 폐지된 인화세 우대 정책문서 및 조항 목록, 무효화된 인화세 우대정책 문서 및 약관 목록을 명확히 하였으며, <국가세무총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인화세법’ 실시 등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 14호)에서 인화세의 징수관리 및 납세 서비스관련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확히 하고, 토지 증치세 우대 사항의 처리방법을 최적화하였다.

인화세법과 1988년부터 시행된 기존 “중화인민공화국 인화세 잠행조례”(이하 “잠행조례”라 함)를 비교하면 주로 아래 몇가지의 변화가 있다.

세목에서 기존의 3개 세목인 계약서(서면 계약서), 소유권 이전 문서, 영업장부외에 증권거래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명세 세목은 총 17개로 “기타 장부”, “권리, 허가증빙” 세목 및 “기타 재정부가 과세문서로 결정하는 증빙”을 삭제하였다. 세율면에서 도급계약서, 운송계약서, 상표전용권/저작권/특허권/노하우 사용권 이전문서 등 계약서의 세율을 0.05%로부터 0.03%로 인하하였고, 영업장부 세율은 0.05%로부터 0.025%로 인하하였다. 과세기준에 있어서, 과세계약서, 소유권 이전문서에 기재된 증치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계약서의 인화세 과세기준 확정 규칙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존 <잠행조례> 제3조의 끝수에 대한 규정을 취소하고 사실에 따른 과세 및 납세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및 조직 개편 및 공공기관 제도 개편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재무부 세무총국 공고 2024년 제14호)에 따라 ,2024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 회계장부에 대한 인화세

(1)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설립된 신규기업의 경우, 새로 개시된 영업장부에 기재된 납입자본금(주식자본)과 자본적립금의 총액은 이미 인화세를 납부한 부분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인화세를 납부하지 않은 부분과 향후 새로 추가된 부분은 규정에 따라 인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2) 기업채권의 지분 전환으로 증가된 납입자본금(주식자본)과 자본적립금의 총액은 규정에 따라 인화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 구조조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채권 지분 전환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자본 전환으로 인해 증가한 납입자본(주식자본)과 자본잉여금의 총액에 대한 인화세는 면제된다.

(3)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평가를 거쳐 증가된 증액된 납입자본금(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총액은 규정에 따라 인화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기업의 다른 회계 계정에 기록된 자금이 납입자본금(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인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

2) 각종 과세계약에 관한 인화세

기업의 개편 및 재편 과정에서, 또는 사업 단위가 개편되기 전 작성되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각종 과세 대상 계약은, 개편 후 새로운 주체가 기존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계약의 과세 기준에 변동이 없을 경우 개편 전에 이미 납부한 인지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3) 재산권 이전서류에 관한 인화세

(1) 기업 구조조정, 합병, 분할, 파산 및 청산에서 작성한 재산권 이전 문서는 인화세가 면제된다.

(2) 토지 사용권, 주택 및 기타 건물 및 구조물의 소유권 및 지분을 동일한 투자 주체 내에서 이전하는 재산권 이전 문서는 인화세가 면제된다.

환경보호세

2018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환경보호세를 징수하는데 분기별로 납세자가 신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 영내와 관할 하에 있는 기타 해역에서 납세 대상인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과 사업체 및 생산 경영자들이 대상이다. 납세 대상 오염물질은 대기 오염물질, 수질 오염 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등 4가지이다.

납세 대상 오염물질 및 세금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기오염) 1.2 위안~12위안/당량(當量)

② (수질오염) 1.4 위안~14위안/당량/(當量)

③ (고체오염물질) 버력 5위안/톤, 위험폐기물 1,000위안/톤, 미광 15위안/톤, 분말 연탄재·고로 슬래그·기타 고체폐기물 25위안/톤

④ (소음) 기준 초과 분량 1~3dB 350 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4~6dB 700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7~9 dB 1,400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10~12dB 2,800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13~15dB 5,600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16dB 11,200위안/월

조세혜택

중국에서 모든 회사가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2024년 기준 일반적으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형태를 아래와 같이 분류 가능하다.

1) 기업소득세

- 소형박리기업(실제 세부담은 5%, 10%를 초과하지 않음) : 세율 20%
- 고신기술기업, 선진기술형 서비스기업, 0.25 μ m보다 작은 집적회로 생산업체, 80억 이상 투자한 집적회로 생산업체, 서부지역에 설립한 장려산업업체, 특별지역에 설립한 장려산업업체, 오염방지에 종사하는 제3자기업 등: 세율 15%
- 비거주자기업: 세율 10%

2) 증치세

기술양도, 기술개발 수입 사업, 농업생산자가 자가생산한 농산품 판매, 피임 약품과 기구의 구매와 판매, 사회에서 회수한 고서, 과학연구, 과학실험과 교육에 사용하는 수입기기와 설비, 외국정부, 국제조직에서 무상으로 지원한 수입물자와 설비(외국기업 불포함) 등: 세율 0%

3) 수입관세

장려산업은 0% 세율 적용한다.

중국 세무국에서는 조세우대 정책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각 세종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

면 유형에 해당되는지, 위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을 회계,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세

중국에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세(방산세) 납세의무자, 과세품목 및 세율은 아래와 같다.

(1) 납세의무자

부동산세는 소유권자가 납부하며, 소유권을 담보로 내놓은 경우, 담보권자가 납부한다. 소유권자 혹은 담보권자가 부동산 소재지에 없거나 소유권 미확정 및 담보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대리 관리인 혹은 사용자가 납부한다. 소유권자, 경영관리단위, 담보권자, 부동산 대리관리인 혹은 사용자는 납세의무자로 통칭한다.

(2) 과세품목 (세목)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원가치에서 10%~30% 를 1 차적으로 차감한 후의 잔여가치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구체적인 차감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결정한다. 근거로 삼을수 있는 부동산의 원가치가 없을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세무기관은 동류형 부동산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한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료 수입을 부동산세의 과세근거로 한다.

(3) 세율

부동산의 잔여가치에 따라 계산 및 납부할 경우, 부동산세의 세율은 1.2% 이며, 부동산 임대료 수입에 따라 계산 및 납부할 경우, 세율은 12%이다.

세무정책 동향

우리 진출기업이 자주 접하게 되는 세무 관련 이슈로 아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해외송금과 관련한 세금 이슈

우리 진출기업이 세무 전문가에게 자주 질문하는 내용 중 하나가 해외송금과 관련된 세무사항이다. 모든 현지법인은 본사에 여러 명목으로 송금을 하게 된다. 해외사업장이 자금이 없으면 청산을 하거나 지분양도를 하거나 할 것이고, 해외사업장이 자금이 있으면, 본사에서 로열티 등 방식으로 송금을 요구한다. 송금 시 5만불 이상의 금액은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다. 5만불 미만의 송금에 대해 은행에서는 특별히 기타 증빙은 요구하지 않고 인보이스와 계약서만 보기 때문에 쉽게 송금이 된다. 회사에서는 송금을 했으니 이것으로 끝나는 줄로 알고 재무담당 직원들도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인식한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송금을 했더라도 5만불 미만은 반드시 세금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 송금한 기록이 외환관리국으로 정보가 제공되어 나중에 세무국에서 이만큼의 세금(세금 및 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도 나온다. 5만불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이 크지도 않고 혹은 이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이 세금은 사실상 회사에게 부담이 없다. 세금은 부가가치세(증치세)와 법인세(기업소득세) 2가지로 나간다. 부가가치세는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회사가 해외용역을 구입한 것으로 해서, 매출세액에서 차감이 된다. 그래서 송금을 하면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를 했더라도 지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없게 된다. 법인세도 원천징수를 했으면, 본사에는 해외납부 세금으로 해서, 본사의 납부 세액에서 차감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세금의 손실 부담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가산금이나 벌금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리스크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는게 바람직하다.

둘째, 청산과 관련된 세금 이슈

우리 기업이 국내복귀중에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 청산이다. 청산시, 회사가 채권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채권은 다 정리를 하였는데 채무를 정리를 안하게 되면, 채권자가 소송에 들어오게 되면 청산절차가 진행이 안된다. 채무부분도 다 정리를 하였다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남아있는 부분은 본사 차입금이나, 본사의 매입채무나, 기타의 미지급 성격의 자금으로 남아있게 된다. 현지 진출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5년 또는 10년 손실을 보면서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은 상기의 방식으로 본사가 지원을 하였기 때문이다. 청산을 진행하려고 할 때, 마지막에 다른 자산 부채들은 다 처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현금성 자산이 약간 남아있고, 본사의 부채가 엄청 남아있다. 이 경우는 운영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청산을 하려는 시점에는 문제가 된다. 자금이 없어서 상환하지 못하기에 바로 청산이익으로 처리된다. 즉 채무면제 이익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하여 바로 25%의 법인세가 적용이 예상되므로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중국은 저작물,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개별적 법률·법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20.1.15.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지재권 및 기술이전 분야의 이행을 위하여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 발표, 법률법규 재정비, 조직개편 등을 시행하여 왔다.

○ 법령 제·개정 동향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민법전에 지재권에 대한 일반 규정을 마련하였는바 저작물, 발명, 상표 등에 대한 지재권 정의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근거 규정이 포함된다.

1) (지재권 일반 규정) 민법전 제123조 ①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지재권을 향유한다. ② 지재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아래 객체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 권리이다.

2)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 규정) 민법전 제1185조 고의로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하여 상황이 심각한 경우, 피침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6월 1일부로 시행되는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보호범위 확대,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보호 강화, 저작권 권리귀속 명확화, 저작권 침해책임 강화 등이 포함된다.

2021년 6월 1일부로 시행되는 특허법은 합법적 권익 보호, 특허의 실시와 활용 촉진, 특허권 수여제도의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다.

○ 특허법 주요 개정 사항

1) (합법적 권익 보호) 성실신용원칙, 남용 금지(20조), 신약 존속기간 보상(43조), 과태료 확대(68조), 행정기관 분쟁 처리(70조), 고의 침해 1배~5배 징벌적 배상, 법정 배상 3만~500만 위안, 침해자 입증책임(71조), 소송 전 보존조치(72조), 침해소송 시효 3년(74조), 의약품 관련 분쟁 처리(76조)

2) (특허실시 활용 촉진) 직무발명 활용 촉진(6, 15조), 특허정보 공공서비스 체계 건설(21조), 중앙 기관과 지방 정부의 특허공공서비스 강화(48조), 개방허가제도 도입(50~52조)

3) (특허권 수여제도 개선) 부분 디자인제도 도입(2조), 국가 긴급상황 공공이익 공개 신규성 상실 예외(24조), 원자핵 변환방법 특허권 불수여(25조), 디자인 6개월 내 국내 우선권 주장(29조), 특·실 출원 우선권 서류 제출기간 16개월(30조), 디자인 보호 15년(42조), 실·디 침해분쟁 당사자 평가보고서 제출 가능(66조)

○ 상표법 개정사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은 2023년 1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 초안(의견수렴고)을 공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중국상표법은 1983년 시행 이후 이미 4차례 개정(1993년, 2001년, 2013년, 2019년)되었으며 이번은 제5차 개정이다. 가장 최근인 2019년의 개정이 '악의적인 상표출원 대책' 등에 특화된 개정이었기 때문에 전면 개정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며,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수렴안은 현행 상표법 총 7장 73조에서 10장 101조로 확충돼 다양하게 변경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우리기업이 주목해야 할 조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의견수렴안 제21조에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동일 상표의 중복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 ② 의견수렴안 제22조에 악의적 상표출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하였다.
- ③ 의견수렴안 제45조~제47조에 악의가 있는 상표등록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하에 이전할 것을 청구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 ④ 의견수렴안 제61조에 상표등록 후 5년마다 사용상황 설명을 필요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⑤ 의견수렴안 제83조에 악의적 상표등록이 타인에게 손실을 준 경우의 민사배상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법해석의 개정사항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2.3.16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法)> 적용 문제에 관한 사법해석(이하 “본 사법해석”)을 공포하여 2022.3.20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은 중국 시장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률로서 1993년에 제정 및 실시된 이후 2017년과 2019년에 2번 개정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첫 번째 사법해석으로서 2007년 2월 1일에 발표된 “최고인민법원의 부정경쟁 민사사건 법률 적용 관련 문제에 관한 해석”이 있었고 본 사법해석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 사법해석을 대체하게 되었다.

본 사법해석의 내용과 관련, 중국에 투자하였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우리기업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일반 조항’의 적용 규칙을 명확히 하였다.

제1조~제3조에서 일반조항의 적용 조건 및 상업도덕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법률상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민사분쟁소송에서 일반 조항을 남용하여(소위 ‘일반 조항으로의 도피’) 경쟁 사업자에 대해 무분별하게 침해배상 등 주장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원의 재판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2) 혼동행위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6조에서 혼동(混淆)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및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본 사법해석은 위와 같은 중요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다. 제4조에서 일정한 시장 인지도가 있고, 동시에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 명칭, 포장, 장식 등 표지(가)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표지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12조 1항에서 상표의 동일 및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과 방법을 참조하여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표지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 하여 다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혼동행위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3) 상업적 비방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본 사법해석은 제19조에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상업적 비방(毀)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의 상업적 비방행위로 인하여 특정된 피해대상이 자신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가 업종 내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방행위를 한 경우, 어느 사업자가 자신이 그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주장이 어렵고, 추가적으로 자신이 특정 피해 대상임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4) 강제 리디렉션(redirection)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2조에 의하면, 다른 사업자의 동의 없이 그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에 링크를 삽입하여 강제 리디렉션 시키는 방식으로 그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법해석은 제21조에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강제 리디렉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직접 리디렉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즉 다른 사업자 및 사용자 양측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리디렉션 시키는 것은 “강제” 행위로 인정된다. 단순히 링크만 삽입하였고, 리디렉션은 사용자의 후속 동작에 의해(클릭 등 동작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링크를 삽입한 구체적인 방식, 링크를 삽입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 및 기타 사업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5) 일부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증가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7조 제4항에서, 제6조(혼동행위)와 제9조(영업비밀침해행위)의 해당 행위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실제 손실 및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500만 위안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사법해석 제23조는 상기 제6조의 혼동행위와 제9조의 영업비밀침해행위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일반 조항), 제8조(허

위홍보), 제11조(비방행위), 제12조(인터넷을 이용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손실 및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500만 위안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 지식재산 침해행위를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로 간주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市管局)은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의 관리 방법(市督管理重法失信名管理法)'을 심의 및 채택하여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공정경쟁질서 파괴 행위, 고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을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에 포함시켰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 ① 영업비밀 침해, 상업적 비방, 허위거래 조작 등 그 밖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부정경쟁행위
- ② 고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비정상적인 특허출원과 악의적인 상표등록 출원서를 제출하여 사회 공익을 해치는 행위, 중대하게 위법한 특허 및 상표 대리 행위
- ③ 가격 담합·저가 덤핑·가격 인상, 국가경제 및 민생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가격 책정과 정부지도가격을 이행하지 않고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가격개입조치와 긴급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④ 단단계 판매를 조직·기획 하거나 단단계 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
- ⑤ 소비자의 생명 및건강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위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 ⑥ 기타 법률·행정법규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로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 특허소송제도

특허소송의 경우 기존 지식재산법원이나 중급인민법원이 1심을 담당하고 고급인민법원이 2심을 관할하던 것을 2019년부터 고급인민법원에서 관할했던 2심을 최고인민법원으로 일원화하였다. 이는 우리 기업입장에서 보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변화라 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2심을 담당하게 되는만큼 재판의 공정성을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인터넷 법원

중국은 지난 2017년부터 온라인상의 소송플랫폼을 통해 소송 제기에서 판결까지 모든 소송절차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인터넷법원(互法院)을 항저우('17년), 베이징('18년), 광저우('18년)에 설립하였다. 인터넷 법원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를 주로 다루고 있고, 특히 인터넷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인터넷법원제도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1심 판결이 나오는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진행 절차가 빠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온라인상으로 간단한 내용만 기입하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소장을 완성해 주고, 피고의 스마트폰으로 송달된다. 피고 역시도 손쉽게 스마트폰 또는 PC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소 제기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재판 날에도 법원에 가지 않고 집이나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장소에서 법관 및 원고, 피고가 화상채팅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중국 인터넷법원은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동일하게 소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중국은 2018년 조직 개편을 통해 상표, 지리적 표시, 식물신품종 관련 법령의 담당부서를 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의 국가지식재산국으로 변경하였는데 현재 지식재산 종류별 각 권리의 보호기간, 적용 주요 법률 및 담당행정기관은 아래와 같다.

- 저작물 보호기간은 개인의 경우 사후 50년, 법인의 경우 50년이며, 관련 법령은 저작권법(2021.6.1. 개정법 시행)이며 담당행정기관은 국가판권국이다.
- 발명실용신안디자인 보호기간은 발명의 경우 20년, 실용 10년, 디자인 10→15년이며, 관련 법령은 특허법(전리법)(2021.6.1. 개정법 시행), 담당행정기관은 국가지식재산국이다.
- 상표 보호기간은 10년(연장가능)이며, 관련 법령은 상표법(2019.11.1. 개정법 시행), 담당행정기관은 국가지식재산국이다.
- 지리적 표시 보호기간은 10년(연장가능)이며, 관련 법령은 상표법 지리적 표시제품 보호규정, 담당행정기관은 국가지식재산국이다.
-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무제한이며, 관련 법령은 부정경쟁방지법(2019.4.23. 개정법 시행), 담당행정기관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이다.
- 반도체배치설계 보호기간은 10년이며, 관련 법령은 반도체배치설계보호조례, 담당행정기관은 국가지식재산국이다.
- 식물신품종 보호기간은 20년(기타 15년) 관련 법령은 식물신품종보호조례, 담당행정기관은 국가지식재산국이다.

2023년 7월 20일 국무원은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업무 브리핑에서 상반기 주요 지식재산권 지표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밝혔다.

- ① 국내 특허 상표 보유량이 꾸준한 증가하고 있다.
- ② 특허 보유 혁신형 기업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③ 디지털 기술 분야의 특허 비축이 더한층 강화되었다.
- ④ 중국 출원인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이 활발해지고 있다.
- ⑤ 지식재산권의 수출입 규모가 온건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분류한 35개 기술분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중국 국내 유효발명특허 증가율 상위 3개 기술분야는 컴퓨터기술 관리방법, 컴퓨터기술 및 기본통신 프로그램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6.6%, 38.2% 및 26.0% 증가하여 성장률이 중국내 평균 20.4%를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중국 디지털 경제 핵심산업의 발명특허 유효건수는 160만건이었다. 그 중 중국 내 건수가 127만 3천건으로 중국 국내외 비율이 8:2의 패턴을 구성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디지털 경제 핵심산업의 발명특허 권리수여 건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18.1%로 같은 기간 중국 발명특허 권리수여 총건수 연평균 증가율의 1.5배로 나타났다.

○ 특허 출원

중국 특허 출원절차는 한국과 비슷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면 중국 지식재산국은 해당 출원건을 심사하고 거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특허 등록결정이 나서 특허권을 부여받게 된다. 특허명세서에는 모두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므로 꼼꼼한 번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 특허제도에서 독특한 제도는 실용신안인데 타국가와는 달리 중국은 실용신안에 대해 무심사 주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출원비용도 특허의 1/4~1/3 정도밖에 안되고 특허의 등록주기가 22개월 이상인데 반해 실용신안은 5~6개월이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기술평가 없이 바로 권리 행사가 가능하여 적극 활용을 권장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발표한 2022년 특허, 상표 및 공산품 디자인의 국제 등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협력조약(PCT) 경로를 통한 국제특허 출원건수가 세계 1위로 나타난 바, 2019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이래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WIPO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에는 PCT신청이 가장 많은 국가로 중국이 선정되었으며, 중국은 총 69,610건을 등록하였다. 두 번째로 신청이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총 55,678건을 등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은 48,879건, 한국은 22,288건, 독일은 16,916건을 등록하였다. 2023년에는 독일이 4,517건의 디자인을 등록하며 선두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중국이 3,758건의 디자인을 등록하며 뒤를 이었다. 이어서 미국은 2,668건, 스위스는 2,196건, 이탈리아는 1,817건을 등록하였다. 또한 중국은 상위 10개 국가 중에서 46.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바 있다.

2022년 WIPO의 헤이그협정을 통해 제출된 국제 디자인 출원건수는 전년대비 11.2% 증가한 25,02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디자인 출원 신청은 독일이 4,909건으로 1위, 중국(2,558건)이 2위였고 이탈리아(2,414건), 미국(2,412건), 스위스(2,178건) 순으로 나타났다.

○ 상표 출원

대부분의 우리기업들은 한국 출원과 동시에 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중국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안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상표는 발명특허나 디자인처럼 출원 전에 공개가 되면 신규성을 상실하여 부등록 사유가 되는 문제는 없다. 다만, 중국도 선출원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경우 먼저 출원한 출원인이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로는 아래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중국에 직접 상표출원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규 브랜드의 상품을 국내시장에 먼저 출시한 후, 일정 수준의 지명도와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후에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상표출원 시 적용되는 우선권 인정기간은 6개월이므로, 위 과정을 통해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우선권 기간인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 중국상표출원은 우선권 주장 없이 직접 중국에 출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위험성 중에 하나는 이미 해당 상품이 국내시장에 출시되었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미 중국 소비자에게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상대방의 상표브로커에게 포착되어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당하는 피해 위험이 크다. 최근의 온라인 중심의 유통 환경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도 해당 브랜드는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2) 한국출원 후 우선권제도를 활용한 출원

한국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후 6개월 이내에 중국에 출원하는 경우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우선권 주장을 위해서는 한국 출원 시에 선택하였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한하여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지정상품 선정에 있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권 주장을 위해서는 한국특허청에 우선권증명서류를 발부 받아 중국 상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선권 증명서류는 사후 보정이 가능하지만, 우선권 주장은 반드시 출원시에 하여야 하므로, 우선권 주장을 할 경우 중국 현지 대리인에게 해당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출원 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중국에만 출원

상표를 중국에만 출원하는 경우는 해당 상품의 주요 소비시장이 중국인 경우 또는 중문상표와 같이 중국시장에서만 사용하는 상표인 경우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화장품, 의류 등 분야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중국시장의 특성상 영문브랜드명을 중문으로 번역하여 부르는 특성에 따라 한국에서는 영문브랜드로 호칭되지만, 중국에서 사용할 중문상표를 별도로 네이밍을 하여 이를 중국에만 출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4) 마드리드 국제출원

한국출원 후 이를 토대로 하여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하여 중국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중국제도의 특성상 등록 후 현지의 온라인플랫폼 입점이나 유통상이나 대리상 등과의 협의 시에는 등록증명서가 필요하며, 신청 후 발급까지 2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등록한 경우 사전에 미리 등록증명서를 받아 놓는 것이 효율적이다.

2023년 12월 15일까지, 마드리드 체계를 통해 등록된 전세계 상표 수는 48,353건으로, 이는 2022년에 등록된 65,843건보다 17,489건 감소한 수치다. 이중 미국(9,030건)이 1위를 차지했고, EU(7,970건), 중국(4,054건)이 그 뒤를 이었다.

9. 청산 및 철수

가. 청산 및 철수

안내문구

중국의 외상투자기업은 구조조정 시점에서의 재산 및 부채 규모에 따라 해산 청산 또는 파산 청산을 진행하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지분양도, 유상감자, 영업양도, 해산청산, 파산청산, 흡수합병과 같은 구조조정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주로 이용되는 구조조정 방식은 해산청산, 지분양도, 파산 청산 정도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구조조정 방식은 절차의 복잡성이나 행정업무의 어려움 등 여러 이유에서 이용되지 않는다.

해산 청산이란 회사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 회사가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청산을 말하고, 파산 청산이란 회사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청산을 말한다.

관련 법 및 절차

파산의 경우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기간도 가장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주요 책임자 개인에 대한 불리한 점이 있고 명예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중국진출기업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발적 청산의 경우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회사 정리 결정을 내린 후 회사의 최고 의결기구의 의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청산팀을 구성해 청산을 진행한다. 여기서 최고 의결기구란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가리킨다.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진행되는 파산 절차는 중국법상 관할 법원에서의 수리가 쉽지는 않다. 많은 기업이 파산을 이용해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고 사업을 철수할 수 있는 자발적 청산이 회사 정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청산 시, 노무, 세무, 정부 보조금, 토지 건물매각, 임대계약 해지 등 이슈가 발행하게 되므로 청산을 준비하는 기업은 아래 사항에 대해 체크하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청산 진행 전, 법인인감, 자료 등을 회사가 직접 관리하고 확실한 인수인계가 필요하며, 절차 대행업체를 선임한다.
- (2) 회사 말소/청산 사항 공지 시 [노동계약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경제보상금 지급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한다.
- (3) [노동계약 종료 확인서]를 체결한다. 직원과 회사간 어떠한 분쟁도 없으며 직원의 협조 의무가 있음을 확인서에 명시한다.
- (4) 직원들의 단체 행동, 회사 세무 이슈 등으로 1~2개월치 급여를 추가 지급 하는 경우도 있다.
- (5) 세금 누락, 탈세 등이 발견될 경우, 세금 추가 납부 및 행정 처벌 될 수 있으므로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사전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해산청산에 의한 철수

중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산절차를 거친다.

(1) 최고 의결기구의 해산 결의

회사는 경영 손실로 인한 해산 결정,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영 불가,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등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혹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해산을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사는 최고 의결기구를 통해 회사의 청산 진행을 결정하게 된다.

공동 투자자 및 채권자, 직원 등과 청산 과정 중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청산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①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

청산 개시 전에 주요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청산 기간에 채권 등록을 정확하게 진행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최대한 줄여야 청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② 청산방안에 대한 검토

청산방안은 청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청산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산 개시 전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에 대해 검

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상세한 분석을 거친 후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회사에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 진행해야 한다.

③ 청산 중 영업 문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의하면 청산 기간 중 기업은 새로운 경영 활동, 청산과 무관한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청산 개시일을 기업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산이 시작된 후(즉, 청산팀이 결성된 후) 회사에 필요한 경영 활동을 제외한 기타 경영 활동은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경영 활동은 사전에 진행해 두는 것이 좋다.

(2) 청산팀의 구성과 신고 수리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팀을 구성한다. 통상적으로 청산팀은 투자자로 구성한다. 청산팀이 구성된 날로부터 청산팀 구성원과 책임자 명단을 시장감독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청산팀은 청산 기간 동안 아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기업의 재산 정리,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작성, 청산방안 작성
- ② 채권자를 위한 청산 공고, 채권자에 대한 서면 통지
- ③ 청산과 관련된 기업의 현안 업무 처리
- ④ 미납 세금 및 청산 과정 중 발생한 세금 정리
- ⑤ 채권 채무 정리
- ⑥ 기업 채무 상환 후 잉여재산 처분
- ⑦ 외상투자기업 대표로 민사소송 참가(소송이 있을 경우)

(3) 채권자 통지와 신문공고

청산팀은 회사법 제186조에 따라 청산팀 결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체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6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보통 2회 공고를 한다.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30일 이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문 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위의 과정에서 아래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① 청산팀은 주소가 명확한 채권자에게 서면 통지
- ② 주소가 불명확한 채권자의 경우 신문에 회사의 해산 사항, 채권자의 채권 신고를 위한 공고를 게재
- ③ 채권자는 규정 기한 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하며, 채권 금액 및 채권과 관련된 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채권자가 채권 신고 기한 내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 기간 내 신고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은 기업 잉여재산의 배분 완료 전에 청구할 수 있다.
 - 잉여 재산 배분된 후에는 채권 포기로 간주

(4) 청산 방안의 제정 및 재산 정리

청산팀은 최고 의결기구의 승인을 받은 청산 방안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과 채무를 정리하고 청산과 관련된 회사의 미완료 업무를 처리하며 회사가 체납하거나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각종 청산 활동을 진행한 후,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청산 잔여 재산을 확정해야 한다. 회사 자산으로 청산 비용 직원 월급, 사회 보험료 및 경제보상금을 각각 지불하고, 미납 세금을 납부하며, 회사의 채무를 상환한 후의 잔여 재산은 주주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하면 된다.

청산기업은 청산 재산에서 청산 비용을 먼저 지불한 후에 기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 청산 비용 및 채무 변제 순위

① 청산 비용

- 외상투자기업 청산 재산의 관리, 매각, 배분에 소요되는 비용
- 공고, 소송, 중재 비용 등
- 청산팀 구성원 보수, 변호사 비용, 회계사 비용 등 청산 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기타 비용

② 기타 채무,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제1순위: 직원의 임금, 경제보상금, 사회보험 비용
- 제2순위: 미납된 세금

- 제3순위: 기타 채무 등

청산 시 대부분 직원(통상 1~2명만 채용)과 노동 계약을 해지해야 하므로 노동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보상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경제보상금은 직원의 급여로 인정되므로 청산 재산에서 우선 청산 비용을 지불하고 난 다음 제1순위로 경제보상금을 포함한 직원의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청산 비용을 지불하고 기업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기업 재산을 배분할 수 없다. 즉, 청산 비용을 지불하고 기업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기업 재산을 투자자의 투자 비율 또는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5) 세무와 세관 등기의 말소

회사는 관할 세무국에서 세무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세무 등기 말소 과정에서는 세무국의 회사 장부에 대한 심사, 세금 및 벌금 추징 등이 진행된다. 따라서 회사는 시장감독관리국에 기업 등록 말소 신청을 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금, 체납금, 벌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관할 세관에 세관 등기 말소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수입 설비 등이 세관의 관리·감독 기한 내에 있을 경우 수입 관세의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가공 무역과 관련해 가공 무역 등기 수책의 핵소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험 요소가 있다.

(6) 청산 보고서의 작성

청산 업무가 종료된 후 청산팀은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사 최고 의결 기구의 확인을 받아 시장감독관리국에 보고하면 된다.

(7) 영업집조 말소

시장감독관리국에 기업법인 영업집조 말소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등기가 말소되면 최종적으로 법인 인격이 소멸하게 된다. 영업집조가 취소된 회사는 3년 내에 말소 등기를 하지 않으면 강제 말소시킨다.

(8) 외환 등기 말소, 잔여 재산의 송금 및 위안화 계좌의 말소

외환관리국(현재 은행에서 심사)의 심사를 받아 개설된 외환 등기를 말소하고 청산 잔여 재산을 출자자에게 송금하고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위안화 은행 계좌를 말소하면 된다. 실무적으로 상기 청산 절차 총 8단계를 완료할 때까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노동계약법, 환경법 및 세금 분야의 정책 등 중국의 기업 경영 환경이 날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 철수의 한 방법인 청산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기업의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법률적인 측면 이외에도 중국의 현실 상황을 이해하고 실무 중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기업 청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완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산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① 청산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청산은 단순히 매뉴얼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관계, 경제적인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업무이기에 실무진행에 앞서 회사현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회사의 세무리스크, 노무이슈, 자산처리 방안, 구비서류 정리, 역할 담당 등 사항에 관해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② 회사채무를 상환한다.

채무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청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채무 관련 소송이나 중재가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 작성, 나아가 정부당국의 허가취득이 불가하다. 따라서 채무는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③ 노무문제도 청산과정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2023년 개정된 《회사법》 제240조는 현행 [시장주체등록관리조례] 제33조의 간소화된 말소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회사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모든 채권채무를 청산한 경우 청산 없이 공고할 수 있으며 만기 후 이의가 없으면 직접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청산업무에 필요한 회계직원 등 일부 담당직원만 남겨놓고 대부분의 직원들과 노동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정상적인 회사 운영과정에서는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던 문제들이 청산단계에 진입하면서 수면위로 노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칫하면 노동중재, 소송이나 집단반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가 공개적으로 불거지게 되면 회사는 청산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근거가 있는 청구에 대해서는 합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평소에 노무관리를 유관 법률법규에 따라 진행하고 노동계약 해지 전 노동당국과 소통하면서 보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위기대처 방안도 미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분 양도에 의한 청산절차

외국인 투자자는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기타 관련 기업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철수할 수 있는데 중외합작기업, 또는 외자독자기업을 막론하고 최고의결기구 의결이 필요하다.

현행법 제71조에 따르면, 주주가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반대 주주는 양도 지분을 매입해야 하고 지분을 매입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른 주주들이 양도 지분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 간 지분양도, 관련 기업 또는 타 양수인에 대한 지분 양도가 결정된 후 기업은 등기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① 지분양도 신청서
- ② 기업 규정, 정관 및 수정협의서
- ③ 기업 인가증서 및 영업허가증 사본
- ④ 기업 최고의결기구 지분변경 관련 결의서
- ⑤ 지분 변경 후의 주주총회 구성원 명부
- ⑥ 양도인과 양수인 조인, 기타 주주의 서명이 있는 양도협의서 등

지분양도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분양도 대상회사가 중외합자(합작)기업일 경우, 반드시 중국파트너의 동의가 필요하다.

○ 지분양도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공동관리계좌(에스크로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중국 매수인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 가장 불안한 부분은 양도대금의 회수인데, 공동관리계좌를 개설해 대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대상 회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 회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향후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명칭 변경을 협상조건으로 해야 한다. 또한 대상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이나 특허권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해야 한다.

○ MOU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로 체결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를 체결할 경우 협상 과정에 쌍방의 의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간 대치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비교적 명확한 권리와 의무, 계약 유효기간, 위약책임 등을 약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매수인의 성의와 인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알아볼 겸 일정액의 계약금을 선지급 할 것을 요청해도 무방하다. 만약 해당 요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매수자를 찾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 노사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지분양도에 따라 주주가 변경돼도 노동계약은 해지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경제보상금 정산이 불필요하나, 실제 경제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 파업이 빈발한다.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의 주인이 바뀔므로 인해 경제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분양도 전에 경제보상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주주로 변경되면 다시 노동계약 체결을 원할 수 있다. 직원 관련 이슈는 사업철수 과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법률적으로 복잡한 업무이다. 또한 중국 특성상 직원들의 파업은 정부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방안의 제정, 실행 등 단계별로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 일반적으로 영업집조 변경(등록기관 주주 변경)이 먼저 이루어지고 세무 신고 후 지분양수도대금을 지급받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매수인회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MOU체결 후 매수인은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에 위탁해 대상회사에 대해 실사를 진행할 것이다. 한편 매도인도 매수인의 운영상황, 주주상황, 연루된 소송 유무여부, 매수인의 회사부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매수인회사의 대금 지불능력을 확인하고 향후 지분양도 절차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 행정절차를 적시에 진행해야 한다. 지분양도 과정이 오랫동안 지속돼 일부 회사에서 적시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대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에 관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자칫하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에 리스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3) 파산청산

파산청산은 청산시점에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인민법원의 파산선고를 통해 회사가 청산되는 강제적, 사법적 청산에 해당한다.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채권자 또는 회사의 청산조의 인민법원에 대한 파산신청에 따라 절차가 개시되고,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잔존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액 등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잔존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들은 전체 채권액의 일부만 회수할 수 있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며, 주주는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기존 출자액의 손실만 부담하면 된다.

중국에서는 채권자에 신청에 의한 파산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파산제도에 대한 이용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국 국내 기업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자들도 적극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외자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을 신청하기보다는 법정대표자의 출국금지 등을 통해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송금받아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외자기업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한편 한국 투자기업 입장에서도 중국에서 파산청산을 진행하게 되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평판 문제가 있고, 나쁜 평판이 이후 중국 내 다른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파산절차는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인격을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절차이며, 중국법인을 장기 방치하기보다는 분명한 매듭이 필요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4) 청산의 중요성 및 청산 의무자의 민사상 책임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철수하는 경우 회사의 주주 및 법 인대표에게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첫째, 주주의 연대책임 부담이다. 최고인민법원의 제21조에 의하면, 회사가 적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말소되어 회사가 청산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는 회사의 주주, 주식회사의 이사, 지배주주를 당사자로 추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회사 해산 사유 발생 후 주주들이 적시에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주주들이 관리책임을 태만히 한 결과 청산절차를 통한 채무 변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주주들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공시한다. 회사법 제67조에 회사가 연속 6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회사등기관은 회사의 영업 집조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산 사유가 발생한 후 영업을 중단된 상태에서 회사의 주주가 적시에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등기관은 영업집조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영업집조 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해당 내용은 국가기업 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가 된다. 또한, 이 경우 회사의 주주 및 법인대표는 시장감독 관리부서의 블랙리스트에 수록되어 향후 중국 내 투자가 제한될 수 있고, 법인 대표는 다른 회사의 이사, 총경리 및 법인대표 등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

셋째, 법인대표에 대한 제한 회사가 중국 내 채무를 청산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 회사의 법인대표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1) 고액 소비 제한

최고인민법원의 피집행자의 고액 소비 제한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 3조에 따르면, 법원의 집행통지문에 기재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회사의 법인대표에게 (i) 비행기, 고속열차 1등 좌석 사용 금지, (ii) 고급 호텔, 골프장 사용 금지, (iii) 부동산 매입 금지, (iv) 자녀의 고액 사립학교 입학 금지 등 고액의 소비를 제한할 수 있다. 법원은 고액 소비 제한 명령을 받은 회사 및 개인을 중국집행정보 공개망(中行信息公)에 공개하고 있다.

(2) 출금 금지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55조 및 제28조에 따라 강제집행 대상자의 중국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데, 회사를 대상으로 출금 금지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대표가 중국에서 출국할 수 없게 된다.

요컨대 청산 사유 발생 후 적시에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주주 및 법인대표에게 연대책임, 블랙리스트 수록, 법인대표에 대한 제한 등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시에 적법한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아울러 아래의 요건을 구비할 경우, 청산의무자는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① 청산의무자가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청산의무를 태만하거나 부적절하게 사무를 진행하는 경우, 즉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하지 않아 회사재산의 가치저하, 유실, 훼손 또는 멸실을 초래한 경우
- ② 청산의무자에게 주관적 과실이 있을 경우
- ③ 청산의무자가 채권자에게 손실 입혔을 경우
- ④ 청산의무자의 행위와 채권자의 손실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청산의무자가 져야 하는 책임은 배상책임과 상환책임 두 가지이다. 배상책임의 목적물은 채권자에게 초래한 손실이다. 상환책임의 목적물은 회사채무이며 즉 상환책임은 청산의무자가 부담하는 회사책임이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특성

2023년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외식 등 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반등했으며, 소비는 중국 경기 회복의 핵심축 역할을 담당했다. 2023년 중국 사회소비품 소매판매 총액은 47조149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했다. 화장품, 의류·신발 등 품목의 소매판매 증가율이 리오프닝과 더불어 플러스 전환되고 전체 소매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소비 증가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 회복 흐름을 보여줬다.

하지만 2024년 들어 소비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자산 감소, 소득 성장세 둔화 등 요인이 소비자신뢰지수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1~3분기 중국 사회소비품 소매판매 증가율은 3.2%에 그치며 소비 및 지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 당국은 부진한 소비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 新제품으로 낡은 것을 교체), 결제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소비진작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소비시장은 전통적인 방식의 인구통계학적 구분이 아닌, 틈새시장으로 세분화되어 소비자에 대한 통찰이 정교해지고 있다. 브랜드 또한 이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은 이미 국내외 브랜드의 시장경쟁이 치열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인지도와 자금력 파워를 가진 글로벌 명품 브랜드와 가격경쟁력과 현지 물류유통, 정책변화에 빠른 적응 등 장점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중국 로컬 브랜드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신규 진입 브랜드는 중국 소비시장의 분화현상을 파악하고, 제품의 정확한 대상 소비자를 타겟팅한 맞춤형 마케팅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나.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2023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 967만 명으로 전년대비 208만 명 감소로 연속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출생인구는 902만명으로 건국 이래 두번째로 1천만 명을 하회했다. (2022년 출생인구 956만 명) 2023년 0~14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4%, 15~59세 인구는 62.6%, 60세 이상 인구는 21.1%를 차지했다. 중국 인구는 감소하는 한편 실버인구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고 노인 인구의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고소득 노인 인구 증가로 제품 수요 다양화, 건강과 품질 중시 및 고급화 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존 실버세대와 달리 상품 품질, 디자인, 혁신제품에 대한 요구가 까다로운 편이다.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소비 성향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은 기존에 비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 소비자들은 충동 소비를 줄이고 제품 품질을 중시하며, 가격 대비 성능을 추구하고, 다양한 판촉 활동을 활용한 할인 제품 구매를 선호한다.

팬데믹을 계기로 온라인 소비가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하며 패션, 생활용품, 가전 등에 집중되었던 온라인 구매가 식품, 주류, 주얼리, 의약품, 농산품 등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1인 가구, 귀차니즘 경제 등과 결합해 홈코노미 제품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기간 중 간편식, 스마트 가전, 홈뷰티케어, 디지털 헬스 등 생활편의 제품 및 서비스 분야가 급속하게 성장되었다. 중국의 주요 소비층인 Z세대는 팬데믹 기간 경기 불안정

, 고용과 소득의 불안 등으로 소비습관이 이성적으로 바뀌고 저축에 집중되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3선, 4선 도시 및 농촌지역 등 하층시장 소비자의 성향이 점차 트렌디해지고, 탄소중립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약 등 스마트 가전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 또한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건강의식이 높아져 일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의로기기와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주요 온라인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그룹 구분이 명확해졌고, 이를 'OO경제'라는 이름으로 소비그룹을 묶어 마케팅을 타겟팅하는 방식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소비시장은 전통적인 방식의 인구통계학적 구분이 아닌, 틈새시장으로 세분화되어 소비자에 대한 통찰이 정교해지고 있으며, 브랜드 또한 이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은 이미 국내외 브랜드의 시장경쟁이 치열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인지도와 자금력 파워를 가진 글로벌 명품 브랜드와 가격경쟁력과 현지 물류유통, 정책변화에 빠른 적응 등 장점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중국 로컬 브랜드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신규 진입 브랜드는 중국 소비시장의 분화현상을 파악하고, 제품의 정확한 대상 소비자를 타겟팅한 맞춤형 마케팅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구매채널의 경우 O2O 온라인-오프라인 간 연결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모바일,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비자 경험 또한 통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일반 소비자는 비대면 소비에 익숙해졌고 디지털 경험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이 낮아지게 돼, 결과적으로 중국 소매 산업은 선제적인 트렌드 전환을 바탕으로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빠르게 대응하고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경기회복을 견인할 수 있었다. 중국 소매 생태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있다. 주요 소비층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여성소비자들은 생활, 쇼핑의 인터넷 의존도가 높고, 뷰티, 건강, 패션 아이템의 최신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버세대는 의료보건서비스, 보건식품, 연금 자산시장, 홈케어 등 제품을 선호한다. 1인가구는 개인의 만족을 위한 자기개발 소비성향이 높고 품질, 편의성, 미니멀리즘 지향적으로 냉동즉석식품, 비조리식품, 복합조미료 등 제품을 선호한다. Z세대는 주로 유명한 팬 경제, 주류 문화, SNS 등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로, 유행에 민감하고, 외모 중심 소비로 뷰티에 대한 소비에 돈을 아끼지 않으며 중국 엔즈경제(, 외모 중심의 소비활동에 따른 경제효과) 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Z세대에서는 귀차오(國潮, 자국산을 더 선호하는 소비경향) 구매 열풍이 불고 있다. 대부분의 귀차오(潮) 상품은 외관이 화려하고 기능을 겸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많은 귀획(, 중국 브랜드)들이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재포장하며, 외관이 화려한 상품에 옛 추억 정서를 담은 브랜드 이미지를 매칭하여 각 연령대의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고 있다. 중국 귀획의 부상은 소비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 추세에 힘입어 인터넷 디지털화 경로로 수많은 브랜드가 온라인에서 성장하여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소비시즌은 1~2월(설 선물), 3월 초(3월 8일 여성의 날), 6월(6월 18일 징둥 창립기념 판촉대전), 11월 (11월 11일 샵11), 12월(12월 12일 샵12) 이다.

한국 상품 이미지

중국에서의 한국 상품은 대체로 비교적 높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및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신라면, 진라면, 불닭볶음면 등 라면종류는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라면을 비롯한 한국산 식품은 안전하고 건강한 이미지로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풀무원의 냉장 파스타, 핫도그, 만두 등 밀키트 식품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왕고자, 즉석떡볶이, 삼양의 불닭볶음면과 인스턴트 커피 등 제품이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제품들은 콜드체인 구축과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현지 유명 왕홍 라이브 방송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통해 중국 진출에 성공했다. 기업 규모가 작지만 개성파 브랜드들은 샤오홍수(小) 등 라이프스타일 공유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를 알리고 마니아층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영유아 화장품 브랜드인 궁중비책 또한 꾸준히 중국 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궁중비책은 입소문을 통해 중국 부모들 사이에서 안정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아 왔다.

한편, 중국 로컬 화장품 브랜드의 부상 및 중국 소비자들의 애국소비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한국 화장품은 기존에 비해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화장품은 우수한 품질, 세련되고 사용자를 배려한 디자인 등으로 중국 소비자의 인정을 받지만 시장 포지셔닝이 애매하고 브랜드 파워가 약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중국 화장품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가성비,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현지 시장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현지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실수요자와 직접 접촉

중국인 실수요자와 에이전트가 이원화되어 있어 비즈니스 상담은 실수요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국 업체들이 요청하는 대리 제도는 독점판매와 비슷한 형식으로서 한 지역에 대해 독점판매권을 주고 바이어의 능력에 따라 광고비용, 시장개척 비용 일부를 주는 것이나 독점대리를 한 번 주면 파트너 교체가 쉽지 않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2) 상담 시 최대한 중국어 활용

중국 업체 방문 시 중국어가 능통하지 않을 경우 통역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통역원이 전문분야 지식이 부족해 현장에서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품의 기능, 우수성 등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전에 중문 카탈로그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료 송부 시 중국어로 작성한 상담 자료를 송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화 교신 시에도 중국어로 업무 교신하는 것이 좋다. 먼저 중문 카탈로그 및 샘플(제공 가능한 경우)을 해당 업체에 제공한 뒤 팩스나 이메일로 접촉해야 한다. 또한 중국 업체 특성상 물품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강해 상담 시에는 샘플을 휴대하고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명함 챙겨보기

명함은 오른손 혹은 양손으로 공손히 주고받는다. 여러 명이 미팅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앉아있는 순서에 맞게 명함을 정렬하여 상담에 임하면 좋다. 명함에 여러 개의 직함이 나열되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상단에 적혀 있는 것이 대표직함이다. 명함이 없을 경우 호칭은 보통 상대방의 성(姓)에 중(, 대표) 혹은 징리(理, 매니저)를 붙여서 부르면 된다.

4) 위챗(WeChat) 계정 만들기

중국 업체 방문 및 상담 시 미리 위챗 앱을 다운받고 계정을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으로 중국 업체와 상담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종이 명함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위챗 친구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5) 철저한 사전준비

최초 접촉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역 분쟁의 경우 대부분이 수출대금 회수불능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물품인수와 대금지불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국어와 영문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로 된 계약서도 같이 작성해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편이 좋다. 중국어 계약서만 작성할 경우에는 중국어로 된 글을 보는 것이 부담돼 계약서를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법률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며, 계약서는 반드시 전문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해야 한다.

6) 전문가 활용

중국사업 경험자, 변호사, 중국 비즈니스 지원 관련 기관 등 주변에 있는 각종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통역원이 같이 할 경우에는 충분한 의사전달이 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통역원이 중간에서 잘못 전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간혹 통역원이 통역을 하면서 파악한 사업내용을 토대로 중간에 사업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직접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분쟁의 소지가 보일 시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료를 지불하고서라도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7) 파트너 정보 사전 검색

간혹 사기를 목적으로 접촉하는 업체가 있으니 협의가 오가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기본정보를 사전에 검색 및 KOTRA 등 유관기관에 도움을 청하여 파트너사의 기업규모, 현황, 영업이익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중국 기업의 기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중국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사이트(家企信用信息公示系)(<http://www.gsxt.gov.cn>), 치차차(企)(www.qcc.com), 아이치차(企)(aiqicha.baidu.com) 등이 있다. * 링크가 한국에서 열리지 않을 수 있음

8) 비즈니스 무역투자 사기 주의

중국기업과의 상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주요 무역 투자 사기는 이메일 해킹, 무역대금 사기, 서류위조, 금품사기, 선적불량, 불법체류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무역 사기는 그 어떤 특정 대상을 상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각종 사기 행위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역사기를 대비하여 우리 기업은 대금지불 계좌 안내 시 이메일 외 유선, 팩스, 위챗 등 타 교신수단을 이용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계약서 작성 시 추가사항으로 계좌 변경 시 양측에서 취해야 할 행위를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대금지불 전 거래 업체의 실존 여부 및 신용도 조사가 필수이며 정확한 현지 주소 등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거래 과정에 선금을 일정 수준을 받고 화물을 발송하거나 신용장 거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선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을 발송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특히 거래를 처음 하는 상대방과 선금 조약없이 거래하는 것은 사기를 당할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9) 방문 시기

춘절, 노동절(5월 1일), 국경절(10월 1일)은 장기 연휴 기간이므로 중국방문시기로 적절치 않다. 대부분의 업체가 이 시기에 장기 휴무에 들어간다. 특히, 우리나라의 구정에 해당하는 춘절 연휴부터 정월 대보름 사이에는 중국 국유기업 및 정부기관과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외 원단(1월 1일), 청명, 단오(음력 5월 5일), 중추절 등 법정 공휴일에는 3일 이상 휴무인 곳이 많으므로 방문이 적합하지 않다.

10) 지적재산권(상표권, 디자인 등) 등록

자사 제품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상표권,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사전에 미리 등록하는 것이 좋다. 중국은 선출원 위주로 실제 지적재산권의 소유주가 아니어도 지식재산국을 통해 상표 및 디자인 등을 등록할 수 있다. 따라 중국 시장 진출 전 혹은 도중이라도 자사 상표, 디자인 등을 등록하는 것이 좋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중국을 상징하는 상표 사용 불가

중국에서는 국가 명칭이나 국기, 국장, 군기, 훈장 등과 같거나 비슷한 도형, 중앙국가기관이 소재하는 특정된 지명이나 대표성 건축물의 명칭, 도형을 상표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텐안먼(天安門)’, ‘즈광거(紫光閣)’,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 등은 간판이나 상표에 사용

하지 못한다. ‘중국(中國)’이나 ‘국(國)’ 자를 첫 글자로 하는 상표에 대한 심사는 매우 까다롭다.

2) 종교 선전 불허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나 포교 및 대형 종교 모임은 불가능하다. 외국인의 중국 내 종교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에 따라 허용한다.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선교 활동을 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선교 활동을 하거나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3) 대화 주제

정치 관련 주제는 중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할 때 자제하는 것이 좋다. 중국인은 자신의 체제나 정치문제에 외국인이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홍콩사태, 문화혁명, 티베트, 대만과의 관계, 소수 민족의 독립 문제 등 민감한 정치 관련 주제는 중국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중국인들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므로, 만일 현지인이 먼저 중국 정부에 대한 반감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 의견에 동의를 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대로 중국인이 선호하는 대화 주제로는 오랜 역사, 다양한 음식 문화, 중국의 위상 등이 있다.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중국인들에게 바로 말하는 것은 결례이며, 꼭 주석이란 칭호를 붙여서 불러야 한다. 중국의 정책 및 중국의 법규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가볍게라도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4) 식사

중국에서는 주로 사교적인 식사모임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중국 기업과의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고자 한다면 중국의 식사문화를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테이블 에티켓이다. 자리에 앉기 전, 주최자가 권하기 전에 자리를 정해 착석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보통 주최자는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문을 바라보고 앉으며, 주최자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손님 측의 최상급자가 앉는다.

두 번째, ‘술이 없으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无酒不成席)’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손님 접대 시 술이 빠지지 않는다. 술을 마실 때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며 술을 권하고 필요한 경우 건배를 위해 자리를 자주 이동하기도 한다. 술잔을 돌리는 관습은 없다. 차나 디저트를 권유할 경우 거절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세 번째, 식사 도중 음식에 대한 관심을 표하며 음식 칭찬을 해야 한다. 무거운 비즈니스 주제가 아닌 가벼운 음식 주제를 시작해 자연스러운 비즈니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달리 음식을 깨끗이 비우는 것이 결례이다. 그 이유는 음식을 깨끗이 비우면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석해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술을 마실 때, 고개를 돌리는 문화가 없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마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한국인은 고개를 돌려 술을 마신다는 것을 많은 중국인이 알고 있기에 가벼운 대화 소재로 사용 가능하다.

5) 선물

중국인에게 선물을 할 경우 일반적인 관계에는 적절한 선물로 성의를 담은 과일, 꽃, 특산물 등이며, 반면에 손수건, 우산, 시계, 하얀 꽃, 종 등은 눈물 혹은 죽음을 의미하므로 부적절하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적절한 선물로는 구하기 힘든 문화 관련 티켓, 보기 드문 특산품 등이며, 반면, 초면에 너무 고가의 선물을 하면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고, 뇌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선물을 줄 때에는 양손 혹은 오른손으로 전달해야하며, 왼손으로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좋은 일은 쌍으로 온다(好事成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짝수개로 주고, 하나만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광둥 사람들은 ‘4’라는 짝수의 발음과 ‘죽다’라는 발음이 비슷해 짝수일지라도 ‘4’라는 숫자는 꺼린다. 중국에서는 흰색은 슬픔과 가난의 색, 검은색은 불길한 색이라고 생각해 꺼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6) 인사

중국인들의 간단한 인사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첫 만남 시 닌하오(好) 라고 하며, 호칭은 이름을 빼고 성에 직함을 붙여 부른다. 직함을 모를 경우 이름이 김길동이면 성(姓)에 중(대표) 혹은 징리(理, 매니저)를 붙여서 진중(金) 또는 진징리(金理)라고 부르면 된다. 날씨나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친밀감의 표현이다.

- 감사의 표현으로는 세셰(())로 하며, 연장자나 상사에게는 살짝 고개를 끄덕여 인사한다.

- 일반적인 안부는 츠판러마(吃了?), 식사 하셨습니까?), 꺠더하오마(得好?),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하며, 이는 보통 아는 사람 간의 편한 인사다.

- 사과할 때는 바오첸(抱)이라는 정식적인 사과, 두이부치(不起)라는 비교적 정식적인 사과, 부하오이스(不好意思)라는 가장 쉽게 쓰이며 의미가 제일 가벼운 사과 등이 있다.

- 아침인사는 자오(早), 윗사람에게는 자오상하오(早上好)가 있다.

- 헤어질 때는 짜이찌엔(再)으로 표현하면 된다. 처음 인사를 나누는 경우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표하고, 악수를 할 경우에는 윗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7) 복장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복장에 있어서 디자인보다는 브랜드를 크게 중시하는 편이다. 녹색 모자 착용은 금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녹색 모자에 대한 금기는 원나라 때부터 시작돼 중국에서 남자가 녹색 모자를 쓰면 '아내가 바람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 모자가 씌워졌다(빼이런다이뤄 마오즈(被人戴帽子))'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체면이 구겨지는 일을 당했을 때 쓰는 표현이다. 대부분의 중국인은 옷을 입을 때 녹색과 빨간색을 같이 입지 않는다. '홍뤼다페이(搭配, 녹색과 빨간색의 조합)'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촌스러운 사람을 의미한다. 마치 한국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매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8) 대화

형식적인 이야기일지라도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간단한 대화도 나누지 않고 바로 비즈니스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9) 중국식 '아니오'

면전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킨다. 대신 '고려 중이다' 또는 '검토 중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대답은 그 문제 전체를 회피하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계속 독촉하면 역효과만 초래하니 차라리 다음 기회를 엿보는 것이 유리하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행(하이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100% 확답을 주지 못할 때 자주 사용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침묵 등이 있다.

실제 미팅을 하다 보면 웃으면서 '好好(하오하오)'하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금방이라도 계약체결이 될 듯하지만 이런 경우 계약 확률은 희박하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다.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 JD.COM

사이트 주소	https://www.jd.com
개요	중국 실리콘밸리인 중관촌 전자상가의 자그마한 도매상에서 시작된 징둥닷컴은 현재 중국 최대 B2C 전자 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로 성장하였으며, 2014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었다. 연간 징둥닷컴 활성 사용자는 5.88억 명에 이른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징둥닷컴은 2004년 설립되었으며, 2023년 기준 징둥그룹 매출규모는 1조 847억 위안, 고용인원은 62만 명이다.
주요 판매 품목	가전제품, 전자제품, 가구, 의류, 식품, 도서, 부동산, 자동차, 악기, 예술품, 티켓, 보험 등 전 분야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특징	징둥닷컴은 모조품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현지에서 평가받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빠른 배송인데 최초로 도시지역의 하루 안에 배송을 완료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게도 했다. 또한 징둥닷컴물류는 중국 자동차 선도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급망 서비스에 대한 벤치마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더 많은 산업 분야로 확장했다. 징둥닷컴은 자사 창립일인 6월 18일을 기념하여 대규모 할인행사(618 페스티벌)를 시작했으며 이는 현재 중국 상하이(11.11)와 함께 중국의 양대 온라인 쇼핑 페스티벌로 성장했으며 중국 모든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 함께 참여하여 대규모 판촉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618페스티벌'에서 2,692억 위안 매출을 기록했으며, 2023년 상하이 기간 총 거래액은 1,356억 위안 기록했다. 징둥닷컴은 전자상거래 최초로 디지털 위안화 결제를 적용한 플랫폼이다.

◦ T-MALL

사이트 주소	https://www.tmall.com
개요	중국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알리바바 그룹의 국제 전자상거래 직구 플랫폼으로 2014년 9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었다. 티몰은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에 등록된 브랜드만 입점을 허용하고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티몰은 2008년 알리바바 그룹이 설립했으며, 알리바바 2023년 매출액은 8,687억 위안, 순이익은 656억 위안이며, 고용인원은 219,260명이다.
주요 판매 품목	의류, 화장품, 잡화, 가전, 가구, 식품 도서, 영·유아용품,약품, 꽃 등 생활소비재 전반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특징	B2C 플랫폼이며 입점 시 자격 심사가 까다롭고 입점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으로 판매하는 제품도 비싸나 정품 신뢰도는 높다. 알리바바 물류 자회사인 차이냐오 (菜鸟)가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티몰의 이용자를 위해 상품 입국 전 해관 검역, 보세창고 주문서 처리, 수입 통관, 국내배송 등 원스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리바바는 중국의 솔로데이인 광棍제(光棍, 11.11, 상하이)쇼핑 시즌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2009년 11월 11일부터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시즌인 상하이 쇼핑시즌을 시작하여 현재 징둥닷컴을 비롯한 중국 내 모든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참가하여 대규모 판촉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상하이 기간 총 매출액은 1,879억 위안을 기록했다.

◦ 타오바오

사이트 주소	https://www.taobao.com
--------	---

개요	중국 최대 C2C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타오바오는 개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플랫폼으로 타오바오에서 구매하는 방법은 직접구매와 구매 대행을 통해 주문하는 것이 있다. 2023년 상하이 기간 활성 사용자는 5억 명을 돌파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타오바오는 2003년 알리바바 그룹이 설립했으며, 알리바바 2023년 매출액은 8,687억 위안이고, 순이익은 656억 위안이며, 고용인원은 219,260 명이다.
주요 판매 품목	의류, 화장품, 잡화, 가전, 가구, 식품, 도서 등 생활소비재 전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징	타오바오는 입점 비용이 없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며, 입점 자격 문턱이 낮다. 초기에는 단순 C2C 연계 네트워크였으나 점차 C2C, 단체구매, 유통채널, 도매 등 여러 모델을 운영하는 종합 소매상권으로 변화되고 있다. 판매자와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한 고객센터 창이 구축되어 제품소개, 사이즈, 기능, 설치 방법 등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2023년 상하이 기간 총 매출액은 2,135억 위안을 기록했다.

○ VIP.com

사이트 주소	www.vip.com
개요	VIP.com은 100% 정품과 신뢰도 높은 상품을 일정 기간 판매하는 온라인 한정 특판의 콘셉트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 2012년 3월 23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이후 2023년 말까지 45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2023년 주문량은 8.1억 개 기록했으며, 활성 사용자는 8,740만 명 돌파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VIP는 2008년 설립되었으며, 2023년 매출액은 1,129억 위안, 고용인원은 1.6만 명이다.
주요 판매 품목	뷰티, 영유아용품, 의류, 잡화, 가전 등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징	직영 B2C 플랫폼으로 수입 상품 입고 후 단기간 특가로 판매하는 형식으로 재구매율이 높다. 수입 방식은 해외직구와 보세수입이다. 공급업체로부터 상품과 콘텐츠를 받아 물류 배송에서 판매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급업체의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실리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플랫폼에 입점한 한국기업으로는 LG생활건강, 제이준, 지클럽, 아모레퍼시픽, Carver Korea 등 뷰티 브랜드가 있다. 또한 2022년 Super VIP 활성 사용자 수는 670 만 명으로 증가하여 온라인 소비에 41%를 기여하고 고품질 고객그룹을 더욱 확대하였다.

○ 샤오미유핀

사이트 주소	https://www.xiaomiyopin.com
개요	샤오미가 직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성비가 높은 생활용품을 주로 취급한다. 샤오미유핀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샤오미가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투자 및 브랜드 라이선싱을 통해 비교적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자와 후자의 제품 구별은 샤오미 로고 MI가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7년 설립되었으며, 샤오미그룹의 2023년 매출액은 2,710억 위안, 순이익 193억 위안, 고용인원 3.4만명, 글로벌 월간 활성 사용자수 6.4억 명(중국 국내 1.6억 명) 을 기록했다.
주요 판매 품목	가전, 의류, 식품, 영유아용품 등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징	B2C 플랫폼으로 200개 이상 공급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급상은 플랫폼 입점이 아닌 납품 업체 자격으로 참여한다. 벤더는 상품 재고 처리, A/S 담당을 직접 책임져야 하며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샤오미가 직영하여 가성비가 높으며 상품 종류를 간소화하여 빠른 안심 구매를 실현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다. 플랫폼에 진출한 한국기업으로는 Nuts Farm, 삼양, 빙그레, 동원, 노스페이스 등이 있으며 대리상 혹은 유통상을 통해 입점했다.

○ 핀둬둬

사이트 주소	https://www.pinduoduo.com
개요	위챗의 특성을 전자상거래에 접목한 지인기반 상품추천 공동구매 플랫폼으로 상대적으로 3,4선 도시와 농촌지역에서의 사용자 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22년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Temu)를 출시, 테무의 2023년 글로벌 사용자는 4.7억 명에 도달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5년 설립되었으며, 2023년 매출 규모는 2,476억 위안, 순이익 600억 위안, 고용인원은 1.3만 명이다.
주요 판매 품목	농산품, 의류, 가전, 가구, 잡화, 영유아용품, 헬스용품 등 생활소비재 전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징	B2C 공동구매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입점 방법은 자체 브랜드 입점과 라이선스 브랜드 입점으로 구분되며, 입점 문턱이 낮다. 최대 특징은 소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룹을 형성하여 저가로 공동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핀둬둬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를 거점으로 성장해왔으며, 2018년 7월 C2M 형태의 '핀공장(工)' 플랫폼을 출범하여 자사 브랜드가 없는 OEM 업체와 제휴해 소비자 니즈에 따른 업체의 오리지널 제품을 생산하고 핀공장에서 판매한다. 또한 핀둬둬는 농산품 판매를 확대하여 현재 중국 최대 농산품 판매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 쑤닝이거우

사이트 주소	https://www.suning.com
개요	가전 전문 온·오프라인 연결(O2O) 유통업체로 2013년 1선 도시에서 인터넷 쇼핑몰 출시하고, 2017년 현()과 진()의 영세한 소매시장을 상대로 스마트소매 지원 플랫폼인 쑤닝이거우 소매 클라우드를 개설했다. 2017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쑤닝 소매 클라우드의 중국내 매장 수는 8,000개, 2023년 말에는 1만 개 이상으로 급증, 2023년 2,686개 매장을 신설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90년 설립되었으며, 2023년 매출 규모는 626.3억 위안, 고용인원은 30만 명이다.
주요 판매 품목	가전제품, 일용품, 도서, 가상제품 등 종합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특징	3C(가전·컴퓨터·통신) 프랜차이즈 업계의 선두주자이자, 상무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중국 20개 대형 비즈니스 기업' 중의 하나이다. 쑤닝이거우는 완다 백화점, 까르푸 차이나를 인수하면서 소매규모를 확장하는 동시에 온라인으로의 사업 구조전환을 추진하면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동시에 확장했다. 쑤닝이거우는 인수합병, 자체 구축 등의 방법으로 공급체인, 과학기술,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왔으며, 녹색물류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철저한 시장분석으로 코로나 위기(危)를 기회(機)로 전환 - P사

2010년 중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P사는 2020년 진출 10년 만에 매출액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 2021년 중국법인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 특히 히트상품인 냉장 파스타 매출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P사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요인은 철저한 시장분석에 있다고 본다. 중국 소비 주력군인 Z세대와 홈코노미 소비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냉동 간편식품을 출시했으며, 코로나 사태로 밀키트 수요가 급증하자 관련 제품 개발과 콜드체인 구축에 집중하였다. P사의 기존 생산라인 재배치를 통해 냉장 파스타 생산능력을 연간 4,500만 개에서 1억 개로 2배 이상 증대하였다. 또한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지방의 두부 공장이 생산가동을 중단하자 그 빈자리를 P사가 파고들어 봉쇄지역에 두부를 공급하며 매출이 증가하였고 이를 계기로 거래처와의 신뢰 구축도 강화되었다.

2) 탄소중립 계획에 따른 중국 수소시장 선점 - H사

H사는 중국 수소연료전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2021년 중국 광저우에 수소 연료전지 생산법인을 설립했다. 2022년 20만㎡ 규모의 공장 완공 및 2023년부터 약 6500기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며, 2030년까지 총 85억 위안(1조 4천 6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는 H사가 글로벌 수소 사업 본격화 및 수소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건설하는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 공장이며 중국 내에 최초로 세워지는 대규모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전용 공장이기도 하다. H사는 중국 생산법인 건설을 계기로 수소전기 승용차, 수소전기 상용차를 비롯해 수소연료전지시스템 판매를 통해 중국 수소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세계 최고의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광둥성이 추진중인 여러 수소산업 육성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지 법인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판매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현대차그룹은 중국 내 주요 협력업체들과 함께 철도, 트램, 선박, 발전 등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사업 다각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3)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을 통한 중국 시장 확대 - U사

여성 제모기 브랜드 U사 한국 최초로 쿨링 시스템을 적용한 제품으로 사파이어 글래스 헤드가 쿨링 효과를 줘 통증 없이 사용가능 하고, 카트리지가 교체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디바이스로 여성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U사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2014년 티몰에 입점 한 후 꾸준한 홍보효과로 2016년부터 5년 연속 티몰 '상11' 여성 제모기 제품 판매 부문 1위를 차지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0년 티몰 '상11' 행사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550% 증가한 3억 위안을 돌파했다. U사는 유명 한류스타를 모델로 발탁하여 중국의 한류팬 소비자들의 이목을 자극했으며, 중국 유명 왕홍과 스타들의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라이프가 확산되면서 라이브 커머스(直播,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합성어로 실시간 중계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가 중국의 새로운 쇼핑문화로 떠오르던 중 가장 유명한 왕홍을 섭외한 효과였다. U사는 현재 알리바바와 함께 전력 협력 행사 등을 개최하여 중국 시장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4) KOTRA 신규 바이어 발굴사업 참여로 중국 시장 개척 - J사

J사는 화장품 제조업체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홈케어에 특화된 제품을 개발해왔다. J사는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브랜드를 홍보하며 인지도를 차곡차곡 높여가고 있었으나, 전시회 참가로 발굴된 바이어는 대면 접촉 시에는 긍정적이었지만, 메일로 제품의 사양, 가격 등 구체적인 거래 조건 관련으로 대화를 진행하면 지지부진해졌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시회도 취소되면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때마침 알게 된 KOTRA 신규 바이어 발굴사업에 참여하여 KOTRA 네트워크의 도움을 얻어 중국 잠재 바이어와 매칭되었다. 교신 방법, 국가별 에티켓 등 사전 준비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어 담당 수출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았으며, KOTRA 에서 매칭해준 중국 바이어와의 주선된 화상상담을 통해 수출을 위한 화장품 관련 필수 인증정보 등을 파악하여 수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J사는 바이어와의 화상상담을 마친 직후 바로 NMPA 인증 취득 방법을 알아보아 인증서를 취득하여 중국 시장 진출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5) KOTRA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 도움으로 수출 인큐베이터 입주 - A사

화장품 원재료를 생산하는 A사는 인체에 무해한 방부 대체재를 비롯해 미백, 항염 기능을 보유한 화장품 원료 개발에 주력하는 기업이다. A사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화장품 친환경 소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했다. 그러나 사드사태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수출액이 급락하면서 진출계획에 어려움이 닥치자 2017년 KOTRA 광저우무역관을 찾았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지는 시점이었지만 KOTRA 광저우무역관에서 제공하는 중국 투자환경, 법인 유형, 채용 및 임금, 세금, 수출입 관련 사항, 기타 부대비용 부분까지 구체적인 정보와 상담을 통해 현지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A사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KOTRA 지원사업을 파악했으며, 광저우 수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무공간, 회의실, 집기 등 실무

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 지원과 생활 정착 서비스를 받았다. KOTRA 담당자는 필요한 법인 설립 절차, 준비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시기 적절한 방향 설정과 그에 따른 방법을 제시했다. A사는 KOTRA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중국 시장을 분석하며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응 방안을 준비했고, 2019년에는 광저우 PCHI전시회에 참가해 중국 현지 고객과 바이어에게 호평을 받았다.

A사는 광저우 법인 설립을 통해 중국 내수 고객을 확보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토대를 차근차근 넓어나가는 중이다.

6) 중국 브랜드와의 콜라보, 트렌디한 콘텐츠로 인기를 끈 IP- I사

한국 인기 애니메이션 주인공의 친구로 알려진 L 캐릭터가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지면서 눈을 흘기고 야근에 시달리는 쾡한 얼굴 등 다양한 표정에 ‘할 말은 하는’ 속 시원한 캐릭터로 MZ세대 직장인에게 큰 공감을 얻으면서 중국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해당 회사는 2023년 중국의 대표 SNS인 샤오홍수에서 L캐릭터 계정을 개설했고, 계정의 팔로워 수는 47만 9천명에 도달했다. 중국에서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유명 밀크티, 생활용품 등 기업들이 해당 회사 캐릭터와의 콜라보를 진행했다. 또한 베이징, 상하이, 난징 등 지역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여 노트, 펜던트, 인형, 열쇠고리, 거울 등 다양한 굿즈와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정판 굿즈를 판매하면서 젊은 여성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L캐릭터는 현재 중국 MZ세대에서 애정하는 한류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나. 실패사례

무리한 매장 확대로 실패한 A사

중국 베이징에 매장을 오픈하며 중국 시장에 진출한 A사는 중국의 새로운 소비생활 패턴과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커피시장을 공략하였으나 영업 손실과 매장 축소 등을 초래하며 중국 시장 확대에 실패하였다. A사는 초기에 중국 각 지역에 매장을 대폭적으로 증가하며 승승장구하였으나, 무리한 가맹점 확장으로 인한 재료공급 유통망 부족으로 영업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중국 협력 파트너와 갈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중국 시장 선점을 위한 급격한 진출로 중국 현지 시장조사와 현지화 전략이 부족한 것이 실패요인으로 작용했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 중국은 2024년 11월 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9개국(한국,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했다.

○ 그 외에도 중국은 2023년 12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대해 최대 15일간 비자 면제 혜택을 시행했으며, 2024년 싱가포르(2월), 태국(3월)과 상호 영구적 비자 면제 시행, 2024년 3월 스위스, 아일랜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6개국에 대해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비자 면제 혜택을 시행해온 바 있다.

○ 중국의 한국 대상 한시적인 일방적 무비자 입국 정책 관련 유의사항

- 시행기간 : 2024.11.8. - 2025.12.31.
- 대상여권 : 일반여권
- 입국목적 : 비즈니스, 관광, 친지방문, 경유 목적
- 체류기간 : 15일 이내
- 대상 여권 관련: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일반여권만 해당되며,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되지 않으며, 주한중국대사관 및 중국비자센터 또한 국내에서 발급한 긴급여권(비전자여권)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예외(예: 중국 내 친지 사망 시 도착비자 허용)를 제외하고 중국 비자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 입국 목적 관련 : 비즈니스, 관광, 친지방문 및 경유 등에 한한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으로 취지상 취업, 취재, 유학, 공연 등 여타 목적 방문 시에는 여전히 입국 전 비자 취득이 필요하다.
- 시행 초기 임을 감안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무비자 입국 시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 소명,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중국 체류 시 연락처(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 등 철저 준비가 필요하며, 입국 후 주숙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준수해야 한다.
- 호텔 체류 시 호텔측이 자체 처리하나, 중국 내 친척 또는 지인 거주지 체류 시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서 직접 주숙등기 조치 요망- 과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경력이 있을 경우, 무비자 입국 거절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 15일 이상 중국에 체류를 할 경우, 중국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https://bio.visaforchina.org/SEL4_ZH/)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인페이지와 신청서를 출력한 후 확인페이지와 신청서의 9번째 항목에 모두 서명한다.

2) 온라인으로 방문시간을 예약하고 비자예약확인서를 출력한다.

3) 예약 시간에 본인이 직접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지문을 채취한다.

* 지문채취 면제 대상:

- ① 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 ② 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③ 5년 이내에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 ④ 10개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10개 지문을 모두 채취불가능자
- ⑤ 2023년 8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회 또는 2회 입국하는 비즈니스, 관광, 친척 방문, 환승 및 승무원(고객 서비스) 비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지문 채취가 면제되며, 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타인에게 대리신청을 위탁할 수 있다.

4) 비자신청서류

- ① 온라인으로 작성한 신청서
- ② 여권원본 및 정보면 복사본
- ③ (제3국인인 경우)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원본, 한국 비자 원본 혹은 입국확인서(ENTRY CONFIRMATION) 원본과 복사본
- ④ 이전 중국여권 혹은 중국비자 (중국국적이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

⑤ 비자종류에 해당하는 서류

○ Z비자(취업)

- 비자 특징: 중국 국경 내에서 취업하여 고용계약을 맺고 중국에서 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가 신청 가능

- 취득요건: 중국 외국전문가국에서 외국인 취업허가 통지를 받은 자

- 제출 서류는 다음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 《외국인취업허가통지》 사본

→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발급한 《해상 석유 작업종사외국인초청장》 사본

→ 시장감독관리부서가발급한 《외국(지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명》 사본

→ 문화관광부 국제교류협력국에서 발급한 《외국문화센터 직원 고용 확인서》원본 및 사본

→ 문화관광부에서 발급한 《대표자격확인서》사본

→ 문화관광행정부서에서 발급한 상업성공연허가서 사본(90일 미만단기 상업성 공연일 경우는《외국인중국단기취업증명》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M비자(경제, 무역 활동)

- 요구서류: 중국국내 무역협력회사 혹은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비즈니스 초청장 (원본, 팩스본, 복사본 모두 가능). 초청장은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 여행경비 부담 주체 등

→ 초청기관의 정보: 초청기관명칭, 주소, 연락처,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등

※ 이전에 발급 받았던 중국비자복사본 제출시(신여권으로 재발급 받았을 경우, 기존여권의 여권정보면 복사본 제출),복수비자 발급 가능하다.

○ F비자(교류, 방문, 시찰 등 활동)

- 요구서류는 다음 서류 중에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국내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초청장 (원본, 팩스본, 복사본 모두 가능). 초청장에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 여행경비 부담 주체 등

→ 초청기관의 정보: 초청기관명칭 혹은 초청인의 성함, 주소, 연락처,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등

* 중국에서 지리 측량 및 제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국가측회국 과학기술 협력사에서 발행한 초청장

* 문화교류성 공연 종사자: 행사주최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 및 문화부처의 공연활동에 대한 비성업성 승인서 사본

* 중국에 90일 이내 체류하는 전문가: 시 급(포함) 이상 외국 국가 주관부처에서 발급한 《외국 전문가 중국방문 초청장》

* 중국에 90일 이내 체류하는 지원봉사자: 중국 내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

○ X1비자(장기유학, 180일 초과)

- 요구서류: ① 중국 국내의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② 《외국인 유학생 중국비자 신청서》(JW201 혹은 JW202표) 원본 및 사본

○ X2비자(단기유학, 180일 이내)

- 요구서류: 중국국내의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행한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 Q1비자

-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원본, 팩스본, 복사본모두가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②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및 사본.

③ 초청인의 중국신분증명 (중국신분증, 호구부, 화교 및 홍콩·마카오·대만 동포는 여권, 귀향증, 대만동포의 대륙 통행증 및 6개월 이상 유효한 중국 내 취업 혹은 거주증명제출 가능) 사본, 혹은 외국인 여권 및 중국 영구거류증 사본

- 아동 위탁 양육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외국에 주재한 중국대사관및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양육위탁공증서 혹은 소재국 또는 중국 공증·인증 절차를 거친 양육위탁서의 원본 및 사본

② 위탁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③ 양육을 위탁 받은 수탁인이 작성한 위탁양육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④ 아이를 위탁양육 시키고자 하는 부모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중국국민일 경우, 아이 출생 당시 중국국적이었던 부(또는)모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Q2비자

-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원본, 팩스본, 복사본모두가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 초청인의 중국신분증명 (중국신분증, 호구부, 화교 및 홍콩·마카오·대만 동포는 여권, 귀향증, 대만동포의 대륙 통행증 및 6개월 이상 유효한 중국 내 취업 혹은 거주증명제출 가능) 사본, 혹은 외국인 여권 및 중국 영구거류증 사본

*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3년 복수비자를 발급가능

○ S1비자

-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 중(180일 초과)인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거류가 필요한 자로서, 중국에 장기간 방문하려는 자로 초청인이 이미 중국국내에서 취업, 장기 유학중일 경우:

① 중국국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원본,팩스본,복사본모두가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② 초청인의 여권 및 거류증명 사본

③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및 사본.

- 취업, 장기유학으로 중국에 가는 초청인과 동시 신청할 경우:

① 취업 혹은 장기유학비자 신청서류 사본

②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③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상황설명서.

- 외국상주거자의 동반가족: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司)가 발급한 비자통지서한

○ S2비자

-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을 단기간 방문(180일 미만)하는 가족구성원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자로, 단기간의 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초청인 (취업·유학 등의 이유로 중국에 체류·거주 중인 외국인)의 여권 및 거류허가사본

②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원본, 팩스본, 사본도 가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③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및 배우자의 부모)증명(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사본.

- 개인사정으로 인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영사의 요구에 따라 개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J1비자(특파원)

- 요구서류: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司)가 발급한 비자통지서한

○ J2비자(중국으로 단기 취재 나온 외신기자)

- 요구서류: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司) 혹은 관련 피수권기관의 비자통지서

○ C비자(승무원, 선원 및 그 가족, 자동차운전자)

- 요구서류: 외국 운송회사가 발급한 담보서 혹은 중국 내 관련 기관이 발급한 초청장

○ G비자(중국을 경유하고자 하는 자)

- 요구서류: 목적지 국가 혹은 지역으로 가는 일시와 좌석이 확정된 환승 수단(비행기, 차, 배)의 티켓

○ R비자(외국 고급 인재 및 인재 충원을 위해 초빙하는 전문가)

- 요구서류: 《외국고급인재확인서》 사본

○ D비자(중국에서 영구 거류하고자 하는 자)

- 요구서류: 중국 공안부가 발급한 《외국인영구거류신분확인서》 원본 및 사본

○ 비자 연장

- 기존의 입국 사유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발급받은 비자는 비자 유형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간이 만료 되어도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비자 연장을 위해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서류, 외국인 비자 서류 신청서, 사진, 신청 관련 증빙 등 서류가 필요하다. 비자 연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 국가출입관리국 공식 홈페이지의 '외국인 비자 연장, 대체, 교체' 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는 중국비자신청서서비스센터에 문의 가능하다.

○ 중국비자신청서서비스센터연락처:

① 서울스퀘어빌딩 중국비자신청서서비스센터

- 주소: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빌딩 6층

- 전화: 02-1670-1888

- 팩스: 02-6260-8855

- 이메일: seoulsquarecenter@visaforchina.org

- 홈페이지: <http://www.visaforchina.org>

② 남산스퀘어빌딩 중국비자신청서서비스센터

-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3층

- 전화: 02-750-7800

- 팩스: 02-750-9696

- 이메일: 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

- 홈페이지: <http://www.visaforchina.org>

○ 비자 관련 기타사항

- 무비자 경유: 중국에서 제3국으로 경유 시 지정된 도시에서 한국, 일본을 포함한 53개국 외국인 대상으로 72시간, 144시간 무비자 경유가 가능하다. 베이징, 톈진, 상하이, 항저우, 난징, 선양, 다롄, 칭다오, 청두, 샤먼, 쿤밍, 우한, 스자좡, 친황다오, 광저우, 선전, 제양, 충칭, 시안, 닝보 등 20개 도시의 27개 출입국관리사무소(커우안,口岸)에서 외국인 144시간 무비자 경유가 가능하다. 창사, 하얼빈, 구이린(桂林) 등 3개 도시의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커우안,口岸)에서 72시간 무비자 경유가 가능하다.

- 비자발급 간편화: 2023년 9월 20일 중국 외교부는 외국인의 중국 방문 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신청인의 교육배경, 가족정보, 여행경력 등 15개의 세부 기재 사항을 간소화했다. 이로 비자 신청인의 신청서 작성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비자 발급이 더욱 간편해졌다. 예로 신청인의 국제여행경력 기재기간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고, 교육배경은 최고 학력만 기재하면 된다.

- 사전예약제 폐지: 주한 중국대사관은 2023년 10월 23일부터 한국인들의 중국 비자 발급 신청시 요구했던 사전 신청 예약제를 전면 폐지하였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중국 여행자 면세 한도

- 거주자인 경우 해외취득 총 가치가 인민폐 5,000위안 이하의 자용물품
-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취득 총 가치가 인민폐 2,000위안 이하의 자용물품
- 여행 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용 컴퓨터 각 1대
- 기타 세관이 여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술: 주정 12도 이상 1.5리터 이하(2병) 면세
- 담배: 궐련(cigarette) 400개비, 엽궐련(cigar) 100개비, 씹는 담배 500g 면세(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의 규정을 따르나 중국 내 전자담배는 금지되어있으므로 되도록 들고오지 않는 편이 좋음)
- 5,000 달러 이상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물품 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반출허가증명이 없거나 입국 시 휴대 반입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 및 5,000달러 이상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 휴대물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출국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 하이난 리다오(海南) 2020년 7월부터 1인당 연간 면세 구매한도를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인상했으며, 상품당 면세한도액(8천 위안)을 폐지했다.

2) 외화 등 지급수단의 반·출입 시 유의사항

한도 초과 외화의 휴대 반입 시에는 반드시 세관 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한도 초과 외화의 휴대반출 시에는 중국은행이나 외환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휴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초과 외화를 반출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중국 외환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한도를 초과한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3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 결정에 걸리는 기간도 1~3개월이 소요되며 벌금이 결정된 이후에야 유치된 외화를 찾을 수 있다.

3) 휴대품 분실

휴대품 등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분실 경위서, 여권, 세관 수하물 신고서(세관 신고 물품인 경우),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분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86-10-8531-0700
주소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cn-ko/index.do

○ 주중 대한민국 영사관

전화번호	+86-10-8532-0404
주소	Tower Garden Diplomatic Office Building, No. 14 Liangma Henan Road, Dongzhimenwai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cn-zh/index.do

○ 문화원

전화번호	+86-10-6501-6566
주소	1 Guanghua West Lane, Guanghua Road,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c.kocenter.cn

○ 한국무역보험공사

전화번호	+86-1588-3884
주소	Room 2902, A Layer 29, Puxiang Center, Chaoyang Dis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ksure.or.kr

○ 중국한국상회

전화번호	+86-10-8453-9756~8
주소	Room 910, Hyundai Motor Tower, 38 Xiaoyun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korcham-china.net

○ 한국무역협회

전화번호	+86-10-6505-2671~3
주소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Rm 1201,China World Office 1, No 1 Jianguomenwai Ave,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bj.kita.net

○ 한국수출입은행

전화번호	+86-10-6465-3371
주소	A-29F, Beijing Puxiang Center Bldg., Wangjing,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전화번호	+86-10-6410-6120
주소	Room A-603, Fuma Center,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atchina.org.cn/index.php

○ 한국관광공사

전화번호	+86-10-6585-8213/4
주소	3F, Korea Center,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chinese.visitkorea.or.kr

○ 삼성경제연구소

전화번호	+86-10-6566-8100(2925)
주소	22F Samsung Tower, No.31 Jing Hui Road, Chao Yang District, Beijing
홈페이지	http://www.serichina.org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화번호	+86-10-6410-6162
주소	Beijing Puxiang Zhongxin 29th Floor, Hongtaidongjie, Wangjing, Chaoyang District, Beijing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

○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86-10- 6465-4524
주소	Rm. C700D, Office Bidg, Kempinski Hotel Beijing Lufthansa Center, No.50, Liangmaqiao Rd,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125 P.R.China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전화번호	+86-10-5377-1212
주소	No. 2, East Chang'an Stree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mofcom.gov.cn

○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전화번호	+86-10-6519-4114
주소	No. 6 Jianguomen Inner Stree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cn

○ 중화인민공화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화번호	+86-10-6850-5050
주소	No. 38 Yuetan South Street, Xi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s://www.ndrc.gov.cn/

○ 중화인민공화국도농주택건설부

전화번호	+86-10-5893-4114
주소	No. 9 Sanlihe Road, Haidian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mohurd.gov.cn

○ 국가외환관리국

전화번호	+86-10-6840-1188
------	------------------

주소	Huarong Building, 18 Fucheng Road, Haidian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safe.gov.cn

○ 중화인민공화국공업및정보화부

전화번호	+86-12381
주소	13 West Chang'an Stree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miit.gov.cn

○ 국가지식산업국

전화번호	+86-10-6321-8500
주소	No. 6, Xitucheng Road, Jimen Bridge, Haidian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s://www.cnipa.gov.cn/

○ 국가통계국

전화번호	+86-10-6878-3311
주소	57 Yuetan South Street, Xi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stats.gov.cn

○ 중국인민공화국재정부

전화번호	+86-10-6855-1114
주소	No. 3 Sanli Henan Sanxiang, Xi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mof.gov.cn

○ 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

전화번호	+86-10-6609-6114
주소	No. 37 Mucang Hutong, Xidan,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moe.gov.cn

○ 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부

전화번호	+86-5888-1800
주소	No. 15 Fuxing Road,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most.gov.cn
------	---

○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

전화번호	+86-10-8805-0801
주소	No. 1 Fuyou Street, Xi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gov.cn

○ 중화인민공화국외교부

전화번호	+86-10-6596-1114
주소	2 Chaoyang Men South Street,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fmprc.gov.cn

○ 국가신문출판총서

전화번호	+86-10-8313-8001
주소	No. 40, Xuanwumen Street, Xi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s://www.nppa.gov.cn/
비고	한국에서는 링크가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중국 선전부

전화번호	+86-10-8805-0145
주소	No. 97, Xuanwumen West Street, ,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wenming.cn/

○ 인민일보

전화번호	+86-10-65368742
주소	2 jintai west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people.com.cn/

○ 환구시보

전화번호	+86-10-65361101
주소	16th floor, zhongqing building, 19 dongsanhuan north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홈페이지	http://www.huanqiu.com
------	---

○ 21세기경제보도

전화번호	+86-20-8739-9755
주소	50F Office Building, 307 Guangzhou Avenue, Yuexiu District, Guangzhou
홈페이지	http://www.21jingji.com/

○ 매일경제뉴스

전화번호	+86-10-5761-3001
주소	Unit 01, Block B, Success Center, 20 East Third Ring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홈페이지	http://www.nbd.com.cn/

○ 제일재경

전화번호	+86-400-6060101
주소	Floor 9, 651 nanjing west road, jing 'an district, Shanghai
홈페이지	https://www.yicai.com/

○ 중화인민공화국생태환경부

전화번호	+86-10-6564-6114
주소	No.12 East Chang'an Avenue,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mee.gov.cn/

○ 중화인민공화국민정부

전화번호	+86-10-5812-3114
주소	No. 6, Jianguomen South Street, Chaoyang District, Beijing
홈페이지	http://www.mca.gov.cn/

○ 중화인민공화국사법부

전화번호	+86-10-6515-3508
주소	No. 6 Chaoyangmen South Avenue,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moj.gov.cn/
------	---

○ 중화인민공화국농업농촌부

전화번호	+86-10-5919-3366
주소	Nanli11, Beijing Agricultural Exhibition Hal,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moa.gov.cn/

○ 중화인민공화국문화및관광부

전화번호	+86-10-5988-1114
주소	No. 10, Chaoyangmen North Street,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s://www.mct.gov.cn/

○ 중화인민공화국수리부

전화번호	+86-10-6320-2114
주소	No. 2 Baikuang Road, Xi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mwr.gov.cn/

○ 중화인민공화국응급관리부

전화번호	+86-10-6446-3685
주소	No. 70 Guang'anmen South Street, Xi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s://www.mem.gov.cn/

○ 중화인민공화국민족사무위원회

전화번호	+86-10-6650-8000
주소	Jia 49, streets in the door of Beijing's western suburbs revival.,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s://www.neac.gov.cn/

○ 중화인민공화국심계부

전화번호	+86-10-6830-1114
주소	No. 17 Middle Capital South Street, Fengtai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audit.gov.cn/
------	---

○ 중화인민공화국퇴역군인사무부

전화번호	+86-10-8793-3720
주소	No.55 Pinganli West Street, Xicheng District, Beijing.
홈페이지	http://www.mva.gov.cn/

○ 중국인민은행

전화번호	+86-10-6619-4114
주소	No. 32 Chengbang Street, Xi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pbc.gov.cn/

○ 인민망

전화번호	+86-10-6536-3263
주소	No.2 Jintai Road West,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people.com.cn/

○ 신화망

전화번호	+86-10-8805-0888
주소	Golden Corner Tower, 129 Xuanwu Gate West Stree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xinhuanet.com/

○ 경제일보

전화번호	+86-10-8102-5341
주소	No. 2 Paper Square East Street, Xi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ce.cn/

○ 중국일보

전화번호	+86-10-8488-3777
주소	No. 15 Huixin East Street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cn.chinadaily.com.cn/
------	---

○ 중국신문망

전화번호	+86-10-8782-6688
주소	No. 12 South Street, Millionzhuang,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chinanews.com

○ 최고인민법원

전화번호	+86-10- 67550114
주소	No.27 Dongjiaominxiang,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court.gov.cn/

○ 최고인민검찰원

전화번호	+86-10-65209114
주소	No.147 Beiheyuan Street,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spp.gov.cn/

○ 신경보

전화번호	+86-10-67106666
주소	No.37 Xingfu Noorth Street,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bjnews.com.cn/

○ 국가우정국

전화번호	+86-10-88323024
주소	No. 8 Bei Lishi Road, Xi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spb.gov.cn/

○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전화번호	+86-10-68311166
주소	No. 1 Beiluyuan, exhibition road, Xi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s://www.nmpa.gov.cn/
------	---

○ 국가핵안전국

전화번호	+86-10- 65646114
주소	No.12, East Chang'an Avenue, Dongcheng District, Beijing, P.R. China
홈페이지	https://www.mee.gov.cn

○ 광명일보

전화번호	+86-10-67078755
주소	No.5 Zhushikou East Avenue,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gmw.cn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7.25위안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3.860
2	식품	비빔밥	1인분	4.83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5.520
4	식품	신라면	1봉지	0.69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3.720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500ml	0.14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0.410
8	의료	소염제	12정	2.48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14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0.43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1.790
12	서비스	헤어컷(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20.70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0.96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07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6.900
16	여가	담배	1갑	1.660
17	여가	소주(한식당 내 판매 최저가)	360ml	3.860
18	임금	최저임금	법정최저(시급)	3.64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미국계, 유럽계)	연간	37502.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3.100
21	식품	쌀	1kg	0.690
22	식품	식빵	한묶음	1.100
23	식품	고기	1kg	5.520
24	식품	계란	10개	1.380

25	식품	우유	1L	0.690
26	식품	식용유	1L	2.210
27	주거	전기요금	1kWh	0.070
28	주거	수도세	m ³	0.470
29	주거	가스비	m ³	0.360
30	의료	의료보험료(1인)	월	27.560
31	의료	진료비(일반내과)	초진	1.380
32	차량	자동차등록비	2000cc 이상	41.450
33	차량	전기차 충전 요금	1kW	0.250
34	통신	국제전화 요금	6초	0.110
35	통신	휴대전화 요금	분	0.020
36	통신	인터넷 사용료	1개월	13.820
37	서비스	TV 수신료	1개월	2.480
38	서비스	OTT 구독료(Youtube, Netflix, HBO 등)	1년	27.360
39	서비스	세탁소(드라이클리닝)	셔츠1벌	3.450
40	기타	국경일수	연간	7.000

<자료원 : 사회노동보장국, 베이징무역관 자체조사, 물가정보는 베이징 기준 >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 화폐단위: 인민폐(人民); 런민비(RMB); 위안(元)
- (지폐) 1角, 2角, 5角, 1元, 5元, 10元, 20元, 50元, 100元
- (동전) 1角, 5角, 1元
- 1元(위안) = 10角(지아오)
- 회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명칭이 주로 사용된다.
- 1(콰이) = 1元(위안), 1毛(마오) = 1角(지아오)

환전방법

달러와 인민폐 간 환전은 은행에서 가능하다. 단 중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원화와 인민폐 간 환전이 쉽지 않으므로 출국 전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국은 위조지폐가 상당히 많으므로 암거래상을 통한 환전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 환전장소

- 은행, 외화 환전소에서 환전이 가능하며, 은행 ATM기에 한국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넣고 뽑으면 중국 화폐로 인출된다. (단, 인출 수수료를 사전에 잘 알아봐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 중국에서 이용 가능한 카드는 UnionPay이며, 해외 VISA와 MASTER 카드는 장소에 따라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해외발행 UnionPay 카드 또한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당량의 현금 보유는 필수이다.

○ 2024년 11월 6일부터 해외에서 발급한 유니온페이 카드와 알리페이·위챗페이 연동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서 발급 받은 유니온페이를 소지한 외국인도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앱(APP)을 다운받으면 중국 사용자들과 동일하게 QR코드 결제가 가능하다. 프로모션 기간 내 수수료 없이 중국에서 외식, 숙박, 관광, 쇼핑, 오락, 의료, 서비스 등 온·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하며 MPM(主), CPM(被), In-App 결제방식을 모두 지원하며, 카드연동 시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정보 입력 후 발행은행의 승인을 거치면 빠르게 등록할 수 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 <http://lukuang.911cha.com/beijing.html> 사이트에 접속하면 실시간 교통 상황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의 교통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으며 교통 체증은 세 가지 색(빨강, 노랑, 초록)으로 나타난다.

○ 빨강의 경우는 매우 막힘, 노랑의 경우는 천천히 이동 가능, 초록의 경우는 막히지 않음을 의미한다.

○ 가장 막히는 시간대는 한국과 동일하다. 출근 시간대와 퇴근시간대인 아침 8~10시, 저녁 5~7시가 가장 막히기에 이 시간대에는 지하철 이용을 추천한다.

- 바이두지도(百度地) 혹은 가오더지도(高德地) 어플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택시 요금, 목적지까지의 거리, 콜택시 연결까지 한번에 확인 가능하여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교통정보를 알 수 있다.

버스

- 이용요금 및 정거장 검색
 - <https://www.8684.cn/> 사이트에서 다양한 대중교통의 시간표와 정거장, 금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10km당 2위안, 5킬로미터 마다 1위안씩 증가
-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 현금, 카드, 핸드폰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 핸드폰 앱, 카드는 승차 시 찍고 하차 시 또 찍으면 50% 할인된다.
 - 카드는 교통카드의 일종인 이카통(一卡通)사용 가능하다. 이카통(一卡通)은 카드 버전/ 핸드폰 버전이 있다. 카드는 현금을 충전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고 핸드폰은 4G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버전 모두 보증금 20위안을 내야 하고 반납 시 20위안을 다시 돌려준다. 발급방법은 이카통(一卡通) 카드 판매기계 이용 혹은 지하철표 판매처(사람에게 구매)에 가서 문의하면 된다.
 - 이통싱(通行), 베이징 버스(北京公交) 앱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앱을 다운로드 받고 첫 화면에서 공자오마(公交)를 클릭해 안내에 따라 실명 인증을 거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리 충전할 필요 없이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택시

- 이용요금
 - <http://taxi.ditu6.com/>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시명, 출발지, 도착지를 작성하면 거리와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 베이징 지역의 경우 기본요금은 3km 이내 13위안, 1km당 2.3위안씩 증가한다.
- 이용시간
 -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야간 할증요금이 붙는다. 위 사이트의 야간가(夜价) 부분에서 네(是) 보기를 누르면 야간 할증요금을 알 수 있다.
-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포함
 - 디디택시(滴滴打)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국의 카카오 택시와 같은 개념의 택시 애플리케이션)
 - 핀처(): 남들과 합승할 수 있는 택시(요금이 싸다)
 - 차 종류, 차 번호, 기사 정보 등을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 내가 가는 경로를 위챗을 통해 친구에게 발송 가능, 위험한 경우 비상연락망 및 경찰서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 안전하다.
 - 핸드폰 앱이 아니어도 위챗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 더 자세한 정보는 디디 택시 사이트(<https://www.didiglobal.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전거

- 주요 공용 자전거: MOBIKE/Hello Bike/ MEITUAN/DIDI
-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전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전거에 붙여져 있는 QR코드를 스캔 후 이용 가능하다.
- 보통 30분에 1.5위안이며 전동자전거 경우 30분에 2위안이다. 월 이용권 구매 시 할인이 가능하다. DIDI 자전거 경우 30일 이용권 구매시 12.5위안, 7일 이용권 구매 시 3.5위안 쿠폰을 구매하여 사용 가능하다.

지하철

- 이용요금
 - 이통싱(通行) 앱을 통해 베이징 지하철 노선도와 시간표 등 정보가 확인 가능하다.

- 기본요금은 3위안이며, 구간별로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6km 이내 3위안, 6km~12km 4위안, 12km~22km 5위안, 22km~32km 6위안, 32km 이상 부분은 매 20km씩 1위안 추가요금 발생한다.
- o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포함
 - 카드, 핸드폰 앱을 통해 결제 가능하며 그 방법은 버스 이용방법과 동일하다.
 - 1회용 카드는 지하철 판매소 및 자동판매소에서 구매 가능하다.

다. 통신

핸드폰

- o 핸드폰 유심칩
 - 중국에 장기간 거주 시 로밍보다는 중국 내에서 현지 유심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현지 유심 개통 시 중국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고 문자 및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다.
 - 유심칩은 공항에서 사는 것을 추천한다. 여권 정보를 토대로 개인정보를 작성하면 직원은 얼마나 머무를 것인지, 문자와 데이터는 얼마나 쓸 것인지 등등을 물은 뒤 다양한 상품을 추천해줄 것이다.
 - 여행자의 경우 데이터 무제한이 가능한 유심칩을 사는 것을 추천한다.
 - 유심칩을 발급받은 후 핸드폰에 넣으면 통신사가 중국의 통신사로 바뀌며 바로 이용 가능하다.
- o 중국 3대 통신사
 - 차이나모바일(中移): 4G 기술을 가장 먼저 시행한 통신사이다. (문의 전화번호: 10086)
 - 차이나유니콤(中通):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통신회사이다. (문의 전화번호: 10010)
 - 차이나텔레콤(中信):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유기업으로 인터넷 기술은 잘 되어있지만 통신기술이 조금 떨어진다. (문의 전화번호: 10000)

인터넷(와이파이)

집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회선과 Wi-fi 공유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인터넷회선 개통 공사가 되어있어 공유기를 꽂으면 사용할 수 있다.

Wi-fi 공유기를 중국에서 구매할 경우 비용은 200위안에서 300위안 정도고, 한국에서 가지고 온 공유기가 작동이 안 될 때가 많으니 중국 내에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중국은 해외 SNS를 국가에서 막아놓은 경우가 많고 국내 대표 온라인 사이트의 블로그 역시 VPN 없이는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자료 검색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중국에 오기 전 VPN을 설치해서 오는 것을 추천한다.

라. 관광명소

o 만리장성(The great wall)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延G6京藏高速58出口
운영시간	06:30~16:30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세계 최대의 성벽, 길이 단위로 1만 2,000화리(華裏)(6,000km)에 달한다 하여 만리장성이라 불렸다. 춘추전국시대 열국들이 오랑캐의 침입을 막기 위해 부분적으로 구축했던 것을 진시황이 천하 통일 후 서로 연결하여 완성했다.
비고	케이블카 이용이 가능하다.

○ 798예술구 (798 art zone)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酒仙校路4大山子
운영시간	24시간
휴무일	각 미술관 사정에 따라 휴무일이 변경된다.
명소소개	중국을 대표하는 최초의 예술특화지구이다. 일련번호가 798인 전자제품공장 폐허에 2000년대 초반부터 예술가들이 모여들며 예술공간을 조성했다. 2005년 중국 정부가 철거를 발표했다가 이듬해 다시 정책을 변경해 문화혁신산업특구로 공식 지정했다. 현재 예술구에는 400여 개 화랑, 갤러리, 독특한 인테리어의 카페, 아트샵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베이징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비고	사이트: http://www.798art.org (해외전용 url)

○ 고북수진(Beijing W Town)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密云
운영시간	09:00~23:00
명소소개	고북수진은 베이징 밀운현, 중국 청년여행 주식회사와 우전 관광개발회사가 공동으로 투자 건설한 관광지이다. 고북수진은 중국 강남의 대표적인 물의 고장 우전의 모습과 중국 화북지역의 건축스타일을 융합한 관광지로 베이징 산간지대 마을을 기초로 건설되었다.
비고	베이징 외곽이라 패키지 투어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 고궁(The imperial palace)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城景山前街4
운영시간	주중 08:30~17:00 주말 08:30~17:00
명소소개	남북 960m, 동서 750m의 왕조 유적, 1420년 건축, 700개 건축물과 9,000여 개 방이 있다. 중국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溥儀)까지 명·청대 황제 24명 거주지이기도 하다.
비고	사이트: http://www.dpm.org.cn 연락처: +86 10 6513 1892

○ 천안문 광장(Tian an men square)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城天安
운영시간	05:30~18:00
명소소개	높이 33.7m의 장대한 성문으로 명대 1417년에 건축되었다. (당시는 승천문(承天門)으로 불렸다) 청나라 때 전화로 소실된 후 1651년 재건되어 개명되었다. 1949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성루에서 신(新)중국 건국 선언을 했다.
비고	연락처: +86 10 6524 3322

○ 이화원 (Summer Palace)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海淀新建路19
운영시간	4~10월 06:30~18:00 11~3월 07:00~17:00
명소소개	서태후의 여름 궁전이라고도 불린다. 원래 금조(金朝)의 행궁이 있던 자리에 1764년 청(清)의 건륭제가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대규모 별궁을 완공하고 '청의원(칭이위안:清漪園)'이라 칭했는데 이것이 이화원의 전신이다. '이화원(이허위안:颐和園)'이라는 이름은 2차 아편전쟁으로 파괴된 궁을 1888년에 서태후가 재건하면서 붙여졌다.

○ 난뤄구샹(South Luogu Lane)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 城南鼓巷胡同
운영시간	00:00~24:00
명소소개	대표적 후통 (골목) 의 하나인 난뤄구샹은 베이징에서 가장 오래된 800년의 역사를 가진 후통으로 원대(元代)의 도성과 동시기에 지어졌다. 난뤄구샹의 양쪽으로 다수의 후통이 물고기 뼈와 같은 형태로 이어져 있는데 이것은 원대 도시 설계의 특징이다.

○ 왕푸징(Wangfujing Street)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城王府井大街
운영시간	00:00~24:00

명소소개	<p>왕푸징은 '왕부(王府:왕족의 저택)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왕족과 귀족의 저택이 모인 곳에 깨끗한 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p> <p>실제로 청() 건륭제 시대에 귀족과 고급관료의 저택이 있던 곳이며 왕푸징다제(王府井大街)와 동안먼다제(安大街)의 교차점에 우물의 위치가 청동 표식으로 남아 있다.</p> <p>현재는 베이징 쇼핑의 중심가로 거듭나있다.</p>
------	---

○ 전문대가(Qianmen street)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嵩文前大街
운영시간	00:00~24:00
명소소개	<p>베이징 중심부 여행의 시작점이 되는 두 개의 문으로, 정식 명칭은 '젠로우쥰'와 '정양먼정'이다.</p> <p>1420년 명대에 적의 침입으로부터 자금성을 지키기 위해 만든 이중문이다. 젠로우의 원래 기능은 화살을 쏘는 곳으로, 일명 '화살탑'이라 불리기도 한다.</p> <p>전문대가는 베이징의 유명한 변화가로 옛 베이징의 전통가게와 특색가게들을 보존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쇼핑가로 재개발 돼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p>

○ 스차하이()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西城德大街羊坊胡同甲23
운영시간	00:00~24:00
명소소개	<p>'10개의 사찰이 있는 호수'라 해서 스차하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지금은 그중 광화쓰(化寺) 하나만 남아 있다.</p> <p>예부터 귀족들에게 사랑 받았던 곳으로 지금도 중국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거리와 호수가 어우러져 여행자와 중국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p> <p>밤이 되면 화려한 불빛과 상점들이 즐비해 데이트 코스로 각광 받는다.</p>

○ 경산공원(JingShan Park)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西城景山西街44
운영시간	하계: 6:30~21:00 동계: 6:30~20:00
명소소개	<p>신무문(神武門) 정면에 있는 공원으로 시중심부에 위치</p> <p>공원 남쪽에 있는 경산은 해발 108m의 고지로서, 정상에 세워진 완춘팅(萬春亭)에서는 고궁의 전체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다.</p> <p>등산루에는 명나라의 황제인 송정제(崇禎帝)가 목을 맨 나무가 있었다고 전해지나, 지금의 것은 새로 심은 나무이다.</p>
비고	고궁뒷문 맞은편에 위치

○ 북해공원(Beihai Park)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西城文津街1
운영시간	4월~10월: 6:30~21:00 11월~3월: 6:30~20:00
명소소개	공원의 반 이상이 연못이다. 베이하이(北海) 중간에 위치한 충화다오(瓊華島)에는 티베트 양식의 흰 불탑이, 공원 북서쪽에는 아름다운 구룡벽(九龍壁) 등이 있다.
비고	고궁 서북쪽에 위치

○ 천단공원(TianTan Park)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城天里7
운영시간	4월~10월: 6:00~22:00 11월~3월: 6:30~22:00
명소소개	황제가 하늘에 제를 올리던 283만㎡의 제단이다. 명대 영락제가 오곡풍양을 하늘에 빌기 위하여 1420년에 건설되었다. 기년전(祈年殿)은 높이 38m, 지름 32.7m의 현존하는 중국 최대의 원형 목조건축물, 들보·마룻대·못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독특한 건축 방법이다.

<자료원 : 바이두 지식백과, 네이버 백과사전, 각 관광지 홈페이지 등 / 코로나19로 각 관광명소 운영시간 및 개방여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시 재확인 바랍니다.>

마. 식당

- 현지식당

○ 하이디라오(Hidilao hot pot)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0-8478-2881
주소	北京市朝南大街16 등 전 지역
가격	117위안/인
영업시간	24시간
휴무일	없음
소개	중국식 샤브샤브
비고	현재 한국 서울, 명동 등의 번화가에도 지점이 있으며 친절함을 넘어선 철저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유명하다.

○ 미주동파(Meizhou)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0-6786-2009
주소	北京市亦庄宏北路18 등 전 지역
가격	91위안/인
영업시간	09:00~22:00
휴무일	없음
소개	동파육, 등 사천요리 전문점
비고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진정한 중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회식 장소로도 적합하여 기업에서 자주 이용한다.

○ 전취덕(Peking Roast Duck)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0-6701-1379
주소	北京市城前大街30 등 전 지역
가격	174위안/인
영업시간	11:00~21:00
휴무일	없음
소개	오리고기 전문점
비고	중국 500대 브랜드 중 56위이며 200년 넘는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 금정현(JINDINGXUAN)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400-676-6111
주소	北京城城和平里西街77 등 전 지역
가격	86위안/인
영업시간	24시간
휴무일	없음
소개	광둥요리, 딤섬
비고	광둥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특히 딤섬이 유명하다. 여러개의 분점 중 용허궁점이 가장 유명하며 배달도 가능하다.

○ 와이포지아(WAIPOJIA)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0-5905-6087
주소	北京市朝朝公路6色港F2 등 전 지역
가격	67위안/인
영업시간	11:00~14:30 / 17:00~21:00
휴무일	없음
소개	중국식 서민요리
비고	대기시간이 길어 대기공간에 컴퓨터와 TV를 설치하고 차, 사탕 등을 제공하는 등 고급 서비스와 깔끔함이 특징이다.

○ 동라이순(DONGLAISHUN)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0-8795-3402
주소	北京市朝三中路18 등 전 지역
가격	152위안/인
영업시간	11:00~22:00
소개	중국식 신선 샤브샤브
비고	1903년에 설립된 100년 전통의 샤브샤브 식당이다.

<자료원 : 바이두, 따중뎬핑(大点) 등>

- 한국식당

○ 비어포차(BEER POCHA)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3269769055
주소	北京市朝望京街望京新城4022
가격	120위안/인
영업시간	10:30~23:30
소개	한식
비고	한인이 많은 왕징에 위치한 한식집으로 한국인 분들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 탄탄대로(TANTANDALU)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0-6474-6162
주소	北京市朝望京湖光中街甲6望京港旅大厦2
가격	121위안/인
영업시간	11:00~21:30
소개	한식
비고	고기의 질이 좋고 다양한 반찬 및 음식들이 있어 한국, 중국사람 모두 자주 찾는 한식당 중 하나이다.

◦ 소문날 집()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0-64705525
주소	北京市望京5151
가격	90위안/인
영업시간	10:00-14:30, 14:00-22:30
소개	한식
비고	한인이 많은 왕징에 위치한 한식집으로 한국인 뿐들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 애강산(AIJIANGSHAN)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0-8456-9336
주소	北京市台西路9-7
가격	430위안/인
영업시간	10:00~22:00
소개	한식(불고기 등)
비고	한인이 많은 곳에 위치한 고깃집으로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유명한 한식당이다.

◦ 화로화(HUOLUHUO)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0-8551-5505
주소	北京市朝朝北路101

가격	82위안/인
영업시간	11:00~21:30
소개	한식(불고기 등)
비고	불고기 등을 파는 한식당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더불어 짜장면, 냉면, 비빔밥 중 택1이 무한리필로 제공되어 학생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 제주애육당()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5910351690
주소	北京市朝湖光中街8附近
가격	110위안/인
영업시간	11:30~14:30/17:00~21:30
소개	한식(고기)
비고	고기가 두껍고 질이 좋아 한국사람들이 자주 찾는 식당이다.

○ 올킬 포차()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5011538894
주소	北京市五道口王庄路一同方科技b座b1
가격	94위안/인
영업시간	11:30~14:00/16:30~23:20
소개	한식
비고	대학가 중 하나인 오도구에 위치한 한식당으로 매운 국물 닭발이 유명하다. 국내에서 유명한 H식당의 메뉴와 유사하여 오도구 내 가장 인기가 많은 한식당이며 중국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자하문(ZIXIAMEN)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0-8478-2323
주소	北京市南湖北路201
가격	156위안/인
영업시간	11:00~21:30

소개	불고기
비고	한인이 많은 왕징에 위치한 고깃집으로 한국인 뿐들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유명한 한식당이다.

○ 레드불()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0-6477-1881
주소	北京市朝望京七保利中央公底商8-12
가격	125위안/인
영업시간	11:30 - 22:00
소개	한식, 불고기
비고	KOTRA, 우리은행 등 한국 기업이 입주해 있는 포스코 건물 맞은편에 위치한 한식집으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자료원 : 따중뎬핑(大点)>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크라운 프라자 (Crowne Plaza)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台路6
전화번호	+86-10-5909-6688
홈페이지	https://www.ihg.com/crowneplaza/hotels
숙박료	2인실 기준 126달러/1박
소개	베이징의 차오양구역에 위치해 베이징 중심지까지 차로 약 10분, 자가용이나 공항리무진 이용 시 베이징 공항까지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비고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 쿤룬호텔 (Kunlun Hotel)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新源南路2
전화번호	+86-10-6590-3388
홈페이지	http://www.thekunlunbeijing.com

숙박료	2인실 기준 207달러/1박
소개	숙소는 연샤 상업지구 지역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 베이징 공항까지 20km 정도 거리로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다.
비고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 켐핀스키 호텔(Kempinski Hotel)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亮路50
전화번호	+86-10-6465-3388
홈페이지	https://www.kempinski.com
숙박료	1박 2인실 기준 159달러
소개	베이징의 연샤 상업지구 지역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베이징 공항까지 차량 이용 시 약 25분 정도 소요된다.
비고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 베이징 이스트 호텔 (East Beijing Hotel)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酒仙路22
전화번호	+86-10-84260888
홈페이지	https://www.easthotels.com/en/beijing
숙박료	2인실 기준 140달러
소개	베이징의 상업지역이자 한인타운인 왕징에 있는 5성급 호텔로, 대형 쇼핑몰 인디고가 있으며 공항까지는 택시로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
비고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 NUO 호텔 (BEIJING HOTEL NUO)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城安街33
전화번호	+86-10-59268888
홈페이지	https://www.nuohotel.com
숙박료	2인실 기준 158달러
소개	베이징의 중심구에 위치해 인근에 798예술구가 있고, 공항까지는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

비고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	-----------------------------

〈자료원 : 각 호텔 홈페이지〉

- 게스트하우스

○ 이루이 게스트하우스(YIRUYI)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阜安西路望京中心B座10
전화번호	+86-17610909698
숙박료	1박: 11달러부터/인
소개	지하철역과 가깝고 베이징 한인타운인 왕징과 가까워 한국 음식 및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비고	12:00 이후 입주, 24:00 이전 퇴실

○ 베이징 거다오원신 게스트하우스(GEDIAOWENXIN(北京格馨年旅舍))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利中一路博雅B座公寓
전화번호	+86-18301610866
숙박료	1박: 13달러/인
소개	지하철역과 가깝고 베이징 한인타운인 왕징과 가까워 한국 음식 및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비고	12:00 이후 입주, 24:00 이전 퇴실

○ Bright star 게스트하우스(Bright star)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望京西四410甲
전화번호	+86-18567890821
숙박료	1박: 9달러/인
소개	남녀가 각각 다른 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함하고, 깨끗한 시설이 돋보이는 게스트하우스이다.
비고	14:00 이후 입주, 24:00 이전 퇴실

○ 샤오주 게스트하우스(XIAOZHU(小年旅舍))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望京街望京四414

전화번호	+86-15801108473
숙박료	1박: 8달러/인
소개	특가 방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4-6인까지 다양한 인원이 사용 가능한 방이 있다.
비고	12:00 이후 입주, 24:00 이전 퇴실

<자료원 : 따중뎬핑(大点)>

사. 치안

치안상황

○ 중국 내 여행

- 대부분의 지역은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 다만, 군사 보호 구역 등 출입 시에는 사전허가가 필요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지역(티베트 등)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출발 2일 전에 여권, 여행 사유서(공문) 등을 공안에 제출하고,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임시숙박 (주숙등기)

- 외국인이 중국 여행 중 호텔, 주택 등에서 임시로 숙박할 경우 임시 숙박 등록 보고서를 작성, 공안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호텔에 투숙할 경우 여권을 제시하면 호텔 측에서 신고절차를 대행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 개인 주택에 투숙하는 경우 가택주 또는 여행자가 여권, 가택주의 호구부 등을 가지고 정해진 기한(도시지역은 24시간, 농촌 지역은 72시간) 내에 공안에 임시숙박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강도·절도 등 피해 발생 시 공안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 종교활동

- 외국인은 중국 내 사찰, 교회 등 지정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예배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중국 입국 시 종교 관련 서적 또는 관련 자료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중국 세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사용할 개인 용품에 한해 휴대 가능하며, 중국 사회의 공공질서에 유해한 종교용품은 반입이 금지된다.
- 외국인의 중국 내 종교활동은 중국 국내법에 따라야 하며, 종교단체 및 조직 설립, 종교활동장소(사찰, 교회 등) 설립, 종교 관련 교육 기관 설립, 중국 국민에 대한 선교 활동 등은 금지되어 있다.

○ 불법체류에 대한 행정 처벌

- 외국인이 불법 출입국, 불법체류, 여행규정 위반, 출입국 관련 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인 출입국 관리 법규 및 치안관리 처벌조례에 따라 경고, 벌금, 구류, 기한 내 출국, 강제추방 등의 행정 처벌을 가할 수 있다.
- 벌금, 구류 등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공안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경고, 기한 내 출국, 강제추방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http://chn.mo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국 내 여행경보발령 현황

- 남색 경보: 중국 · 북한 국경 지역(단둥시, 관전만족자치현, 집안시, 백산시, 임강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안도현, 화룡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 황색경보: 티벳, 신장위구르자치구

(자료원: 대한민국 외교부)

응급상황 대처요령

- 교통사고
 - 전화 신고: 사고 발생 즉시 122 혹은 110으로 신고
 - 현장 보존 및 증거, 증인 확보: 목격자, 인명 피해 정도, 차량 파손 상태, 관련 차량 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 기록

 - 보행자 사고의 경우
 - 사고 충격 지점, 부상부위, 주변에 횡단보도, 육교, 신호등 설치 여부 등 확인
 - 보행자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지점 확인이 매우 중요

 - 택시 승객의 경우
 - 택시 승객은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어 택시회사나 기사가 보상책임을 부담
 - 택시번호, 기사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확보

 -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교통사고 발생 시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공안기관은 법에 의해 출국금지 및 여권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여권/지갑을 분실한 경우
 - 분실지역 관할 파출소에 신고(거주지 관할 파출소, 호텔 등에서 "임시주숙등기표" 발급, 분실지역 관할 파출소에서 "분실신고증명서" 발급)
 - 주중대사관 영사부 신고(파출소 분실신고증명서, 임시주숙등기표, 사진 1장 지참, 여권분실신고서, 각서, 여권 재발급사유서, 여권말소증명(중문) 작성 제출)
 - ※ 여권 분실자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포함) 작성,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한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 및 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는 생략).
 - 여권 말소증명(照注明) 교부(분실지역 공안(분)국 출입경관리처 신고가능, 여권 말소증명, 파출소 분실신고증명서, 임시주숙등기, 사진 2장 지참)
-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재직증명서(미소지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대체), 영업허가증 사본, 여권용 사진 1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여권 신원정보면 및 유효비자면), 호적등본 1부(만 14~18세 처음으로 신원 조회 시)
 - 여행증명서: 49위안, 단수여권(1년): 105위안
 -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구 여권에 있는 비자를 신 여권에 재발급 받아야 하며, 비자 신청은 여권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출입경에 신청해야 한다.
-
- 주중 한국 공관 연락처
 - 주중 한국대사관: +86-10-8531-0700
 - 주중 한국영사관: +86-10-8532-0404
 - 주 상하이 총영사관: +86-21-6295-5000
 - 주 칭다오 총영사관: +86-532-8897-6001
 - 주 선양 총영사관: +86-24-2385-3388
 - 주 광저우 총영사관: +86-20-2919-2999
-
- 응급 전화번호

- 범죄신고: 110
- 화재신고: 119
- 교통사고: 122
- 응급의료, 병원 정보 구급: 120

○ 해외에서 대한민국 외교부 도움 필요 시

- 휴대폰 자동로밍일 경우: 현지 입국과 동시에 자동으로 수신되는 영사콜센터 안내문자([외교부]해외 위급상황 시 영사콜센터(+82-2-3210-0404) 영, 일, 중, 불, 노, 서어 통역 가능)에서 통화 버튼으로 연결 가능
- 유선전화, 휴대폰 이용할 경우: 유료 연결(현지 국제전화코드 + 82-2-3210-0404), 무료 연결(현지 국제전화코드 + 800-2100-0404 / + 800-2100-1304) 혹 국제자동콜렉트콜(Auto Collect Call) 혹 국가별 접속번호 + 5번)

(자료원: 대한민국 외교부)

○ 휴대폰 분실

- 휴대폰 등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분실 경위서, 여권, 세관 수하물 신고서(세관 신고 물품인 경우),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분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 ○ 항공권 분실

- 공안국 외사처에서 발급받은 폴리스 리포트를 들고 항공사로 가서 발급 가능하다.
- 소요 시간은 약 일주일이므로 시간이 없는 경우 편도 항공권을 끊어 귀국한 후 분실한 항공권의 탑승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 단체 비자

- 단체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경우 반드시 단체 행동을 하여야 하나, 개별 행동이 불가피한 경우 단체 비자, 개별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공안에 제시하고 비자 분리 신청을 할 수 있다.
- 단체 비자를 분실한 경우 공안에 신고 후 재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단체 비자 사본, 여행자 명단, 여행자 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체 여행자 중 사망자가 있으면 사망진단서를 공안에 제출하고 비자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 아파트 임차

-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도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 1,000~2,000달러 선이면 중급 수준의 아파트 임차 가능하며, 3,000달러 이상이면 고급 아파트 임차가 가능하다. 지역별로 또는 아파트 상태에 따라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니 사전에 자세히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보안 안전을 위해 가급적이면 중·고급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이 좋다.

○ 계약 관련 유의사항 및 확인사항

- 계약 시: 계약서 조항 자세히 확인, 등기등록본, 매매계약서(집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집주인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 확인, 요구한 물건 중 빠진 것이 없는지 계약서 확인

- 입주 전: 파손 및 오염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고, 집주인에게 알려준 후 계약서에 기록, 전화 및 인터넷 확인(전화미납요금·인터넷유형·유선 TV 설치 및 시청료 지불방식 등), 계약 시 추가할 사항 확인

* 계약서 작성사항: 전기, 가스, 물 잔여 수량 확인/ 가전제품, 가구 상세히 체크

- 입주 후: 파손 및 오염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고, 집주인에게 알려준 후 계약서에 기록 및 전기, 수도, 가스계량기의 사용량을 기록해 계약 기간 만료 후 또는 이사 시 정산

- 계약 만료: 보통 임대 만기 한두 달 전 재계약 여부를 알려주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환불받기 위해 임대료는 제때에 지불하고, 파손되었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야 한다. 계약만료 일주일 전 집주인과 연락하여 보증금 관련 사항 통지, 이사 하루 전 집주인에게 반출증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 대부분 지역에 한국인 또는 한국어가 가능한 부동산 중개소가 있으므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부동산 관련 참고 사이트

- 중국 부동산협회 (中房地): <http://www.fangchan.com/>

- 중국 부동산소식망 (房信息): <http://www.creb.com.cn/>

- 중국 부동산중개(中房地人): www.agents.org.cn/

- 58통칭(58同城): www.58.com

- 안취커(安居客): www.anjuke.com

- 팡톈샤(房天下): <https://www.fang.com>

- 워아이위자(我我家): <https://bj.5i5j.com>

- 랜자(家): www.lianjia.com

- 중원디찬(中原地): bj.centanet.com

- 마이텐(田房): <http://bj.maitian.cn> (한국에서는 링크가 열리지 않을 수 있음)

전화

○ 유선전화

- 유선전화는 통신사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이하의 정보는 중국 내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3대 통신사이다.

- 차이나모바일(中移): 4G 기술을 가장 먼저 시행한 통신사이며, 2021년 4월 말까지 5G 요금 누적 가입자가 2억 명 돌파했다. (문의 전화번호: 10086)

- 차이나유니콤(中通):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통신회사이며 2021년 4월 말까지 5G 요금 누적 가입자가 9,856만 5천명이다. (문의 전화번호: 10010)

- 차이나텔레콤(中信):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유기업으로 인터넷 기술은 잘 되어있지만 통신기술이 조금 떨어진다. 2021년 4월 말까지

5G 요금 누적 가입자가 1억 명 돌파했다. (문의 전화번호: 10000)

○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화하는 법

- 통신사 국제번호(001/002/005/00700/00365) + 86(중국 국가번호) + 지역번호 + 가입자 번호(지역번호의 첫째 자리 '0'은 누르지 않는다)

- 한국에서 중국으로 걸 때에도 국제전화 카드를 이용하는 게 훨씬 저렴하다.
- 국제전화 어플(kt의 001 등)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는 법

-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통신사에서 국제전화기능 개통 후 “한국 국번 0082 + 가입자 번호” 로 통화 가능하다.
- “국제전화 IP카드(途IP)”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 통신사에서 국제전화기능 개통 방법으로 하게 되면 요금이 많이 나오므로 국제전화 IP카드(途IP) 구입을 추천한다. 카드마다 사용 방법이 달라 카드 뒷면의 설명을 참고하길 바란다. 가입자 번호를 누를 때에는 전화번호 맨 앞의 0은 생략한다.

(예) 010-1234-5678의 경우 ☎ 0082-10-1234-5678

○ 모바일 SNS 이용 무료 통화

-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 위챗(WeChat)은 카카오톡의 보이소톡, 페이스톡 기능과 같은 일반 통화 및 영상 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 중국 내에서 잘 연결되지 않아 사용이 힘든 국외내 SNS 어플들과 달리 위챗은 비교적 우수한 통화 품질을 제공해 해당 어플을 다운받아 중국에서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다.

○ 중국 주요 지역 자동전화 지역번호

- 베이징 010, 상하이 021, 톈진 022, 후베이성 스자좡 0311, 바오딩 0312, 당산 0315, 랑방 0316, 창조우 0317, 친황다오 0335, 랴오닝성 셴양 024, 다렌 0411, 안산 0412, 우순 024, 단둥 0415, 진조우 0416, 잉코우 0417, 산둥성 지난 0531, 칭다오 0532, 옌타이 0535, 타이안 0538, 웨이하이 0631, 라이양 0535, 잉청 0712, 룡코우 0535, 동잉 0546, 지린성 장춘 0431, 지린 0432, 옌지 0433, 투먼 0433, 훈춘 0433, 룡장 0433, 통화 0435, 쑹핑 0434, 헤이룽장성 하얼빈 0451, 무단장 0453, 자무쓰 0454, 헤이허 0456, 따칭 0459, 쑤이펀허 0453, 광저우 020, 난징 025, 시안 029, 우한 027, 푸조우 0591, 후허하오터 0471, 청두 028, 정저우 0371, 우루무치 0991, 선전 0755, 구이린 0773, 구이양 0851, 란저우 0931, 샤먼 0592, 스자좡 0311, 우시 0510, 충칭 023, 항저우 0571

전압/플러그

중국은 50Hz, 220v가 공급되고 있으며, 대도시 전력 사정은 양호하나 최근 전력난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제한송전을 시행하고 있다.

플러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십일자형, 3-pin형이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한국에서 사용하는 둥근형 플러그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홍콩 등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코드 모양이 한국과 다르므로 한국제품 사용 시 어댑터가 필요하다.

식수

식당에 가면 보통 물을 따로 구매해야 하거나 뜨거운 차를 준다. 또한, 차가운 물보다는 실온의 물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럴 때는 차가운 물이 있는지 묻거나 얼음을 추가하면 차가운 물을 마실 수 있다. 이하의 정보는 집에서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1) 수돗물

차 문화가 보편화된 중국은 수돗물을 받아 차로 우려 마시거나 미리 수돗물을 받아 상온에 보관 후 마시기도 한다. 또한, 카페에 가서 물을 달라고 하면 수돗물을 받아 그대로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중국 도시지역 식수 수원지의 수질상태는 저수지의 11%, 호수의 70%, 지하수의 60%가 음용수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마시려면 끓여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

2) 사 먹는 물

농부산천(夫山泉), 와하하(娃哈哈), 백산수(白山水)가 가장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생수 브랜드이다. 550mL(약 3위안)부터 5L(약 15위안)까지 다양한 크기의 물이 있다. 편의점, 수입제품 판매점 등에서 해외 물 혹은 한국 물을 파는 경우도 있다.

3) 정수기

중국에는 4,000여 개의 국내외 정수기 브랜드가 있다. 정수기의 평균 가격대는 1,000~2,000위안이며, 이중, 정수기의 온라인 구매 1위 제품은 중국브랜드의 美的(메이디)이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중국에서 차량 구입 시 차량 정보 사이트에서 가격 비교 후, 매장에 직접 찾아가서 시범 운행이 가능한 차를 운행 후 구매 의사가 확정되면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매장 혹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차량 구매가 가능하다.

아래 사이트에 가격정보, 할인정보, 중고차 등 각종 차량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 파즈얼서우처(瓜子二手): <https://www.guazi.com>
- 치처즈자(汽车之家): <https://www.autohome.com.cn/beijing>
- 마오더우신처왕(毛豆新): <https://www.maodou.com>
- 유신얼서우처(信二手): <https://www.xin.com>

차량가격

아래 사이트에서 원하는 가격대 차량, 가격 비교, 차량 상세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 Pacific car web : <https://price.pcauto.com.cn>
- 58 car web : <https://product.58che.com>
- Chexiu web: <https://www.chexiu.com>

중국의 중고차 가격은 대표적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타오처(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타오처(淘): <https://www.taoche.com/>

운전면허 취득

- 운전면허증 신청
 - 중국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여권, 해외 운전면허증 및 중국어 번역본, 최근 1인치 사진(반명함판, 흰색 배경) 등 자료를 지참하여 공안 교통관리센터에 소형차 임시 운전 면허증을 신청해야 한다.
 - 중국에 단기 체류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유효한 임시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체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유효 기간은 1년 이내로 연장될 수 있다.
 - 현재 중국은 프랑스, 세르비아, 벨기에, 아랍에미리트 등 국가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중국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한국인은 한국에서 사용하던 한국 면허증을 그대로 가져와서 중국 현지에서 공증을 받아 면허신청 접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베이징, 상하이의 경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실기시험은 면제해 주고, 필기와 신체검사를 받은 후 면허증을 교부받게 된다.

○ 면허 필기시험 신청

- 베이징의 경우 신청인은 필요한 서류들을 소지하여 차량관리소(朝南四路18)에 가서 면허시험 신청을 한다. 신청 후, 2주 정도 뒤에 시험을 볼 수 있다. 면허시험은 총 100문제를 45분 안에 푸는 형식으로, 9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다. 시험은 컴퓨터로 진행되며, 중국어와 한국어를 포함 총 8개 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다.

- 필요 서류: ① 한국운전면허증 및 사본 ② 여권 및 여권사본 ③ 증명사진 4장(1寸) ④ 거류 허가증/비자 및 사본 ⑤ 한국운전면허증 번역본(해당 지역 번역회사를 통해서 번역, 북경은 직접 번역해도 가능) ⑥ 주숙등기증 및 사본 ⑦ 신체검사 신청서류 등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현지 주요 은행으로는 중국공상은행, 중국 건설은행, 중국은행, 중국 농업은행 등이 있다. 한국계 은행은 KB 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이 있다.

계좌 개설방법

중국에서 계좌 개설은 필수이다. 알리페이(支付)나 위챗 페이(微信支付) 등의 모바일 페이가 급증함에 따라 현금을 뺏아서 쓸 일은 줄었지만 모바일 페이의 기반 역시 은행 계좌 개설이기에 상황에 따라 1-2 혹은 3~4가지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한다.

○ 준비물

- 외국인 계좌의 경우 필요한 준비물은 여권(照) 혹은 외국인 거류증(外人永久居留)이다.

○ 유의점

- 개설 방법은 은행원의 안내에 따라 여권 정보를 토대로 작성하면 된다. 한국계 은행은 한국어 가능 직원이 있다.
- 비자 종류나 취업증 유무에 따라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은행이 있다.
- 중국과 한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은 한국 내 주소를 영문 혹은 중문으로 기재해야 한다.
-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면 계좌 개설이 거부당할 수 있다.
-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영문 이름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서류에 사인해야 한다. 영문 이름이 여권과 다르게 기재되면 실명계 확인이 되지 않아 즈푸바오나 위챗페이에 은행 계좌가 등록되지 않는다.
- 여권 번호가 변경된 경우 구여권을 지참해서 가는 것이 좋지만, 구여권이 없는 경우 여권을 새로 발급받을 때 구여권번호를 여권 안에 기록했다면 그것으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Canadian International School of Beijing (CISB)

도시명	베이징
커리큘럼	유치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비	- K: 181,000위안/년 - E1-5: 232,000위안/년 - M6-8: 237,000위안/년 - G9-10: 278,000위안 - G11-12: 289,000위안
홈페이지	https://www.cisbeijing.com
비고	주: G: 학년, K: 유치원, P, E: 초등교육 M: 중등교육, H: 고등교육, S: 중등 및 고등교육

◦ The British School Of Beijing, ShunYi

도시명	베이징
커리큘럼	Early Years, Primary, Secondary
학비	- K: 153,000~229,400위안/년 - 1-2학년: 272,800위안/년 - 3학년: 286,700위안/년 - 4-6학년: 290,500위안/년 - 7-9학년: 309,400위안/년 - 10-11학년: 329,900위안/년 - 12-13학년: 342,800위안/년
홈페이지	https://www.nordangliaeducation.com

◦ Western Academy of Beijing

도시명	베이징
커리큘럼	유치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비	- K: 2132,200위안/년 - KG-G1: 276,200위안/년 - G2-5: 296,200위안/년 - G6-8: 314,200위안/년 - G9-10: 346,000위안/년 - G11-12: 355,000위안/년
홈페이지	https://www.wab.edu

◦ Beijing BISS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베이징
커리큘럼	유치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비	- K: 169,000위안/년 - G1-5: 250,000위안/년 - G6-10: 278,000위안/년 - G11-12: 298,000위안/년
홈페이지	http://www.biss.com.cn

비고	주: G: 학년, K: 유치원, P, E: 초등교육 M: 중등교육, H: 고등교육, S: 중등 및 고등교육
----	---

○ International School of Beijing(ISB)

도시명	베이징
커리큘럼	유치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비	- K: 255,590위안/년 - G1-5: 270,820위안/년 - G6-8: 290,020위안/년 - G9-10: 312,220위안/년 - G11-12: 312,220위안
홈페이지	http://www.isb.bj.edu.cn
비고	미국계 주: G: 학년, K: 유치원, P, E: 초등교육 M: 중등교육, H: 고등교육, S: 중등 및 고등교육

○ 베이징 한국 국제학교(KISB)

도시명	베이징
커리큘럼	유치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비	- K: 20,100위안/학기 - G1-6: 14,000위안/학기 - G7-9: 17,000위안/학기 - G10-12: 20,000위안/학기
홈페이지	http://www.kisb.net
비고	주: G: 학년, K: 유치원, P, E: 초등교육 M: 중등교육, H: 고등교육, S: 중등 및 고등교육

○ 베이징 신푸쉐 국제학교

도시명	베이징
커리큘럼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비	- KG-G6:156,000위안/년 - G7-G9: 176,000위안/년 - G10-G12: 196,000위안/년
홈페이지	http://www.xinfuxue.com/
비고	주: G: 학년, K: 유치원, P, E: 초등교육 M: 중등교육, H: 고등교육, S: 중등 및 고등교육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 코로나19기간 유치원 등원은 중국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함 >

- 현지학교

○ 인민대학교

도시명	베이징
커리큘럼	문, 이과 대학교
학비	5,000~6,000위안/년
홈페이지	https://www.ruc.edu.cn/
비고	중국 랭킹 5위

○ 북경대학교

도시명	베이징
커리큘럼	문, 이과 대학교
학비	5,000~5,300위안/년
홈페이지	https://www.pku.edu.cn/
비고	중국 랭킹 1위

○ 칭화대학교

도시명	베이징
커리큘럼	이과가 유명한 대학교
학비	5,000위안/년
홈페이지	http://www.tsinghua.edu.cn
비고	중국 랭킹 2위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마. 병원

○ 베이징케어병원(北京院)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望京湖光中街81西段第二,四
전화번호	+86-10-6338-8080/818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www.caremr.com

○ 암케어산부인과병원(美中宜和院)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海淀万柳中路7
전화번호	+86-400-10000-16
진료과목	산부인과
비고	http://www.amcare.com.cn

○ 베이징아이얼인텍안과(北京愛英智眼科院)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潘家路潘家南里12潘家大厦一
전화번호	+86-10-8778-9268/ 9767
진료과목	안과
비고	http://www.intecheye.com

○ 중국 인민해방군 총병원(301병원)(中人民解放院)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海淀路28
전화번호	+86-10-6818-2255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www.301hospital.com.cn

○ 베이징중의약대학동방병원(北京中大方院)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台方庄芳星一6
전화번호	+86-10-6768-9655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www.dongfangyy.com.cn

○ 베이징허무자병원

도시명	베이징
주소	中北京朝台路2

전화번호	86-4008-919191/0105927712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s://beijing.ufh.com.cn/locations/main-campus

○ 북경대병원(北京大院)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海淀和路5北京大院
전화번호	+86-10-62754212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hospital.pku.edu.cn

○ 베이징병원(北京院)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城大路1
전화번호	+86-10-8513-2266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www.bjhmoh.cn

○ 베이징세허병원(北京和院)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城校尉胡同王府井府1
전화번호	+86-10-6915-6114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s://www.pumch.cn/index.html

○ 베이징중의과학원왕징병원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花家地街6
전화번호	+86-10-8473-9047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www.wjhospital.com.cn

○ 중일우호병원 (中日友好院)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花街2
전화번호	+86-10-8420-5288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s://www.zryhyy.com.cn

<자료원 : 각 병원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신세계 백화점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崇文崇文外大街
홈페이지	http://www.nwds.com
비고	2004년에 설립된 백화점으로 화장품, 전자제품, 사무용품, 옷, 신발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백성 백화점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城珠市口大街甲16
홈페이지	http://www.parkson.com.cn
비고	2005년에 설립된 백화점으로 술, 화장품, 가죽제품, 건강식품, 애견용품 등 다양한 범위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Pacific Department Store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西城西北大街133
홈페이지	http://www.pacific-shanghai.com.cn
비고	1987년에 설립된 백화점으로 태평양 SOGO그룹 계열사 중 하나이다.

◦ SOLANA(北京色港商)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朝公路6
홈페이지	http://www.solana.com.cn
비고	2006년에 설립된 중국 라이프스타일 공원으로 음식, 오락 위주의 쇼핑센터이다. 다양한 제품뿐만 아니라 영화관,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어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다.

◦ 싼리툰빌리지(三里屯太古里)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三里屯路19
홈페이지	http://www.taikoolisanlitun.com/zh-CN/
비고	화려한 건축양식과 남구와 북구로 나뉜 쇼핑센터 등으로 베이징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소위 싼리툰 빌리지라고 불리며 쇼핑센터 외에도 다양한 음식점과 바가 있어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다.

◦ IKEA(宜家家居)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阜通大街59
홈페이지	https://www.ikea.cn
비고	2003년 베이징에 진출한 스웨덴 가구매장으로 현재 세계에서 제일 큰 가구 소매기업이다.

◦ 인디고(提港)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酒仙路18
홈페이지	http://www.indigobeijing.com/zh-CN/
비고	독특한 쇼핑구조와 푸드코트로 구성된 쇼핑몰이며, 특히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잘 되어 젊은 층과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 SKP-S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建路86
홈페이지	https://www.gentlemonster.com/stories/skps/

비고	젠틀몬스터가 공간 아트 디렉팅을 맡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최고급 럭셔리 백화점이다.
----	---

<자료원 : 각 백화점 홈페이지, 바이두 등 >

- 식품점

○ COFCO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朝南大街8
취급 식료품	각종 식품 및 가구, 화장품 등
비고	세계 500위 안에 드는 기업이며, 중국 내 1위로 큰 식품기업이다.

○ BHG Market Place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路8南60米
취급 식료품	채소, 과일, 주류 등
비고	2007년에 설립되었다.

○ LOTUS(卜蜂花)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海淀五道口新村4
취급 식료품	각종 식품 및 가구, 화장품 등
비고	영국과 태국의 합자기업으로 중국 내 2,0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다.

○ 귀슈하오(果蔬好)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望京湖小
취급 식료품	과일, 야채 및 각종 식품
비고	2011년 12월 설립, 깨끗하고 세련된 내외부 시설과 매장 직원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로 한국 소비자들한테도 인기가 많다.

○ 내고향마트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阜通西大街望京西三315一

취급 식료품	한국식품, 화장품, 주방기구 등
비고	베이징 한인타운 왕징에 위치한 한국식품 전문 매장으로, 한국인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인들도 많이 애용하고 있다.

○ 샘스클럽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安平街5院21-2
취급 식료품	과일, 야채, 식품, 가전제품, 가구 등
비고	전자제품, 가구, 식료품, 사료, 스포츠용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미국의 창고형 회원제 할인매장으로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자료원 : 각 식품점 홈페이지 >

- 기타 편의시설

○ 젠롱린 체육 클럽(健森育健身俱部)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通州河中路108
소개	배드민턴장, 수영장, 농구장, 자유 훈련실 등등이 겸비돼 있는 피트니스 센터이다.
비고	연락처: +86-10-8159-2388

○ 베이징 골프 클럽(北京高尔夫球俱部)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右堤路白路交(潮白河岸)
소개	1986년 설립됐으며, 2000제곱미터가 넘는 크기의 골프장이다. 아름다운 경관을 보며 골프연습이 가능한 곳이다.
비고	연락처: +86-10-8947-0108

○ 바오렌 수영장(游泳)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海淀北西里48
소개	실내외 수영이 가능하며, 9:00~18:00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주중, 주말 모두 이용 가능하다. 주변에 숙박 시설과 음식점이 있어 위치적으로도 편리하다.
비고	연락처: +86-10-5717-1127

○ 베이징 워터파크(北京水立方)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天辰路11
홈페이지	http://www.water-cube.com/cnl
소개	올림픽 공원에 위치하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워터파크로 재단장하여 이용되고 있다.
비고	연락처: +86-10-8437-0112

○ 베이징 올림픽공원(北京林匹克公)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北辰路15
소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장소로 공원, 체육관,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 가능하다.
비고	연락처: 86-10-8499-2008

<자료원 : 바이두 >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원단	2024-01-01	2024-01-01
대체근무일(춘절)	2024-02-04	2024-02-04
춘절	2024-02-10	2024-02-10
춘절	2024-02-11	2024-02-11
춘절	2024-02-12	2024-02-12
춘절	2024-02-13	2024-02-13
춘절	2024-02-14	2024-02-14
춘절	2024-02-15	2024-02-15
춘절	2024-02-16	2024-02-16
춘절	2024-02-17	2024-02-17
대체근무일(춘절)	2024-02-18	2024-02-18
Good Friday	2024-03-29	2024-03-29
The day following Good Friday	2024-03-30	2024-03-30
Easter Monday	2024-04-01	2024-04-01

청명절	2024-04-04	2024-04-04
청명절	2024-04-05	2024-04-05
明	2024-04-06	2024-04-06
대체근무일(청명절)	2024-04-07	2024-04-07
노동절	2024-05-01	2024-05-01
노동절	2024-05-02	2024-05-02
노동절	2024-05-03	2024-05-03
	2024-05-04	2024-05-04
	2024-05-05	2024-05-05
대체근무일(노동절)	2024-05-11	2024-05-11
The Birthday of the Buddha	2024-05-15	2024-05-15
端午	2024-06-08	2024-06-08
端午	2024-06-09	2024-06-09
단오절	2024-06-10	2024-06-10
端午	2024-06-14	2024-06-14
Hong Kong SAR Establishment Day	2024-07-01	2024-07-01
대체근무일(중추절)	2024-09-14	2024-09-14
中秋	2024-09-15	2024-09-15
중추절	2024-09-16	2024-09-16
중추절	2024-09-17	2024-09-17
The day following the Chinese Mid-Autumn Festival	2024-09-18	2024-09-18
中秋	2024-09-20	2024-09-20
中秋	2024-09-21	2024-09-21
대체근무일(국경절)	2024-09-29	2024-09-29
국경절	2024-10-01	2024-10-01
국경절	2024-10-02	2024-10-02
국경절	2024-10-04	2024-10-04
국경절	2024-10-05	2024-10-05
국경절	2024-10-06	2024-10-06
국경절	2024-10-07	2024-10-07

Chung Yeung Festival	2024-10-11	2024-10-11
대체근무일(국경절)	2024-10-12	2024-10-12
Christmas Day	2024-12-25	2024-12-25
The first weekday after Christmas Day	2024-12-26	2024-12-26

10. KOTRA 무역관 안내

○ 베이징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Beijing Puxiang Zhongxin 29th Floor, Hongtaidongjie, Wangjing,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중문: 北京市朝陽區望京宏泰東街浦項中心29層)
- 연락처: +86-10-6410-6162
- 우편번호: 100102

공항-무역관 이동

베이징 무역관은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왕징의 포스코 건물 28층, 29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옆에는 알리바바 건물이 있다.

○ 택시 이용

- (베이징 수도공항) 베이징 수도공항 밖 택시(出租) 탑승 구역에서 택시 탑승 후 望京浦中心(왕징 포스코센터)으로 네비게이션(航)을 켜 후 안내를 부탁한다.
- 택시 기본요금은 13위안이며 기본거리 초과 후 매 1km당 2.0위안 가산된다. 고속도로는 톨게이트 비용 10위안 별도로 추가된다.
-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50~60위안 정도 나오며 짐이 많거나 3인일 경우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하다.
- (베이징 다싱공항) 베이징 다싱공항에서 무역관까지 비용은 150위안 정도 소요된다.

○ 베이징 수도 도착 시 공항버스 이용

- T1(1층 7번 출구 안), T2(1층 11번 출구 밖), T3(1층 7 혹은 9번 출구 밖) 공항버스 매표소에서 14번 왕징(望京; Wang Jing)행 버스 표 구매 후, 버스에 탑승한다.
- 요금은 노선에 상관없이 1인당 20위안이다.
- 버스의 두 번째 정류장인 광쑤베이따제(廣順北大街; Guang Shun Bei Da Jie)에서 하차한 후 무역관 건물까지 택시로 약 7분(약 2.7km) 비용은 13원 소요된다.
- 운행시간은 07:30~21:00, 배차시간은 30분 간격이다.

○ 지하철 이용

- (베이징 수도공항) T3/T2에서 베이신차오(北新) 방향의 공항노선(首都机) 지하철에 탑승 후 등즈먼(直) 역에서 시즈먼(西直) 방향의 13호선을 환승하여 왕징서역(望京西)에 도착한다. 왕징서역에서 무역관까지 택시를 이용하거나, 평뱌(俸伯)방향의 15호선을 환승하여 왕징동역(望京)에서 하차한 후 도보로 10분 이동하면 무역관에 도착할 수 있다.
- (베이징 다싱공항) 베이징 다싱공항노선(北京大机) 차오차오(草) 방향의 지하철에 탑승 후 차오차오(草)역에서 무단위안(牡丹) 방향의 19호선을 환승하여 무단위안에 도착 후 쯤더먼(健德) 방향의 10호선을 재 환승하여 후이신시제난커우(惠新西街南口)에 도착, 텐통위안베이(天通苑北) 방향의 5호선을 다시 환승하여 다툰루둥(大屯路)역 도착후 평뱌(俸伯)방향의 15호선을 환승하여 왕징동역(望京)에서 하차한 후 도보로 10분 이동하면 무역관에 도착할 수 있다.

○ 광저우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2904-2907A Teem Tower, No.208 TianHe Rd., TianHe Dist, GuangZhou, China (중문: 廣州市天河區天河路208號 天城大廈29 04-07A號)
- 연락처: +86-20-2208-1600

- 팩스: +86-20- 2208-1636

- 우편번호: 510620

공항-무역관 이동

광저우 무역관은 광저우시 중심에 소재하고 있는 天河城大廈(Teem Tower) 29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저우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바이윈(新白雲) 국제공항으로부터 약 50km 떨어져 있다.

○ 택시 이용

-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교통비는 보통 120위안 수준이다. 택시 기본 요금은 10위안(2km)이며 기본거리 이후부터는 1km당 2.6위안 씩 추가된다.

○ 공항버스 이용

- 공항버스에서 내린 후 다른 교통수단으로 다시 환승해야 하므로 택시를 타는 것이 좋다.

○ 난징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oom 1705, Phase 2, Deji Plaza, 18 Zhongshan Road, Nanjing, Jiangsu Province (중문: 江蘇省南京市中山路18號德基廣場2期1705室)

- 연락처: +86-25-8328-8991

- 팩스: +86-25- 8328-8991#21

- 우편번호: 210018

공항-무역관 이동

○ 택시 이용

- 난징루커우(南京祿口) 국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진입할 경우 10위안의 도로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하차 시 미터기에 찍힌 금액(일반적으로 126위안 정도)에 기사가 미리 낸 도로이용료 10위안을 추가하여 지불하면 된다.

- 소요시간: 50분~1시간

○ 다롄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1403A, Shen Mao Building, NO.147, Zhong Shan Road, Dalian, China (중문: 遼省大連 西崗區中山路147號 申貿大廈 14層1403室)

- 전화: +86-411-8253-0051

- 팩스: +86-411-8253-0050

- 우편번호: 116001

공항-무역관 이동

○ 택시 이용

- 택시 이용은 무역관을 방문하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다롄공항과 시내는 거리가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적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신무대하(申貿大廈)까지 택시요금은 30~35위안 정도이며, 시간은 약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 지하철 이용

- 다렌 공항과 시내를 경유하는 지하철 2호선이 운행되고 있어 2호선을 이용하여 一二九街(Yi Er Jiu St.)역에서 하차 후 도보로 6분이면 무역관에 도착할 수 있다. 공항에서 一二九街까지 가는 지하철 요금은 4위안 정도이며, 시간은 약 40분가량 소요된다.

○ 상하이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KOTRA Shanghai, Room 31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200336 (중문: 上海市興義路8號上海萬都中心 3110室)

- 연락처: +86-21-5108-8771(2)

- 팩스: +86-21-6219-6015, 6236-8211

- 우편번호: 200336

공항-무역관 이동

상하이에는 두 개의 공항(푸둥(浦東) 공항과 홍차오(虹橋) 공항)가 있다. 푸둥(浦東) 공항 및 홍차오(虹橋) 공항에서는 국제선, 국내선 모두 운항되고 있다.

○ 택시 이용

- 푸둥(浦東) 공항에서 상하이 무역관까지는 택시로 약 1시간이 소요되며 요금은 약 200위안이다.

- 홍차오(虹橋) 공항에선 약 15분 정도 소요되며 택시요금은 도로이용료 포함 약 35위안이다. 홍차오(虹橋) 공항에서 상하이 무역관으로 올 경우 택시가 셔틀보다 빠르고 편리하다.

○ 공항버스 이용

- 푸둥(浦東) 공항에서 상하이 무역관까지 공항버스로는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7시 20분에서 23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요금은 25위안이다. 인허빙관(銀河賓館)행 버스를 탑승하면 된다.

○ 샤먼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21F G, International Plaza, Lujiangdao, Xiamen, Fujian, China (중문: 中國福建省廈門市江道8號國際銀行大廈21樓G單元)

- 연락처: +86-59-2210-3190~2

- 팩스: +86-59-2210-3193

- 우편번호: 361001

공항-무역관 이동

샤먼 무역관은 샤먼시 중산루(中山路) 중심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은행빌딩(國際銀行大廈)의 2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맞은편에는 샤먼시의 유명 관광지 중 한 곳인 구랑위가 있다.

○ 택시 이용

-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택시요금은 약 40~50위안이며,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다. 샤먼의 택시 기본요금은 10위안이며, km당

2위안이 추가된다. 요금이 10위안 미만일 경우 유류할증료는 1위안이며, 8위안 이상일 경우 유류할증료는 2위안이다.

○ 선양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oom 1703 huarun building, No 286, qingnianda Street, Heping District, Shenyang, Liaoning, P.R.China (중문: 遼省沈陽市和平區年大街286號華潤大廈A座1703室)
- 전화: +86-24-3137-0770
- 팩스: +86-24-3137-0773
- 우편번호: 110004

공항-무역관 이동

선양타우셴(桃仙) 공항에서 무역관까지는 약 20km 거리이다.

- 택시 이용
 - 공항에서 선양 무역관까지 택시로는 40분 정도 소요되며, 택시비는 약 70위안 정도이다. 기본요금은 3km까지는 8위안, 이후에는 600m당 1위안씩 추가되며, 택시요금과 별도로 고속도로 이용료(5위안)가 추가된다.

○ 시안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oom 1905, Maike International Building, No.33, High-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 Jin Ye Road, Xian, China (중문: 西安市高新技術產業開發區錦業路12號邁科中心 1905室)
- 연락처: +86-29- 8883-1060
- 팩스: +86-29- 8883-1056
- 우편번호: 710077

공항-무역관 이동

시안 무역관 입주건물인 완커국제빌딩(邁科國際大廈)은 시안시 내의 남서쪽 2환과 3환의 중심에 있으며, 고신기술개발구(高新技術開發區)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는 샹그리라 호텔, 시안 한국 총영사관, 백화점 등 첨단개발지구 상업지역이 있다.

- 택시 이용
 - 공항에서 나오면 택시승차장이 있어 무역관 소재지인 邁科國際大廈를 알려 주면 된다. 택시는 두 가지가 있으며 기본 요금이 8.5위안(기본거리 3km, 3km 이상 시 km당 1.5위안 추가, 일반적으로 녹색 택시)짜리와 10위안(기본거리 2km, 2km 이상 시 km당 2.4위안 추가, 일반적으로 검정색 택시)짜리가 있다.
 - 택시요금과는 별도로 고속도로 이용료(이용 고속도로 및 출구에 따라 5~15위안 정도)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소요시간은 대략 40분에서 1시간 사이이며, 요금은 검정색 택시의 경우 200위안, 녹색 택시의 경우 150위안 정도가 부과된다.

- 공항버스 이용

- 공항에서 시가오신(공항 ↔ 西高新)선 버스를 이용해서 시내로 이동한 후, 시내버스 및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 즈청리보호텔(志柏酒店)에서 하차 후 608번 버스를 이용하여 뤼디스지칭(地世城)에서 내려서 도보로 10분 이동하면 된다.
- 공항버스 요금은 25위안이며 시간은 대략 1시간 소요된다.

- 초행이거나 짐이 많으면 가급적 공항버스로 시내 이동 후 즈청리보호텔(志柏酒店)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우한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oom 1206, Wuhan New World Trade Center, Hankou Jianshe Avenue No.568, Wuhan, Hubei province, China (중문: 中國湖北省武漢市漢口建設大道568號 武漢新世界國貿中心 1206室)
- 연락처: +86-27- 5930-9299
- 팩스: +86-27- 5931-3669
- 우편번호: 430022

공항-무역관 이동

- 택시 이용
 - 직행 공항 버스는 없으며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 기본 요금이 10위안인 택시의 경우 공항 고속도로 이용료 15위안 포함 약 80위안의 요금이 소요되며, 무역관까지는 40분 정도가 걸린다.
- 지하철 이용
 - 지하철 2호선 텐허공항역(天河機站)에서 왕자둔동역(王家墩站)에 도착 후 7호선으로 갈아타서 취수이로우역 (取水站) A2출구로 나오면 된다. 도보로 직행50m 걸으면 신세계 빌딩(新世界大廈)에 도착한다.

○ 정저우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oom706 Meisheng Centre Building, No.33 Jinshui East Road, zhengdong new district, zhengzhou city, Henan Province, China (중문: 中國河南省鄭州市鄭東新區金水東路33號美盛中心706)
- 연락처: +86-371- 8616-3927(200)
- 우편번호: 450018

공항-무역관 이동

- 택시
 - 공항 밖에 나오면 택시 정류장이 보이며 운전기사에게 무역관 주소를 알려주면 무역관 입주건물인 메이성센터(美盛中心)까지 안내하면 된다.
 - 요금: 파란색 택시가 120위안 정도, 녹색 택시가 100위안 정도다. 택시요금과는 별도로 고속도로 이용료(이용 고속도로 및 출구에 따라 10元)를 지불해야 한다.
 -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대략 40분에서 1시간 소요된다.
- 공항버스
 - 공항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시내로 이동한 후 지하철을 이용한다.
 - 정저우동역(州站)에서 하차, 1호선을 탑승하여, 농예난루(南路)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 공항버스 요금은 20위안이며 시간은 대략 1시간 소요된다.
 -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공항버스로 시내 이동 후 정저우동역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고속철(机械)

- 공항 지하 2층에서 고속철을 탑승하여, 정저우동역에서 하차하여 지하철이나 택시를 이용하여 무역관으로 이동 가능하다.

○ 창사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oom 3208, Hua Yuan GuoJiZhongXin 32 Floor, XiangJiangZhong Road, No.36, Changsha, Hunan province, China (중문: 中國湖南省長沙市天心區湘江中路二段36號華遠國際中心32層3208室)

- 연락처: +86-731- 8564-0080

- 팩스: +86-731-8564-0070

공항-무역관 이동

○ 택시 이용

- 직행 공항 버스는 없으며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경우 공항 고속도로 이용료 10위안을 포함해 약 100위안 정도가 소요된다.

- 시간은 약 50분 정도 소요된다.

○ 청두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29F Tower 2 Plaza Central, Shuncheng Dajie, Jinjiang District, Chengdu, Sichuan Province, China (중문: 中國四川省成都市錦江區順城大街8號中環廣場2座29層)

- 연락처: +86-28-8672-3501~6

- 팩스: +86-28-8672-3507

- 우편번호: 610016

공항-무역관 이동

○ 택시 이용

- 택시 기본요금은 8위안이다. 공항에서 청두 무역관까지 거리는 약 20km로, 요금은 약 50위안, 시간은 약 50분 정도 소요된다.

○ 공항버스 이용

- 공항버스는 2호선을 탑승하여 텐푸광장동역(天府站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단일노선이며 요금은 13위안이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그리 멀지 않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 충칭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10-8, No68 One Road Yanghe, Jiangbei District, ChongQing (중문: 重慶市江北區洋河壹路 68號 協信中心 C棟 10-8)

- 전화: +86-23- 6039-1005

- 팩스: +86-23- 6039 -1009

- 우편번호: 400020

공항-무역관 이동

○ 택시 이용

- 장베이국제공항에서 무역관으로 올 때,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 공항 정류장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으며, 운전기사에게 무역관 주소를 보여주면 쉽게 찾아올 수 있다.
- 공항에서 무역관까지는 30~40분 가량 소요되며, 기본 요금은 10위안으로, 무역관까지 요금은 약 50위안 정도이다.

○ 칭다오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oom 2308, floor 23, hna wanbang center (office building), 2 Hong Kong middle road, shinan district, Qingdao city, shandong province, China (중문: 山東省島門市市南區香港中路2號海航萬邦中心(寫字樓)23層2308室)
- 연락처: +86-532- 8388-7931~4
- 팩스: +86-532- 8388-7935
- 우편번호: 266000

공항-무역관 이동

칭다오 무역관은 칭다오시 시난취에 위치하고 있으며, 칭다오 류팅(流亭)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50분(약 32km) 거리이다.

○ 택시 이용

- 공항에서 오는 경우 택시 이용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택시요금은 80~100위안 정도이다.

○ 공항버스 이용

- 공항에서 701번 공항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시내 푸산소(浮山所(机富酒店))에 내려서(약 1시간 소요)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하여 옌안산 루역(延安三路)의 C 출구로 나오면 된다.
- 공항 1층 2번 출구 앞에서 오전 7:30부터 오후 19:00까지 공항셔틀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요금은 20위안이다.

○ 항저우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oom 3304, Wanyin International center, No.100 MinXin Road, Jianggan District, Hangzhou, Zhejiang Province, China (중문: 浙江省杭州市江幹區民心路 100號 萬銀國際大廈 2502室)
- 연락처: +86-571- 8110-3099
- 팩스: +86-571- 8110-3098
- 우편번호: 310020

공항-무역관 이동

○ 택시 이용

- 항저우 무역관은 항저우시 장간취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항과 기차역에서 무역관으로 오는 직행버스가 없으므로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 항저우샤오산국제공항(杭州蕭山國際機場)에서 항저우무역관까지 시간은 약 40분 소요되며 택시요금은 고속도로 요금을 포함하여 약 80위안이다.
- 항저우기차역(杭州火車站)에서 항저우 무역관까지 택시요금은 약 25위안이며 약 20분이 소요된다.

○ 텐진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KOTRA Tianjin Room 2911, Moder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136 Chifeng Road, Heping District, Tianjin, China(중문: 天津市和平赤峰道136天津金融中心2911室)
- 연락처: +86-22- 2329-6631~3
- 팩스: +86-22- 2329-6634
- 우편번호: 300041

공항-무역관 이동

텐진 무역관은 텐진시 허핑취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진빈하이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약 2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거리환산 19km)

- 택시 이용
 - 텐진빈하이국제공항(天津海机)에서 텐진 무역관까지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요금은 약 35위안이다.
 - 텐진역(天津站)에서 텐진무역관 까지는 10분 소요되며, 기본요금 10위안이다.
- 공항 지하철 이용 - 공항 지하철을 이용 시 약 1시간 소요되며, 요금은 4위안이다.
 - 공항에서 바로 탑승이 가능하며, 탑승 후 텐진역(天津站)에서 다시 3호선으로 환승하여 잉커우다오역(口道站)하차한 후, A번 출구로 부터 사무실까지 도보 4분. 하지만 시간이 대체로 오래 걸리므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 선전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oom 1205, North Tower, Shenzhen Energy Building, Jintian Road Binhe Avenue Intersection, Futian District, Shenzhen (중문: 深市福田區金田路濱河大道交叉口深能源大廈北塔1205室)
- 연락처: +86-755-8335-9991
- 팩스: +86-755-8335-9880
- 우편번호: 518048

공항-무역관 이동

공항에서 무역관으로 오는 직행버스가 없으므로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 택시 이용
 - 공항에서 짐을 찾아 밖으로 나오면 택시 승차장 표시가 있는 곳에서 순서에 따라 택시에 탑승한다. 공항에서 선전 무역관까지 약 47분 소요되며 평균 요금은 99위안이다. 단, 택시요금과 별도로 고속도로 통행료, 5~10위안 정도가 추가될 수 있다.

○ 하얼빈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oom 1806, Fuli Center Office Building, Daoli District, Harbin City, HeiLongJiang, China (중문: 哈爾濱市道里區富力中心寫字樓1806)
- 전화: +86-451-5110-7080
- 팩스: +86-451-5110-7081
- 우편번호: 150076

공항-무역관 이동

공항에서 무역관으로 오는 직행버스가 없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 택시 이용

- 하얼빈 타이핑국제공항(哈太平机)에서 하얼빈무역관이 있는 푸리센터오피스(富力中心字)까지 40분 정도 소요되며, 요금은 약 75~100위안이다.

○ 공항리무진 이용

- Line1(민항빌딩행) 탑승 → 동달길(通達街) 버스 정류장(하차) → (보행) 중심병원(中心醫院) 버스 정류장 (56번, 道外七道街행) → 공로대교(公路大橋) 버스 정류장(하차) → (보행, 710m) 푸리센터

- 약 1시간 20분 소요되며 요금은 20위안이다.

- 1호선 운행시간:

* 공항 → 민항빌딩: 05:00~20:00

* 민항빌딩 → 공항: 05:00~21:00

○ 창춘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 Room 1309-1310, 3518-B, people's street, Nanguan District, Changchun, Jilin (중문: 吉林省長春南關區人民大街3518-B號1309-1310室)
- 전화: +86-431-8051-9850
- 팩스: +86-431-8051-9851
- 우편번호: 130000

공항-무역관 이동

○ 택시 이용

- 창춘 서역에서 약 15km 떨어져 있으며 택시로 약 30분, 요금은 약 25위안이다.

- 창춘 룡지아 국제공항에서 45km 떨어져 있으며 택시로 약 50분, 요금은 약 90위안이다.

○ 공항 리무진 이용

- 창춘 룡자국제공항(春嘉机) 버스정거장에서 1호선 공항리무진을 탑승후 6개 정거장을 지나 충칭루(重路) 에서 하차한후 495m 걸으면 안화빌딩(安大廈)이 나온다.

- 총 1시간 30분 소요되며 비용은 25위안이다.

11.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	기회기간(잠정)	장소	주최
2024 중국 상하이 금형 전시회 [DMC]	2024-06-05 ~ 2024-06-08	상하이	China Die & Mould Industry Association, SHANGHAI INTERNATIONAL EXHIBITION (GROUP) CO.,LTD.
2024 중국 베이징 치과설비 재료 및 기술 전시회	2024-06-09 ~ 2024-06-12	베이징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국제교류 및 협력센터
2024 중국 상하이 문화용품 상품교류 전시회(CSF)	2024-06-13 ~ 2024-06-15	상하이	Comexposium-CSF (Shanghai) Co., Ltd
2024 중국 상하이 소비자 기술 혁신 전시회	2024-06-13 ~ 2024-06-15	상하이	Magic Exhibitions HK Ltd.(Global Sources)
2024 중국 광저우 건강산업 전시회 [IHE China]	2024-06-14 ~ 2024-06-16	광저우	Guangzhou Yifan Exhibition Co., Ltd
2024 중국 상하이 의약품 전시회 [CPHI]	2024-06-19 ~ 2024-06-21	상하이	China Chamber of Commerce for the Import and Export of Medical and health products
2024 중국 상하이 미용 화장품 전시회	2024-06-19 ~ 2024-06-21	상하이	Shanghai tengmei Exhibition Co., Ltd
2024 중국 상하이 조립&조정 기술 전시회 [AHTE]	2024-07-03 ~ 2024-07-05	상하이	Reed Exhibitions Hengjin
2024 중국 상하이 발전기 및 발전 전시회	2024-07-13 ~ 2024-07-15	상하이	Guoliu Motor Technology (Shanghai) Co.,Ltd
2024 중국 상하이 지능 공장 전시회 [SIA]	2024-07-24 ~ 2024-07-26	상하이	CE-Shixin Exhibition Group
2024 중국 베이징 석탄 화학산업 전시회 [CICC]	2024-08-07 ~ 2024-08-09	베이징	Beijing Sino-Trade Union Exhibition Co., Ltd.
2024 중국 베이징 로봇 전시회 [WRC]	2024-08-16 ~ 2024-08-22	베이징	Chinese Institute of Electronics(CIE)

2024 중국 베이징 안경 전시회 [CIOF]	2024-09-10 ~ 2024-09-12	베이징	Orient International Exhibition Co., Ltd.
2024 중국 우한 기계, 전기 전시회 [CWME]	2024-09-13 ~ 2024-09-15	우한	후베이성 인민정부, 중국 기계전기제품 수출입상회
2024 중국 베이징 국제 스마트 자동차 전시회	2024-09-26 ~ 2024-09-29	베이징	중국 공신부
2024 중국 선전 추계 의료기기 전시회 [CMEF]	2024-10-12 ~ 2024-10-15	선전	Reed Sinopharm Exhibitions Co.,Ltd.
2024 중국 상하이 아동용품 전시회 [CKE]	2024-10-16 ~ 2024-10-18	상하이	China Toy & Juvenile Products Association
2024 중국 광저우 추계 수출입 상품 교역 전시회	2024-10-23 ~ 2024-10-27	광저우	China Foreign Trade Centre
2024 중국 베이징 보석 전시회 [CIJF]	2024-10-24 ~ 2024-10-28	베이징	China jewelry and jade jewelry industry association
2024 중국 우한 광전자 전시회 [OVC EXPO]	2024-10-29 ~ 2024-10-31	우한	중국 공신부, 후베이성 인민정부
2024 중국 다롄 조선해양 전시회	2024-10-30 ~ 2024-11-01	다롄	Dalian Xinghai Exhibition Service CO., Ltd.
2024 중국 광저우 소비재 추계 캔토펜어 전시회	2024-10-31 ~ 2024-11-04	광저우	중국 상무부, 광둥성 인민정부
2024 중국 다롄 경공상품 전시회 [DLIPF]	2024-11-14 ~ 2024-11-18	다롄	Dalian Zhongyi International Exhibition Co., Ltd.
2024 중국 광저우 실버 산업 전시회	2024-11-15 ~ 2024-11-17	광저우	Guangzhou Poly Jinhan Exhibition Co., Ltd.
2024 중국 광저우 추계 명주 전시회	2024-11-16 ~ 2024-11-18	광저우	Ketong International Exhibition (Guangzhou) Co., Ltd
2024 중국 상하이 리튬 공업 전시회 [CNIBF]	2024-11-19 ~ 2024-11-21	상하이	Guangzhou Zhenwei International Exhibition Co. LTD

2024 중국 상하이 국제 석유 및 화학 기술 설비 전시회	2024-11-19 ~ 2024-11-21	상하이	Beijing Zhenwei Exhibition Co. LTD
2024 중국 광저우 차 추계 전시회 [Tea Expo]	2024-11-21 ~ 2024-11-24	광저우	YIWU EXHIBITION CO., LTD.
2024 중국 광저우 해양 조선 선박기술 전시회	2024-11-27 ~ 2024-11-29	광저우	Guangzhou Auch Exhibition Service Co., Ltd
2024 중국 상하이 자동차 부품 및 서비스 전시회	2024-12-02 ~ 2024-12-05	상하이	Messe Frankfurt (HK) Ltd
2024 중국 상하이 자체상표 전시회(PLF)	2024-12-04 ~ 2024-12-06	상하이	Private Label Specialty Committee (PLSC) of Shanghai Licensing Association
중국 베이징 아웃도어 스포츠용품 전시회	2024-12-09 ~ 2024-12-11	베이징	Messe Munich
2024 중국 상하이 정수기 정수 및 수처리 전시회	2024-12-11 ~ 2024-12-13	상하이	Amsterdam RAI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